2001년 여성농업인 전문인력 육성교재(Ⅰ)

농업경영과 여성농업인

농림부행정자료실
0007898

26

농 림 부
경북대학교 농업과학기술연구소

2001년 여성농업인 전문인력 육성교재(Ⅰ)

농업경영과 여성농업인

2001-126
농림부 자료실
등록번호: 17898
등록일: 2002년 1월 14일
기증:

농 림 부
경북대학교 농업과학기술연구소

제 출 문

농림부 장관 귀하

이 책(**Ⅰ. 농업경영과 여성농업인**)을 "농업·농촌발전과 여성 전문인력육성 교재개발"의 최종 연구교재로 제출합니다.

2001. 12.

주관연구기관명 : 경북대학교 농업과학기술연구소
총괄책임자 : 경북대학교 교수 **이호철**
연구원 : 경북대학교 교수 **김병수**
경북대학교 Post-Doc. **박재홍**
대구경북개발연구원 선임연구원 **유병규**
경북여성정책개발원 연구원 **정일선**
안동대학교 강사 **이영구**
경북대학교 강사 **조정봉**
연구보조원 : 경북대학교 조교 **최수영**

집필진 소개

Ⅰ. 농업경영과 여성농업인

이 름	제 목	소속/직책	연락처/전자우편
박재홍	농업경영과 여성농업인	경북대학교 농업경제학과 경제학 박사	018-740-2065 agecon@lycos.co.kr
유병규	농업여건의 변화와 새로운 접근	대구경북개발연구원 선임연구원, 경제학 박사	017-509-5860 yubg@ddi.re.kr
석태문	돈되는 유통, 돈안되는 유통	경상북도 정책기획팀 전문위원, 경제학 박사	019-548-9900 stm21@naver.com
이영만	알기쉬운 농장회계	경상대학교 농과대학 농업경제학과 교수, 농학 박사	055-751-5453 leeman@nongae.gsnu.ac.kr
강효순	컴퓨터로 농가경영장부 쓰기	주식회사 골드팜 이사	011-703-6692 glsol@hanmail.net
최수영	농업경영에 보탬이 되는 농업 정보이용	경북대학교 농업경제학과 경제학 석사	016-540-8149 kfood@hanmail.net
유소이	여성농업인의 가계경영 관리	성신여자대학교 가족문화· 소비자학과 소비자학 박사	018-741-2065 syyou86@hanmail.net
석태문	농촌현장에서 본 선진 농업경영	경상북도 정책기획팀 전문위원, 경제학 박사	019-548-9900 stm21@naver.com

Ⅱ. 리더십 개발 어떻게 할까?

이 름	제 목	소속/직책	연락처/전자우편
이호철	리더십과 여성농업인	경북대학교 농업경제학과 교수, 경제학 박사	016-262-3716 Hclee@knu.ac.kr
정기환	여성농업인의 현실 극복을 위하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011-214-1602 kwchung@krei.re.kr
정금주	농촌조직과 여성농업인의 역할	농촌진흥청 농촌생활연구소 소장	031-299-0440 junggj@rda.go.kr
유병규	여성농업인 정책 어떻게 반영 되고있나?	대구경북개발연구원 선임연구원, 경제학 박사	017-509-5860 yubg@ddi.re.kr
이경숙	여성농업인 리더가 되는법1 : 자아실현	칠곡군 복지회관 계장, 여성학 석사	054-975-2271 019-540-4282 KSLee@chilgok.kyoung.kr
이호철	여성농업인 리더가 되는법2 : 회의진행법	경북대학교 농업경제학과 교수, 경제학 박사	016-262-3716 Hclee@knu.ac.kr
김문형	여성농업인 리더가 되는법3 : 법률상식	농협중앙회 고객만족부 팀장	02-397-5556 k-hyung@nonghyup.com
최수영	농촌을 움직여온 여성농업인 개척자들	경북대학교 농업경제학과 경제학 석사	016-540-8149 kfood@hanmail.net

Ⅲ. 농촌자녀 교육과 가족

이 름	제 목	소속/직책	연락처/전자우편
조정봉	우리 가족, 그리고 자녀교육	경북대학교 교육학과 강사 교육학 박사	011-9582-6729 jbcho@knu.ac.kr
김진화	농촌자녀 학습지도 방법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강사, 농학 박사	031-290-2538 011- 9609-8798 kjh5038@hanmail.net
윤순덕	농촌지역에서 자녀교육의 새로운 지평	농촌진흥청 농촌생활연구소 연구사	031-299-0508 ysd@rda.go.kr
한경혜	부담스런 가사노동, 질곡의 여성농업인	서울대 소비자아동학과 교수, 가정학 박사	02-880-8748 ghhan@snu.ac.kr
유가효	자녀상담과 성교육, 어떻게 할까?	계명대학교 소비자정보학과 교수, 가정학 박사	053-580-5861 ykhldj@kmu.ac.kr
최윤지	농가생활설계와 소비생활	농촌진흥청 농촌생활연구소 연구사	031-299-0509 choeyg@rda.go.kr
최규련	가족간의 갈등: 어떻게 해결할까?	수원대학교 아동가족과 교수	031-220-2242 krchoi@mail.suwon.ac.kr
정일선	좋은 부모, 행복한 부부 만들기	경상북도여성정책개발원 연구원, 사회학 석사	019-277-4044 sunny@forwoman.or.kr

Ⅳ. 여성문화와 건강

이 름	제 목	소속/직책	연락처/전자우편
조옥라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새로운 문화	서강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사회학 박사	02-705-8369 oaklaa@ccs.sogang.ac.kr
임재해	농촌 전통문화의 자연친화적 계승과 발전	안동대학교 민속학과 교수 민속학 박사	054-823-8481 limjh@andong.ac.kr
이경숙	여성농업인을 위한 취미 및 교양 생활	칠곡군 복지회관 계장 여성학 석사	054-979-6569 KSLee@chilgok.kyoung.kr
정일선	멋있는 중년 여성 되기1 : 스트레스 해소	경상북도여성정책개발원 연구원 , 사회학 석사	019-277-4044 sunny@forwoman.or.kr
양진향	멋있는 중년 여성 되기2 : 건강관리	경북과학대학 간호과 교수, 영양학 박사	054-972-9567 011-803-1203 JHYang@kbcs.ac.kr
윤진숙	멋있는 중년 여성 되기3 : 식생활 관리	계명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 영양학 박사	053-580-5873 jsook@kmu.ac.kr
강소영	멋있는 중년 여성 되기4 : 자기연출	주식회사 태평양, 미용연구실 대리	02-709-5656 sykang@tacifrc.co.kr
김종숙	교양과 품위있는 여성농업인을 위하여	한국농업전문학교 화훼학과 교수, 농학 박사	031-229-5071 jskim@kn.ac.kr

차 례

농업경영과 여성농업인 ..... 박재홍 1

농업여건의 변화와 새로운 접근 ..... 유병규 39

돈 되는 유통, 안 되는 유통 ..... 석태문 73

알기쉬운 농장회계 ..... 이영만 103

컴퓨터로 농가경영 장부 쓰기 ..... 강효순 131

농업경영에 보탬이 되는 농업정보 이용 ..... 최수영 159

여성농업인의 가계경영 관리 ..... 유소이 189

농촌 현장에서 본 선진농업 경영 ..... 석태문 217

각 권 차 례

Ⅱ. 리더십개발 어떻게 할까?

리더십과 여성농업인 ..... 이호철 1
여성농업인의 현실 극복을 위한 과제 ..... 정기환 35
농촌조직과 여성농업인의 역할 ..... 정금주 63
여성농업인 정책, 어떻게 반영되고 있나? ..... 유병규 95
여성농업인 리더가 되는 법1 : 자아실현 ..... 이경숙 127
여성농업인 리더가 되는 법2 : 회의진행법 ..... 이호철 157
여성농업인 리더가 되는 법3 : 법률상식 ..... 김문형 189
농촌을 움직여온 여성농업인 개척자들 ..... 최수영 225

Ⅲ. 농촌자녀 교육과 가족

우리 가족, 그리고 자녀교육 ..... 조정봉 1
농촌자녀 학습지도 방법 ..... 김진화 29
농촌지역 자녀교육의 새로운 지평 ..... 윤순덕 69
부담스런 가사노동, 질곡의 여성농업인 ..... 한경혜 101
자녀상담과 성교육, 어떻게 할까? ..... 유가효 127
농가 생활설계와 소비생활 ..... 최윤지 155
가족간의 갈등, 어떻게 해결할까? ..... 최규련 193
좋은 부모, 행복한 부부 만들기 ..... 정일선 217

Ⅳ. 여성문화와 건강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새로운 문화 ..... 조옥라 1
농촌 전통문화의 자연친화적 계승과 발전 ..... 임재해 23
여성농업인을 위한 취미·교양생활 ..... 이경숙 57
멋있는 중년 여성 되기1 : 스트레스 해소 ..... 정일선 83
멋있는 중년 여성 되기2 : 건강관리 ..... 양진향 119
멋있는 중년 여성 되기3 : 식생활 관리 ..... 윤진숙 149
멋있는 중년 여성 되기4 : 자기연출 ..... 강소영 179
교양과 품위있는 여성농업인을 위하여 ..... 김종숙 205

농업경영과 여성농업인

박 재 홍

경북대학교

Ⅰ. 머리말

Ⅱ. 여성농업인의 실태와 전문경영인교육의 필요성
1. 여성농업인의 실태
2. 농업경영 교육의 필요성

Ⅲ. 농업경영의 이해와 농업의 특징
1. 농업경영의 정의
2. 농업경영의 목적
3. 농업의 특성

Ⅳ. 농업경영 관리
1. 토지관리
2. 노동력 관리
3. 자본재 관리
4. 생산관리
5. 유통관리
6. 투자분석과 자금관리
7. 위험관리

Ⅳ. 우리 농촌 · 농업의 당면과제와 농업경영인의 대응방안
1. 농업 · 농촌의 당면과제
2. 여성농업경영인의 대응방안

Ⅴ. 맺음말

농업경영과 여성농업인

Ⅰ. 머리말

지난 수년간 세계경제는 무한경쟁의 시대로 돌입하였다. 세계농업은 유전공학을 이용한 농업생산력의 획기적 증가, 신자유무역주의의 대두, 직접지불중심의 농정개혁, 그리고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인식 제고 등의 다양한 과제를 남겼으며, 세계농업과 농정은 이러한 과제와 함께 21세기를 열어가고 있다.

- **신자유무역주의**란 시장원리 준수, 자유경쟁 촉진, 정부규제 철폐, 기업구조 조정, 공공재 폐지 등을 주장하는 신자유주의에 바탕을 둔 국가교역의 형태를 말한다. 그 특징으로는 국가간의 교역에 있어서 자유경쟁의 촉진, 이윤의 극대화, 각종 규제의 철폐, 정부기구 및 기업구조 조정 등이다.

- **농업의 다원적 기능**이라는 개념은 농업이란 산업이 단순히 농산물이라는 재화를 생산하는 기능 뿐만 아니라 그 생산을 통해서 식량안보, 국토 및 환경보전, 자연경관 유지, 전통문화 보존, 농촌 지역사회의 유지와 국토의 균형발전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은 과감한 농정개혁을 통하여 UR협상의 합의사항을 적극적으로 수용함과 동시에 WTO 차기협상에서 협상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국제사회에서 농업을 둘러 싼 도전은 매우 치열한 것으로 개방방식과 폭에 따라 특정 작목에서 뿐만 아니라 한국농업 전체가 심각한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최근에 들어 "농업의 경쟁력 제고"라는 말과 함께 "농업경영"이 매우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농업경영"이라는 개념이 정립된 것은 18세기에 들어와서이며, 주로 대지주층과 농업자본가를 대상으로 적용하였다. 그러나, 수익의 획득이라는 원칙에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아, 차차 "농업경영" 개념을 임차농을 포함하는 개별농가에게도 적용하게 되었다.

우리 나라와 같이 영세한 규모의 가족경영이 지배적인 농업형태에 있어서는 농가가 얻는 수익은 곧 가족노동을 이용하여 얻는 수익이다. 하지만 공업화 위주의 경제성장과 함께 도시화가 진전되고, 생산성이 높은 젊은 층의 농가인구가 도시로 급속히 이농하면서 농촌의 가임여성 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농촌인구의 생물학적 재생산 능력이 저하되고 인구구조의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결국 농촌사회의 유지가 어렵게 되었다. 또한 농촌 젊은이들이 농촌지역을 떠나면서 농촌경제는 위축되고, 이에 따라 농가 수는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며 농촌 지역의 산업자원은 유휴화되면서 농촌경제는 더욱 위축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결국 이러한 인구구조의 변화는 농가여성의 농업생산 활동에의 참여를 지속적으로 증가시켜 왔다. 이는 그 동안 농업생산활동에서 보조적인 위치에 머물러 있던 농촌여성들이 독립적인 농업인으로서 자리잡아 가고 있으며 농업생산에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농업생산과 농촌사회의 발전에 여성농업인의 역할이 지대한 작용을 해 왔던 것에 비해 여성농업인에 대한 정책 및 교육은 미흡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이제 한국농업에서 농업노동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농업인이 당면

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지원은 우리 농업과 농촌의 발전에 있어서 필수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즉 여성농업인을 전문경영인으로 탈바꿈시키는 것은 한국농업이 당면하고 있는 농업구조조정을 촉진시키기 위해 여성농업인의 역할을 증진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하는데 중요하다. 그것은 여성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과 자아실현은 물론 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사회의 발전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여성농업인이 전문농업경영인으로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자질의 개발 및 육성이 필요하나, 그 중에서도 농업경영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비록 여러 가지 측면에서 미루어 볼 때 우리나라 농업의 현실이 어렵다 하더라도 주먹구구식이 아닌 과학적인 "농업경영"을 지향하게 된다면, 우리 농업의 미래는 결코 어둡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여기에서는 현재 우리 나라 여성농업인의 현황을 간단히 살펴보고, 농업경영에 대한 개괄적인 소개와 함께 현재 농업여건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농업경영의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여성농업인의 실태와 전문경영인교육의 필요성

1. 여성농업인의 실태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1994년이후 농업인후계자 중에서 특히 후계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 후계여성농업인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전체 농업인후계자 중에서 단지 7.7 퍼센트에 불과한 실정이다.

〈표 1〉 후계여성농업인 육성실적

구 분	합계	'92	'93	'94	'95	'96	'97	'98	'99
후계자수	65,504	9,000	9,000	8,340	9,730	8,227	8,526	7,862	4,819
여성후계자수	5,038	213	267	442	595	707	823	1,011	980
여성비율(%)	7.7	2.4	3.0	5.3	6.1	8.6	9.7	12.9	20.3

<출처> : 농림부

농림부의 자료에 따르면 농촌생활에 있어서 여성농업인은 지속적인 정부의 지원으로 농촌생활에 비교적 만족하고 있으나, 농촌생활에 있어서 주된 불만족 사유는 농사일이 어렵고, 소득이 낮고 자녀교육 여건이 취약한 것 등으로 나타났다. 이는 농업경영의 현대화·기계화와 더불어 정주공간으로서의 농촌의 복지향상 또한 시급한 과제로 정부의 적극적 지원 및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농업경영을 하는 주체로서 농사일을 계속 원하는 여성농업인은 61.8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이농을 원하는 실정이다.

농가 내에서 여성농업인의 경제적 위치를 나타내는 한 가지 지표로써 여성농업인 소유의 농지규모를 살펴보면 본인 명의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여성농업인은 그 비율이 매우 낮으며 그 규모도 농가 호당 평균 경지면적 4,084평보다 매우 작았다. 본인 명의의 예금통장을 소유한 여성농업인은 91.7 퍼센트 달하지만 평균 100만원 미만의 예금규모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영농활동의 의사결정 구조

(단위 : %)

구 분	남편이 결정	본인이 결정	부부 공동결정	남편주도 본인과 상의	본인주도 남편과 상의	기타
농사일정 짜기	40.2	7.6	30.0	18.9	1.6	1.8
품종선택	49.7	5.7	23.6	17.5	1.5	2.1
영농자재 구입	61.1	7.0	15.7	12.6	1.7	1.9
외부인력 고용	25.2	26.8	26.4	14.1	5.6	1.8
농산물 판매	36.4	12.9	29.6	16.2	2.9	2.0
농지매매	43.7	2.4	30.9	19.6	1.5	2.0
평 균	42.7	10.4	26.0	16.5	2.5	1.9

<출처> : 농림부

영농활동에 대하여 본인의사가 반영되는 지의 여부를 살펴보면 영농활동 영역에 따라 다르나 본인의 의사대로 결정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전체의 10 퍼센트 내외에 불과하여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자금관리에 있어서는 여성농업인의 의사결정 참여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노동 투하에 있어서 남성과 비교할 때, 여성농업인의 노동은 과중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여성농업인의 평균노동시간은 가사노동과 농업노동으로 인하여 농번기에는 13.4시간, 농한기에는 9.7시간으로 일반취업 여성(8.3시간)보다는 노동이 과중하였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여성농업인들은 전반적으로 남성에 비해 영농기술이 부족하고 농기계도 남성체형에 맞게 개발되었기 때문에 농업노동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여성농업인의 주 영농작물인 밭작물의 농기계 개발미진 등으로 인한 열악한 영농여건 등을 들 수 있다.

〈표 3〉 여성농업인의 하루 평균 노동시간

(단위 : 시간)

구 분	합 계	가사·보육노동	농업노동
농번기	13.35시간	4.90	8.45
농한기	9.91	5.07	4.64

<출처> : 농림부

2. 농업경영 교육의 필요성

앞에서 농업 및 농촌에서의 열악한 여성농업인의 교육 및 생활 실태를 본 결과 여성농업인에 대한 농업경영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은 크다고 하겠는데, 그 필요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한다.

첫째, 농가인구의 감소를 들 수 있다. 1960년대 이후 공업화 촉진시책에 따라 농가인구의 급격한 감소는 1970-98년 사이에 농가인구는 14,421천명에서 4,400

천명으로 69.5 퍼센트 감소하였다. 이와 함께 농업인력구조의 여성화·노령화도 가속화되었다. 농가인구 중에서 여성은 같은 기간 7,258천명에서 2,270천명으로 감소하였다. 연령 면에서도 20~40세 농가인구의 유출로 노령화되었는데, 역시 같은 기간동안 60세 이상 농가인구의 1,143천명에서 1,343천명으로 30.5 퍼센트 증가하였다. 이처럼 농가인력의 감소로 인하여 두레, 품앗이 등 전통적인 농업 인력 구조가 붕괴되고, 호당농가인구도 1970~1998년 사이에 5.81명에서 3.11명으로 농가도 핵가족화되었다.

둘째, 여성농업인의 경우 가사노동과 농업노동의 비분리로 인한 전문성 부족으로 농업노동 생산성이 저하되고, 농업경영에 있어서 남성중심적 사고가 잔존하고 경영결과에 대한 성취감의 부재로 인하여 성취동기 부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표 4〉 영농형태별 농가수

(단위 : 천호, %)

구분	합계	논벼	채소	축산	과수	화훼	전작 등
1990	1,767 (100.0)	1,232 (69.7)	172 (9.7)	89 (5.0)	107 (6.1)	6 (0.4)	161 (9.1)
1995	1,501 (100.0)	823 (54.8)	247 (16.5)	156 (10.4)	144 (9.6)	10 (0.6)	121 (8.1)

<출처> : 농림부

셋째, 미곡위주의 농업경영 형태에서 여성농업인의 노동력이 많이 요구되는 축산, 원예, 채소, 화훼 등으로 농업경영 형태의 변화가 진행중이다. 1990년과 1999년을 비교할 때, 논벼 등 전통적인 미곡을 생산하는 농가의 수는 약 15 퍼센트 줄어든 반면, 채소, 과수, 축산 등 여성농업인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중요시되는 농업형태의 농가의 수는 거의 2배 이상 증가하였다.

넷째, 전반적인 농촌노동력의 부족으로 인하여 고용노동의 비중감소와 더불어

가족노동의 비중이 증가되면서 여성농업인의 역할이 증대되었다. 그에 따라 농업경영에 있어서 보조적이며 수동적인 존재로서가 아닌 공동의 경영자로서 여성농업인의 창조적인 의사를 농업경영에 반영할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마지막으로, 정보화 사회의 확산과 함께 농업분야에서도 정보화경영의 발전은 하루가 다르게 진전되고 있다. 남성보다 감성적이며 꼼꼼하게 일을 처리하는 여성의 능력과 감성을 존중해야 하는 농업경영의 새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농가인구 및 농업노동력 구조변화로 점점 여성농업인이 농촌인력의 주류가 되어가고 있다. 그러나 하나의 독립적인 농업경영자로서 여성농업인의 노동생산성은 낮게 평가되고 있고, 지역사회 및 가정에서 여성농업인의 지위는 낮다. 국제화시대의 환경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여성농업인이 극복해야 할 과제는 전문농업인으로서 농업경영인의 자질을 함양하고, 지역주민으로서 지역사회에 참여능력 등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여성농업인으로서 농촌 및 농업의 과제를 해결하고, 한국농업 및 농촌발전에 경쟁력 있는 미래를 주도하기 위한 여성농업인의 역할수행을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여성농업인의 인적자원이 전문경영인으로 개발되어 나아가야 한다.

Ⅲ. 농업경영의 이해와 농업의 특징

1. 농업경영의 정의

농업경영을 한 마디로 이야기하기는 어렵다. 농업활동은 토지, 종자, 농약, 비료 등의 생산수단에 여러 가지 생산기술을 지닌 인간의 노동력을 가하여 농산물을 생산하고, 이를 가족의 식량으로 이용하거나 경영에 필요한 투자재원의 확보 또는 가계를 영위하는 데 필요한 소득의 확보를 위하여 이를 판매 또는 처분하는 것이다.

농업경영을 인간생활에 필요한 동물이나 식물의 생산만을 담당하는 하나의 작업으로만 생각한다면, 성공적인 농업경영을 위해서는 생산물의 품질을 개량 등을 통해 생산물의 수량을 증대하여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농업경영의 본질은 기술적인 면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면에서 함께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농업경영에서는 일정한 경영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최소의 비용을 들이는 것으로, 어떠한 경영조직으로 그러한 목적을 달성할 것인가가 핵심과제가 된다. 다시 말하자면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농업생산이 행하여질 때 비로소 농업경영의 문제가 논의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농업시험장이나 대학에서 연구를 위해 농업생산을 하는 것은 농업경영으로 보기가 어렵다.

위에서 논의한 기술적·경제적 의미를 가지고 농업경영을 정의하자면, 농업경영이란 "농업경영인이 일정한 경영목적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노동력과 토지 및 자본을 이용하여 농산물을 생산하고 그것을 이용, 소비, 판매, 처분하는 조직적인 경제활동"이다. 따라서 농업경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정한 목적을 추구한다는 것과, 일정한 체계를 갖춘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영의 전문화가 곧 경영의 합리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이는 개별 농가가 보유하고있는 자원과 사회적, 자연적, 경제적 사정 등에 의해 좌우된다. 비슷한 자연조건을 가진 농가라 하더라도 각 농가의 사정에 따라 농업경영의 내용이 다르기 마련이며, 같은 농가라 할지라도 시간의 경과나 상황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그러므로 농업경영인은 농가의 여러 가지 상황과 조건에 맞는 합리적인 경영을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충분히 생각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농업을 경영하는 농업경영인이 합리적으로 생각해야 할 것은 노동력과 토지, 자본 등의 생산요소를 어떻게 결합했을 때 농산물을 얼마만큼 생산하게 될 것이며, 이를 어떻게 이용, 판매할 것인가 하는 선택의 문제인 것이다. 좀 더 넓게

농업경영을 정의하자면, "농업경영이란 불확실한 생산, 기술, 노동력, 시장, 정책, 환경 등의 변화에 따라 개별 농업경영인이 자신의 경제적 목표의 달성을 위해 자원을 배분하는 의사결정과정"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농업경영에 소요되는 자원들은 한계가 있으므로 부족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농업경영은 하나의 연속체로서 재생산이 가능해야 의미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영의 합리화에 충실할 때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2. 농업경영의 목적

농업경영의 목적은 여러 사회경제적인 조건에 따라 변화한다. 예를 들어 개별 농가의 경지면적, 노동력, 자본 등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각 농가의 농업경영의 목적은 차이가 있기 마련이며, 또한 시대의 변천과 더불어 변화하는 것이다. 오늘날 화폐경제시대의 농업은 단순히 양적인 증산만이 아닌 화폐가치로 표현된 조수익 또는 순수익을 크게 하는 것을 경영목표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일반적으로 농업경영의 목표는 첫째, 이윤 또는 소득의 최대화이다. 둘째, 토지 등 농가의 규모를 키우고 투자를 확대하는 등 순자산을 증가시키고 사업을 확장시키는 것이다. 셋째, 위험을 줄여서 수확감소나 손실을 피함으로써 안정적으로 농업을 경영하는 것이다. 넷째, 채무를 줄여서 불경기와 같은 전체 경제의 불황시기에 대비하는 것이다. 다섯째, 가족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이다. 끝으로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농가를 발전시키고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다.

3. 농업의 특성

1) 농업의 일반적 특성

농업이 다른 산업과 구별되는 가장 큰 특성은 생산 환경의 제어이다. 즉 토지

와 기후 등 농업의 기본적 생산 환경을 인간이 인위적으로 제어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이처럼 인위적인 조절이 어렵고 주로 자연에 의존성이 크기 때문에 통제나 경영설계가 어렵고, 결과에 대한 예측이 어려워서 위험과 불확실성이 크다는 것이다.

또한 생명산업인 농업은 유기적인 생식, 성장, 결실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에 비해 기계화가 어렵고 부가가치의 증대가 상대적으로 낮은 등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다. 따라서 경제가 성장할수록 산업구조가 농업부문보다는 비농업부문에 중점을 두는 형태로 변화하여 농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다음으로 자연에의 의존도가 크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서 생산이 가능한 작물의 분포가 달라지고 생산 시기도 달라지며, 이에 따라 소비자의 기호도 달라지게 된다. 이는 사회, 장소와 시간에 따라 농산물의 생산과 소비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따라서 농업의 경영형태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 되는 것이다.

끝으로 농업은 자연과 더불어 하는 산업이다. 환경 측면에서 볼 때 자연환경을 보존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산업이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그리고 분업과 전문화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산업이므로 그 경영에 있어서 농업경영인은 노동자, 경영자, 지주 또는 자본가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게 된다.

2) 우리 나라 농업의 특성

우리 나라는 반도 지형으로서, 주로 산악지대가 많고 평야지대가 적어 경작가능한 토지가 적으며, 하천의 길이가 비교적 짧고 경사가 급하여 지표수가 빨리 바다로 흘러가 버리는 단점이 있다. 또한 하천 유역 면적도 그리 넓지 못한 편이며, 자연 호수는 거의 없다. 기후는 대륙성과 해양성의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어서 겨울에는 대륙의 찬바람의 영향으로 자연 조건만으로는 일부 지역의 일

부 품목 외에는 농사를 짓기가 극히 어려운 반면 여름철에는 아열대 계절풍인 몬순의 영향으로 고온다습하여 벼농사를 비롯한 여름 작물의 생육에 적당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자연적 요인에 따라 우리 나라의 농업은 오랜 옛날부터 벼농사 위주로 하고 겨울철에는 남부 지방에서 보리농사를 2모작으로 짓는 형태를 계속해 왔다. 가축은 유휴자원의 활용과 노동력의 대체하는 정도로 유지되어 왔고, 채소와 과실류는 일부 지역에서 특산물로 재배되거나 농가의 자가소비 수준의 생산에 머물러 왔다. 그러나 경제개발 이후 경제가 급속히 발전하면서 농산물의 생산과 수요에 급격한 변화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우리 농업의 특성 자체에도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다음으로 우리 농업은 가족단위의 생계를 위한 영농을 위주로 발달되어 왔다. 아직까지도 농가 호당 평균 경지면적은 1.3 헥타정도에 불과하며, 영농의 기계화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지만 전통적인 노동집약적인 영농이 계속 되고 있다. 가족농중심의 영농이 주류를 이루어 생계와 농업경영이 분화되지 않은 경우가 많고, 자급자족의 생산비율이 높고 상품화 비율이 낮은 특성을 갖고 있으며, 생산의 계절성이 강하여 노동수요와 농산물 공급의 계절적 편중이라는 특성을 함께 갖고 있다.

3) 농산물 시장의 특성

농산물이 거래되는 곳이 농산물시장이며 여기에서 농산물의 가격이 형성된다. 농업경영의 목표가 이윤 또는 소득을 증가시키는 데 있고, 농산물시장과 가격은 그 결정인자인 만큼 이에 대한 기초적 이해는 농업경영을 공부하는 데 필수적인 것이다.

생산자와 소비자의 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농산물 시장에서는 시장가격을 임의로 통제할 수 없고, 시장점유율이 상대적으로 아주 낮은 거의 완전경쟁에 가까운 시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농업생산에 있어서도 전문화가

급속히 진전되면서 시장집중도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동일 품목 생산자간의 결속력과 영향력을 강화되는 반면 가격의 조절 가능성이 커짐으로써 시장의 불안정성을 가져올 가능성도 있다.

한편 농산물은 유기체인 생물이므로 신선도가 시장을 좌우하게 된다. 그러므로 수송이나 저장, 가공, 판매의 모든 유통단계에서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들이 동원되어야 하며, 유통단계를 줄여 생산자로부터 소비자에게 이르는 시간이 가급적 짧게 하여야 한다.

또한 농산물은 계절과 지역에 따라 분산되어 생산·공급되는 반면 소규모 소비단위인 가정에서의 일상적 소비가 이루지고 있다. 따라서 그 유통과정에 수집상과 중개상, 소매상 등 다양한 중간상인과 예냉, 선별, 포장 등 여러 서비스 기능이 관계하게 되어 농산물 시장의 구조와 유통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다. 국민의 건강과 먹거리를 담당하는 농산물은 정부의 개입이 불가피하여 농산물 시장에 대한 정부의 농산물 시장개입과 통제, 간섭, 규제의 정도도 또한 커지는 것이다.

이처럼 농산물 시장이 시설·장비 면에서 불완전하고, 거래방식이나 매매제도 측면에서 체계적이지 못하여 일반적으로 농산물의 유통구조는 복잡하고 많은 단계를 거치게 된다. 유통 효율이 낮고 상대적으로 유통 비용이 많이 든다. 뿐만 아니라 유통 정보의 부족으로 인해 공정하고 신속한 거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반면 농산물의 수급과 가격을 안정시킨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과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4) 농산물 가격결정의 특성

농산물의 가격결정은 농산물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 공급은 국내 생산과 수입으로 구성된다. 국내 생산은 국내 부존자원과 토지, 노동력, 생산재 등 각 생산요소의 상대가격 수준과 생산 및 유통의 기술 수준 등의 영향을 받는다.

농산물 수입은 국내 생산여건, 국제 가격과 국내 가격의 차이, 수입농산물 공급의 가격 탄력성, 수출입제도와 정부의 수출입정책 등의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 또한 농산물 가격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으로서 정부의 시장 개입이 있다. 수매, 비축 등 정부의 수급 조절과 가격통제정책, 수출입 규제 외에 생산, 유통에 관련된 허가, 지원, 보조 등 정부의 정책이 농산물 가격의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농산물 가격의 특성으로는 계절성과 주기성이 있다. 농산물 생산이 계절적이거나 주기적이기 때문에 농산물 가격도 그에 따라 계절적·주기적인 변동을 보이게 된다. 농산물의 주 출하기에 가격은 하락하고 단경기에는 상승하기 마련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공급과 수요의 반응에 시차가 있어서 공급과 이에 따른 가격의 등락이 한 해 걸러 반복되는 현상도 나타난다.

그 다음으로 농산물 가격의 특성은 상대적인 가격의 불안정성이다. 대체로 농산물의 수요와 공급이 가격에 대하여 비탄력적[1]이기 때문에 물량 변화에 따른 가격변동이 크고, 아울러 농산물 생산의 불확실성과 예측 불가능성으로 말미암아 수요자와 공급자가 모두 계획적인 생산과 소비를 수행하기 어려우며, 유통과정에서 투기적 요소가 존재도 농산물 가격의 근본적인 불안정 요인이 된다.

또 다른 농산물 가격의 특성은 가격이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주는 의미의 차이이다. 농산물의 가격은 생산자에게는 생계와 직결되는 문제인 동시에 소비자에게는 가계 운영의 기본문제인 것이다. 그래서 생산자인 농업경영인의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농산물 가격이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농산물 가격 상승은 서민들의 생계 안정을 위협하고 국민경제의 안정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반대로 국민경제의 안정을 위해서 농산물 가격을 낮게 유지시킨다면 생산자인 농업경영인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아져서 국민경제의

1) 비탄력적이라 함은 가격이 상승하거나 하락할 때 그에 따른 수요의 변화가 가격의 상승이나 하락의 폭보다 작은 경우를 말한다.

건전한 균형 발전에 장애가 된다. 이에 따라 여러 가지 입장에서 농산물가격에 관한 주장과 논의가 있어 왔으며, 정부의 정책적 개입이 불가피하게 있어 왔다.

5) 농산물 유통의 특성

어떻게 생산할 품목을 선택하고 생산된 농산물을 상품으로 어떻게 처리하고 판매하여 최대의 수익을 올릴 것인가가 농업경영의 주요 관심이며, 따라서 농산물 유통이 더욱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대체로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생산과 소비 사이에는 시간적, 공간적 간격이 차츰 커지게 되는데 이 간격을 좁히고 생산과 소비를 유기적으로 연결시켜 주는 것이 유통이다. 여기에 농산물을 그대로 최종적으로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처리·가공이라는 또 하나의 유통기능이 덧붙여져서 상품의 부가가치를 높여 새로운 효용가치를 창출해 낸다. 이러한 매개기능은 가격결정의 핵심이 되는 유통기능으로서 전 유통과정을 포괄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농산물 유통경로는 생산지 유통과 소비지 유통으로 구분되며, 소비지 유통은 도매단계와 소매단계로 구분된다 최근에는 전통적인 5일장 형태 대신 여러 가지 다양한 유통형태가 나타나 더욱 복잡한 유통경로를 형성하고 있으나, 대체로 생산지유통은 생산농가, 수집상, 위탁판매상 사이에 이루어지는 거래를 중심으로 체계화되어 있다. 그리고 농협 등 생산자단체나 정부기관이 개입하는 경우와 소비지로 직접 출하·판매하는 직거래 경우도 점차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소비지의 도매단계에서는 전통적인 위탁상이 아직도 상당할 비중을 점하고 있으나, 최근 유통산업의 현대화와 개방화에 따라 이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대형 유통체인과 배송업체의 활성화와 함께 지역거점 중심의 업종별 전문도매시장의 설립 등이 정부와 민간에서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또한 기술발전과 함께 전국적인 유통정보망과 온라인 전산시스템 등의 도입으

로 농산물의 도매를 현대화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소매단계에서는 전통적인 주택가의 소매점 형태가 차츰 전문직판장, 대규모 백화점 또는 거대 할인점 형태로 바뀌어가고 있다. 이와 함께 노점이나 행상은 나름대로 명맥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주문배달 형태의 소매방식과 외식산업의 발달에 의한 종합적인 형태의 소매방식이 더욱 확산되고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적 구매방식도 조금씩 선을 보이고 있다.

이상과 같이 농산물의 유통이 농업경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더욱 커질 것이므로 성공적인 농업경영의 관건은 생산한 농산물을 어떻게 유통단계에 효율적으로 연결하느냐에 달려 있다 하겠다.

Ⅳ. 농업경영 관리

농업경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농업경영관리이다. 경영관리는 첫째 경영에 필요한 자원을 동원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목적에 맞게 잘 활용하는 것이고, 그 다음으로 이러한 자원들을 잘 결합하여 정해진 시간 내에 바라는 농산물을 효율적으로 생산하는 것이고, 끝으로 생산된 농산물을 판매 또는 유통시키는 과정 등을 포함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 걸쳐 있는 농업경영관리의 과제가 자금관리와 위험관리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자원관리(토지관리와 노동력관리 및 자본재관리), 생산관리, 유통관리, 자금관리 및 위험관리에 관한 기초적인 이론과 관리기법을 살펴보기로 한다.

1. 토지관리

토지는 일반적으로 소모되거나 감가상각되지 않는 영구자원이다. 또 토지는

이동성이 불가능하므로 각 토지는 개별적인 특수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각기 다른 노동력과 자본재 등의 요소가 특정한 토지에 투입되어야 하며, 토양이나 기후, 기상재해의 위험도 등이 각각의 특정 토지마다 다르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한다.

1) 토지이용

토지의 개별적인 특성으로 인하여 농업경영의 시작은 이용 가능한 토지자원의 실태를 파악하는 데서 시작된다. 즉 개별농가가 보유 또는 임차할 수 있는 토지의 성질, 기후여건, 경지의 주변여건 등 생산 가능성과 잠재력에 대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수익성이 높은 토지이용은 토지생산성과 함께 생산물의 상대가격과 기술수준의 영향도 받으므로 이들의 변화에 따라 토지이용에도 변화가 수반된다. 특히 수리시설의 정비, 경지정리, 포장정비 등 경지기반에 대한 투자는 토지 생산성의 안정적 증대를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작물이나 가축의 선택범위를 확대하는 효과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경지의 정비여부와 생산물의 가격수준과 새로운 기술의 도입여부, 기타 경제적 요소들이 토지관리 노력과 합께 토지를 이용할 때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다.

2) 토지이용의 형태

농업경영에 있어서 어느 만큼의 토지를 이용할 것인가를 결정할 때, 이용 가능한 토지는 반드시 소유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소유와 더불어 임차의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경지의 이용방법으로써 농지소유가 가지는 장점과 단점들을 나열해 보면 다음과 같다. 장점은 첫째 경지이용시에 타의에 의한 경영규모의 축소를 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로 자금을 융자할 때 담보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농지를 이용에 있어 농업경영인 독자적으로 자유롭게 모든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 넷째 실물자산으로서 자산가치를 보존하는 데 유리하다는 등이 장점인 반면, 단점은 첫째로 농지구입에 많은 자금을 소요한 경우 자금 압박이 생긴다. 둘째로 한정된 자본으로 농지구입은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낮은 투자를 하는 것과 같다. 셋째 농업경영에 필요한 운영자본이 부족해진다는 것이다. 넷째 개별 농업경영체가 동원할 수 있는 자본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 경영규모에 제한을 받지 않을 수가 없다.

농지를 임차하는 경우에도 장점과 단점이 있다. 장점은 첫째 운영자금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 초보적 경영자에게는 농지소유 이전에 경험과 지원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셋째 규모를 확대·축소에 융통성이 커진다. 넷째 임차료가 낮을 경우에 자금을 빌려 구입한 경우보다 자금압박을 덜하다. 반면에 단점은, 첫째 장기적인 경지이용이 불확실하다는 점이다. 둘째 농지소유자가 임대할 농지에 투자를 꺼리는 경우가 많고, 임차한 경영자도 기반투자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경지의 여건이 상대적으로 취약해지기 쉽다. 셋째 지력수탈이 상대적으로 커지기 쉽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임차농지의 생산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크다. 넷째 경영자금의 차입능력에서 소유의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토지이용을 결정할 때에는 소유와 임차의 장단점을 충분히 고려하고, 동시에 가용한 자금의 여유 등 다른 경영여건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신중히 의사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다.

2. 노동력 관리

노동력은 경제발전과정을 통해 그 투입량이 계속해서 점차 줄어들고 있는 요소 중의 하나이다. 기계화 등과 더불어 노동생산성이 더욱 크게 증가함으로써 노동력의 부족에 대처하면서 전체 생산력을 증대시켜 온 것이 농업과 경제의

성장 발전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농업노동력의 특성을 살펴보면 우선 노동력은 연속적인 경영요소로 분할하여 사용하거나 추후에 이용하게 저장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연속적인 노동력의 제공을 이점으로 하는 상시고용자와 영농에 전념하는 가족노동력이 항상 적절하게 생산적 활동에 투입되도록 치밀하게 계획하고 관리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전체적인 농업경영규모를 감안하여 전업근로자의 숫자를 결정하고, 다른 경영요소들을 전업근로자의 노동력을 기준으로 신축적으로 조정하는 방법이 많이 이용되고 있다.

또 하나 노동력의 특성은 다른 요소와는 달리 인간적인 요소라는 점이다. 만약 노동력을 가진 개인이 단순한 물적인 대상으로 취급될 경우에는 사기가 떨어지고 그 결과 노동생산성이 낮아지게 된다. 그러므로 인간적 요소가 노동력 관리계획에 있어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1) 농업노동력의 경제적 이용

노동력 이용에 있어서 원칙은 연중 모든 가용한 노동력을 완전히 생산적으로 활용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는 농업생산의 계절성 때문에 매우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에 대한 대책으로 작업일지를 통해 파악된 적정한 상시 전업근로자의 고용이나, 또는 상시 전업근로자[2]를 고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농번기의 노동력 수요를 시간근로자의 고용이나 전통적인 품앗이나 두레 등의 방법에 의해 충족시키는 방법 등이 있을 것이다.

다른 하나의 대안은 작목의 구성을 바꾸어 보는 것이다. 작목을 바꾸어서 노동력의 수요를 연중 고르게 분산하고, 추가로 필요한 노동력을 가장 경제적으

2) 상시 전업근로자란 항상적으로 농업에만 종사하는 노동자를 말한다. 임시와는 노동력 투하에 있어서 늘 투입가능하다는 점에서, 겸업과는 농업에만 종사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로 고용하는 방법이다. 이 경우 예상되는 수익이 추가 비용보다 적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3. 자본재 관리

자본재에는 비료, 농약 등의 영농자재와 농기계 등의 영농시설이 포함된다. 기본적으로는 이용가능한 자본의 범위내에서 구입 또는 임차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투입된 비용보다 이로 인한 예상수익이 더 커야 할 것이다.

1) 영농자재 관리

농업 경영규모와 예상생산량, 기술수준과 영농자재의 구입가격 등을 모두 고려하여 농업경영의 대상이 되는 각 작목별로 생산시기와 생육시기에 따른 영농자재의 종류와 소요량을 미리 점검하여 적기에 적량이 확보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새로운 기술의 보급에 따라 새로운 영농자재가 소개될 경우에는 단계적으로 대체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재고관리도 중요한 자재관리의 항목으로 당해 연도에 사용하고 나서 재고가 남는 경우에는 다음 해에 계속 쓸 수 있는 것은 잘 보관하도록 하고, 다음 해까지 유지되기 어려운 것은 처분하여 비용손실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2) 영농시설 · 장비의 관리

내구연한이 큰 농기계와 영농시설 장비는 고정자본으로서 이용률이나 가동률의 많고 적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비용이 생산성이나 생산량에 관계없이 일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정투자가 많아지면 상대적으로 운영자금에 압박을 받게 되므로 이러한 고정투자를 결정할 때에는 이용가능한 자본의 한도내에서 경영규모와 다른 경영요소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또한 일단 투자가 이루어진 뒤에는 그 이용률을 최대한으로 높여야 한다.

영농시설·장비의 설치나 구입시에는 그 규모와 시설능력이 고려되어야 하며, 농업경영자의 기술수준과 능력에 맞아야 한다는 점을 반드시 유의해야 한다. 아울러 비싼 고정투자를 한 농기계나 영농시설·장비를 수시로 또는 정기적으로 점검 정비하고 고장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즉시 수리하는 것은 기본이며, 이들의 이용 및 보관에 있어서 최대한으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4. 생산관리

생산이란 생산물 또는 서비스를 창출하는 활동과정이라 할 수 있으며, 생산관리는 노동력과 토지, 자본재 등의 결합에 관한 의사결정인 동시에 선택의 문제인 것이다.

1) 농업생산과정의 특성

농업생산과정은 단속적 생산과정으로 생산물의 종류는 정해져 있지만 일정한 규격이나 표준에 딱 들어맞게 정형화된 생산물이 아니며, 생산과정과 시설·장비 등도 언제나 고정된 것이 아니고 신축적인 생산과정인 것이다. 거기다가 농산물은 변질되기 쉬워서 신선도와 안전도가 품질의 핵심이며, 선별, 수송·저장 등 취급이 어렵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 가치의 다양성과 변이도 등 농업생산이 가지는 특성으로 인해 농가와 관련설비의 위치, 수송, 저장, 작업 등 전반적인 관리가 다른 산업분야에 비해 더욱 복잡하고 다양한 선택을 요구하게 된다.

2) 생산의 설계와 계획

생산관리의 시작은 생산물의 종류와 수량, 생산시기와 처분방법 등을 정하는

것이다. 농가의 위치와 규모, 기술수준, 동원 가능한 노동력과 자본재, 생산물의 시장가격과 비용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어떤 농산물을 언제, 얼마나 생산하여, 어떤 방법으로, 어느 정도의 가격수준에 처분하느냐 하는 의사결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정은 주먹구구식으로 해서는 안되며 기록되고 수집된 신뢰도가 높은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한 다음에 최선의 방법을 신중하게 선택하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농업생산은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연속적인 과정이 아니므로 모든 의사결정에 있어서는 가능한 모든 대안을 검토하여 가장 효율적이고 비용이 적게 드는 방안을 선택해야 한다.

생산과정을 통해 모든 경영요소가 원활하게 조달 투입되고 효율적으로 활용되도록 하는 생산 일정계획은 모든 작업이나 조치들이 당초 생산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하려는 것이다. 일정계획은 대부분 연간, 분기별, 월별, 주별, 일별 시간표에 의해 작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무엇보다 시기별로 원재료와 노동력의 정확한 수요를 판단하는 것이 일정계획을 수립하는데 매우 중요한 기초자료가 되는 것이다.

3) 생산과정의 통제와 관리

생산과정에서 있어서 계획과 비교하여 실적이 어떠한지 점검하고, 감독 및 통제하는 기능은 필요하며, 자연재해나 시장여건 등에 예기치 않게 급격한 변화가 일어날 경우에 이에 대처하여 생산과정을 변경하고 일정계획을 수정·보완할 필요도 있게 된다. 이 중에서도 생산과정의 집행과정에서 계획의 잘못된 점을 발견하고 이를 즉시 시정하여 전체 계획이 원만하게 집행되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하겠다.

또한 생산과정에서 품질관리도 강조되는데, 갈수록 치열해지는 농산물시장의 경쟁 속에서 소비자의 신뢰와 인기를 얻기 위해서는 농산물의 품질관리가 무엇

보다 중요하게 되었다. 생산과정에서 필요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경지와 축사 등 생산시설이 농산물의 품질향상을 위해 잘 정비되었는가를 점검하고 보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농약 등 영농자재가 생산물의 품질향상이라는 목표에 합당하게 선택되고 조달되어 적절하게 사용되었는가를 점검하여야 한다. 그리고 독성이 강한 농약이나 화학비료, 항생제와 첨가제 등 생산물의 품질향상에 적합하지 않은 재배방법 등의 생산기술은 가능한 한 빨리 폐기하고 그에 맞는 기술이 신중하게 도입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들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채택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 검토함과 동시에 전체 생산과정을 통해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이다.

5.유통관리

유통은 크게 판매기능과 수송과 저장, 가공 기능 및 보조기능으로 나누어진다.

1) 판매

생산된 농산물을 언제, 어디에, 어떤 방법으로, 어느 수준의 가격에 팔 것인가에 관한 문제이다. 농산물 판매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데, 첫 번째의 방법은 농가에서 상인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유통이나 판매에 소요되는 비용이 가장 적은 이점이 있는 대신 가격 결정을 위한 협상력이 낮은 단점이 있다. 물론 희소한 생산물이나 인기 상품인 경우 모든 비용을 상인들이 부담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농업경영자로서는 가장 이상적이라 하겠다.

두 번째로는 상인이나 생산자단체 등에 위탁하는 것인데, 이 경우 소요 비용과 일정한 위탁수수료를 생산자가 부담하면서도 판매가격은 낮은 등 여러 가지 단점이 있다. 그러나 현실적인 잇점은 판매관리에 전혀 신경을 쓸 필요가 없고, 출하선도금 등의 형태로 농업경영에 필요한 운영자금의 획득이 쉽다는 것이다. 위탁상들 사이에나 다른 판매업체와의 경쟁이 심해질수록 이 방법은 농업경영

자에게 유리하다. 농협 등의 농업생산자단체가 이런 면에서 비교적 공정하고 수수료도 상대적으로 싸지만, 지나치게 관료적이어서 융통성이 없고, 실제 판매 능력 면에서 뒤지는 등 상대적으로 위탁상들 보다 못하다는 문제가 있다.

세 번째로 가공업체나 대량수요처와 직거래하는 것인데, 대체로 사전 장기계약에 의해 가격과 물량을 정하는 방법이 많이 채택된다. 이는 판로확보의 안정성과 비용면에서도 유리한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생산량이 줄고 시장가격은 올랐는데 실제가격보다 싼 계약가격으로 납품해야 할 경우 농업경영인들에게는 손해가 크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계약가격을 시가연동으로 하는 등 내용을 계약에 포함시켜 장기공급계약을 쌍방이 건전하게 계속 유지하려는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직접 소비지에 출하하는 방법이 있다. 이 방법은 판매가격을 결정하는데 생산자가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부당한 대우 등의 위험이 최소화되지만, 개별적인 유통·판매비용 및 위험부담을 모두 생산자가 부담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이 방법은 단기적으로 시장조건이 좋을 때는 생산자에게 유리할 수도 있으나, 대량유통에 비해 단위당 유통비용이 커지고, 전문적인 상인과는 경쟁이 쉽지 않아 수익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마지막으로 생산자가 직접 소비자에게 소매하는 방법인데, 특히 최근 도시와 농촌의 교류 확대와 도시민의 여가수요 증가에 발맞추어 소비자들을 생산현장으로 유도하여 판매하는 방식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관광농원, 주말농장 등의 형태로 도시 소비자들이 여가를 즐기면서 직접 농산물을 구입 소비하도록 하는 방법으로써, 생산자의 입장에서는 부대서비스의 판매까지 함께 함으로써 수익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2) 수송·저장·가공관리

판매를 위한 준비단계로서 세척, 선별, 포장, 예냉 등의 과정도 유통의 일부로

포함된다. 먼저 생산물의 품질관리의 핵심이 되는 신선도와 당도와 영양가, 맛 등을 보존, 유지, 향상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유통서비스가 추가되어 소비자에게 판매되는데, 이 중에서 상당 부분은 농업경영자가 직접 참여하는 것들이다. 출하 전의 품질관리를 위한 유통기능의 경우 개별농가로서는 단독으로 갖추기 어려운 상당한 시설과 장비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산지 농협에서 이를 담당하는 방법, 농가들이 공동으로 시설을 설치·이용하는 방법, 전문업체에 위탁하는 방법 등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방법들을 비교·분석하여 선택해야 함은 물론이다.

수송의 경우에는 농가에서 시설장비가 있는 장소까지의 이동은 당연히 농업경영인이 담당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기본적인 수송수단이 필요하게 된다. 이 때 어떤 수송수단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은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경영규모와 노동력, 자본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충분히 감안하여 결정해야 한다. 출하준비가 끝난 후의 수송은 농업경영의 내부나 외부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만약 직접 수송하는 경우에는 가장 비용이 싸면서 생산물의 품질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농가 외부의 전문 수송업체나 농협 등에 위탁하는 방법도 대안이며. 여러 농가의 생산물을 함께 수송하는 방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음 저장기능에 있어서는 단기적인 재고관리를 위한 저장이나 시장조건이 불리할 때를 예상한 상당물량의 장기 저장시설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 농가단위에서 장기 저장이 가능한 것이 부가가치의 추가획득과 시장조건의 변화에 대처하는데 유리하다. 일부 과일류와 채소류의 경우에는 냉동냉장 저장고나 씨에이(CA) 저장고[3] 같이 투자소요가 많은데 산지 농협 등이 이를 지원하는 방법이나 여러 농가가 공동으로 투자 운영하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어떤 경

3) 씨에이(CA)저장고는 저장고 내의 온도를 냉각하는 동시에 산소량을 감소시키고 탄산가스량을 증가시켜서 물품의 호흡작용을 억제하여 장시간 보존을 가능케 하는 저장고이다.

우이든 품질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저장방법을 선택하여야 할 것이다.

가공은 과잉생산으로 인한 재고처리의 방법으로 농장단위에서 가공한 후에 저장하는 방법이 있고, 최근에는 도축처리나 양조 등의 가공을 전문용역업체에 위탁 이용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선진국들과 같이 우리 나라에서도 이러한 농촌지역의 농산물 가공산업을 하루 빨리 지원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3) 시장정보의 이용과 판매촉진

시장정보에는 농작물의 작황정보로부터 소비자의 수요, 가격동향, 수출입동향 등이 모두 포함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 생산물에 대한 시장조사 결과도 중요하게 취급된다. 이러한 시장정보는 정확성과 신속성을 생명으로 하는 것으로 전화, 팩시밀리, 컴퓨터 등의 최신 통신수단이 동원되고 있다. 최대의 수익을 올리려는 농업경영인은 반드시 이러한 시장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오늘날 소비자의 관심을 끌고 수요를 창출하여 수취가격과 부가가치를 높이려는 판매촉진에 관한 노력을 농업경영인들이 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개별농가가 하기 어렵다면 농협 등의 농업생산자단체를 통해서 적극적인 판촉활동을 하는 등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홍보하고, 선전하고, 광고하는 노력을 끊임없이 계속한다면 반드시 그 대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6. 투자분석과 자금관리

1) 투자분석

농업경영에서 투자는 대체로 두 가지 형태로 이루어진다. 첫째는 연도 중에 사용되는 영농자재, 즉 사료, 종자, 비료 농약, 연료 등의 원료와 재료구입에 지출되는 형태이며, 둘째는 토지, 농기계 전물, 종축 등의 고정자본에 투자하는 형태이다. 두 가지 형태의 투자는 각각의 지출과 수익의 성격이 다르므로 투자분석에 있어서도 각기 다른 방법을 사용하게 된다.

영농자재의 경우는 지출과 수익이 같은 경영연도 중에 일어나며, 고정자본의 경우는 지출은 일시적으로 일어나지만 수익과 감가상각은 그 후에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발생하는 것이다.

• **고정자본**이란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서 생산활동에 사용되는 재화를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설비 · 장치 · 기계 등이 이에 해당된다. 고정자본은, 1회의 생산 과정에서 그 사용가치적 기능이, 모두 소진되는 것이 아니고, 몇 차례 또는 몇 십 차례의 생산과정에서 고정적 기능을 한 다음 그 내구성에 한계가 미칠 때 비로소 기능을 잃게 되는 자본이다.

투자분석 계산을 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소들은 자금의 동원가능성, 인플레요인, 위험요인 등이 있다. 아무리 투자분석의 계산 결과가 유리하더라도 매년 자금의 수급이 여의치 않으면 투자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다음으로는 할인율을 설정할 때 반드시 인플레 요인을 감안해야 한다. 인플레 요인을 감안하지 않을 때에는 투자수익의 명목가치만 고려됨으로써 실질가치보다 훨씬 과대평가될 위험이 있어서 투자결정에 잘못을 가져오기 쉽다. 또한 투자의 장래가 불확실하고 위험성이 클 경우에는 위험부담률을 가정하여 이를 합산한 할인율을 기준으로 투자분석을 하는 것이 좋다.

2) 자금관리

자금관리는 자금을 어떤 방법으로, 얼마만큼 조달해서, 어디에, 어느 만큼 배분해서 사용하는 가를 관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자금운영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고, 자기자금이 충분하지 못할 경우에 타인자본을 이용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게 된다.

자금운영계획은 조달부분과 운용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조달부분에는 자기자본의 현금화 계획과 타인자금의 차입, 또는 신용으로 대체하는 부분, 경영연도 중의 현금수익과 타인으로부터 상환받는 자금 등이 모두 포함된다. 운용부분에는 경영연도 중에 현금으로 지출되는 경영비와 가계비를 구분하여 계산하고, 차입금 등의 원리금 상환에 소요되는 지출을 포함한다.

가장 기본적인 사항은 운영자금의 규모를 얼마로 할 것인가 결정하는 것이다. 즉 자금의 운영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조달가능한 자금의 범위를 현실적으로 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조달가능한 자금에는 현금과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유동자산이 포함되며, 당해연도에 예상되는 현금수익과 재고농산물 등 유동자본과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 등 고정자본의 처분액도 포함할 수 있다.

농업경영에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주의해야 할 점은 농업의 수익률이 낮고 자본회전기간이 장기이므로 조기상환이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자율이 상대적으로 높거나 상환기간이 짧은 경우에는 농업경영에 오히려 경영에 압박을 주는 부담요인이 되기 쉽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상환기간이 길수록 농업경영자에게는 유리하지만, 지나치게 장기인 경우에는 상환능력이 있을 때에 상환하지 못하고 이를 다른 용도에 써버리는 위험이 있을 수 있다. 상환방법으로는 일시상환과 분할상환이 있다. 분할상환에 있어서는 대체로 균등분할 상환방법이 많이 채택되고 있고, 차입금의 이자율은 대체로 단기자금일수록 높고, 중장기자금일수록 낮은 것이 일반적이다.

농업경영의 불리한 조건을 감안하여 앞서 설명한 영농자금 등 여러 가지 종

류의 정책자금이 중장기 저리로 제공되고 있는데, 이러한 정책자금의 융자를 받기 위해서는 농업경영인이 사업계획을 치밀하게 수립하여 지원대상자 선정시 유리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7. 위험관리

경영관리, 특히 농업경영관리에 있어서 의사결정의 결과는 대부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뒤에 나타나는데, 그 동안 발생하는 변화는 많으며, 아무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발생하며, 여기에 정부의 개입과 투기적 요인까지 가세할 경우 더욱 불확실성이 커지게 되는 것이다. 모든 농업경영에는 위험과 불확실성의 요소가 있으며 농업경영인들은 이러한 위험과 불확실성의 존재를 인식하고, 그 위에서 가장 정확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여야 한다. 또한 상황변화에 기민하게 대처해서 새롭고 정확한 정보에 입각하여 의사결정을 수정·보완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1) 위험과 불확실성의 원인

현실의 농업경영에 있어서 대부분이 불확실성과 위험이 함께 존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불확실성 속에서 의사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위험요인이 많다. 위험과 불확실성의 원인에는 생산의 불확실성, 유통의 불확실성 및 자금의 불확실성이다.

첫째, 농업생산의 불확실성은 공산품과 달리 농작물이나 축산물은 수확량이나 생산량을 수확기나 판매시기 이전에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다는데 기인한다. 농업생산은 자연의 영향을 많이 받으므로, 예상하지 못한 강우, 온도, 풍해, 설해, 태풍 등의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는 농업생산에 큰 영향을 미치는 위험과 불확실성의 하나이다. 아울러 병충해 등의 발생 또한 예측할 수 없는 것으로 위험과 불확실성의 요인으로 작용한다. 또 다른 불확실성은 농업경영에서 비용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고 새로운 기술의 도입할 때에는 언제나 위험과 불확실성이 따르게 된다.

둘째, 농산물 가격의 불확실성은 개별 농업경영인이 직접 영향을 미치기가 극히 어려우며, 대개 시장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농업생산자단체나 정부의 개입 이외에는 그 가격을 예측하기가 불가능한 것이다. 가격이 불확실한 이유는 생산량이 예측불가능하기 때문이며, 생산량이 예측불가능한 이유로는 기술면·수요면·수출입면 등에서 정확한 예측이 어렵기 때문이다.

셋째, 자금의 불확실성 중 하나는 차입금 상환능력에 관한 문제이다. 자기자본에 대한 부채의 비율이 지나치게 높거나 농업경영에 의한 현금수익이 줄어들어서 차입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자기자본을 잠식하게 되고, 결국은 도산하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생산, 가격, 지금의 불확실성들은 농업경영에 있어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연관되어 있고, 함께 농업경영의 의사결정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인 것이다.

2) 불확실성을 줄이는 방법

농업경영에 있어 위험과 불확실성을 줄이려는 것은 첫째로 시간에 따른 소득의 변화를 줄여서 가계비 지출, 부채상환, 사업계획 등을 위한 정확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다. 둘째로는 가계비 지출과 경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최소한의 수익은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는 위험과 불확실성의 최소화가 농업경영의 존립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생산의 위험과 불확실성을 줄이는 방법으로는 생산의 다양화 또는 복합경영, 안정경영, 일반보험, 농업재해보험 등이 있다. 유통과정의 위험을 줄이는 방법으로 판매의 분산, 계약 판매, 농협의 농산물 판매 등의 정책적 개입, 선물시장 이용 등이다. 자금의 위험과 불확실성의 요인을 줄이기 위해서는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최소한의 상환 소요액 이상으로 확보해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이며, 미리 상환에 소요되는 금액을 기한 내에 적립해 두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비상시에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대비해 두는 방법이 있고, 특수금융상품에 가입하는 등의 방법이 있다.

Ⅳ. 우리 농촌·농업의 당면과제와 농업경영인의 대응방안

1. 농업·농촌의 당면과제

공업화를 위주로 한 산업화과정에서 불균형성장으로 인하여 우리 나라 농업은 상당히 빠른 속도로 구조조정이 이루어져 왔다. 전체 국민경제에서 농업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는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제조업과 서비스업부문은 선진국의 수준에 혹은 그 이상 발전되고 있으나, 농업부문의 경우는 전통 농업형태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농산물 시장개방 등으로 더욱 열악한 실정에 직면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노동력과 토지의 농업부문으로부터 비농업부문으로의 이동이 가속화되고, 산업간 구조의 전환이 빠르게 이루어져 농업부문은 축소되고 있다. 이러한 공업화와 도시화에 의한 농촌인구의 탈농 및 이농현상은 농가인구의 절대적 감소와 함께 농업인력의 노령화, 농업인력의 여성화, 농업인력의 사기저하, 영농후계자 확보 곤란 등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또한 UR협상 및 WTO차기협상에 의한 농업의 세계화와 개방화는 가속될 것이며, 신자유주의 무역의 원리에 따라 저렴한 외국농산물의 수입이 증대되어 국내산 농산물가격은 하락하고 이에 따라 국내농산물의 자급도가 감소될 전망이다.

• **우루과이 라운드(UR)협상**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의 제 8차 다자간 무역협상을 말한다. UR협상은 상품그룹협상과 서비스협상을 양축으로 하여 15개의 의제로 구성된다. 비관세장벽의 제거를 축으로한 UR협상에서는 국내 농업에 대한 보조를 허용대상보조와 감축대상보조로 나누어 금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농업의 가격경쟁력이 불리해지고 농업보조금조차도 기대할 수 없게 되어, 농업경쟁력은 더욱 하락할 수밖에 없다.

• **세계무역기구(WTO)**는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체제를 대신하여 세계무역질서를 세우고 UR협정의 이행을 감시하는 국제기구이다. 2004년에 있을 WTO 차기협상은 농업의 예외없는 관세화와 보조금 지급 문제 등을 둘러싸고 전개될 예정이다.

따라서, 향후 우리 농업·농촌의 입지는 여전히 불리한 환경에 처할 것이다. 그러나 농업·농촌은 그 본질적인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는 정책적 대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고, 농업은 부가가치와 고용창출을 위한 국가의 기간산업으로서, 국토환경을 보전하는 환경산업으로서, 그리고 국민이 필요로 하는 식품을 생산하는 식품산업으로서 다원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농업인력, 특히 여성농업인의 전문경영자화는 우리 농업의 당면과제인 것이다.

2. 여성농업경영인의 대응방안

1) 우리 현실의 인식

일반기업의 경영전문가들은 기업이 살아 남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생산성 증대, 기술혁신, 경영혁신 등과 같은 기업 내부의 혁신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있다. 근래에 들어 우리는 "기업이 변해야 산다"는 말이 많은데, 많은 기업인들은 이러한 주장에 공감하여, 생존을 위하여 경영방식을 개선하고자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농업경영인의 경우에는, 현재 종사하고 있는 농사의 장래성이나 성장성 등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걱정하면서도 농업경영의 변화에 대해서는 의외로 민감하지 못하거나 애써 무시하려는 태도를 보이는데, 이는 농업현장에서도 얼마든지 목격되고 있으며 오히려 그 정도가 제조업보다 더 심하다는 것을 농업경영인들 스스로 느낄 것이다.

2) 유통부문의 중요성 인식

해마다 생기는 소·돼지 파동 등의 발생은 농산물의 특성상 생산의 조절이 쉽지 않고 생산에서 판매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시간 차이가 존재하며, 조절 불가능하며 불확실한 기상의 변화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이제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농업인들은 과학영농을 위주로 하는 생산활동 뿐만 아니라 농산물 유통의 과학화, 체계화 및 정보화에도 지대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여기에는 농업경영인의 노력과 함께 정부와 생산자단체의 하부구조의 구축 등에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그리하여 농촌의 생산자들과 도시의 소비자를 사이에 직거래 등 효율적인 제도를 활성화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이익을 얻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우리 여성농업경영인들도 새로운 제도들이 주어지기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이루어낸다는 자세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특히 대량으로 출하되는 농산물들을 공동저장·공동출하·공동계산 등을 통하여 가격통제력을 키워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각 생산자 단체들과 함께 농업경영인들은 정보의 획

득과 함에 유용한 정보들을 농촌에 확대·보급시키는데 자기역할을 다 하여야 할 것이다.

3) 정보에 대한 새로운 인식

이제 우리 사회는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정보의 시대이다. 우리 주위에는 수많은 정보가 매일 같이 쏟아져 나오고 있으며, 정보가 없이는 단 하루라도 생활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보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더욱 커져만 가고 있다. 정보를 통한 경영은 농업분야에서도 도입·발전되고 있다. 산업사회의 고도화와 함께 각종 통신매체의 획기적인 발전으로 이제 정보는 단순히 "알아두면 좋은 것"이라는 차원을 넘어 기업의 장래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농업경영자로서 농업을 경영하는 최고책임자로서 여성농업인은 정보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인식해야 할 것이며, 정보화 농업경영의 주체로서 노력해야 할 것이다.

4) 농산물 수요의 특성 인식

경제가 성장하여 국민소득이 증가할 때 농산물에 대한 수요는 소득증가분에 비해 훨씬 낮은 비율로 증가한다. 이것은 대부분의 농산물은 필수품으로 일반가계에서 필요 이상으로 늘려야 할 동기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반대로 공산품에 대한 수요는 소득증가율보다 훨씬 높은 비율로 소비가 증가한다.

현재와 같이 소비자들의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국민소득이 감소하는 시기에 가장 유망한 업종은 소득이 감소하더라도 소비가 별로 줄지 않는 품목, 즉 생필품을 취급하는 업종일 것이다. 농산물들 대부분 생필품에 속한다는 점에서 농축산물이 유망업종이 될 수도 있으며 농촌의 소득이 도시의 소득을 앞지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할 수도 있다.

그렇다고 모든 농축산물들이 유망업종인 것은 아니다. 특히 곡물, 채소류, 축

산물의 성공여부는 출하량 조절에 달려 있으며, 축산업의 경우 환율인상에 따른 사료값 인상으로 생산원가 상승문제에 슬기롭게 대처하지 못한다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전문농업경영인으로서 여성농업인들은 내수시장 확충과 해외시장 판로 개척 등 여러 가지로 농산물의 특성을 이해하고 그에 대하여 적극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이 될 것이다.

5) 농가 소비의 담당자로서의 여성농업인

농가에서 여성농업인들은 가족원의 가사활동의 전담자이며 동시에 농업노동에 참여하는 농업경영인 등 두 가지의 역할에 종사하게 됨으로써 그 중요성이 가중되고 있다. 여성농업인이 논농사를 비롯하여 중요한 농사일을 하는 것은 물론, 소비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사는 일, 농협에 예금을 한다든지 부녀회 활동을 하는 등 점점 다양한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특히, 현대사회에서 소비생활을 둘러싸고 있는 시장환경이 복잡해지고 다양해짐에 따라 가계의 주된 의사결정을 담당하고 있는 여성의 소비선택에 대한 결정 및 이에 따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있어서 소비생활 관련 상담이나 소비자교육에 대한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물질적인 풍요가 급속하게 발달하는 오늘날 가족내부의 소비환경 계속적으로 변화되어 왔다. 이러한 변화와 함께 가족구성원들의 다양한 소비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경제적 요인이나 자원의 배분 등에 대한 결정 또한 중요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여성농업인이 가족구성원의 복지를 증진하고, 가족의 경제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사용하여 할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다.

Ⅴ. 맺음말

21세기는 세계화와 함께 국가간 경계의 퇴색, 과학기술의 발달, 정보화 사회의 도래, 경제발전에 따른 소비패턴의 변화, 물질적 풍요 속에서 생활환경의 향상 및 삶의 질을 중시하는 새로운 가치관의 확대 등 많은 사회·경제적 구조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 이와 함께 우리의 농업과 농촌 역시 새로운 역할과 기능의 모색이 필요하게 되었다.

농업과 농촌은 그의 다원적 기능 즉, 안정된 식량을 공급하는 기능, 공업화와 도시화에 의한 국토환경의 황폐화를 방지하는 기능, 국토의 균형적 발전 기능, 전통문화 보전 기능, 국민의 휴식공간 제공기능, 도시과밀화에 의한 사회적 비용 억제기능 등 비교역적 공공기능을 제공하는 주요 산업·지역으로서 그 위상을 높여 나가도록 그 발전 방향을 구축하게 되었다. 우리의 농업·농촌이 국제사회에서 경쟁력있게 유지·발전하기 위해서는, 이제 농업을 생산, 가공, 유통, 무역, 과학기술과 경영이 연계되는 하나의 산업으로 인식하고 발전시키는 개방된 산업으로서 이끌어 가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변화 속에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농촌의 여성농업인의 역할은 사회·경제·정치적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다. 농업생산에 대한 여성농업인의 참여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변화되는 농업환경은 농업생산활동에서 부각되고 있는 여성농업인의 위상과 지위를 보장하고, 창조적인 경영의사가 반영되도록 하여야만 우리 농촌사회의 발전과 농업생산성이 향상될 것이다. 즉 향후 농업·농촌이 필요로 하는 만큼 여성농업인의 사회적인 역할증대와 전문농업경영인으로서의 위상정립이 되어야만 우리 농업현실이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고 농업·농촌을 발전시킬 수 있는 인적 자산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21세기의 여성농업인은 전문농업경영인으로서 사회적인 역할증대와 위상정립에 따라 농업의 생산량 증대, 경쟁력 강화, 기술개발 및 기계화,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는 등 우리 농업과 농촌이 당면하고 있는 과제를 해결하고 농

업을 육성·발전시키는데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참 고 문 헌

김재홍, 「농업경영학신론」, 1995.

권택진, 「농업경영분석과 계획」, 경북대학교 농업개발대학원최고농업경영자과정 제1학기 강의교재 - 농업경제와 정책, 1997.

농림부,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1999.

박성자, 「한국의 여성농업인 정책」, 국가전문행정연수원 농업연수부, 2000.

심영근, 이상무, 「(최신)농업경영학개론」, 1993.

임덕호, 「경제환경의 변화와 농업경영인의 대응」, 2000, 순천대학교 영농교육원 『제8기 최고농업경영자과정 공통』.

정기환, 「농가 여성의 노동력 구조와 경제활동 실태」, 1997.

N. Kanazawa, 농업경영학 강의, 1999.

J. Penson, O. Capps, C. P. Rosson, Introduction to Agricultural Economics, 1997.

농업여건의 변화와 새로운 접근

유 병 규
대구경북개발연구원

Ⅰ. 면면히 이어져온 우리 농업
1. 구석기와 신석기시대 농업
2. 청동기와 철기시대 농업
3. 삼국시대 농업
4. 고려시대 농업
5. 조선시대 농업
6. 일제시대 농업

Ⅱ. 오늘날의 농업 현실
1. 오늘날의 농업위기
2. 최근의 우리 농정

Ⅲ. 농업의 역할과 다기능성
1. 농업의 다기능성
2. 논의 다기능성 평가
3. 다기능성을 둘러싼 각국의 갈등

Ⅳ. 농업의 변화와 전개내용
1. 국내외 농업환경의 변화
2. 디지털 혁명의 전개
3. 디지털 농업의 전개
4. 미래 농업의 대안, 벤처농업의 전개

Ⅴ. 미래산업으로서의 환경농업

농업여건의 변화와 새로운 접근

Ⅰ. 면면히 이어져온 우리 농업

1. 구석기와 신석기시대 농업

약 70만 년 전 돌을 사용하던 석기시대는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로 나뉜다.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 산 속의 동굴에 살면서, 산에 있는 열매를 따먹거나 돌을 날카롭게 자르고 갈아서 가지고 다니면서 지나가는 동물을 잡아먹었다. 이 시대에는 인류가 최초로 도구를 만들기 시작하였다. 충청남도 공주군 석장리, 함경북도 웅기군 굴포리 등지에서 이 시대에 사용되었던 유물들이 발견되어 우리나라에서도 구석기인들이 살았다고 할 수 있다.

신석기시대는 약 1만년 전쯤 시작되었는데, 이 당시 사람들은 산에서 내려와 강이나 바닷가에 살면서 사냥을 했다. 구석기인들과 달리 신석기인들은 먹을 것을 찾기 위해 사냥을 해야 했다. 신석기인들은 들에서 조, 피 등을 채집하여 먹고, 흙으로 그릇을 만들어 사용하였는데, 이 그릇은 모래땅에서도 잘 설 수 있도록 끝이 뾰족한 모양이었다.

이 시대 사람들은 채집해서 먹던 열매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싹이 트고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발견은 우리 인간의 문화발전에 엄청난 계기가 되었으며, 이때부터 원시농업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우리 나라

에서 농업이 등장한 것은 기원전 5~4000년경인 신석기 초기의 일이었으며, 그나마 전국적이기보다 일부 지역에 국한된 현상이었다.

이때 사람들은 사냥을 해온 동물이나 새를 집에서 기르기 시작했다. 집에서 기르는 동물이라는 뜻에서 가축이라고 불렀으며, 가축은 온순하고, 무엇이나 잘 먹고, 번식력이 강하고, 사람에게 이용가치가 높은 것을 골랐다. 가축을 기르기 위해 풀을 찾아 떠돌아다니기 시작했고, 이동생활을 하다가 잠시 머무는 곳에서 농사를 지었다. 농사가 끝나고 더 이상 가축이 먹을 풀이 없으면 다른 곳으로 이동하였다.

우리 나라에 살았던 신석기인들은 조, 피, 수수, 기장 등을 재배하고 가축을 기르며 정착했다. 이때에는 잘 다듬어진 돌을 사용하였고, 그림을 넣어서 만든 '빗살무늬토기'를 사용하였다. 한반도에서 조사된 초기 농경단계의 대표적인 유적은 황해도 봉산군 지탑리 유적이다. 이곳에서는 당시의 주민들이 농경에 사용한 돌보습·돌괭이·돌낫·돌도끼와 함께 피 또는 조로 보이는 탄화곡물이 발견되었다.

이 시대 사람들은 돌도끼를 사용하여 숲 속의 나무를 베고, 불태워 경작지를 마련하였고, 재가 완전히 식기 전에 돌보습과 돌따비를 가지고 파종구멍을 파거나 고랑을 만들어 씨를 뿌렸으며, 작물이 자라서 익으면 돌낫으로 이삭을 따서 수확하였다. 숲을 태우면 재가 두텁게 쌓이기 때문에 땅을 깊이 갈거나 별도의 거름을 주지 않아도 좋았다. 한 번 개간한 땅은 3년 정도 경작하면 척박해지므로 다시 새로운 숲을 개간하였다.

이러한 화전식 농법은 원시단계의 농경방식으로 생산력이 아주 낮아 대부분 채집과 사냥활동을 겸하였다. 한반도에서 살던 기원전 3000년 이래의 신석기시대 주민들은 이같은 농경방식을 널리 채택하여 조 등의 잡곡을 재배하여 식량으로 삼았다. 그리고 신석기시대부터 시작된 우리 벼농사는 중국 산동반도 이북의 북중국으로부터 도입되어 서해안을 따라 점차 남쪽으로 전파된 것으로 보

인다. 또한 단립형(Japonica type) 벼품종의 발견분포로 보아, 이 초기의 벼농사는 일본에까지 전파된 것으로 보인다.

2. 청동기와 철기시대 농업

음식도구, 수확도구, 사냥도구 등 생활용품으로 돌을 주로 사용하던 시기가 지나고 기원전 약 1000년전쯤부터는 중국에서 청동을 사용하는 문화가 들어왔다. 이 시기는 본격적인 농경생산체계가 확립된 시기로 작물의 종류도 급증하여 보리·콩·팥·조·수수·기장·벼 등 각종 곡물들이 두루 재배되었다. 그리고 한 번 경작했던 땅의 지력이 원상 회복될 때까지 장기간 버려 두지 않고 5~10 년 간격으로 반복 이용함으로써 휴경기간을 크게 줄였다.

이 시기에 널리 사용된 나무 농기구로는 따비와 괭이·삽이 주종을 이루었고 재배작물과 토양 상태에 따라 날 모양과 자루의 각도가 달랐다. 자갈이 많거나 단단한 토양에서는 자루가 곧은 코끼리이빨 모양의 날을 가진 따비를 이용하였고, 무른 땅에서는 자루가 곡선으로 휘거나 날 끝이 둥근 것을 사용하였다. 괭이 역시 밭농사용과 논농사용으로 구분되며, 땅을 파는 것과 흙을 고르는 것 등 작업용도에 따라 다양한 모양을 가지고 있었다.

기원전 약 400년이 되자 중국 쪽에서 철기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들어오고, 우리나라 낙동강 하구에선 철이 생산되었다. 철제 농기구를 쓰자 농업은 더욱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이 철기시대에는 철로 만든 무기로 힘이 강한 부족이 약한 부족을 공격해서 커다란 부족을 이루는 부족국가의 탄생을 가져오기도 하였다. 이때부터 우리나라에서는 벼, 기장, 피, 보리, 콩 등의 오곡을 본격적으로 생산하기 시작하였다. 물을 가두는 저수지를 만들고 농업에 가축을 이용한 것도 이때라고 할 수 있다.

3. 삼국시대 농업

부족국가가 발달하자 임금을 중심으로 고대국가가 생겨났다. 한반도에는 고구려, 백제, 신라라는 세 국가가 탄생했다. 고구려는 서기 200년경 북쪽 산악지방에 생겨났는데, 고구려 시대에는 원예 및 식량 작물을 재배했고 짐승으로 쟁기를 끌었다는 기록이 있으며, 이들 부족민들이 사용한 철제 괭이와 쟁기로 보이는 철제 농기구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철제 농기구의 보급과 우경의 실시는 기후와 토양 성분에 따라 땅을 가는 깊이와 시기를 효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하고 김매는 횟수를 늘려 지력 회복기간을 더욱 단축하였다. 그 결과 삼국시대에는 1~2년 간격으로 묵혀서 농사짓는 휴한농법이 확립되었다. 그리고 효율적인 농기구의 보급은 고랑과 이랑의 형태에 변화를 주고 수리시설 축조와 밭의 개간작업을 가속화시켜 총생산량을 크게 늘였다. 삼국은 각각 자연환경의 특성에 따라 재배작물의 유형이 조금씩 달랐다. 고구려는 기장, 조 등 밭작물을 주로 재배하였고, 조를 세금으로 징수하였다.

백제는 한강 근처를 중심으로 넓은 평야를 가지고 있어 농사 짓기가 유리한 땅을 가지고 있었다. 이 시대부터 벼를 주작물로 재배하기 시작하였으며, 농사를 제일로 하는 농본국가의 틀을 갖추기 시작하였다. 백제는 삼국 중 논농사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벼가 세금을 내는 곡물이 되었다.

농사에서 가장 중요한 물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 수리시설을 확충했고, 600년경 신라에선 소를 이용하여 농사를 짓기도 하였다. 신라에서는 귀족·관리의 녹봉과 군량미·상금 등을 벼와 조로 지급하여 이를 국가 재정의 기본 곡물로 삼았다. 그리고 삼국시대에는 보리·밀 등 맥류 재배면적이 크게 늘어나 일반 주민들의 식량해결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4. 고려시대 농업

918년 왕건이 고려를 세운 이래, 이때부터 땅은 재산으로서 세금을 내는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매우 중요시되기 시작하였다. 더 많은 세금을 거두고 농업생

산을 늘리기 위해 국가에서는 농기구를 만들고, 종자를 나누어 주고, 논밭을 갈 소를 빌려주기도 했다. 한편 인구가 계속 늘어나자 농사 지을 땅을 넓히기 위해 개간사업을 펼치기도 하였다. 이 시대부터 많은 식량을 확보하기 위해 산기슭에 계단 모양으로 된 논을 개간하기 시작하였다.

이 시대부터 더 많은 수확물을 거두기 위해 휴한법을 극복하고 연작상경(連作常耕 : 땅을 묵히지 않고 매년 경작하는 것)을 추구해 나가기 시작하였다. 고려왕조는 농지를 묵혀 경작하는 것을 가능한 한 줄이고 상경화를 촉진하기 위해 적극적인 유도정책을 전개하였다.

고려후기에는 인구 증가, 중국의 선진적인 농법의 도입, 농경지 개간이 산지로부터 저지로 이동하는 등 그간의 노력이 축적되어 고려말 14세기에 이르면 1년 1작이 일반화되었다. 그리고 계속 농사를 지은 땅의 수확량이 적어지자, 땅을 깊이 파서 그 깊은 곳에 있는 영양이 풍부한 흙과 겉에 있는 흙을 바꾸어 주는 심경법(深耕法)이 이용되기 시작하였다. 이처럼 고려시대에는 벼농사가 상당히 보급되었고, 쌀을 저장하는 의창도 생겼다.

• **의창**이란 농민 구제를 위하여 각 지방에 설치한 창고제도를 말하는 것으로 중국 수(隋)나라에서 유래한 것이다. 원래 고려 태조가 흑창(黑倉)이라 하여 춘궁기에 농민에게 곡식을 대여하고 추수 후에 이를 회수하는 진대법(賑貸法)을 마련하였는데, 986년(성종 5)에 흑창의 진대곡을 1만 석 더 보충하여 이를 의창이라 칭하였다고 한다.

이전에는 소, 돼지 등을 주로 길렀는데, 교통수단으로 중요해진 말도 본격적으로 기르기 시작하였다. 우리의 의생활을 바꾼 목화재배도 시작되었다. 문익점이 원나라에서 목화씨를 가져왔고 정천익이라는 사람이 재배에 성공했다는 것

은 너무나도 유명한 사실이다. 이때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은 겨울에 따뜻한 옷을 입게 되었다.

5. 조선시대 농업

고려가 망하고 1392년 건국한 조선은 농업을 나라의 근본으로 삼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땅의 넓이를 측정하고 중국에서 들어온 여러 가지 농업관련 기술서적을 번역해서 출판하기도 하였다. 우량(雨量)을 측정하는 측우기 등 과학적인 기계와 여러 가지 책들 덕택에 농업은 더욱더 발전하였다. 또한 종자가 개량되어 맛이 좋아지고 수확량이 많아졌다.

농사짓는 방법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조선 전기에는 시비법, 파종개량법, 이앙법 등이 실시되었다. 시비법은 작물을 재배할 때 더 잘 자랄 수 있도록 양분을 공급해 주는 방법으로, 지금처럼 비료가 없어 인분(人糞)이나 축분(畜糞)을 이용하였다.

파종개량법은 씨를 뿌릴 때 작물에 따라 다르게 뿌리는 것으로, 볍씨는 그냥 흙 위에 조파하고, 콩의 경우는 한 곳에 한알씩 점파하여 더많은 수확을 얻었다. 그리고 볍씨를 모판에 한꺼번에 뿌려 어느 정도 키운 다음 어린 싹을 옮겨 심는 이앙법(모내기)은 잡초제거에도 효과적이고 더 많은 수확물을 얻을 수 있었다. 이 같은 노력의 결과 조선시대 전기에는 논농사·밭농사 모두 땅을 묵히지 않고 매년 경작하는 1년 1작이 안정적으로 실시되고, 밭농사에서는 일부 2년 3작(2년에 세 번 수확)이 가능할 정도로 농업기술이 크게 향상되었다.

이같이 조선전기 농업은 이러한 다양한 작물들을 중심으로 발달한 기술체계를 갖추고 있었으며, 넓은 토지를 비교적 적은 인구가 경작하는 조방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한편, 벼농사에서는 벼의 직파연작기술이 세계 최초로 완성된 기술체계로 확립되었다. 이 시대의 벼농사는 주로 볍씨를 물이 있는 논과 마른 논에 직파하는 직파법(水耕, 乾耕)이 중심이었으며, 조선초에는 이앙법을 봄

가뭄 때문에 삼남지방을 제외하고 금지하기도 하였다.

조선후기에는 더 많은 변화가 생겼다. 밭농사에서 2년 3작 또는 1년 2작이 이루어지고, 벼농사에서 이앙법이 일반화되게 되었다. 이앙법이 크게 확산되면서 벼농사가 널리 보급되었으며, 논의 작부체계도 크게 변하였다. 또한 임진왜란으로 황폐화된 국토를 개간하는 과정에서 지주제가 주요한 경제제도로 정착하였다.

18세기에 이르면 이앙법은 천수답에까지 확대되었을 뿐 아니라, 토지생산성에 주목하는 집약농업이 벼농사와 밭농사에 각각 정착하였다. 또한, 종래의 전통적인 벼농사법인 직파법과 마른 논에 벼를 재배하는 특수한 벼농사 기술인 건경(乾耕)법도 크게 발전하였다. 농경지가 넓어지면서 소의 중요성이 커졌고, 국가의 지배력이 강해지면서 서울에서 먼 시골까지 관리해야 했으므로 말도 아주 중요한 수단이 되었다. 이러한 이유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되는 가축을 더 많이 기르기도 하였다.

농기구가 크게 개량되고, 임진왜란(1592년) 이후에는 고구마, 감자, 고추 등이 들어왔다. 보릿고개를 넘기기 위한 구황작물인 고구마는 일본에서, 그리고 감자는 청나라에서 들어왔다. 특히 밭농사에서도 많은 발전이 이루어졌는데, 비료를 주는 방법이 개선되고 2년3작식 농법이 개발되었으며, 상업작물인 호박, 고추, 담배, 감자, 인삼, 과실 등의 재배가 활발해졌다. 이러한 농업기술의 발전과 생산력증대는 상공업 발전에도 큰 영향을 미쳐 조선후기 사회가 근대사회로 이행하는 밑거름이 되었다.

6. 일제시대 농업

우리나라를 강제로 점령한 일본은 부족한 식량을 우리나라에서 보충하기 위하여 '미곡증산운동' 계획을 세우고 수리시설 확충, 품종 개량을 하여 생산된 쌀을 일본으로 가져가는 등 강제수탈을 행하였다. 1906년에 일제의 조선통감부는 경기도 수원에 농촌진흥청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권업모범장을 설립했다.

이때부터 농업에 화학비료와 농약이 쓰였고 일본산 제초기, 탈곡기 등 농기계가 들어왔다. 그리고 여러 종류의 과일이 들어와 재배되기도 하였다.

Ⅱ. 오늘날의 농업 현실

1. 오늘날의 농업위기

앞에서 살펴본 대로, 우리나라 농업은 대략 7천년에 걸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전통적으로 농업은 한국의 경제발전과 사회변동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을 뿐 아니라, 생활과 문화에까지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다. 그 단적인 예로 쌀은 마치 화폐에 버금가는 기능을 담당하기도 했지만, 초가지붕으로 상징되듯 결코 우리 생활과 분리될 수 없는 민족문화의 양식을 이루기도 하였다. 이처럼 우리 환경의 산물인 우리 농업은 근대화란 미명으로 들어온 화학농법과는 근본적으로 달랐다. '신토불이'란 말로 대변되듯 전통농업은 국민들의 생존을 위해 식량과 건강, 그리고 깨끗한 환경을 지켜온 매우 안전하고 절실한 산업이다.

1960년대 이후 근대화의 과실은 불균등성장론을 신봉한 개발정책 때문에 결코 농민들에게 돌아가지 않았다. 공업화 과정에서 농민들은 새로운 희생양이 되었으며, 점차 농업 사양화의 수순을 밟게 되었다. 그리고 급격한 경영규모 확대나 기계화가 없었다는 사실에만 집착한 개발론자들은 비교우위론에 근거한 '농업개방론'을 주창해 나갔다.

개방론은 다시 우리 농산물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소농대신 전업농을 육성하고 경영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는 '구조조정 정책'으로 재생산되었다. 그렇지만, 우리 농업의 근본을 망각한 구시대적인 정책들은 지금껏 우리 농업과 경제를 뒷받침해온 소농들을 농업과 농촌에서 밀어내기도 하였다.

오늘날 농업위기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초래한 '쌀시장 개방'으로 상징되

고 있다. 이 같은 농업위기는 이른바 우리 농업이 지켜온 역사적 환경적 특질을 무시한 채, 풍토가 다른 서양농업을 무조건 모방해 들이려는 데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농업문제는 흔히 생각되듯 농민만의 문제로 귀결되지 않는다. 농업포기는 결국 국토환경과 국민건강, 그리고 민족문화의 포기로 연결된다. 이러한 농업희생의 파장은 미래의 생존조건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2. 최근의 우리 농정

지난 90년대 이후 정부에서는 우르과이라운드(UR)협상 타결과 세계무역기구(WTO)체제 출범에 따른 개방화에 대응하여 42조원의 조기 투융자 계획을 수립하고 15조원에 달하는 농특세를 신설하는 등 농촌투자를 대폭 확대하여 경쟁력 제고시책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시책에 힘입어 경지정리 등 농업생산기반 정비와 유통시설의 확충 등 농촌 인프라 확충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으나, 사전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단기간 내에 집중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일부 사업의 경우 과도한 보조지원으로 과잉수요를 유발하여 경제적 효율성을 저해하였고 농어촌발전심의회의 형식적인 사업심의와 일부 나누어먹기식 사업자 선정 등으로 부적격자가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거나 사후관리 소홀 등으로 사업이 부실화되는 경우도 많았다. 일부 영농조합법인들은 보조지원만을 바라고 급조되어 경영부실 및 자원낭비를 초래하였다.

또한 규모확대, 첨단시설 설치 등에 치중한 결과 해외자본과 기술에 과다하게 의존하게 되어 외환위기로 시작된 IMF(국제통화기금) 관리체제 하에서는 또 한 번의 농업위기를 맞게 되었다. 특히 해외 수입사료와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축산농가 및 시설원예 농가들의 경영수지가 급격히 악화되었다.

• **IMF 관리체제**란 외환위기를 맞이하여 IMF의 구제금융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IMF가 요구하였던 엄격한 재정긴축과 가혹한 구조개혁을 지칭하는 말이다. 특히 이용어는 한국경제의 재정관리를 IMF가 행하게 되었음을 우회적으로 일컫는 말이다.

과도한 시설투자 등으로 농가부채가 증가하게 되었으며, IMF 사태 이후 고금리 현상, 농산물 소비감소, 가격하락 등에 따른 농가소득 감소로 부채상환능력이 저하되어 농가부채가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기술·경영능력이 취약한 농가·법인 경영체의 도산으로 막대한 투자를 한 시설이 무용지물화되는 경우도 발생하여 농업외부로부터 농촌투자의 비효율성에 대한 문제가 크게 제기되기도 하였다.

한편, 규모화된 첨단시설을 이용하는 기업경영체 등에 지원이 집중되어 우리 농업의 대다수를 이루는 중소농이 상대적으로 정책지원에서 소외되는 현상이 발생하여 '기업농 위주의 정책' 또는 '엘리트 위주의 농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농산물유통의 경우 외형적인 유통시설은 확충되었으나 유통단계와 유통마진을 축소할 수 있는 운영시스템이 구축되지 못하여 생산자·소비자 모두의 불만을 초래하고 있다. 농산물 직거래 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였으며 산지·가공 등의 분야에서 생산자단체의 기능과 역할이 취약하였다. 또한 공영도매시장의 경우 운영의 불합리성 등 고비용 구조로 인해 유통마진을 절감하는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주곡의 자급을 표방하였으나 자급기반인 농지의 이용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매년 농지면적이 급격히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하였고 숙박시설·음식점 등이 난립하는 국토의 난개발 현상도 초래되었다. 아울러, 농정추진 과정에서 농업인과 소비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지 못하여 국민적 합의형성에 실패하였

고, 정부와 농업인 단체의 갈등으로 개방화에의 효율적 대응을 위한 역량결집이 미흡하였다.

최근에는 세계무역기구(WTO) 재협상, 한·칠레간 자유무역협정(FTA), 구제역과 광우병, 새만금사업, 농가부채 문제 등이 농업이슈로 등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농가부채문제 해결, 친환경농업 육성, 농림분야의 호우피해 복구에 대한 지원확대, 신지식농업인 발굴, 농업·농촌부문의 정보화추진 등 다각적인 정책들을 시행해 나가고 있으나, 가시적 성과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Ⅲ. 농업의 역할과 다기능성

1. 농업의 다기능성

농업은 국가경제의 근본을 이루는 중요한 산업으로서 우리나라 국민에게는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이라는 어귀에서 알 수 있듯이 절대적인 존재가치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지난 50여년간 산업화과정에서 농업은 사양산업으로, 농촌은 낙후된 공간으로 인식되어 농업의 가치를 새삼 돌아보게 하고 있다. 농업은 우리의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는 중요한 산업이다. 농업은 이러한 생산적 내용 외에도 우리의 물질적, 정신적 생활이랄 수 있는 여가, 휴식, 안정, 환경 등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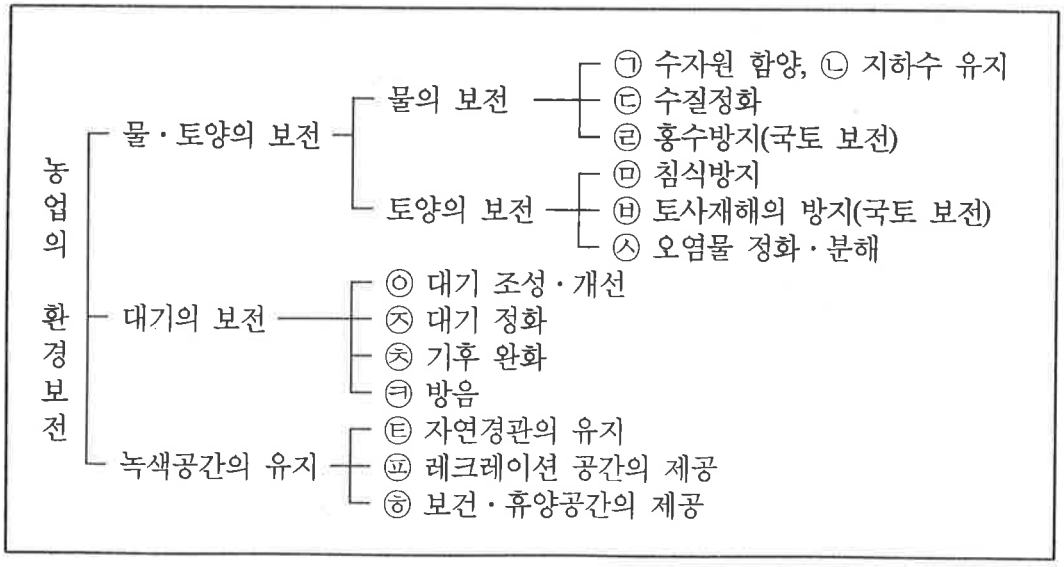
세계적으로 보아도 경제발전을 일찍 달성하여 소위 선진국 대열에 들어 있는 나라치고(일본을 예외로 하고) 농업문제 특히, 식량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나라는 없다. 영국이 그렇고 미국이 그러하듯이 이러한 나라들은 필요 이상의 생산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식량문제 해결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나라는 소위 선진국을 열심히 따라 잡으려는 후발 개도국 내지 그

이하 수준의 나라들이며, 이 문제에 관한 한 우리나라 또한 예외는 아니다.

우리나라는 농업이 열위산업이라는 인식 하에 자유무역의 경제질서 속에서 공산품 수출을 위해 농업을 개방해야 한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준비가 덜된 상태에서 농산물 수입개방의 절차를 밟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일방적으로 국내가격과 국제가격간의 차이에 의해 전개되는 개방화의 물결 속에서 가격경쟁력이 약한 국내 농산물은 국내시장에서 수입농산물에게 잠식당하고 밀려나는 운명을 맞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농업은 농업생산만의 경제적 가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격으로 환산되지 않는 경제적 가치로 평가될 수 없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 가치로 평가될 수 없는 부분을 '농업의 다기능성((multi-functionality)'이라고 한다. 농업의 다기능성 문제는 '경제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지금까지 사양산업으로만 취급되어온 농업을 살아남게 하기 위한 하나의 대응논리로서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을 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농업의 다기능성' 문제는 매우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된다.

〈표 1〉 농업의 환경보전 기능



특히 농업의 가치는 식량생산과 고용기회의 제공이라는 생산적 기능 외에도 다양한 여러 가지 기능들을 갖고 있다. 특히 환경보전, 경관유지, 농촌의 쾌적성, 국토보전, 생물보전, 지역인구 유지, 전통문화 보존, 농촌경제에의 기여도 등이 포함된다. <표 1>은 농업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기능 중에서 환경보전 기능만을 정리한 것이다.

2. 논의 다기능성 평가

최근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농업은 오히려 농업의 생산적 가치보다는 환경보전 기능을 중시하는 공익적 가치가 더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중 농지는 홍수조절, 토양자원 보호, 토사유출 방지, 지하수 함양 등 수자원 보전과 산소공급 및 대기자원 보전 등 자연생태계 보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논이 담당하고 있는 가장 큰 역할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홍수조절 기능에 대해 살펴보자.

아시아 몬순기후대에 속하는 한국의 경우 강우량의 약 60 퍼센트가 여름철에 집중된다. 만약 논이 없어 논둑에 담기는 물이 낙동강, 한강, 금강으로 그대로 방류된다면 홍수피해는 엄청나게 늘어나게 된다. 전국 논면적에 담기는 물의 양은 우리나라의 6개 다목적댐에 담기는 홍수 유효조절량의 1.5배 크기에 해당한다. 논의 벼농사가 포기되고 나면 논둑 관리도 포기되므로 논의 홍수조절기능도 약화된다. 논의 담수기능에 대신하여 이 물을 가두어서 최소한 현재 정도의 홍수 피해로 그치게 하려고 한다면 대략 국내 최대규모인 충주호 정도 크기의 댐을 전국 곳곳에 4개나 추가로 건설해야 하며 이 댐의 건설을 위한 건설비의 이자와 관리비만 해도 1조 2천억원(1991년 가격)에 이른다.

논의 지하수 함양기능은 기존 저수지의 3~4배 크기에 해당한다. 또 논농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벼농사의 경우 그 생산과정에서 화석연료의 사용으로 인해 배출되는 총탄산가스 양의 12 퍼센트를 탄소동화작용을 통해서 제거해줌으로써

대기정화의 기능도 무보수로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벼농사는 토양의 유실과 침식을 방지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논은 수평으로 되어 있고 논둑이 있기 때문에 홍수에 의한 표토의 유실을 막아주고 있을 뿐 아니라 놀랍게도 연작피해가 없기 때문에 토양의 악화를 방지해 준다.

최근 농촌진흥청 및 산림청 등 관련기관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논은 1헥터당 2,700톤의 물을 담아둘 수 있고, 또한 벼 생육기간(137일) 중에 1헥터당 11,713톤의 물을 지하로 흡수할 수 있어 논·밭·산림중 가장 뛰어난 홍수조절기능을 가지고 있다. 밭은 1헥터당 791톤의 물을 일시 저장할 수 있고, 작물재배기간 중에는 1헥터당 846톤의 물을 지하로 흡수할 수 있다. 또한, 산림의 경우 일반 나대지에 비하여 1헥터당 약 2,000톤의 지하수 함양능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998년말 현재 우리나라의 총 농지 1,910천헥터와 산림 6,441천헥터가 수행하는 홍수조절기능은 얼마나 될까? 우리나라 농지와 산림 홍수조절기능은 연간 총 약 308억톤(논 167억톤, 밭 12억톤, 산림 129억톤)으로, 이 수치는 소양댐 유효저수량(19억톤)의 16.2배, 춘천댐 저수량(1.5억톤)의 205배에 이르며, 우리나라 평균연간강수량 1,267억톤의 약24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어, 농지와 산림의 보전과 홍수예방이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시사한다.

우리나라에 1년 중 내리는 총 강우량은 약 1,267억톤으로 추정되며, 이중 약 45 퍼센트인 567억톤은 증발되고, 약 55 퍼센트인 700억톤이 하천 등으로 유출되는데, 유출되는 강우량이 농지와 산림 등 자연의 홍수조절능력 및 다목적댐·하천 등 치수시설의 한계를 벗어날 경우 홍수가 발생할 수 있다.

3. 다기능성을 둘러싼 각국의 갈등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농업은 식량생산과 같은 기본적인 기능 외에 환경보전이라든가 경관유지와 같은 외부경제적인 공익적 기능 등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농업의 다기능성 문제는 최근 세계무역기구(WTO) 뉴라운드의 농산물협상에서의 주요의제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국가별로 농업여건과 농업정책, 그리고 세계무역기구(WTO) 농산물협상 대응전략 등이 다르기 때문에 이 개념에 포함되는 범위도 제각기 다르다.

호주, 뉴질랜드, 미국 등 농산물수출국은 자국의 농산물을 보다 많이 팔기 위해 수입국들의 농업보호에 기초를 둔 농업만의 다기능성 논리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들 국가들은 예컨대, 산림의 경우에도 공기정화, 수자원함양, 홍수방지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듯이, 모든 산업 부문은 한 가지 이상의 기능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독 농업만의 다기능성을 인정해야 할 특별한 이유나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농산물 수출국들은 다기능성이 농업에 대한 지원 감축과 무역자유화를 방해하는 논리로 사용되어서는 안되며, 현행 협정으로도 이 기능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위의 농산물 수출국과는 달리, 유럽연합(EU)은 유럽연합(EU) 대로 자국의 논리에 따라 다기능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프랑스와 오스트리아 등 유럽연합(EU) 국가들은 환경보전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직접지불정책을 유지시키기 위해 농업의 다기능성을 주장하고 있다.

노르웨이나 일본은 식량안보와 국토보전을 강조하는 입장에서 농업의 다기능성을 주장하고 있다. 즉 유럽연합(EU)은 미국과 같은 식량수출국의 논리에 대응하면서, 식량의 과다생산을 억제하기 위해 비료, 농약 등의 농업투입을 줄이고 가축의 밀집사육을 막는 등 환경보전형 농업을 추구하면서 농가소득은 직접지불제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우리 나라는 식량자급을 유지하기 위해 주곡의 자급을 이룩해야 하는 식량안보적 입장이 중요시되고 주곡생산의 적정규모 유지가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농업의 다기능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와 같은 식량수입국들은 농업

이 식량공급 이외에 환경보전, 식량안보 등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현행 협정에서는 이러한 점이 충분히 고려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이 식량수출국과 수입국 간의 첨예한 논리적 대립이 전개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농업의 다기능성은 지형, 기후, 인구밀도, 농업생산방식 등에 따라 국가별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 관련하여서는 어느 정도 국제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전개될 뉴라운드 농업협상에서 상대국들이 어떻게 이를 수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보아야 할 대목이다.

그러나 농업의 다기능성을 외부적으로 주장하면서도 우리나라 내부적으로 보면, 농업의 다기능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본요소인 농지가 해마다 여의도의 100배인 3만헥터 정도가 사라지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렇게 농지가 계속 사라지는 이유는 도시확장과 각종 개발사업을 위해 농지를 전용하기 때문이다.

Ⅳ. 농업의 변화와 전개내용

1. 국내외 농업환경의 변화

지난 세기, 농업산업은 산업화의 급속한 물결 속에서 침체를 거듭해 왔다. 그럼에도 농업은 우리 인류에게 먹거리 산업으로서 그 중요성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다. 최근, 유전공학의 발달로 수퍼식량의 등장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지만, 이것 역시 농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증명하는 일에 불과하다. 인간의 물질적 생활이 아무리 편안해 진다고 해도 하루 3끼의 밥을 먹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점과 관련하여 농업은 단순히 1차산업의 차원을 넘고 있다. 농업은 식량안보산업이자, 환경산업이자 우리 민족의 삶을 지켜주는 민족산업이

다. 일각에서는 농업의 이런 다기능성을 강조하여 생명산업으로 부르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우리 농업을 둘러싼 환경은 급변하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 뉴라운드 협상이 다가오고 있다. 뉴라운드는 지난 우루과이라운드에서 약속받은 개도국 지위를 어렵게 할 것이어서 세계 각국의 시장개방 압력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에 의한 중국산 농수산물의 무차별적 수입도 이어질 것이다. 최근 칠레와 논의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FTA)은 비단, 칠레와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개별국과의 쌍무협정으로 이어지게 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 농업은 더 이상 국내시장에서 버텨내기 어려울지 모른다.

한편 우리 농업의 모습을 국내시장을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소비자 지향의 시장구조가 정착되면서 농산물에 대한 각종 생산, 판매, 출하정보가 소비자에게 공개된다. 국내외 농산물의 출하량 증대로 공급량이 증대와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고품질농산물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인터넷 이용의 증대는 기존의 농산물 유통에 새로운 혁신을 가져오면서 기업대 소비자(B2C) 혹은 기업대 기업(B2B) 형태의 농산물 전자상거래가 활기를 띠고 있다.

- **기업대 기업 전자상거래(B2B)**란 상품 및 용역의 거래주체인 기업과 기업이 전자상거래를 하는 것이다. 이는 기업이 기업을 대상으로 각종 물품을 판매하는 방식을 말한다.

- **기업대 소비자 전자상거래(B2C)**란 상품 및 용역의 거래주체가 기업과 소비자인 전자상거래를 하는 것이다. 이 역시 기업이 최종소비자들을 대상으로 각종 물품을 판매하는 방식을 말한다.

또한 농업기술의 발달 측면에서 농업의 미래는 변화의 폭을 더할 것이다. 농업기술의 디지털화는 기존의 아날로그 시스템에 의한 기술 및 재배방법들을 혁신할 것이다. 생산과정에서 여러 가지 기술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고, 단일품목의 전문화도 이어질 것이다.

이러한 농업환경의 변화와 가능한 농업의 모습들은 21세기 농업을 준비하는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를 주고 있다. 농업은 이제 새로운 내용을 요구하고 있다. 20세기의 농업생산요소가 토지, 노동, 자본의 세 가지였다면 21세기는 지식정보가 추가된다. 생산과정도 땅과 환경(대기)를 떠나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유기적 생산에서 토양을 비롯한 각종 환경제약조건을 벗어버린 공장형 디지털 농업의 모습을 띠게 될 것이다. 유통의 형태도 생산자 중심의 유통에서 이제는 소비자 중심, 사이버공간[1]상에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대면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직거래시장이 중심을 띠게 될 것이다.

2. 디지털 혁명의 전개

인류사 3번째 혁명인 디지털 혁명이 본격화되고 있다. 신석기 시대의 농업혁명에 이어, 17~18세기에 산업혁명이 이어졌다. 20세기 후반 컴퓨터, 반도체, 통신 등의 새로운 기술적 기반을 토대로 90년대 인터넷이 도입되면서 디지털 혁명은 급진전되었다. 농업혁명은 5,000년이 소요되었으나, 디지털 혁명은 30년만에 전세계로 확산되었다. 새로운 기계가 첫 도입된 후 이용자수가 5천명이 되는데 걸린 시간은 라디오가 38년, 텔레비전이 13년이었는데 반해, 인터넷은 단 5년만에 전세계에 확산되었다.

---

1) 사이버공간이란 정보화시대에 들어 생겨난 말로서 컴퓨터망을 이용하여 데이터베이스화되어 있는 물적, 인적 자원 등을 교환되는 장소를 말한다. 이는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이용자들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만날 수 있는 가상의 장소를 의미한다.

이처럼 놀랄만한 디지털 혁명의 실체는 의외로 소박하다. 첫째, 아날로그[2]에서 디지털[3]로 대체를 말한다. 둘째, 오프라인[4](Off-Line)에서 온라인[5](On-Line)으로의 대체를 말한다. 이른바 디지털 혁명은 신호·정보의 처리, 전송, 가공 및 활용 방식을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꾼 것이 출발점이었던 것이다. 다음으로 인터넷에 의한 온라인상의 가상공간 출현으로 21세기는 새로운 전망을 맞게 되었다.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초월하여 인터넷으로 24시간 활동이 가능한 가상공간이 탄생되었다.

이제 디지털화에 뒤진 국가나 기업은 선진대열에서 탈락하게 된다. 디지털 혁명에 소극적으로 대처한 일본은 지난 80년대 이후 침체의 늪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늦게 출발한 유럽은 최근 디지털 국가로 거듭나기 위해 국가 최우선전략에 디지털화를 삼고 있다.

우리나라도 디지털 혁명의 도래를 인지한 일부 기업들이 대응을 서두르고 있으나 국가 전체로서는 아직 전략도 미흡하고, 관련 기반도 취약한 실정이다. 정

---

2) 아날로그는 전압처럼 연속적으로 변화하는 물리량을 표현한다. 사람의 목소리와 같이 연속적으로 변하는 신호는 아날로그 형태이며 그 양을 계량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시침과 분침이 돌아가는 시계 즉 바늘이 돌아가는 시계를 아날로그형 시계라 할 수 있다.

3) 디지털이란 일반적으로 데이터를 한 자리씩 끊어서 0과 1의 두 가지 숫자로 표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애매모호한 점이 없고 정밀도를 높일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예를 들자면 디지털시계의 표시와 같이 시계가 바늘로써 연속적으로 시간을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시·분·초 등으로 나뉘어 단속적인 문자로 표시한다.

4) 오프라인이란 인터넷 접속이 되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자신의 컴퓨터에서는 작업을 수행할 수 있으나, 다른 컴퓨터와는 연결되지 않아 컴퓨터간의 데이터의 교류를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5) 온라인이란 컴퓨터를 통신회선을 통하여 단말입출력 장치와 연결시켜 원격지로부터 컴퓨터를 이용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실제 이용법은 각 공장·지점·사무소 등과 본사에 있는 중앙의 컴퓨터를 데이터 통신시스템으로 직결하여, 각 공장·지점·사무소에 있는 단말기로부터 발생 데이터를 전신·전화선을 통하여 직접 연결하여 처리한다.

부는 "산업화에는 늦었지만 정보화에는 앞장서자"는 모토로 초고속 통신망 조기 완성, PC보급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여전히 국민의 피부 속까지 닿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화를 위해 잘 갖추어진 인프라, PC방 열풍, 무선휴대폰의 급속한 보급율 등에서 디지털 선진국이 되기 위한 초보적 조건은 갖추었다고 생각된다.

3. 디지털 농업의 전개

1) 디지털 농업의 내용

디지털 농업이란 디지털 농업기술에 의해 영농방식 및 생산과정이 결정되고 또한 유통, 소비에 이르기까지 네트워킹[6]에 의해 일관된 체계로 이루어지는 지식정보이용형 농업을 말한다. 향후 농업의 전개방향을 포함할 경우, 환경·품질의 안전성을 포함한 과학적 지식을 총 망라한 것까지 디지털농업의 개념으로 포함되어 더욱 확대될 것이다.

디지털 혁명의 가속화에 따라 농업분야에도 디지털 정보기술(IT)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되고 있다. 이른바 농업정보의 효율적인 보급, 농업정보기술의 발전방향, 농업정책과 정보화, 정밀농업과 정보화, 농산물유통 등의 부문에서 디지털화는 필수적인 요소로 간주되고 있다. 특히 농업의 정보화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인터넷'이다. 디지털카메라와 원격조정장치 등 새롭게 등장한 첨단장비들이 농업 생산과정에서 새로운 농기계이자 필수 시스템으로 등장할 날이 그리 오래지 않을 전망이다. 단일성, 무한반복성, 조작 용이성으로 무장한 디지털 기술은 농업생산 과정을 급속하게 변화시키고 있다. 디지털 혁명은 농업

6) 네트워킹은 모든 정보를 주고받는 일이 매우 자유롭고 손쉽게 된 것을 계기로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여러 개인이 그대로 수평적으로 연관을 맺고 자주적인 조직을 만들어가는 움직임이다. 더 나아가서는 그것을 바탕으로 이제까지 연관성이 없거나 적었던 생산에서 소비까지의 단계의 참여자들이 횡적으로 이어져, 연대의 고리를 확대시켜 나가는 것을 뜻한다.

혁명, 산업혁명에 이어 또 하나의 혁명으로 이어지고 있다.

2) 디지털 농업 기술

디지털 혁명에 의해 농업기술 분야에서는 전통적이고 관행적으로 행해져 오던 경험 위주의 농업기술이 데이터베이스화가 가능해짐에 따라 많은 농업기술의 변화가 가능해졌다. 디지털농업과 관련하여 '키작은 사과원' 조성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경쟁력을 높이는 수단으로 도입되는 왜성대목의 경우, 한 농장 안에서 재배되는 각각의 대목이라 하더라도 나무의 연령, 키높이, 가로의 넓이, 영양섭취 정도, 병해충의 정도, 과실이 열리는 정도 등이 다 다를 것이다. 이러한 각각의 대목에 대해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각 나무에 대한 투입물 수준, 각 나무의 산출물 정도, 품질등급 등 이들 각 대목에 대한 정보를 수치화하고 이들 변수간의 관계를 분석하여 활용한다면, 이것이 바로 디지털농업인 것이다.

경험적으로 알 수 있는 연령과 키높이 · 과일수 등의 관계 외에도 키높이와 병해충의 관계, 유기질비료 투입과 당도와의 관계 등을 엄밀히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과정이 이루어진다면, 보다 효율적인 수확관리와 시장에 대한 대응능력을 키우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어떤 형의 나무를 심어야 하는가, 어떤 투입이 가장 적당한가 등등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외 최근에는 농업기술 분야에서 다양한 시스템들이 도입되고 있다. 예컨대 지점별 토양성질에 맞는 특수한 시비처방을 위해 위성송신신호를 감지하여 세분화된 농지 위치 감지해 주는 위치측정시스템(GPS), 지도 위 일정지점의 소유자 · 토양정보 · 수확량정보 등 각종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목적에 맞게 활용·분석되는 지리정보시스템(GIS), 콤바인 등에 위치시스템과 수확량 자동 측정센서를 부착하여 일정지점의 수량감수 원인을 분석해 내는 수확량 모니터링 맵(Map), 필지 내 각 지점의 토양 변이에 따라 비료와 농약 · 종자까지 변량 처리

하는 기술인 투입물변량처리법, 비행기나 인공위성에 탑재한 광학센서·이온센서 등을 이용하여 계절별 작물과 토양의 상태를 파악하는 원격탐사(Remote Sensing) 등이 이용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구미를 중심으로 「정밀농업(Precision farm management)」 또는 「국소적 작물 관리(Site specific crop management)」라고 하는 포장작물관리의 정밀화를 향한 기술연구가 활발해지고 있다. 여기서의 중심과제는 포장내의 면적 변이의 문제, 즉, 토양의 이화학 특성과 작물의 생육·수량에 나타나는 포장내 면적인 불균일을 어떻게 평가하고, 그리고 그것에 기준하여 어떻게 정확하게 포장·작물 관리를 하는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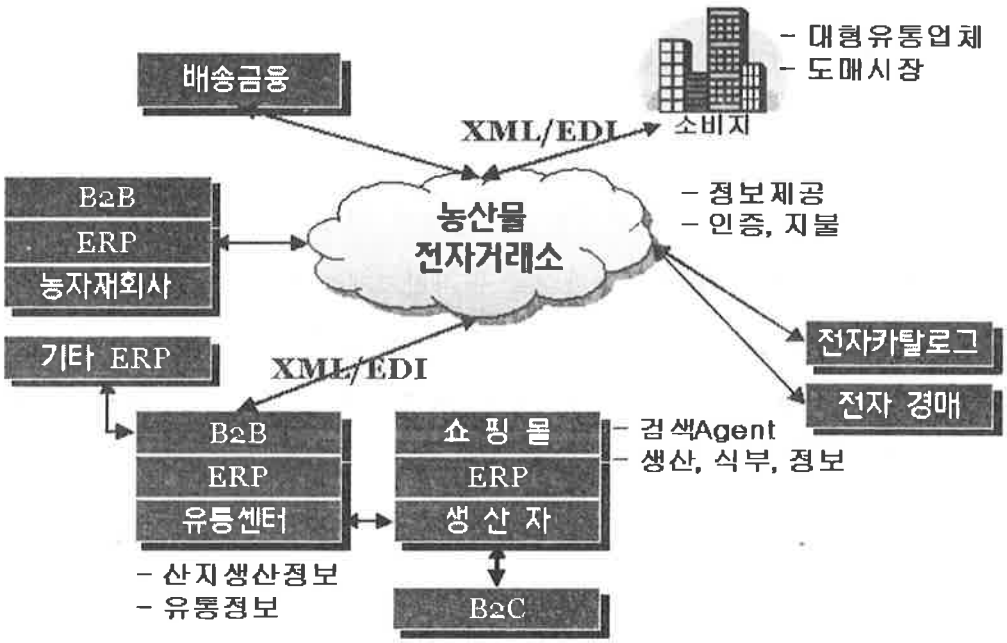
다음은 디지털화된 농업기술의 한 예이다. "로봇화된 컴퓨터시스템은 이미 젖소의 사육에도 사용되고 있다. 젖소마다 식별용 목거리를 목 주위에 채운다. 목장 인부는 컴퓨터에 젖소별 배식수와 매일 주어져야 할 사료의 양을 입력한다. 젖소가 사육장으로 들어간다. 젖소의 목에 부착된 식별 목걸이는 사육장 기계의 금속판과 접촉하여 컴퓨터로 하여금 특정의 젖소를 식별하게 한다. 컴퓨터는 젖소가 할당된 사료를 먹었는지를 확인한다. 그렇지 않았다면, 컴퓨터가 동력 스위치를 작동시켜 송곳 모양의 기계 장치를 움직이게 한다. 이 장치는 다시 젖소에게 사료를 주게 된다. …… 혈액, 우유 및 오줌의 내용물 변화 역시 자동적으로 컴퓨터에 의해 감시, 분석되어 젖소가 다음 번에 자동화된 사육장에 들어와 있는 동안 배급사료 속에 적절한 약물을 투약 처리한다."

3) 디지털 농업 유통

디지털 농업 유통이란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는 농산물 및 서비스의 흐름과 관련된 업무 프로세서를 컴퓨터를 통해 통제·관리하는 유통을 말한다. 유통분야의 네트워크 시스템을 활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전자거래시장의 전자경매시스템, 기업대 기업(B2B), 기업대 소비자(B2C)에 의한 직거래 시스템을 흔히 말

한다. 농산물 분야에서 디지털 유통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품목별 품질 등급화와 표준화, 공급체계관리(SCM) 시스템, 냉동집배송시스템(Cold Chain System) 등의 기본인프라가 필요하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인터넷을 통해 직접 만나게 되는 농산물 전자상거래는 짧은 유통단계, 시간과 공간의 벽이 사라짐, 판매거점 불필요, 고객 정보획득 용이, 효율적인 마케팅 가능, 고객 위주의 적극적인 대응, 소자본으로 사업이 가능한 점 등 제반 유리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원하는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즉시에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통비용이 대폭 절감되고, 개별 소비자에게는 소비의 만족을 최대로 증대시킬 수 있다.



〈그림 1〉 디지털유통의 체계도

〈그림 2〉 디지털 유통 통합시스템 개념도

4. 미래 농업의 대안, 벤처농업의 전개

1) 벤처농업의 내용

최근 현행 농업의 대안으로 벤처농업의 열풍이 거세게 불고 있다. 벤처농업은 아직 그 발전단계가 일천하여 한마디로 평가하기에는 어려우나 우리 주변에는 열악한 영농여건에 굴하지 않고 창의력과 기술로 승부하여 성공한 사례들이 많이 있을 뿐 아니라, 타산업 분야의 첨단경영방식을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하여 농업의 새로운 가능성에 도전하고 있는 분야이다.

벤처농업이란 '신기술 또는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고부가가치 농업을 창출하여 틈새시장을 개척해 나가는 모험적이고 도전적인 경영형태의 농업'를 말하며, 위험을 무릅쓰고 하는 농업, 새로운 아이디어로 색다른 분야에 도전하는 사업, 고도의 기술력을 가지고 장래의 성공에 도전하는 농업을 말한다.

또한 벤처농업이 주로 틈새시장을 공략대상으로 삼는 것은 두 가지 이유 때

문이다. 첫째, 농산물 시장의 만성적인 공급과잉과 가격하락의 악순환을 피해 새로운 수요를 개척하는 새로운 마케팅 전략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둘째, 관행농업에서 주로 취급하는 작목과는 품질과 상품성에서 차별화된 작목을 입식 또는 취급해야 진정한 벤처농업으로서 성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벤처농업은 높은 위험성(Risk)을 안고 있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벤처농업은 관행농업과는 달리 그 고유의 성격상 고위험·고수익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서 위험은 소위 투기(Speculation)가 아니라 미개척 영역에 대한 도전 또는 가능성에 대한 실험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이 도전과 가능성은 관행농업의 방식만으로는 극복하기 힘든 현재의 농업위기에 대한 정밀한 진단이 전제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2)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벤처농업

이제 정부보호가 아닌 시장중심의 개방경제 하로 편입된 우리농업은 두 가지 측면에서 경쟁력(Competencies)을 동시에 갖추어야 한다. 즉, 외국농산물과의 경쟁력을 확보함과 동시에 타산업부문과의 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 외국농산물과의 경쟁력 확보는 품질과 가격에서 우리 농산물이 비교우위를 획득하는 과정이라 한다면, 타산업부문과의 경쟁력은 자본과 기술력 그리고 노동력을 농업부문으로 끌어들여 농업발전의 자생력을 갖추어 나가는 동력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런데 전통적으로 농업의 경쟁력은 농지를 확대하고 단위면적당 생산성을 높여서 가격경쟁력을 제고하는 이른바 '규모의 경제(규모가 크면 비용단가가 줄어 든다는 말)' 실현에 초점을 맞춰왔다. 그러나 이런 방식은 농지를 무한정 확장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일정수준 이상 단위면적당 생산성의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 또한 생산성 향상은 장기적으로 농산물의 공급과잉에 의한 가격하락을 초래하여 농업위기를 가져올 수도 있는 것이다.

호당 경지규모가 1.3 헥타(=3,900평)에 불과한 소농경제 하에서는 농지의 외연

적인 확대에 의한 '규모의 경제' 실현은 더더욱 어렵다. 특히 현재의 농업경영 방식만을 고집하다가는 광활한 토지와 막대한 자본을 가지고 있는 미국이나 호주의 농업, 그리고 첨단 농업기술을 추구하는 선진유럽의 농업과 국제경쟁력을 갖춘다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외부의 자본 및 기술력을 끌어들여 농업발전의 자생력을 갖춘다는 것 역시 어렵다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농업이 지향해야 할 대안 중의 하나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 그리고 창의력에 기초한 기술농업 또는 지식기반농업(Knowledge based agriculture) 또는 생산보다는 수확후 과정(Post-harvest process)을 중시하는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농업에 더욱더 신경써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벤처농업은 우리 농업이 관행적 타성을 극복하고 농업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제시된 전략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3) 벤처농업의 유망분야

벤처농업의 분야는 농작물 생산뿐만 아니라 유통, 가공 및 식품산업, 육묘, 농자재 산업 등 농업관련산업을 포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이나 미국 등지에서는 이미 농업을 농업-식품 부문(Agri-food sector) 또는 애그리 비즈니스(Agri-business) 차원에서 폭넓게 이해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이렇게 본다면 벤처농업은 크게 보아 다음 세 가지 분야를 통해 발전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첫째, 차별화된 농업생산 분야에서의 벤처농업이다. 다른 농업인들이 재배하기를 꺼리는 특수한 품목에 과감히 도전하거나, 기존의 작물을 형상적으로 변화시켜 소비자의 기호를 불러일으킬 필요가 있다. 또한 작목끼리 접합하여 새로운 기능성을 가진 농작물을 만들어 내는 등 생산분야에서의 기술혁신이나 신농법의 도입도 여기에 속할 것이다.

두번째로는, 신기술 보급, 환경친화적 농업자재, 시설산업 등 농업관련산업 분야도 벤처농업의 유망한 분야이다. 토착미생물을 이용한 토양개량, 에너지 절약

형 시설하우스 보급 등의 자재 부문과 각종 가공사업분야를 통해 벤처농업의 가능성을 점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세번째로는, 농산물 유통 및 농업관련 네트워크 산업부문도 벤처농업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분야 중의 하나이다. 소비자가 상품에 접근할 수 있는 채널을 혁신하여 기존의 상품유통방식과 차별성이 있다면 충분히 경쟁력 있는 농업경영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직거래 방식도 이러한 예라 할 것이다.

4) 벤처농업의 성공사례

장생도라지(www.doraji.co.kr)는 3~4년 지나면 뿌리가 썩는 도라지 재배의 단점을 개선하여 20년근 이상의 장생도라지를 개발한 벤처기업의 대표적 사례이다. 장생도라지는 거름기 없는 땅에 심어서 2~3년마다 옮겨 심어 도라지 뿌리가 썩지 않고 오래 재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한 것이다. 이는 각고의 노력 끝에 틈새시장을 개발한 대표적인 경우에 속한다.

청매실농원(대표 홍쌍리)은 매실차, 메실엑기스, 매실환 등 10여종에 달하는 매실가공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이 농원의 가공제품의 특징은 전통적인 수공업적 가공에 의한 소량생산방식을 고집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남 해남의 정순태씨는 황칠나무에 대해 수년간에 걸친 연구개발 끝에 독자적인 수액채취기술 및 염색기법을 완성하였으며, 10만본에 이르는 황칠나무 숲 조성과 묘목공급으로 앞으로 5년 이내에 약 수억원의 연간소득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최근 그는 황칠액을 이용한 각종 염료 개발 및 황칠액의 각종 기능성을 널리 홍보하는 등 황칠액 시장성 및 대중성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강릉의 박영애씨는 각고의 노력 끝에 마늘냄새를 완전히 제거한 가공제품을 만드는데 성공하였으며, 최근 중국산 마늘의 수입으로 위기에 처해 있는 국내

마늘의 소비촉진을 위한 좋은 선례가 되고 있다.

경북 영덕의 이용우씨는 게 껍질에 인체에 유익한 필수아미노산인 타우린이 다량 함유되어 있음에 착안하여 주변에 널려있는 영덕대게의 껍질을 사료화하여 타우린 성분이 들어있는 계란을 생산하는데 성공하였다. 이 타우린 계란은 일반란보다 가격면에서 약 40 퍼센트, 소득면에서는 약 30 퍼센트 우위에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연간 매출액은 현재 약 6억원 정도이다.

경기도 의왕시 백영화씨는 주변에서 쓸모없다고 내버려둔 폐목을 이용하여 관상수 개발에 성공한 예이다. 백씨는 귤나무를 대량으로 화분재배하고(약 1천주), 희귀나무를 토막내 특수처리로 삽목하여 재생처리하고 있으며, 콩과 고추 등을 단위면적당 최고 10배까지 증대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다.

국수호박은 가닥을 이루는 호박을 적당히 익혀서 내놓으면 국수를 먹는 기분으로 호박을 먹을 수 있어서 늘 새로운 맛을 찾는 소비자들에게는 색다른 경험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전남 장성의 심환식씨는 국수호박을 가공하고 호박국수 개발에 성공하였으며, 호박국수 전문점을 개업하고, 관련 가공제품 개발에 성공하였다.

전남 장성군의 영농조합법인인 '학사농장'(대표 강용)은 유기농산물 다품목 소량생산과 엄격한 품질관리 및 독특한 판매전략을 통해 성공한 케이스이다. 전남 농대 출신 6명으로 출발한 이 농장은 쌀, 잡곡류, 근채류, 과채류 및 각종 쌈용 채소를 철저한 유기재배를 통해 시장에 내놓고 있는데,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회원제를 운영하여 택배와 리콜제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백화점 및 농협 하나로마트 등에 전용코너를 설치하여 타제품과의 차별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유기농업 전문가인 전남 화순 황용철씨는 간질환에 특효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불미나리즙 및 인진쑥즙 등을 가공하여 일본 등지로 수출해 오다가 최근에는 내수쪽으로 방향을 틀어 크게 성공하였다. 관내 농민들을 대상으로 불미나

리 작목반을 구성해 전량 계약재배로 수매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그리고 전남 곡성의 오희숙씨는 김부각 말고도 가죽나무잎, 고추, 감잎, 취나물 등 20개 원료를 이용한 부각의 상품화에 성공하였다.

Ⅴ. 미래산업으로서의 환경농업

2001년 5월 현재 영국을 비롯한 유럽연합(EU) 국가들의 상당수 지역들은 광우병과 구제역으로 인하여 바리케이트로 모든 방문객을 통제하고 있을 뿐 아니라 도살과 소각로 인해 산더미처럼 쌓인 소(牛)사체를 태우는 시꺼먼 연기가 하늘을 뒤덮고 있다고 한다. 일부 유럽연합(EU)국가에서는 1991년 이후 백신 사용을 전면 중단한 이래 조심스럽게 백신 이용을 거론하고 있지만, 진척이 되지 않고 있다. 이처럼 엄청난 손해를 보면서 백신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과학적 근거보다 백신을 사용하는 러시아,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등의 여러 국가들로부터 육류 수입을 금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례는 자연을 착취하고 집약화된 사육방식에서 벗어나 인류의 미래를 위해 장기적인 생태학적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 준다.

언젠가는 다가올 세계적인 석유자원의 고갈 때문이라도 우리는 석유화학에 기초한 대규모 기계화와 화학농법이 한계에 와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처럼 화학농법의 부작용을 극복하면서 자연 생태계를 보전하려는 환경농업이 미래농업이 될 것이라는데 거의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다.

그리고 새로운 미래의 대안으로서 지속가능한 농업(Sustainable agriculture)이란 뚜렷한 목표를 내세운 새로운 경향들은 장차 '그린 라운드'(Green round)란 이름으로 집약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연 생태계를 보존하여 인간회복을 도모하려는 이 새로운 농업철학은 생명에 위해가 되는 물질의 사용을 줄여 고품질의 안전농산물을 생산하려는 대안적 노력의 결과이다. 실제로 이 길만이 개방으로

드러나게 된 유해한 수입 농산물의 범람에 맞서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다.

선진국과 곡물메이저들에 의해 움직이는 식량문제 또한 국제곡가의 폭등이나 수입농산물의 유해성 문제 등으로 귀결될 것이기 때문에, 국민보건과 건강을 지킬 환경농업의 건설은 아무리 서둘러도 늦지 않다. 이를 위해 우선 우리 농산물과 수입 농산물간의 차별성을 부각시키는 일에서부터, 우리 환경에서 자란 고유의 토산품을 발굴하고 이를 세계적인 명산품으로 개발하는 일에 신경쓰지 않으면 안된다.

세계적인 인구증가와 기상이변이 빚을 식량위기에도 불구하고 우리 입맛에 맞는 단립종 쌀의 교역량은 생산량의 6~9 퍼센트 수준인 2백만 톤에 불과하다. 더구나 우리는 통일을 맞아 쌀 수요가 급증될 가능성에도 항상 대비해야만 한다. 아울러 안전한 먹거리와 청결한 국토환경을 위해 환경농업을 추구하며, 아울러 무임승차자인 소비자를 움직여 농업의 다기능성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창출해야만 한다. 연간 8~13조원에 달하는 논의 다기능성을 지켜내기 위해 세계무역기구(WTO)가 허용하고, 미국·유럽연합(EU)·일본이 시행하고 있는 직접지불제의 도입도 이제 필수적인 과제이다.

그러나 '고기를 먹어야 힘을 쓴다'며 김치보다 햄버거를 더 좋아하는 청소년층과 '농약을 남용하더라도 많이만 생산하면 된다'는 농사꾼이 결코 적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냉철히 직시해야만 한다. 농업은 결국 우리 환경의 산물이며 또 환경에 적합한 농업만이 미래에 살아남을 것이기 때문에, 자연 그대로의 환경을 회복하려는 노력이야말로 21세기를 헤쳐나가는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환경을 살리면서 안전농산물을 생산하려는 과정에서 디지털농업과 벤처농업은 단지 이를 실천해 나가는 데 필요한 수단일 뿐이다.

참 고 문 헌

김동광, "농업을 바꿔야 인류가 산다", 「한겨레 21」, 2001.5.30. (http//www.hani.co.kr/).

김양식, "우리나라 벤처농업의 현황과 과제", 「한국농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서」, 벤처농업 심포지엄, 2000.9.

성제훈 외, 「정밀농업을 위한 농업기계시스템」, 도서출판 서원, 2000.

성진근, "농업의 다기능성에 대한 소고", 「한국농업경제학회 동계심포지엄 발표논문집」, 1999.

유병규, "농업의 다기능성과 농지보전", 「대구경북포럼」 1999년 11·12월호, 1999.11.

유병규·이호철, "디지털농업을 통한 지역농업의 발전방향", 「제5회 농업인의날 기념 2000 지역농정심포지움」, 경상북도, 2000.11.

이현혜, "한국 농업 기술의 역사적 발전 과정", 농협박물관 자료. (http : //www.nonghyup.com/a_allnacf/14_museum/museum/9090.htm

이호철, "디지털 시대의 농산물 신유통체계 구축방안", 2001년 4월, 경상북도 21세기경북발전위원회 농어촌발전분과위원회 발표자료.

이호철, "한국농업의 기원과 발전", 「농업과 환경」, 일일사, 1995.

이호철, 『벼랑 위의 우리농업 어떻게 구할 것인가』, 한길사, 1992.

이호철 편저, 「지역농업의 심층연구」, 경북대학교출판부, 1993.

홍종운, "유기자원의 활용현황과 전망 – 한국토양비료학회 주최 유기농업을 중심으로", 환경보전형농업을 위한 토양관리 심포지엄, 충남대학교, 1993.10.

사사오 아키라, "일본형 Precision Farming을 생각한다", 일본농업기계학회 심포지움, 일본농업기계학회 심포지움 자료, 성제훈의 홈페이지(http : //www.agriculture.pe.kr/).

돈 되는 유통, 안 되는 유통

석 태 문
경상북도 정책기획팀

Ⅰ. 김정옥씨의 농사 이야기

Ⅱ. 농산물 유통이 뭐 별건가

Ⅲ. 돈 벌려면 쓰임새부터 줄이자

Ⅳ. 유통 공부, 이 정도는 기본
1. 농산물 유통, 이런 기능들이 있다
2. 농산물 유통조직, 어떤 것이 있나요

Ⅴ. 농산물 유통, 이제는 정책도 바뀐다
1. 생산자 중심에서 유통 중심으로
2. 농산물 중심에서 식품 중심으로
3. 협의의 직거래에서 광의의 직거래로
4. 차별화와 판매촉진을 위한 전략적 홍보활동 강화
5. 위험관리 유통체계 개발과 대안
6. 디지털유통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Ⅵ. 돈 되는 유통, 자기 하기 나름

돈 되는 유통, 안 되는 유통

Ⅰ. 김정옥씨의 농사 이야기

경북 의성은 한지형 육쪽마늘 농사로 전국적으로 알아주는 주산지이다. 그런 영향으로 의성에는 20년 이상을 줄기차게 마늘 농사를 하는 농가들도 적지 않다. 그만큼 마늘 재배에는 전통과 기술이 있는 고장이다. 이곳에는 남편과 단둘이서 과수원 3,000평, 마늘농사 1,000평을 하고 있는 50대 중반의 김정옥씨 부부가 있다. 마늘 후작으로는 벼농사를 한다. 인근에서 소문난 잉꼬부부이다. 항상 열심히 일하고 부지런하고 농사기술도 뛰어난 전문 농업인이다. 3남매를 둔 이들 부부는 대학 3학년생인 막내아들이 있고, 대학을 나와 서울과 대구에서 어엿한 직장생활을 하는 아들 딸이 있다. 농사는 물론이고 자식농사도 남부럽지 않게 잘 지은 행복한 중년부부인 것이다.

그런데 요즘 과수원도 그렇고, 마늘농사도 그렇고, 김정옥씨 부부의 농사일이 예전 같지 않다. 일이 힘들어서가 아니다. 사과나무는 노목이 되어 갱신을 해야 할 처지인데, 일손이 부족한 탓으로 갱신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칠레와의 자유무역지대(FTA) 협상이 '곧 타결된다 안 된다'하는 처지라 과수산업의 전망도 그렇게 좋지 않아 갱신을 망설이는 입장이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부터 시작된 중국산 마늘수입으로 마늘가격이 말썽을 부리고 있다. 그런 탓으로 요즘은 농사지을 마음이 예년의 절반 정도는 줄어든 것 같다. 아이들도 다

컸고, 나름대로 자기 일은 알아서 할 나이와 능력을 갖추었으니, 경우에 따라서는 자식들이 있는 도시로 나갈 요량도 해 본다.

그 전만 하더라도 요즘같이 마늘 수확철을 앞두고 있으면 시계처럼 정확하게 때맞추어 밭을 찾아오는 상인들로 바쁜 철이었다. 은근히 그들을 기다리는 마음에 일이 많아도 일손은 정말 가벼웠다. 상인과의 셈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직접 시장에 출하해서 제값을 받는 기분도 괜찮았다. 그러나 요즘은 밭을 찾는 상인들의 발걸음도 뚝 끊어졌다. 힘들여 시장까지 내보아도 내 손에 들어오는 돈은 예전에 비할 바가 아니다. 더구나 중국산 마늘을 수입한다는 뉴스라도 TV망을 타는 날이면 마늘가격은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는 말처럼 끝없이 곤두박질하는 것이다.

김정옥씨는 이런 생각을 해본다. 평생을 지은 농사인데 왜 이렇게 갈수록 어렵고 힘이 드는지. 혹시 자기가 농사를 잘못 지어서 그런 것인지, 아님 세월이 그래서 그런지. 이리저리 생각을 굴려보아도 자기 책임은 아닌 것 같다. 그렇다고 특별히 남의 탓도 아닌 것 같고. 생각에 생각이 꼬리를 물면서 김정옥씨는 일전에 신문에서 보았던 광고 한 컷을 떠올렸다. '1년에 1억 벌기'란 책이 생각났다. 같은 장사를 해도 돈 버는 사람이 있고, 실패하는 사람이 있다고 했다. 마찬가지가 아닐까? 농사는 내가 하는 것이지 남들이 대신하는 것이 아니다. 힘들고 어려운 지경을 당하면 우리는 '누군가에게 당했다'는 느낌부터 먼저 떠올리지는 않았는지. 한국천주교회에서 대대적으로 추진한 '내 탓이요'란 국민운동처럼 내 농사의 문제점은 바로 내 탓 때문은 아닐까란 생각으로 이어졌다.

김정옥씨의 그런 의문, 그런 생각이 바로 정답이다. 김정옥씨가 그렇게 생각했다고 해서가 아니라 농사도 장사이고, 장사도 이제 경영이다. '배추쟁이 문서'라는 표현을 쓰듯 장사도 이제는 주먹구구식이 아닌 기업처럼 과학적 경영을 해야 성공할 수 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농사를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보다 구체적인 방향으로 생각이 모아졌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농

사기술이 남보다 못한 것은 아니었다.

그렇다면 혹시 유통에 무슨 문제가 있는가? 김정옥씨는 자신의 유통관행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곰곰 생각해 보니, 수확 이후에 상인에게 판매하지 않으면 시장에 내다 파는 것이 전부였다. 내 농사를 남에게 의존해서 파는 관행이 혹시 우리집 경영의 문제는 아닐까. 생각이 여기에 이어지자, "농산물 유통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열강을 해주셨던 지난해 농업기술센터에서 있었던 모 강좌가 생각났다. 그래 이제는 유통이야. 젊고 잘 생긴 그 강사는 이렇게 말했지. "유통을 해야 합니다. 열심히 농사를 지어놓고 '무통'을 하니, 어떻게 돈이 돌고, 피가 통하겠습니까? 농사도 이제는 유통입니다" 그 강사 말이 맞는 것 같았다. 유통이 살 길이 맞아. 그런데 유통이 뭐야?

Ⅱ. 농산물 유통이 뭐 별건가

지금 생각하니, 그 강사의 말이 참말로 맞는 말이었다. '농산물 유통'이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선 겁부터 먹고, 다가서기를 꺼려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했지. 김정옥씨는 푸근한 마음으로 지난해 젊은 강사가 자세히 설명해준 내용을 떠올렸다. 농산물 유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유통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이라고 했다. 예를 들면 농업인은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고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가장 높은 값으로 판매하는데 관심을 가진다. 유통활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중간이익(유통수익)에 가장 큰 관심이 있고, 소비자들은 좋은 품질의 농산물을 어떻게 가장 싼값으로 살 수 있는가에 관심을 가지기 마련이다.

세 명의 종사자 중에서 최고의 위치는 소비자가 가진다고 했다. 소비자는 여러 농산물 중에서 자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농산물을 돈을 주고 선택적으로 구매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유통활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입장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그 입장을 조정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라고 했다. 이런 생각이 미치자 김정옥씨는 유통을 함부로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손쉬운 상대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왕 공부하기로 마음먹었으니 계속 도전해 보기로 했다. 김정옥씨는 조만간 있을 마늘 판로를 앞두고 지난해 들은 젊은 강사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음미해 보았다.

농산물 유통을 자꾸 어렵게 생각하게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대로 설명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농산물 유통을 가르치는 분들 중 아무도 농촌 현실을 제대로 몰랐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되네요. 지금까지 어떻게 말한 줄 아세요. '농산물 유통이란 생산자가 농산물을 판매하는 시점에서부터 소비자가 그것을 구입할 때까지의 모든 활동을 말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그쳤죠. 이게 다예요. 매우 간단하죠. 다 안 것 같지만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농산물 유통을 이야기해 보라고 하면 아는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실제로 농촌 현장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농산물 유통의 사례들을 가지고 설명을 해주어야 이해를 할 수 있고 또 실전에서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는 너무 막연하잖아요. 여러분도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죠. 이론과 현실간에 얼마나 큰 괴리가 있는지를 제대로 알아야 농산물 유통이 뭔지, 왜 필요한지 알 수 있을 것 아니겠어요.

하지만 여기 계신 분들이 전부 다 농사를 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특히 의성은 마늘의 고장이니, 대부분 마늘농사를 하실 것이고 가만, 이 반의 대표가 김정옥씨 맞죠? 마늘농사를 하시니까, 김정옥씨의 마늘 판매 사례를 가지고 농산물 유통이 도대체 뭔지를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어때요. 김정옥씨 저와 한번 같이 하실 자신 있으시죠? 김정옥씨는 목구멍으로 소리가 도로 기어 들어갈 정도의 작은 소리로 겨우 "네"하고 대답했다. 잘 생긴 젊은 남자가 자기를 지목하자 얼굴까지 조금 달아올랐던 탓도 있었고.

작년 늦은 가을에 마늘 파종을 하였으니, 이제 다들 수확을 얼마 남겨두지 않았잖아요. 지금 김정옥씨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안 그래도 수확을 앞둔 철이라 남편과 여러 가지로 이야기해 보았어요. 남편은 밭떼기로 팔아버리자고 했지만, 요즘 어디 찾아오는 상인이 있어야죠. 시장에 내다 팔려고 해도 시세가 맞지 않는 것 같고 이 문제로 남편과 약간의 실랑이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내가 이겼죠. 결론은 아직은 좀 기다려 보자는

거였어요. 작목반장의 말도 한번 들어보고, 단위조합의 판매과장에게도 문의해 보고, 또 정부정책은 어떤지 알아보고 결정하기로 했어요."

맞는 말씀입니다. 김정옥씨의 말씀을 들어보면 아무래도 올해 마늘 작황이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중국산 마늘 수입이란 또 다른 요인도 게재되어 있는 것 같군요. 이처럼 마늘을 심은 농가는 산지수집상인에게 팔 것인지, 아니면 정부수매에 응할 것인지, 최근 의성에 결성된 직거래사업단에 넘길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해 심사숙고하지 않을 수 없겠죠. 마찬가지로 의성의 마늘을 두고 이렇게 고심하는 사람들이 어디 한 둘 만이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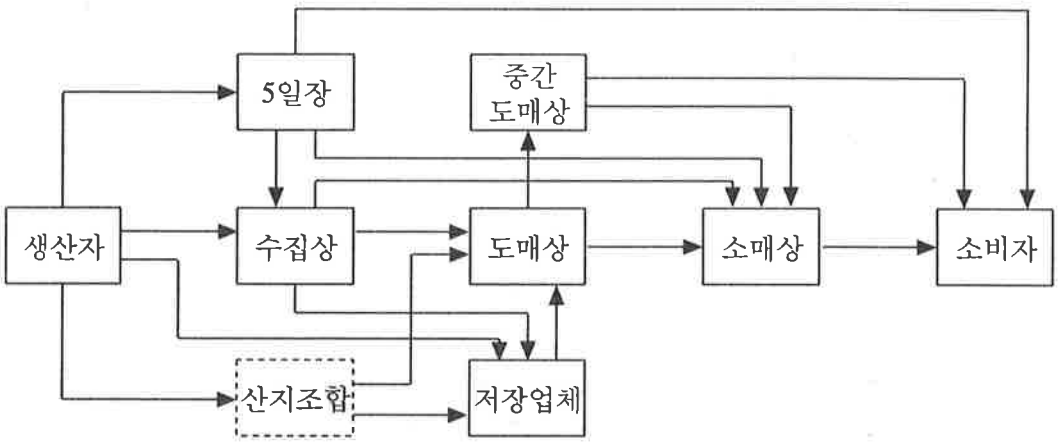
당장 상인들은 지금 밭떼기로 사들이는 것이 나을지, 좀더 기다렸다가 수집할 것인지 결정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하느라 바쁘겠죠. 중국산 마늘수입을 내년까지 연장한다는 소문을 들은 상인들은 아무래도 조기 수매는 포기할 것 같은 분위기죠. 단위조합의 판매과장님은 김정옥씨가 문의해 오면 어떻게 답변을 해야할지를 두고 고민이겠죠. 과연 금년에는 마늘 판매사업을 어떻게 해야 좋을지, 농가에는 어떤 조언을 해주어야 할지. 이런 저런 생각을 하니 판매과장은 머리에 쥐가 나기 시작하고, 요즘은 머리 빠지는 속도도 점점 더한 것 같다고 걱정이 태산입니다.

하지만 사정이 이렇게 돌아가면 정부에서도 손을 놓고 있을 수만 없지 않겠습니까? 먼저 시·군 단위별로 있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전 농산물검사소)에서는 금년산 마늘에 적용할 검사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검토하게 되겠지요. 군청과 읍·면사무소에서는 정부수매에 대비하여 농가별 재배면적과 수확예상량을 조사하고, 농가별 수매 할당량을 결정하기 위해 행정력을 동원하겠지요. 본격적인 수매가 시작되면 농가는 농가대로 지정장소까지 마늘을 운반해야 되겠지요. 경운기가 있는 농가는 경운기로, 수송수단이 없는 농가는 이웃농가에 수고비를 치르고 운반을 부탁하겠지요.

언론에서는 또 어떨까요? 텔레비전은 물론이고, 라디오, 신문에서도 전국 네트웍을 통해 마늘에 대한 생산동향, 가격동향, 농촌 여론, 정부의 시책, 상인동향 등을 생생하게 알려주고,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겠지요. 특히 신문의 주부란에 보면 마늘 소비 촉진 차원에서 전문가의 힘을 빌어 마늘의 효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기도 합니다. 마늘이 강장제라나 뭐라나. 이뿐이 아닙니다. 마늘 수확을 앞두면 마늘 가공회사에서도 원료확보 시기를 두고 의견이 분분할 것이고, 수출업체에서는 수출업체대로 물량확보를 위해, 그리고 포장업체에서도 마늘출하 보관용기를 얼마나 만들어야할지 셈하는데 시간을 들이겠지요. 물론 공급량이 남아돌 정도로 과잉생산 기미가 보이므로 소비자 가격이 싸질 것은

분명하므로 소비자는 이러한 현실에서는 상대적으로 느긋해지겠지요.

이처럼 마늘재배농가에서부터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정부와 농협은 물론, 마늘수집상, 도매시장, 소매상과 중간유통업자, 가공업자, 수출업체, 창고보관업체, 포장업체, 수송업체 등 마늘과 관련 있는 모든 관련업체, 기관에서 분주히 움직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을 바로 우리는 농산물 유통이라고 합니다. 설명을 듣고 보니 어떻습니까? 정말 별거 아니죠. 하지만 이게 말이 별거 아니지, 실제로 그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정말 엄청난 거예요. 유통활동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고, 또 유통활동이 없으면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이 어떻게 소비자의 식탁에 바로 공급될 것인가 생각하면 농산물 유통활동이란 게 정말 대단히 중요한 '생산과정'이란 것을 알게 되겠지요.



〈그림 1〉 한지형 마늘 유통경로(의성→서울)

<자료> : 농수산물유통공사, 주요농산물유통실태, 2000.12.

그런데 젊은 강사의 마지막 강의 중에 '생산과정'이란 말을 김정옥씨는 영 이해하지 못할 것 같다. 농산물은 우리 농업인들이 생산하지 않는가. 유통종사자들이 어떻게 농산물을 생산한다는 말인지 통 이해가 되지 않았다.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모모가 번다'는 말이 있다. 안 그래도 뼈빠지게 일해도 제대로 제값을 받지 못하고 있는 농업인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픈데, 유통종사자들이 우리 농업인과 똑같은 생산자의 반열에 든다는 생각을 하니 마땅찮은 것이었다. 이런 생각이 미치자, 농산물을 직접 생산하는 농업인들이 좀 손해보는 듯한 기

분도 들었다.

김정옥씨의 기분은 충분히 이해가 된다. 하지만 농산물 유통은 분명 농업인의 생산과정 못지 않게 중요한 생산과정이다. 예를 들어보자. 요즘 지리산 토종 흑돼지가 유행하고 있다. 지리산 자락에서 농가들이 기른 토종 흑돼지를 수매하여 지리산 토종 흑돼지란 상표를 붙여 전국의 직판장에서 판매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에 있는 주부가 사갈 수 있는 토종 흑돼지는 지리산 자락의 농업인들이 생산한 것은 아니다. 서울의 직판장에 진열되어 있는 지리산 토종 흑돼지가 되기 위해서는 농업인의 생산과정을 벗어나 소비자에게 전달되기 위한 또 다른 생산과정을 필요로 한다. 더 많은 일들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이른바 산지수집상이 필요하고, 트럭 운수업자는 도축장으로 운반해 주어야 하고, 공판장(도매시장)에서 소매상으로 판매되는 일련의 과정을 거쳐야만 소비자에게 지리산 토종 흑돼지의 맛이 전달될 수 있다.

김정옥씨는 이제야 농산물 유통과정이 왜 생산과정에 당당히 들어갈 수 있는지 알았다. 자신의 마늘을 생산하는 과정이 순수한 생산과정이라면 유통종사자의 손을 거쳐 소비자의 손에 들어가는 모든 과정은 바로 유통활동이면서 또 하나의 생산과정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생산이 결국 부가가치를 창조하는 과정이라면 유통활동에서도 또 다른 부가가치가 창조된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Ⅲ. 돈 벌려면 쓰임새부터 줄이자

김정옥씨는 이제 조금 농산물 유통에 대해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았다. 유통활동도 생산과정이고 유통도 잘만하면 돈이 된다는 말을 이해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젊은 강사의 강의 중에는 이런 이야기도 있었다. "농산물 유통이란 수집, 포장, 운반, 통신, 검사, 세금, 광고, 가격구성, 생산계획, 시장분석 등

일체를 포함한 전 활동을 의미합니다. 상품화가 진전된 선진국의 경우 유통비용은 생산비에 못지 않게 크므로 유통비용(marketing cost)을 절감하는 것이 생산비 절감 못지 않게 중요한 과제입니다." 유통활동도 생산활동이기 때문에 비용이 소모된다. 그러니 농산물 유통활동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유통활동에 소모되는 각종 경비를 줄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루 세 끼 우리 식탁에 올라오는 농산물은 전국에 흩어져 있는 138만 농가에서 생산한 것을 모으고 운반하여 가능해진 일이다. 어떤 농가들은 경영규모가 커서 한 가지 농산물을 생산하지만 대부분의 농가에서는 소량의 농산물을 다량으로 재배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른바 복합영농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농업인들이 생산하는 농산물은 대부분 부패하기 쉽고, 품질이 매우 다양하다. 더구나 생산도 계절적으로 한 시기에 집중되어 있다. 농산물이 한꺼번에 출하되는 성수기에는 가격이 떨어지고 단경기에는 가격이 올라가기 일쑤이다. 또한 소비자에서 떨어진 곳에서 대부분의 농산물이 생산되기 때문에 수송에도 적지 않은 돈이 든다. 필요한 경우에는 저온처리도 해야하고, 수송되었다 해도 다 소비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저장도 해야하고, 아예 판매하기 전 시세를 보아 농가차원에서 농가가 자체 보유한 저온저장고에 보관하기도 한다.

이러한 모든 일들이 농산물 유통이고 유통활동에 의해 바로 유통비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농산물 유통은 앞서 살펴 보았듯이 복잡한 과정이었다. 참여하는 사람도 많고 매개되는 시설도 엄청났고, 그 시설유지를 위한 비용 또한 만만찮게 들었다. 당연히 유통비용도 많이 드는 것이다. 미국의 예를 보면 소비자가 농산물을 구매하기 위하여 지불한 총 금액 중에서 32 퍼센트만이 농업인에 돌아간다고 한다. 나머지 68 퍼센트가 가공업체, 도·소매상 등 유통종사자에게 돌아간다. 소위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말이 사실임을 알 수 있다.

이 말을 들은 김정옥씨는 속이 상했다. 내가 피땀 흘려 지은 농사인데, 내가 가져가는 몫은 겨우 3분의 1에 불과하고, 3분의 2는 남들이 가져가다니. 사실

허탈하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냉정할 필요가 있다. 유통종사자들에 의한 유통활동이 없이는 나의 3분의 1도 제대로 가져올 수 없을 것이고, 소비자도 식탁에서 매일 먹거리를 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우리 농업인들이 직접 소비자의 집을 찾아다니면서 농산물을 판매한다고 생각해 보라. 유통마진은 낮을 지 모르지만 유통효율은 훨씬 더 비효율적이 된다. 더구나 소비자의 경우에도 개별 농업인이 가져오는 농산물을 구입하려면 소비자가 원하는 품질을 여러 농가의 농산물 가운데서 직접 검사하여 찾아야 되고 값도 흥정해야 하는데 여기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든다. 유통비용이 많이 든다고 해서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반드시 유리하지 않는 것이다.

김정옥씨는 생각을 바꾸기로 했다. 농산물 유통을 통해 내가 세 개 중에 하나라도 받는 것이 현실이라면 그대로 인정하자. 다만 내가 나서서 유통활동에 참여하면 유통비용을 더 줄일 수 있을 것이고 적어도 두 개 중에 하나는 내 몫으로 챙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김정옥씨는 어떻게 유통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 또 그 쓰임새를 줄이고 내 몫을 훨씬 더 키울 수 있을 것인가?

Ⅳ. 유통 공부, 이 정도는 기본

김정옥씨는 보다 본격적으로 유통 공부에 매달리기로 했다. 유통을 알면 돈이 보인다고 했다. 그러니 농사를 평생의 업으로 삼아온 자신에게는 유통이 새로운 부업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 것이다. 요즘은 확실히 생산보다 유통의 힘이 강한 시대이다. 20세기 산업사회에서는 제조업체가 유통업체를 장악하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 이마트, 홈플러스 등과 같은 대형 물류센터들이 제조업체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 그들은 이제 필요한 상품의 수량, 용량을 제조업체에게 하청을 주면서 유통업체와 제조업체의 관계를 주종의 위치까지 만

들어 버렸다. 김정옥씨는 이것이 현실이라면 유통공부를 더 이상 소홀히 할 수 없다고 다시 한번 작심했다.

1. 농산물 유통, 이런 기능들이 있다

농산물은 산지에서 도·소매과정을 거쳐 소비자에게 전달된다. 이 과정에는 여러 가지 상이한 경제활동들이 있다. 앞서 젊은 강사의 강의를 들은 사람이라면 충분히 이해될 것이다. 이제 이들 활동을 그 기능에 따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농산물의 매매거래를 위주로 하는 활동, 상품으로서의 농산물에 물리적 처리를 위주로 하는 활동, 매매거래의 촉진을 위주로 하는 활동 등이 그것이다. 이들 유통기능들은 그 성격이 본질적으로는 다르지만 유통전반으로 볼 때는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됨으로써 유통효과를 극대화하게 된다.

① 장소효용 창조(수송) : 생산자(농가) → 소비자(가정)
② 시간효용 창조(저장) : 저온저장고
③ 형태효용 창조(가공) : 가공공장(가공식품)

〈그림 2〉 농산물 유통의 3대 기능

1) 유통활동은 장소를 바꾸어 준다

"김정옥씨, 의성에서 마늘농사 하시잖아요" "그런데요" 갑작스런 젊은 강사의 질문에 김정옥씨는 약간 당황했다. "그럼 유통활동이 장소를 바꾸어 준다는 내용은 따로 설명 드리지 않아도 그냥 아시겠네요" "그럼요, 제가 유통공부 좀 했잖아요" 그 정도라면 충분히 자신 있는 질문이었다. 의성에서 대구 매천시장까지, 심지어는 서울 가락동시장까지 직접 트럭에 실어 수송한 적도 있었기 때문이다. '의성에서 대구까지', '의성에서 서울까지.' 이게 바로 장소가 바뀐 것이 아니고 뭐야.

농산물 유통활동에서 운송은 농산물의 장소적 조정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다. 이처럼 생산지에서 소비지로 장소를 바꾸는 기능을 '운송기능'이라고 하고, 이 기능이 창조하는 가치를 '장소적 효용창조'라고 한다. 농산물 유통조직의 발달은 운송수단의 발달에 의존한다. 수송수단의 발달은 특정지역 내에서 농업생산의 형태를 변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이른바 수송수단이 발달할수록 농산물을 이동시킬 수 있는 시장까지의 경제적 거리는 단축된다. 경제적 거리가 단축될수록 생산지에서 이동될 수 있는 시장의 범위는 더욱 더 넓어진다.

따라서 특정 지역에서 생산하여 판매할 수 있는 농산물의 양이 증가되므로 생산의 대규모화가 나타난다. 아울러 생산의 대규모화는 농업의 지역적 특화를 촉진시키는 요인이 된다. 이처럼 농산물 유통에서 운송기능은 장소적 효율을 창조할 뿐 아니라 수송수단의 발달에 따른 경제적 거리 단축, 시장범위의 확대 등에 의해 생산의 대규모화, 지역특화 농업의 발전 등 다양한 변화를 촉발하게 한다.

2) 유통활동은 시간을 벌게 한다

농산물의 수명은 아주 제한적이다.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수확 이후부터 분초를 다투어 농산물이 가지고 있는 생명력은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른바 농산물은 공산품과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농산물은 공산품에 비해 부패성이 크고, 생산은 한 계절에 집중되어 있다. 반면에 수요는 연중 평준화되어 있다. 따라서 농산물이 가지고 있는 제한적인 생명력을 신선한 상태로 그대로 유지하면서 사계절 소비자에게 공급하기 위해서는 그 생명력을 유지시켜야 한다. 농산물의 생명을 유지시켜 주는 기능, 사계절 공급할 수 있도록 해주는 유통활동이 바로 저장과 보관활동이다. 하지만 김정옥씨는 안다. 농산물의 저장과 보관활동이 말처럼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김장채소 주산지인 경남 창녕군 남지읍에서 밭 2000여평에 가을배추와 무 농사를 짓고있는 이모씨(44). "무와 배추의 경우 퇴비값도 건지기 어렵습니다. 운임을 빼고 나면 손에 쥘 돈이 없는 걸요"라며 긴 한숨을 내쉬었다. 지난해 한 뿌리에 500원 이상하던 무의 출하가격이 지금은 200원에 불과하고 배추 가격도 작년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대구 북구 매천동 농산물도매시장에서 요즘 거래되고 있는 배추값은 5톤 트럭 1대 분에 60만~70만원 선으로 지난해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동아일보」, 2000. 12. 11).

이런 현상은 재배면적의 증가, 소비둔화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나타나지만 대책은 그렇게 쉽사리 나오지 않는다. 유통활동에서 이론적으로 저장 및 보관을 강조하지만 과잉물량을 제때 파악하여 저장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 더구나 채소류처럼 부패성이 높은 농산물은 근본적으로 신선채소류 상태로 저장하기가 여간 어렵지 않고 저장시기도 그렇게 오래되지 못한다.

선진국에서는 저장·보관과 관련하여 산지 저장과 소비지 저장을 하나로 결합시키는 콜드체인(cold chain) 유통체계가 발달되어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소비지 시장에서 대규모 물류센터, 백화점, 집배 센터 등에서 콜드체인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지만 아직 대중화된 것은 아니다. 산지시장에서 콜드체인 유통체계는 아직 요원한 단계이다. 중·대형 저온저장고, 농가형 저온저장고는 어느 정도 보급되어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운송과정에서 신선도를 보존할 수 있는 콜드체인 시스템은 극히 미흡한 수준이다. 따라서 유통활동을 통해 본래의 기능인 '농산물의 신선도 유지를 위한 시간 벌기'가 제대로 실현되려면 산지 저장유통시스템을 시급히 확충해야 함을 알 수 있다.

3) 유통활동은 모양을 바꾼다

우리가 먹고 있는 농산물 중 상당수는 농가에서 처음 논과 밭에서 생산된 형태 그대로 먹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다. 주곡인 쌀은 그래도 도정을 한 후 쌀밥으로 가장 많이 먹기 때문에 원형을 유지하지만 나머지 대부분의 농산물은 유

통과정에서 그 형태가 바뀌게 된다. 예컨대 사과는 사과주스, 사과주, 사과빵, 사과파이 등으로, 밀은 빵, 햄버거, 피자 등 각종 요리의 종류에 따라 그 형태가 다 바뀐다. 우유는 치즈, 버터로 바뀌고 다른 음식의 소재로 첨가된다.

농산물 가공은 농산물의 형태와 질을 변화시킴으로써 농산물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고 새로운 수요를 창조하게 합니다. 부패성이 강하여 저장이 어려운 농산물은 가공함으로써 저장성과 운반성을 높여줍니다. 그리고 농업생산의 고질적 한계인 계절성을 완화해 주고 독특한 맛을 첨가하여 형질이 전혀 다른 상품으로 전환시켜 주기도 합니다. 또한 중량이 무겁고 부피가 큰 농산물은 가볍고 작게 그 형태를 변화시킴으로써 상품성을 높여주지요.

젊은 강사의 열변이 계속되자 김정옥씨는 농산물의 가공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기능, 긍정적 가치에 새롭게 눈뜨기 시작했다. "그래, 바로 이것이야. 우리 농업이 살 수 있는 길이 그리 멀지 않아. 어쩌면 농산물 유통 중에서도 가공활동에 우리 농업의 사활이 걸려있는지도 몰라."

김정옥씨의 생각은 정확했다. 농산물 가공산업은 급성장하고 있다. 농업인들이 주체가 된 농가형 가공공장도 엄청나게 많아 졌다. 지역의 특산물을 원료로 하여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기술개발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그렇게 해서 농업인들의 가공활동이 이제는 어엿한 농산물 가공산업으로 정착되었다. 하지만 생각대로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고 있다.

최고 품질의 원료를 사용하고, 비장의 제조비법을 활용하여 대기업에서 만들어내는 상품보다 몇 배는 더 좋은 최상급의 가공제품을 농업인 스스로 만들어 낼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농업인들이 만들어낸 가공식품들은 실패하고 있다. 기술의 실패, 원료의 실패가 아니라, 마케팅의 실패 때문이다. 농업인들이 주체가 된 농산물 가공. 가공을 위해 투입된 비용을 만회하고 원료 농산물 그대로 판매할 때 보다 더 많은 투자효과를 거둘 수 있는 가공산업의 비결을 찾아내는 길은 어디에 있고, 무엇일까. 김정옥씨의 의문은 멈추지 않는다.

4) 유통활동은 기준을 정하고, 구분하는 일

농산물은 자연의 소산이다. 태양과 토양이란 자연물이 없으면 생산할 수 없는 상품이다. 공장에서 규격화된 틀 속에서 생산되는 공산품은 무기적 생산과정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이에 반해 자연환경의 영향을 받아 생산되는 농산물은 유기적 생산과정을 거친다. 이러한 생산과정의 차이가 농산물의 품질을 매우 다양하게 만드는 비결이다. 생산자에 따라, 지역에 따라서도 매우 다양한 품질이 나타나는 것이다. 농산물의 등급화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유통활동에는 수송, 저장, 형태의 변환 기능 이외에 유통경로를 통한 상품의 흐름을 보다 단순화하여 보다 싸고 보다 쉽도록 도와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를 우리는 유통 조성기능이라고 합니다. 표준화(standardization)와 등급화(grading)는 대표적인 유통 조성기능에 포함되는 요소입니다. 여기서 표준화와 등급화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표준'이란 원래 고정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된 척도, 기준을 말하지요. 그러므로 표준화란 기본적인 척도, 기준, 이른바 농산물의 특정한 한계를 설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등급화란 이미 정해진 표준에 농산물이 일치하는가를 검증하고 이에 따라 적절하게 농산물을 구분하는 것을 말합니다.

젊은 강사의 강의를 들으면서 김정옥씨는 불현듯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농산물은 태어나면서 다양한 품질을 타고났으니, 어떤 식이든 품질의 표준화, 등급화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동질성이 가까운 것끼리 분류해야만 생산자인 우리 농업인도 그렇고, 중간상인, 가공업자, 도시의 소비자도 그들이 필요로 하는 농산물을 보다 손쉽게 획득 할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 것이다. 그렇다면 품질에 대한 등급기준은 무엇이어야 하는지, 얼마나 많은 등급이 있어야 하는지, 그리고 등급화를 위한 표준이 지역마다 혹은 생산자마다 달라야 하는지 같아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도 차제에 좀 더 공부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표 1〉 우리 나라와 일본의 사과 등급규격 비교

항 목	한 국		일 본	
등급	특, 상, 보통		수, 우, 양	
포장단위의 등급 기준	낱개의 고르기, 색택, 당도, 신선도, 중결점과, 경결점과		색택, 낱개의 고르기, 중결점과, 경결점과	
낱개의 등급 기준 (선별 기준)	색택, 형상, 녹, 일소, 열매점무늬병, 반점낙엽병, 기타 병충해, 상해, 약해, 꼭지, 기타 결점		형상, 녹, 일소, 흑점병해, 엽권련 충해, 기타 병충해, 상해, 꼭지, 기타 결점	
크기 구분	특대, 대, 중, 소로 구분		구분 없음	
크기 구분의 기준	낱개의 기준무게와 15kg 상자의 기준 개수		상자 당 개수를 표시, 낱개의 기준중량에 따른 5kg 단위의 개수를 규정	
1개의 기준무게와 상자의 기준 개수 (예시 품종 : 후지)	기준 무게	15kg 상자	기준 무게	5kg 1단
	특대 : 375g	40개 이하	355g	14개
	대 : 300g	50개 이하	310g	16개
	중 : 250g	60개 이하	275g	18개
	소 : 190g	80개 이하	250g	20개
			215g	23개
			200g	25개
			175g	28개

<자료> : 이호철 · 석태문외, 『우리 과일의 등급화전략』, 농민신문사, 2000.

이에 대해 잘 생긴 젊은 강사는 표준화를 하면 농업인이 유리한 몇 가지 이유를 설명해 주었다. 첫째, 농업인이 자기가 생산한 품질의 표준적 기준을 잘 알고 있으면 그렇게 표준화, 등급화를 할 수 있고, 미리 시장가격을 알 수 있다. 이를 좀 전문적으로 표현하면 "표준화는 거래가격의 활용도를 높여 준다"고 한다. 둘째, 표준화를 하면 견본이나 설명서만으로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다. 요즘 인터넷 쇼핑몰을 통한 도농간 직거래가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시간이 갈수록 농산물에 대한 사이버유통은 더욱 증대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표준화, 등급화는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과제이다. 셋째, 표준화는 공동출하와 공동계산을

가능하게 해 주고 개별 출하에 따른 비용을 절감하게 해준다. 이른바 표준화, 등급화를 통해 유통이 대규모화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넷째, 표준화는 농산물을 유통시키는 과정에서 금융상의 위험부담을 절감시켜 준다. 등급화가 되어 있으므로 담보물로서의 농산물에 대한 가치측정이 용이해지기 때문이다. 다섯째, 표준화는 수송비를 절감시켜 준다. 표준화, 등급화를 통해 품질이 떨어지는 하품은 가까운 지역시장에서 유통, 소비시켜 부패의 위험을 감소시킨다. 반면에 품질이 우수한 것만 골라서 출하시키고, 원거리 시장에 판매하므로 수송비를 절감시키게 되는 것이다.

여섯째, 표준화는 특정상품의 수요를 증가시킨다. 등급화가 잘 되어 소비자가 원하는 등급의 특정품을 판매한다면 소비자는 그 품목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져 더욱 많이 구매하려 할 것이다. 아울러 판매촉진을 위한 광고활동을 위해서도 역시 농산물의 등급화가 필수적인 과정이다. 일곱째, 표준화는 경쟁을 강화시킨다. 등급화가 되어 있지 않을 경우 농업인들이 대량구매자에게 직접 접근하기는 힘들다. 대부분 농가에서 산지수집상, 도매상, 소매상의 단계를 거치게 된다. 그러나 농가차원에서 믿을 수 있는 완벽한 등급화가 되면 중간수집상을 경유하지 않고 대량구매자는 바로 농가와의 직거래를 할 수 있으므로 농가로서는 등급화를 통한 이점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5) 정보는 위험을 방지하고, 돈을 만드는 원천

유통활동에는 비용이 든다. 유통과정에는 각종 위험부담이 따라다닌다. 위험은 상품을 소유하는 한 반드시 생기기 마련이다. 따라서 위험도 유통과정에서 누군가가 부담하지 않으면 안되는 비용이다. 농산물의 유통활동을 통해 예상되는 위험을 줄이고 아예 없애 버릴 수만 있다면 그것은 항상 성공한 유통활동이다. 어떻게 하면 위험을 줄일 수 있을까?

농산물 유통에서 발생되는 위험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물리적 위험과 경제적 위험이 그것입니다. 전자는 농산물의 물리적인 처리과정에서 나타나는 위험으로 보관, 운송, 조작, 선별, 포장, 가공 등의 과정에서 파손, 부패, 감모, 화재, 동해, 풍수해, 열해, 지진 등의 요인으로 농산물이 직접적으로 받는 위험을 말합니다. 경제적 위험이란 농산물의 판매단계에서 농산물의 가치가 떨어지는 위험입니다. 소비자 기호나 유행의 변화, 경쟁조건의 변화, 법령의 개정이나 제정, 예측의 착오, 외상대금의 미회수, 속임수 등의 원인으로 발생하는 제반 위험을 말합니다.

위험을 방지하는 길은 위험을 남에게 전가시키든지, 아니면 위험을 분산하는 길이다. 젊은 강사의 말을 들으니 김정옥씨는 일전에 정부에서 발표한 새로운 정책이 바로 농산물 유통활동에서 나타나는 위험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른바 과실류에 대한 농업재해보험 정책이 바로 그것이었다.

소득의존도가 높으며 전업화되어 있고 지역적으로 분산돼 있는 사과, 배를 우선 시범 실시한다.... 가입방식은 '임의가입방식'으로 시행하되 가입률을 높일 수 있는 각종 인센티브 제도를 적극 활용할 방침인데 농림부가 예시하는 인센티브는 보험료 분납·재가입 할인제도 도입·농업경영종합자금 등 정책자금지원 평가시 가점 부여, 재해 무사고 환급제도 및 재해대책 우수농가 우대제도 도입, 가입율이 우수한 회원조합에 인센티브 부여 등이다(농림부, 농작물재해보험 시행방안, 2000. 8)

"저, 강사님, 그럼 언제 가격이 오를 것이라든지, 출하량이 언제 많아지고 줄어들 것이라든지, 현재 밭에서 재배되고 있는 물량은 어느 정도될 것이라든지 하는 재배, 가격, 출하 등에 관한 각종 시장정보를 잘 아는 것도 위험부담을 많이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아니 이럴 수가, 어떻게 그런 경지까지.' 나의 질문에 짧은 순간 젊은 강사의 표정은 그렇게 변하는 듯 했다. 내가 너무 정곡을 찔렀나?

"김정옥씨, 정말 대단하시군요. 맞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그 내용이 바로 정답이예요. 시장정보는 위험을 분산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경제학 책을 보면 완전경쟁시장의 성립조건으로 경제인은 완벽한 시장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거든요. 그러니 시장상황에 대한 정보만 완전하게 갖추어지면 유통활동에서 나타날 수 있는 위험부담은 100 퍼센트 해소할 수 있지요."

그렇다. 시장정보는 가격기구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서 필요 불가결한 요소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생산자와 소비자가 대부분 시장정보에 어두운 가격수용자(price taker)의 입장이다. 따라서 시장정보망의 발달은 정보경쟁력을 높여주고, 정보를 잘 활용하는 생산자가 보다 많은 수익을 얻게 된다. 농림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주요 농축산물에 대한 농업관측사업, 개인간에 PC를 활용한 가격정보 조사분석, 언론보도 등에 나타나는 각종 시장정보를 잘 활용하게 해 주는 정보소스들이다. 그러므로 김정옥씨와 같이 유통의 중요성을 일찍 깨닫고 공부도 열심히 한 농업인이라면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부담을 줄이면서 동시에 자신의 농업소득을 극대화할 수 있는 조건을 충분히 갖춘 사람이다.

2. 농산물 유통조직, 어떤 것이 있나요

지금까지 살펴온 바와 같이 농산물 유통이란 농산물이 생산자로부터 소비자에게 이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련의 활동의 연속이었다. 그리고 이 활동에는 여러 형태의 유통조직들의 관여하고 있다. 유통기능을 담당하는 사람은 소매상, 도매상, 위탁상, 중개상, 가공업자, 제조업자, 유통조성기관 등으로 구분된다는 것이 지금까지 김정옥씨가 공부한 내용이었다. 김정옥씨는 이제 농산물 유통조직의 일반적인 체계에 대해 공부하기로 했다. "흔히 우리는 유통조직을 산지유통, 소비지를 중심으로 하는 도매시장유통, 소매시장유통 등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라고 한 젊은 강사의 말씀을 들으면서 구체적인 유통조직이 무엇인지 더욱 호기심이 감돌았다.

1) 산지 유통

산지 유통은 농산물의 생산지와 집산지간의 유통을 말한다. 수집상이 생산물을 매입, 수집해서 대량화하는 과정이다. 공산품과 같이 대규모 생산을 할 경우는 산지에서의 수집기능이 불필요하다. 하지만 농산물의 경우는 반드시 필요하다.

최근 산지유통의 새로운 시스템으로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청과물종합유통센터 등이 지역별 작목별로 많이 건설되고 있다. 산지에서 농산물의 수집경로는 '생산자 → 지방상인', '생산자→농협조직(계통출하)', '생산자→정부기관(주요 곡물매입, 쌀 수매 등)'의 세 가지로 구분된다.

2) 도매시장 유통

도매시장은 각 산지에서 매입, 수집된 생산물을 소매상이나 대량 수요자에게 전매하는 역할을 한다. 현대 농산물 시장에서 가격결정의 중추기능을 수행하는 곳이 바로 도매시장이다. 조직적인 대량거래는 이 단계에서 대부분 이루어진다. 도매시장은 가격형성의 중심적 역할을 한다. 여기서 결정된 농산물가격은 산지가격과 소매가격을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또한 도매시장의 같은 경매기능을 가지고 있으면서 농협에서 관리하는 공판장이 있다. 공판장은 시·군 단위의 일반적 형태의 공판장이 있고, 읍·면 단위에서 행해지는 소규모 경매식집하장도 경매기능을 가지고 있는 유통조직이다.

도매시장의 전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도적으로 개설한 중앙도매시장을 의미합니다. 도매시장의 도매상들은 보통 주식회사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들은 출하한 농업인들 대신하여 경매 형식으로 중개인들에 판매하고, 중개인들은 다시 소매상들에게 전매하는 형식으로 소비자에게 한 발 다가서게 됩니다. 이러한 유통방식이 우리 사회에서 가장 일반적인 유통방식이고 그런 점에서 도매시장은 가장 대표적인 유통조직이라 할 수 있지요.

중간 도매시장을 거치는 간접유통을 오늘날에는 유통의 일반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거래하는 유통을 직접유통, 직거래라고 말하면서도 유통의 비주류로 취급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김정옥씨는 그래서 실제로 간접유통인 도매시장 유통의 비율이 전체 농산물 유통의 60~70 퍼센트를 점하고 있고, 직접유통은 아직도 10 퍼센트를 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할 것 같았다.

3) 소매시장 유통

소매시장은 생산물을 소비자의 손에 농산물이 넘겨지는 단계로 직접 판매하는 시장을 말한다. 소비자의 기호나 수요에 따라 품질, 종류, 수량 등이 세분되어 판매된다. 소매단계는 소상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매시장의 형태를 보면 가족구성원이 경영되는 동네의 수퍼(구멍가게)가 있다. 가장 역사가 오래된 소매점이다. 최근 수퍼는 백화점의 식품매장, 대단위 물류센터(홈플러스, 까르푸, E-마트 등) 등이 들어서면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김정옥씨는 자동차로 10분 거리에 외국계 대형 물류센터가 들어오기 전까지 동네의 지하 수퍼에서 대부분의 식품을 사 먹었다. 그런데 요즘은 동네 수퍼에 간 기억이 별로 없다. 늦은 저녁 술 한 잔 거나해진 남편이 친구를 데려올 때면 맥주와 안주를 사러 간 것을 제외하고는. 그리고 보니 김정옥씨는 앞으로는 동네 수퍼를 좀더 자주 이용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4) 새로운 형태의 시장

유통조직에서 위와 같은 구분은 다분히 지역적이고, 유통조직의 규모에 따라 구분한 특성이 짙다. 그러나 최근 정보통신(Information Technology)의 발달로 인하여 시장의 형태가 공간적 시간적 지배를 받지 않는 형태로 나아감에 따라 사이버상에서 인터넷을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시장이 급속도로 출현하고 있다.

전자상거래를 통한 직거래유통의 등장이 그것입니다. 생산자인 농업인과 도시의 소비자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구축된 쇼핑몰을 통해 원하는 상품을 화상으로 보고, 구입결정을 합니다. 소비자가 선택한 물품은 택배시스템을 통해 가정에까지 바로 배달되지요. 이런 세상이 지금 실현되고 있고, 실제로 많은 소비자들은 인터넷을 통해 편안하게 집안에서 쇼핑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차원에서 추진하는 우체국의 이포스트(E-Post), 농협의 하나로마트 등 대형 쇼핑몰과 일반인이 특정한 농산물 아이템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개별사이트도 많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추세는 정보화의 발달과 함께 더욱 가속화되겠지요.

① 산지 유통 :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청과물종합유통센터
② 도매시장 유통 : 도매시장, 공판장, 경매식집하장
③ 소매시장 유통 : 백화점, 슈퍼, 대형물류센터
④ 온라인 유통(전자상거래) : 인터넷쇼핑몰, 홈쇼핑TV

〈그림 3〉 농산물 유통조직의 이해

농산물 쇼핑몰은 농산물의 특징인 포장화, 등급화의 과제, 상대적으로 부피가 크고, 부패가능성이 높은 점 등의 약점으로 인해 아직까지는 사이버 거래비중이 공산품에 비해서는 매우 적다. 하지만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소비자와 생산자간 직거래시스템으로 인한 편의성, 직거래로 인한 유통비용의 절감 등으로 사이버상의 농산물 거래 비중은 갈수록 급증해갈 것으로 기대된다.

김정옥씨도 언젠가는 인터넷상에 자신의 '김정옥의 의성육쪽마늘' 사이트를 개설하겠다는 야무진 마음도 먹어본다. "그러자면 인터넷도 배워야하고, 쇼핑몰을 만드는 기술도, 운영 노하우도 배워야 되겠지." 이런 저런 생각을 해보니 힘에 부칠 것도 같다. 하지만 김정옥씨는 꼭 한번 도전해 보고 싶은 분야란 생각이 들었다.

V. 농산물 유통, 이제는 정책도 바뀐다

지난 95년 1월 출범한 WTO체제와 함께 이루어진 농산물 시장개방으로 우리 농산물은 외국 농산물과의 무한경쟁을 벌이고 있다. 유통업도 96년 이후 매장수 및 매장면적에 대한 제한이 철폐되면서 외국 유통업체의 진출이 완전 개방되었다. 외국유통업체는 자본력과 구매교섭력(buying power)을 바탕으로 국내시장을 잠식하고 있다. 농산물 수입개방을 맞이하여 값싼 제 3국, 또는 자국산 농산물을 직접 조달하는 등 농산물 공급시장의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소비측면에서는 소득향상에 따라 청과물, 축산물 등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친환경 농산물 등 고품질 상품과 안전한 농산물에 대한 선호가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과거의 획일적인 소비추세를 탈피하여 연령대별, 계층별, 라이프 스타일별로 소비가 다양화되고 있다. 이밖에 가공식품에 대한 수요증가,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한 전자상거래 유통의 확산 등도 농산물유통 정책의 변화 여건들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들이 유통정책에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김정옥씨는 정책의 변화가 유통활동에 가져올 영향은 매우 클 것이라 생각되었다. 유통정책의 변화는 그대로 농가경영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제 유통환경이 어떻게 변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차례이다. 김정옥씨는 점점 자신감이 생긴다. 이 정도만 공부하면 농산물 유통에 대해서는 누가 물어도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았다.

1. 생산자 중심에서 유통 중심으로

20세기가 생산의 시대였다면 21세기는 유통의 시대이다. 이러한 전환이 생산자에 대한 보호를 줄이려는 것이 아니다. 생산자 보호는 소비자 지향적 생산과 유통정책의 개발을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실현될 수 있다. 농산물의 특징인 지

리적 표시제, 브랜드화를 통해 지역고유의 특성을 선호하는 소비층을 개발하는 표적유통(Tarket Marketing) 방식이 대표적이다.

> *농림부가 고려인삼, 화개녹차 등 지리적 특산품의 지리적 표시제를 본격 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생산자 및 지역특산물 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농림부는 품목특성과 지리적 인과관계가 높은 인삼, 녹차 등에 대해 올해부터 이를 적용하고 쌀, 고추장, 생수, 김치 등 기타 가공품에 대해서는 2001년부터 연차적으로 지리적 표시제를 적용해 나가기로 했다. 지리적 표시제는 특정지역의 지리적 요인이 상품의 특성과 명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러한 지리적 명칭을 등록하여 보호함으로써 지역특화산업 육성과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를 꾀하는 정책이다. (「농업인신문」, 2000. 8. 9)*

2. 농산물 중심에서 식품 중심으로

농산물가공은 농산물을 공산품과 보다 가까운 형태로 전환시켜 계절성, 부패성 등 농산물의 약점을 완화시키는 과정이다. 가공식품은 계속 확대되는 추세이며, 식품유통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므로 농산물유통에서 식품유통으로의 전환은 공급측면에서 제품혁신과 브랜드 창출 등 현대적 마케팅을 주도하는 측면을 갖고 있다. 이러한 점은 농산물이 기존의 완전경쟁시장하에서 가격수용자 입장에서 가격결정자로서의 위치를 확보하게 한다.

3. 협의의 직거래에서 광의의 직거래로

앞서 검토하였지만 흔히 말하는 유통이란 간접유통인 도매시장 유통을 말한다. 그러나 정보화의 발달은 점차 유통본래의 모습이었던 직접유통의 비중을 확대하는 쪽으로 변화하도록 할 것이다. 할인점과 같은 대형유통업체가 발달함에 따라 표준화, 등급화가 갖추어진 산지의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와의 직거래가 더욱 강화되고 있다.

〈표 2〉 농산물 직거래 추진현황

구 분	야외장터	금융점포	상설판매장	물류센터	대량수요처	기 타	계
1999. 4	825	873	6,635	1,329	4,310	677	14,649
2000. 4	1,048	1,212	7,323	1,721	5,164	816	17,284
증가율(%)	27.0	38.8	10.4	29.5	19.8	20.5	18.0

<자료> : http://www.maf.go.kr

또한 선진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주산지역의 과일판매대(fruits stand) 등과 같은 소위 노변유통(roadside marketing) 시설이 계속 확충되고 있다. 주말에 일시적으로 개설되는 농업인 시장(Farmer's market) 등 생산자가 직접 판매할 수 있는 시장의 개설도 늘어나고 있다. 생산자 조직의 직판장 확충 등도 직거래 유통의 비중이 증대되는 한 예이다.

김정옥씨는 강의를 들으면서 과거는 확실히 협의의 직거래가 생산자와 소비자간에 바로 사고 파는 본래의 유통방식이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물류센터-생산자, 노변유통과 직판장 등을 통한 소비자와의 직접 만남,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거래 등 다양한 형태의 직거래 유통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 생각되었다.

4. 차별화와 판매촉진을 위한 전략적 홍보활동 강화

농산물 유통에서 취약한 생산자의 시장교섭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제품차별화가 유통정책 방향의 하나가 되고 있다. 광고활동 등을 통하여 경쟁자들과 다른 고유한 특징을 강조하여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자기 브랜드를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한 판촉활동이 된다. 특히 생산량 증대로 가격하락기의 전략적 판촉활동은 농가소득 증대의 필수적인 요인이다.

미국 워싱턴주의 워싱턴사과협회(Washington Apple Commission)와 조합원들이

과잉생산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공동으로 추진한 지난 1999년도의 대대적인 미국내 판촉활동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강사의 육성을 한번 들어보자.

워싱턴사과협회는 지난 1999년산 사과의 생산과잉에 따라 생산량의 약 20 퍼센트에 해당하는 사과를 나무에서 수확하지 않기로 조합원과 합의를 이루어 내었습니다. 정말 기막힌 합의 아닙니까. 우리 같으면 이런 상황을 감히 상상이나 하겠어요. 농업인에게 자신이 기른 농산물은 자식이나 마찬가지인데 수확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둔다는 것이 과연 쉬운 결정이었겠습니까. 정말 피를 토할 일이잖아요. 그러나 이들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어요. 이들은 동시에 사과 18킬로그램(40파운드) 한 상자당 25센트씩 받던 조합비를 전 조합원들의 우편투표로 40센트로 인상하였습니다. 추가로 조성된 이 자조금으로 미국 내에서 워싱터주 사과에 대한 광고판촉비로 사용하였지요. 물론 이러한 대대적인 판촉활동으로 소비 증대가 이루어졌고, 수확포기로 인한 손실을 상당히 만회할 수 있었다고 하는군요.

5. 위험관리 유통체계 개발과 대안

농산물유통은 가격불안정 등으로 위험요소가 상존한다.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 출하시장의 다원화, 계약재배, 선물계약 방식의 제도적 발전방안 등이다.

6월부터 농산물의 자조금 지원이 확대되고 지원 금액도 조성금액의 50 퍼센트에서 최고 100 퍼센트까지 늘어난다. 이에 따라 생산자단체별로 자조금을 조성, 생산물의 홍보 및 판매촉진, 출하조절 등의 사업으로 경쟁력을 높여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지난 30일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시행령(농안법)'을 개정, 6월초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조금 적립지원제도) 생산자단체가 농수산물의 판로확대 및 수급조절, 가격안정 등을 위해 자조금을 조성해 운영하는 경우 농안법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자조금 지원 대상은 전국적인 수급조절 능력을 가지면서 법인화된 생산자단체이고 전국의 상위 5개시군 점유율이 30 퍼센트가 넘는 농산물이어야 될 것"..."현재 생산자의 조직화가 잘되 있고 점유율이 높은 감귤, 겨

울배추, 고랭지 채소 등이 유력하다"(「농업인신문」, 2000. 6. 3)

겨울배추, 감귤, 양배추, 고랭지 배추, 고랭지 무, 참다래, 복숭아, 포도, 양파, 마늘, 사과, 배, 파프리카, 친환경농산물, 한우, 젖소, 돼지, 닭, 오리, 꿀벌

〈그림 4〉 농축산물 자조농 고시품목

<주> : 2000.10.13 현재 20개 품목

6. 디지털유통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사이버 쇼핑몰의 구축, 사이버 거래의 증가, 정부주도로 농촌지역에 대한 대대적인 정보격차 해소 정책 추진 등은 21세기 디지털유통을 위한 인프라들이다. 아직 여러 가지로 그 비율이 낮은 상태이지만, 시간이 갈수록 디지털유통의 양적 질적 수준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따라서 디지털유통을 위한 전제조건인 표준화와 등급화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전자상거래 기반이 구축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생산자단체와 대형유통업체간의 B2B 거래,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B2C 거래는 기존의 유통단계를 더욱 축소시킬 것이다.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새로운 유통혁명인 디지털유통 체계 구축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

Ⅵ. 돈 되는 유통, 자기 하기 나름

김정옥씨는 생각에 잠겼다. 어떻게 하는 것이 돈 버는 유통일까? 그것은 쉽게 달성될 수 있는 목표일까? 배운 만큼 생각이 깊어지는 것인지, 아님 "아는 만큼 걱정도 많아진 탓"인지 생각에 생각이 꼬리를 문다. 하지만 김정옥씨는 자신감

이 생겼다. 지금까지 공부한 돈 되는 유통 강의들을 다시 한 번 곰곰이 생각해 볼 요량이다.

생각을 바꾸면 세계가 거꾸로 보인다고 했다. 그렇다면 발상을 한번 바꾸어 보자. 거꾸로 보인 세계가 다시 똑바로 보일 것이다. 남들이 보지 못한 세계를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적어도 유통활동은 수지맞는 생산이자, 돈 되는 산업이다라고 확신하게 되었다. 김정옥씨는 자신이 지금까지 공부해온 내용이 적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농산물 유통에 대한 결론은 그렇게 복잡한 과정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주위를 둘러보면 농업이란 산업은 참으로 돈 덩어리라는 사실을 이제야 깨달았다.

우리는 일이 잘되지 않을 때 남의 탓을 한다. 흔히 '뼈빠지게 일해서 남 좋은 일 시킨다'고 자괴감에 빠지곤 했다. 그리고 뼈빠지게 일한 돈을 '남이 가져간다'고 남을 비난만 해왔다. 그러나 곰곰 생각해보면 남이 내 돈을 가져간 것이 아니다. 오히려 내가 내 돈을 가져오지 않았다. 가져오는 방법을 몰라서 그랬고, 게을러서 그랬다. 보다 솔직하게 말하면 농산물 유통이란 비법을 몰라서 그랬다. 우리 농업인만이 '농산물을 생산한다'라는 좁은 울타리에서 한 발짝도 나오지 않으려는 아집이 그렇게 만들었다.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고 했다. 지금까지 열강을 토해 준 젊은 강사의 모습에서 김정옥씨는 농산물 유통이란 활동은 논밭에서 우리 농업인들이 땀흘리며 생산하는 모습보다 결코 덜 진지하거나, 가치가 적은 일이란 지금까지의 생각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생각을 바꾸면 김정옥씨, 자신의 손에서 이루어질 새로운 농산물 유통활동이 너무 너무 많음을 이해하게 되었다.

당장 등급화는 내 손으로 한번 해보자. 그러면 내 집에서 인터넷 쇼핑몰을 만들어 사이버 거래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언제 출하해야 할지, 얼마나 출하해야 할지, 저온저장고에 저장하는 기간은 어느 정도까지 가져가야 할지. 그리고 하품에 대해서는 과감히 출하를 포기하자. 출하하는 것보다 오히려 부업을 겸해

서 소규모의 가공식품으로 만들어 파는 것이 유리하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김정옥씨는 비록 짧은 기간 동안 젊은 강사로부터 농산물 유통활동의 중요성에 대한 강의를 들은 것이 전부이었다. 그렇지만 유통 활동은 정말 부가가치가 매우 높은 또 하나의 생산과정임을 깨달았다. 하지만 여전히 대다수의 사람들은 돈 안되는 유통에 매달리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게 느껴진다.

참 고 문 헌

농림부, 『농작물재해보험 시행방안』, 2000. 8.

「농업인신문」, 2000. 8. 9.

「동아일보」, 2000.12.11.

문팔용, 『현대 농업경제학』, 선진출판사, 1985.

박종수외, 『농업경제학』, 협동연구사, 1986.

이호철 외, 『우리 과일의 등급화 전략』, 농민신문사, 2000. 3.

알기쉬운 농장회계

이 영 만
경상대학교

Ⅰ. 농장경영에서 부기는 왜 필요한가

Ⅱ. 농업재산이란 무엇인가
1. 자산(資産 : Assets) 2. 부채(負債 : Liabilities)

Ⅲ. 자본이란 무엇인가

Ⅳ.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의 이해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Ⅴ. 거래란 무엇인가
1. 거래의 의미 2. 거래의 8가지 요소
3. 거래의 이중성

Ⅵ. 분개란 무엇인가
1. 분개의 의의 2. 분개의 법칙

Ⅶ. 계정이란 무엇인가
1. 계정의 의의 2. 계정의 분류

Ⅷ. 원장이란 무엇인가

Ⅸ. 결산
1. 결산의 의의 2. 결산의 절차
3. 결산보고서 작성(재무제표)

알기쉬운 농장회계

Ⅰ. 농장경영에서 부기는 왜 필요한가

농장의 경영개선을 위하여 부기의 작성이 필요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지만, 우리나라 농가의 농업부기 보급율은 아직도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농가에 부기 보급이 확대되지 않는 이유는 크게 네가지를 지적할 수 있다. 첫째, 종래의 농장경영은 수도작을 중심으로 하는 비교적 단순한 경영으로 부기를 작성하지 않고서도 대부분 경영계산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둘째, 농업부문에 대한 조세가 엄하지 않고, 농업금융의 신용증명 수단으로서 경영성과를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았으므로 농가가 힘들여 부기를 작성해도 그 결과를 세무대책이나 금융정책면에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 셋째, 농업정책자금의 지원기준에서 농업부기를 작성하는 농가에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영농계획서에 의존하여 지원하므로 힘들여 부기를 작성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많았기 때문이다. 넷째, 농업경영문제는 다루기도 어렵고, 부기의 작성, 경영분석, 경영진단 등을 지도할 수 있는 지도원이 적고, 더우기 경영지도를 위한 준비가 미비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농업기술의 발전과 함께 농업현실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종래의 농장경영과 비교하면 현재의 전업적 농장경영은 규모가 확대되고 경영문제도 복잡해졌으며, 농업관련기관에서도 부기나 경영에 관한 관심이 서서히 높

아지고 있다.

농장의 경영개선에 부기가 필요한 이유를 살펴보자. 먼저, 개선이란 나쁜 점을 고쳐서 좋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나쁜 점을 찾아내야 한다. 농장의 경영개선에도 먼저 농장경영의 결함을 발견해야 하고, 결함의 발견을 위해서는 농장경영의 실태를 알아야 한다. 사람들은 몸이 고통을 느끼지 않으면 치료를 원하지 않으며, 목이 마르지 않으면 물을 마시려 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농장의 경영주는 자신의 농장에 대한 경영의 실태를 어느 정도까지 파악하고 있는가? 대부분의 경영주는 농경지가 몇 평이고, 쌀을 몇 가마나 생산하였고, 질소비료는 몇 포를 사용하였고, 모내기에는 얼마만큼의 노동이 투입되었다고 하는 개개의 기술적인 일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구체적으로 알고 있고, 기억도 상당히 정확한 경우가 많다. 그러나 경영주가 자신의 재산총액, 농업투하자본액, 가족노동의 년간 이용일수, 작목별 가족노동 투하일수, 년간의 농업소득, 작목별 년간 농업소득, 주요작물의 단위당 생산비 등등의 경제적인 사실이나 종합적인 사항에 이르면 자신이 없고, 대체적인 어림짐작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농장경영에는 여러 종류의 농업자산을 이용하여 농산물을 생산한다. 따라서 수입이나 지출의 종류도 많고, 그것들이 당해 년도의 수익이나 손실이 된다. 그 가운데는 당년도의 손익에 전혀 무관한 것도 있고, 그 일부분만이 관계되는 것도 있다. 한편 농업생산은 자연조건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은 물론이며, 농산물의 생산액은 가격변동에 의하여 크게 영향을 받는다. 이와같이 농장경영의 실태는 대단히 복잡하기 때문에 기억이나 간단한 메모에 의하여 파악하기 어렵고, 특히 경제면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려고 하면 그 내용이 매우 부정확한 것이 되기 쉽다. 따라서 농장경영의 실태를 분명한 약속과 매일의 기록을 통하여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농업부기의 작성이 필요하다. 농업부기는 농장경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필요 불가결한 것이며, 경영의 실태를 모르고 경영의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은 의사의 진찰을 받지 않고 약을 복용하고자 하

는 환자와 같이 무모한 짓이다. 농업부기를 작성하지 않는 농가는 종종 나침판이 없는 배나, 바늘이 없는 시계에 비유되기도 한다. 따라서 농가의 경제나 경영의 개선에 부기기장이 필요하고, 이것이 부기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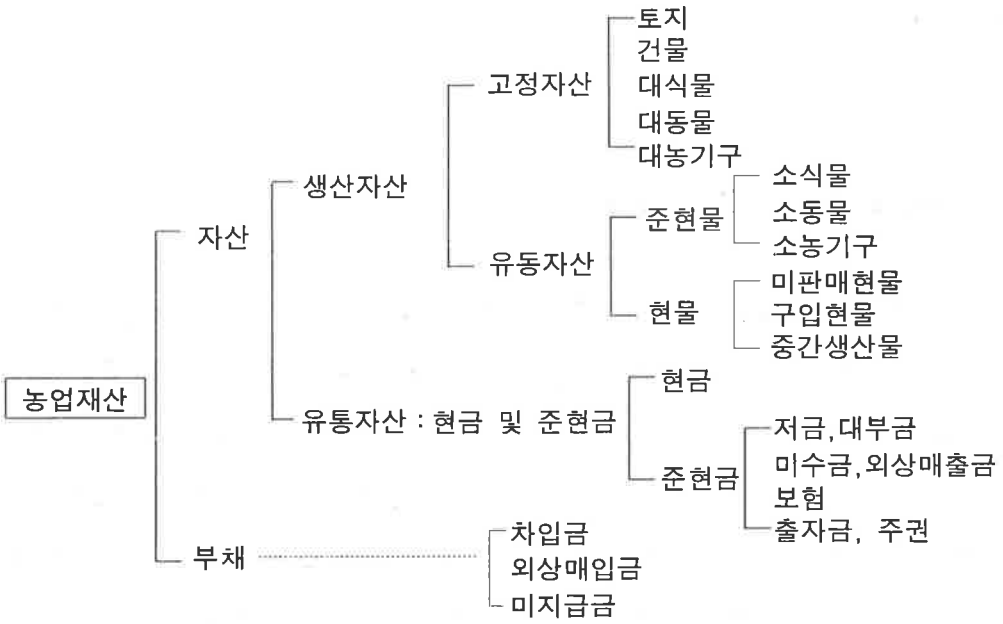
일기를 습관적으로 쓰는 것이 그 사람의 관찰력이나 인격의 형성에 큰 역할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농업부기를 계속 기장하는 것도 농업경영자로서의 경영능력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앞으로는 농업부문에도 경영자의 능력이 점점 중시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앞으로 우리나라의 농업에 있어서 그 능력을 스스로 높이기 위한 학습의 수단으로서도 부기기장은 권장되어야 할 것이다.

Ⅱ. 농업재산이란 무엇인가

농업경영주가 농장을 과학적으로 경영하고자 한다면, 영농과학에 대한 많은 지식이 필요함은 경영주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경영개선과 효율의 증대를 위한 수단으로 농업경영부기를 작성하려고 하면, 농업부기에 관한 약간의 지식이 필요하다. 여기서 농업부기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몇 가지 개념 및 용어의 뜻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농업부기는 농장을 경영하는데 필요한 농업재산과 농업자본의 증가 혹은 감소의 변화에 대한 내용을 기록·계산·정리하여서 그 경영체의 재산의 변화상태와 손익의 변화에 대한 원인을 밝힘으로써 농업경영의 개선을 도모할 수 있다.

먼저 농업재산과 농업자본에 대해서 알아보자. 농업재산이란 농업경영(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산과 타인의 소유의 금융자산을 경영주가 빌려서 사용하는, 화폐로써 그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물건을 의미한다. 즉 농업재산은 경영체가 보유하는 농업용 자산과 타인 혹은 금융기관으로 빌린 부채를 합계한 것이다. 여기서 자산을 경영체가 직접 보유한 재산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적극

적 재산이라고 하며, 타인 혹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부채를 소극적 재산이라고 한다. 그리고 경영체가 보유한 농업용 자산의 총 금액에서 타인 혹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부채의 총 금액을 빼면 나머지는 자기자본의 총 금액이 된다. 현실적으로 농업경영체에서 무엇을 농업재산이라고 하며, 무엇을 농업자산이라고 하며, 농업부채의 내용은 무엇인지가 아래의 <그림 1>에서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으며, 이를 잘 살펴보면 농업재산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해가 쉬울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1〉 농업재산의 구성

1. 자산(資産 : Assets)

농업재산의 총 금액은 농업자산의 총 금액과 농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빌린 부채의 총 금액의 합계라고 하였는데 그러면 농업자산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농업자산이란 그 가치를 화폐로써 표현할 뿐만 아니라, 농업자산을 소유

한 사람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물건을 의미한다. 농업자산은 여러 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고정자산, 유동자산, 유통자산 등으로 구분한다.

1) 고정자산

농업경영에서 농업용 고정자산은 일반적으로 트랙터, 콤바인 등과 같은 대농기구, 축사, 창고 등과 같은 농업용 건물과 같이 대체적으로 일년이상(회계연도) 사용하는 농업용 자산으로써 감가상각 계산을 해야 하는 농업자산과 젖소, 비육우 등과 같은 대동물, 사과나무, 배나무 등과 같은 과수목(대식물)으로서 일년이상(회계연도)에 걸쳐 그 가치가 증가하여 증가계산(增價計算)이 필요한 농업자산을 의미하며, 그 종류는 다음과 같이 토지, 농업용 건물, 대식물, 대동물, 대농기구 등으로 구분한다.

(1) 고정자산인 토지에는 논, 밭, 과수원, 초지 등이 포함된다.

(2) 고정자산인 농업용 건물에는 축사, 농구사, 창고 등이 포함된다.

(3) 고정자산인 대식물에는 사과나무, 배나무 등 과수목과 뽕나무 등 영년생 수목이 포함된다.

(4) 고정자산인 대동물에는 젖소, 한우, 말 등이 포함된다.

(5) 고정자산인 대농기구에는 트랙터, 경운기, 콤바인 등 대형 농기계가 포함된다.

2) 유동자산

농업용 유동자산은 일반적으로 일년(회계연도)이내에 소모되어, 그 가치가 생산물로 유동하는 성질의 자산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다.

(1) 유동자산인 소식물에는 벼, 보리, 채소 등 단년생 작물 등이 포함된다.

(2) 유동자산인 소동물에는 돼지, 염소, 닭, 토끼 등이 포함된다.

(3) 유동자산인 소농기구에는 괭이, 호미, 낫, 삽 등이 포함된다.

(4) 유동자산인 미판매 현물에는 수확하여 창고에 보관중인 농산물 등이 포함된다.

(5) 유동자산인 구입현물에는 비료, 사료, 농약 등 시장에서 구입한 농업자재 등이 포함된다.

(6) 유동자산인 중간생산물에는 농가에서 생산된 부산물인 퇴비, 계분 등이 포함된다.

3) 유통자산

유통자산은 일반적으로 시장인 유통경제사회를 전제로 존재하는 자산이며, 현금과 준현금을 포함한다.

(1) 현금(cash)

(2) 준현금에는 예금, 저금, 대부금, 외상매출금, 보험금, 출자금, 주식 등이 포함된다.

2. 부채(負債 : Liabilities)

부채란 타인 혹은 금융기관에 일정한 금액을 지급해야 할 의무를 의미한다. 농업부기에서 부채는 상환기간에 따라 장기부채, 단기부채로 구분한다. 장기부채(고정부채)는 재무제표에 의하여 1년(회계연도)이상의 상환기간을 갖는 부채이며, 단기부채(유동부채)는 회계기간의 경우 1년 이내에 상환하는 단기차입금, 외상매입금, 미지급금 등을 의미한다.

Ⅲ. 자본이란 무엇인가

농업자본은 무엇이라고 정의하지 않는다. 농업자본은 농업자산에서 부채를 뺀 것이며, 이를 자본방정식이라고 한다. 한편 부채를 타인으로부터 조달한 자본이

란 의미에서 타인자본이라고 하며, 자본은 경영주가 마련한 자본이란 의미에서 자기자본이라고 한다. 즉, 자본=자산 - 부채 : 자본방정식이다.

자본방정식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본, 즉 자산에서 차지하는 자기자본이 비율이 높으면, 부채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적어지지만, 자기자본의 비율이 낮으면 부채의 비율이 커지게 된다. 농업경영의 목적은 재산을 증가시키는 것이 목적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자기자본을 증가시키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농업경영체가 획득하는 순이익은 자기자본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Ⅳ.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의 이해

본절에서는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는 농업경영체가 영농활동을 하여 얻은 성과를 영농이 끝나는 시점에 작성하는 성적표라고 생각하여도 좋다. 대차대조표는 농업경영체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회계기간이 끝나는 회계연도 말에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정리한 표이며, 손익계산서는 농업경영체가 일년(회계기간)동안의 영농활동에서 얻은 총이익과 소비한 총손실을 계산하여 한해동안 벌어들인 순이익 혹은 한해동안 잃어버린 순손실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정리한 표이다.

1. 대차대조표

대차대조표는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앞에서 설명한 자산, 부채, 자본이라는 3개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표 1>에서 자산항목의 내용을 보면, 자산은 유통자산인 현금, 외상매출금과 고정자산인 대동물과 대농기구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부채 및 자본의 항목에는 부채인 차입금과 자

본인 자본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당기순이익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자본금에 포함되어 자본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대차대조표는 농업경영체의 재산상태를 일정시점(일반적으로 회계연도말)에서 정리하여 회계기간동안에 변화한 재산의 증감상태를 간결하게 표시한 일람표이다. 대차대조표는 이름과 같이 차변(대차대조표의 왼쪽)과 대변(대차대조표의 오른쪽)으로 구분하여 비교하는 표이다. 대차대조표의 차변에는 농업경영체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산을 기록하고 있으며, 대변에는 자산을 구입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원(資金源)을 부채(타인자본)와 자본(자기자본)의 순서로 기록한 것이다. 대차대조표의 차변, 즉 자산의 합계와 대변, 즉 부채와 자본의 합계는 반드시 일치해야 한다.

〈표 1〉 대차대조표

(2001. 12. 31.현재)

자 산		부 채 및 자 본	
현 금	840,000	차 입 금	500,000
외상매출금	600,000	자 본 금	1,640,000
대 동 물	550,000	(당기순이익)	(40,000)
대 농 기 구	150,000		
합 계	2,140,000	합 계	2,140,000

2. 손익계산서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대차대조표는 자산, 부채, 자본이라는 3개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러나 손익계산서는 비용항목과 수익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2>에서 비용항목의 내용을 보면, 총비용은 사료비, 노임, 잡비로 구성되어 있고, 총수익은 대동물수익이다. 그런데 총비용 항목에 당기순이익이 포함되어 있다. 당기순이익이 비용항목에 포함되어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농업경

영에서 발생한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빼면 나머지가 순수익이다. 대차대조표에서 본바와 같이 손익계산서에서도 차변과 대변의 합계가 일치해야 한다. 즉 차변(총비용)과 대변(총수익)을 일치시키면 그 차액이 순수익이 된다. 이때 순수익을 그 당시의 회계기간에 발생한 순수익이라 하여 당기순수익이라 한다.

손익계산서는 회계기간을 단위로 회계기간 이내에 발생한 총이익과 총비용을 계산하여 어느 정도의 순이익 혹은 순손실이 발생하였는가에 대한 이유와 원인을 밝히는 계산서이다. 어느 축산농가의 사례를 이용하여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였다(<표 2>). 예를 들면 축산농가가 대동물을 사육하기 위하여 사료비, 노임, 잡비 등 160,000원의 비용을 투입하고, 대동물을 판매하여 대동물수익을 200,000원 얻었다면, 이때 축산농가의 당기순이익은 40,000원이다.

〈표 2〉 손익계산서

(2001. 1. 1-12. 31.)

비 용		수 익	
사 료 비	100,000	대동물수익	200,000
노 임	50,000		
잡 비	10,000		
당기순이익	40,000		
합 계	200,000	합 계	200,000

V. 거래란 무엇인가

1. 거래의 의미

일반 상거래에서 거래란 물건을 구입하고, 혹은 판매하면서, 그 대금을 주고받는 행위를 의미한다. 농업부기 혹은 농업회계에서도 일반 상거래의 의미가

그대로 사용된다. 이러한 거래를 대차대조표를 구성하는 항목인 자산, 부채, 자본과 손익계산서의 구성항목인 수익, 비용이란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면, 자산, 부채, 자본과 수익, 비용의 증가 혹은 감소의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원인을 말한다.

예를 들면, 자산의 증가 혹은 감소란, 농업경영체가 영농을 위하여 논을 현금으로 구입하였다면 토지라는 고정자산이 증가하고, 현금이라는 유통자산이 감소한 것이다. 또한 고정자산인 대농기구를 현금을 받고 팔았다면, 대농기구 자산이 감소하고, 그 대신 현금을 받았으므로 유통자산인 현금이 증가한 것이다. 이와 같이 어떤 종류의 자산이 증가하면, 어떤 종류의 자산이 감소할 수도 있고, 어떤 종류의 자산이 감소하면, 어떤 종류의 자산이 증가하는 경우도 있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자산과 자산간에 증가와 감소의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며, 자산과 부채간에 증가와 감소의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각각의 항목간에 이러한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를 거래의 8가지 요소간의 변화라고 하며 다음절에서 보다 상세히 설명하고자 한다.

한편 농업부기에서의 거래는 현실적인 경우와 약간의 차이점이 있는데, 현실에서는 농기구를 주문하는 것도 하나의 거래로 인정하지만, 부기에서는 거래로 인정하지 않는다. 농업부기에서는 현실적으로 농기구를 농가에 도입하는 순간에 거래가 발생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또한 농업자산이 화재나 도난에 의하여 없어진 경우, 외상매출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대농기구, 농업용건물 등의 가치가 감소하는 경우, 즉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도 거래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한다.

2. 거래의 8가지 요소

거래란 자산, 부채, 자본 및 수익, 비용의 증가 혹은 감소의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원인이라고 하였다. 대차대조표의 구성요소인 자산, 부채, 자본은 증가 혹은 감소하지만, 손익계산서의 구성요소인 수익, 비용은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발생하는 것이다.

위에서의 사례에서 본바와 같이 경운기를 구입하면, 대농기구 자산이 증가한 반면에 현금 자산이 감소하였다. 그러나 비료를 농장에 살포하는 경우에는 비료비용이 발생하지만, 나중에 작물을 수확하는 경우에 농작물의 수익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수익과 비용은 동시에 발생할 수 없으므로 이를 표로써 나타내면 아래와 같이 차변, 대변에 각각 4개의 요소가 있으며, 이들 8개의 요소가 상호작용을 하면서 자산, 부채, 자본 및 수익, 비용 등의 증가 혹은 감소의 변화를 가져오게 한다.

(차변)	(대변)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
부채의 감소	부채의 증가
자본의 감소	자본의 증가
비용의 발생	수익의 발생

3. 거래의 이중성

복식부기에서는 거래의 기입을 차변, 대변의 양변에 기록함으로써, 차변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면, 반드시 대변에도 동일한 금액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거래의 이중성이라고 하며, 이를 거래의 대립관계라고도 한다.

예를 들면 농업경영주가 경운기 1대를 현금 1,500,000원에 구입하였다. 이러한 경우의 거래는 경운기라는 대농기구 자산이 1,500,000원 증가하였으며, 반면에 현금 자산 1,500,000원이 감소하였다. 이를 복식부기에서 차변, 대변으로 구분하여 기입하면 다음과 같다.

(차변) 대농기구(경운기) 1,500,000원	(대변) 현금 1,500,000원

위에서 보는바와 같이 차변에 대농기구 자산 1,500,000원이 증가하면, 대변에도 동일한 금액의 현금이 감소함을 알 수 있다.

Ⅵ. 분개란 무엇인가

1. 분개의 의의

농업부기에서 분개란 거래에서 나타날 수 있는 기입누락 또는 오기(誤記)를 방지하기 위하여 원장(元帳)에 직접 기록하기 전에 예비적으로 차변, 대변으로 분류하는 절차이다. 최근 농업회계분야에도 컴퓨터를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이 개발되고 있으며, 많은 농업인이 활용하고 있다.

컴퓨터를 이용하여 농업회계장부를 기록, 정리하는 경우에 있어서 대부분의 회계처리과정이 자동적으로 처리되어 손쉽게 경영성과를 파악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영장부를 이용하여 경영분석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컴퓨터를 이용한 전산회계에 있어서도 분개는 경영주(회계인)가 직접 입력해야 하는 작업이며, 농업부기에서 거래 내용에 대해 분개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농업용 회계프로그램을 보다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2. 분개의 법칙

분개는 거래의 8가지 요소의 대립관계를 이용하여 차변, 대변으로 구분하는 것이다. 거래의 8가지 요소를 이용하여 분개를 하면 모두 15가지 방법의 분개 종류가 있다. 분개의 종류를 예를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자산의 증가와 자산의 감소

오늘 경운기 1대를 1,200,000원에 구입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차변) 대농기구 1,200,000원 (대변) 현금 1,200,000원

2) 자산의 증가와 부채의 증가

오늘 트랙터 1대를 20,000,000원에 구입하고 대금은 외상으로 지급하였다

(차변) 대농기구 20,000,000원 (대변) 외상매입금 20,000,000원

3) 자산의 증가와 자본의 증가

경영주가 현금 5,000,000원을 자본금으로 출자하였다.

(차변) 현금 5,000,000원 (대변) 자본금 5,000,000원

4) 자산의 증가와 수익의 발생

우유를 1통을 착유하여 현금 50,000원에 판매하였다

(차변) 현금 50,000원 (대변) 우유판매수익 50,000원

5) 부채의 감소와 자산의 감소

농협에서 빌린 차입금 200,000원을 현금으로 갚았다

(차변) 차입금 200,000원 (대변) 현금 200,000원

6) 부채의 감소와 부채의 증가

농약 외상매입금 50,000원을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차변) 외상매입금 50,000원 (대변) 지급어음 50,000원

7) 부채의 감소와 자본의 증가

자본금 2,000,000원을 증자하고 농협 차입금을 상환하였다

(차변) 차입금 2,000,000원 (대변) 자본금 2,000,000원

8) 부채의 감소와 수익의 발생

채권자로부터 채무 200,000원을 면제받았다

(차변) 차입금 200,000원 (대변) 채무면제이익 200,000원

9) 자본의 감소와 자산의 감소

경영주가 현금 1,000,000원을 자녀학비로 인출하였다

(차변) 자본금 1,000,000원 (대변) 현금 1,000,000원

10) 자본의 감소와 부채의 증가

경영주가 자신의 차입금 1,000,000원을 농업경영의 차입금으로 옮기다

(차변) 자본금 1,000,000원 (대변) 차입금 1,000,000원

11) 자본의 감소와 자본의 증가

홍길동의 출자금 500,000원을 박문수의 출자금으로 옮기다

(차변) 자본금 500,000원 (대변) 자본금 500,000원

12) 자본의 감소와 수익의 발생

홍길동의 사망으로 홍길동의 출자금을 인수할 사람이 없어 잡수익으로 처리하다

(차변) 자본금 500,000원 (대변) 잡수익 500,000원

13) 비용의 발생과 자산의 감소

지급이자 2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차변) 지급이자 20,000원 (대변) 현금 20,000원

14) 비용의 발생과 부채의 증가

농약 50,000원 상당을 외상으로 구입하여 살포하였다

(차변) 농약비 50,000원 (대변) 외상매입금 50,000원

15) 비용의 발생과 자본의 증가

홍길동에게 지급해야 할 노임중 500,000원을 출자금으로 전환하다

(차변) 노임 500,000원 (대변) 자본금 500,000원

이상에서 예시한 분개의 방법을 활용하면, 농장경영에서 발생하는 모든 거래를 분개하여 기록할 수 있을 것이다.

Ⅶ. 계정이란 무엇인가

1. 계정의 의의

최근 농업부문에도 컴퓨터의 보급과 이용이 확대되고 있고, 이에 따라 농촌진흥청, 농협중앙회 등 농업관련 기관에서 농업경영분석을 위한 전산회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농업인에게 보급하고 있다. 농업인 여러분으로부터 필자는 여러분이 이들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할 때에 몇가지 어려움으로 곤란을 당한 경험을 전해들은 바 있다. 특히 농업인 여러분이 전산회계 프로그램을 이용할 때에 당하는 어려움 가운데 하나가 계정과목에 대한 이해부족을 호소하는 사례가 많았다.

필자도 여러분이 전산회계 프로그램을 이용할 때에 가장 먼저 부닥치는 문제가 계정과목이라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컴퓨터의 전산회계 프로그램에서 본인의 농업경영실태를 입력하려면, 먼저 농업용 자산에 대한 기입을 요구하고, 다음으로 경영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계정과목을 입력하라고 요구하기 때문이다. 이때 계정과목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 계정과목을 확정하지 못해 컴퓨터를 닫아버리는 많은 사례를 경험하였다.

본절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계정과목은 여러분이 경험한 바와 같이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며, 다만 계정과목이라는 용어가 생소하여 이용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계정과목이란 간단하게 표현하면 농업부기를 간편하게 작성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하나의 계산단위이며, 또한 이름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시설채소 농가에서 살충제 1병을 5,000원에 구입하였다면 이를 농약비라는 계정과목으로 설정하고, 농약구입과 관련한 모든 비용은 농약비 계정에 정리하면 후일 결산시에 투입된 총농약비의 크기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계정과목을 일반적으로 표현하면, 항목이라고 할 수 있다. 결산시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부를 작성하는 초기에 항목을 다양하게

구분해 두면 후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위해 부기를 작성하려는 초기에 미리 계정과목을 설정하는 것이다.

2. 계정의 분류

계정은 크게 대차대조표 계정과 손익계산서 계정으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대차대조표 계정은 자산, 부채, 자본 계정으로 구분하며, 손익계산서 계정은 수익, 비용계정으로 구분한다.

대차대조표 계정인 자산 계정은 다시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고정자산 계정은 토지, 건물, 대식물, 대동물, 대농기구계정을 들 수 있으며, 유통자산 계정은 소식물, 소동물, 소농기구, 미판매현물, 구입현물, 중간생산물 등을 들 수 있으며, 유통자산 계정은 현금, 당좌예금, 대부금, 외상매출금 등을 들 수 있다.

부채 계정은 차입금, 외상매입금, 미지급금계정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자본 계정은 자본금, 잉여금, 순이익계정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손익계산서 계정인 수익계정은 농산물 판매수익계정이며, 이를 계정과목으로 구분하면, 채소판매수익, 오이판매수익, 축산물판매수익계정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비용 계정은 비료비, 농약비, 사료비, 노임, 조세공과, 광열동력비, 재해보험, 잡비, 감가상각비, 지급이자, 임차료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상에서 각각의 계정과목을 예시하였지만, 계정과목은 농장의 경영실정에 따라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으므로, 농업경영체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다.

계정과목은 부기를 작성하는 초기 연도에 한번 설정하면 변화없이 계속하여 사용해야 하므로 계정과목을 설정하는 초기 연도에 세심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농업부기의 작성으로 농장경영분석을 하는 경우에 계정과목이 변화되면 과거 연도와의 비교분석이 어렵기 때문이다.

Ⅷ. 원장이란 무엇인가

농업인 여러분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전산회계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직접 원장을 작성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프로그램에서 원장을 작성하며, 여러분은 작성된 원장을 여러분의 목적대로 활용하면 될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이 직접 원장을 작성할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원장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는 필요할 것이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원장이란 계정과목을 한 곳에 모아 놓은 장부를 말한다. 앞장에서 계정과목을 설명할 적에 농약비를 사례로 하였다. 시설채소 농가는 농약을 1회만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수 차례 구입할 것이며, 농약비 지출에 관련한 모든 내용을 한 곳에 모아 놓으면 농약비의 지출 내역을 한 눈에 파악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농약비 원장이라고 한다.

이와 같이 농약비 원장 뿐만 아니라 모든 계정과목에 대하여 원장을 작성하면, 모든 계정과목별 원장을 한 곳에서 손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원장에 대한 예시는 부록의 총계정 원장을 참고하기 바란다.

원장을 작성하려면 분개장의 내용을 원장의 각 계정 계좌에 옮겨 기록해야 하는데 옮겨 기록하는 절차를 전기(轉記)라 한다. 최근에는 농업인 여러분도 컴퓨터 전산회계 프로그램을 많이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 절차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자 한다.

Ⅸ. 결산

1. 결산의 의의

농업인이 시설채소 농장을 경영한다면, 시설채소에 대한 수확이 완료되고 재

배기간이 끝나면 경영성과를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축산농가라면 어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경영성과를 파악하고자 할 것이다. 이를 약간 이론적으로 설명하면, 농업경영체는 일정 회계기간을 마치면 농장 경영과 관련한 장부를 마감·정리하여 농장 경영의 재무상태(재산의 변동상태)와 농장의 경영성과를 알아보는 절차를 밟는데 이를 결산이라 한다.

즉, 「농장을 경영하면서 어느 기간으로 정해 둔 하나의 회계기간에서 영농일기장에 메모해 둔 모든 거래 내용을 정리하여 기록한 모든 장부를 마감·정리하여 농업경영체의 자산의 증가, 감소의 변동과 경영성과에 관해서 밝힐 필요가 있는데」 원장을 바탕으로 작성하는 이러한 계산절차를 결산이라고 한다.

최근에는 농업부문에도 컴퓨터 회계프로그램이 많이 개발되어 있어 손쉽게 농장의 경영결산을 할 수 있다.

2. 결산의 절차

결산의 절차는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본절에서는 농업인이 활용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에 수록되어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 **시산표**는 복식부기에서 대차평균원리에 의하여 원장전기의 정부(正否)를 검증하여 결산제표 작성의 자료로 하고, 또한 일정 기간의 재무변동 상태를 나타내기 위하여 작성하는 수학적 검산표이다

결산의 절차는 결산의 예비절차로서 먼저 시산표를 작성한다. 시산표는 합계시산표와 잔액시산표가 있으며, 합계시산표와 잔액시산표를 합친 것을 합계잔액시산표라 한다.

합계시산표는 원장 계정의 차변과 대변의 금액을 합계해서 작성하는 표이며, 잔액시산표는 각각의 계정의 차변에 차변 잔액을, 대변에 대변 잔액을 모아서 작성한 표이다. 그리고 합계잔액시산표는 합계시산표와 잔액시산표로 하나의 표에 모아서 작성한 표이다. 합계잔액시산표의 작성사례는 부록의 자료를 참고하기 바란다.

결산의 본절차는 먼저 원장 및 각 계정의 오류를 수정하여 원장을 마감하는데, 우선 손익계산서 계정을 마감하며, 다음으로 대차대조표 계정을 마감한다. 그리고 분개장을 마감하며, 각종 보조장부를 마감한다. 원장의 마감에 관한 예시는 부록의 자료를 참고하기 바란다.

3. 결산보고서 작성(재무제표)

결산이 완료되면 다음으로 결산보고서를 작성한다. 일반적으로 주요한 결산보고서는 농장경영의 성과를 파악하기 위한 「손익계산서」와 경영의 재산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대차대조표」이다. 이들 결산보고서는 농장의 경영분석 혹은 경영진단을 위한 주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며, 그리고 경영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손익계산서는 농장의 경영에서 일정기간의 총수익과 그 수익을 얻기 위하여 소비한 총비용을 대응하여 표시한 계산서이다. 회계기간의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뺀 나머지가 순이익이다. 손익계산서는 경영분석 혹은 경영진단에서 판매분석, 비용분석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특히 비용분석에서 얻은 자료는 경영비의 절감을 위한 경영계획의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한편, 대차대조표는 어느 일정시점(회계연도말)에 있어서 농업경영체의 재무상태를 명확히 해주는 표로써 자산과 부채 및 자본을 한 표에 나타내 주는 것을 말한다. 농장의 경영목표가 순이익의 최대화하는데 있지만, 농장경영의 궁극적인 목표는 재산의 증가를 도모하여 부를 축적하는데 있다. 대차대조표는 재

산의 변동상태를 일목요연하게 표시하고 있으므로, 대차대조표를 연도별로 비교하면 연년의 재산의 변동상태를 비교 분석할 수 있으며, 경영체의 안정성을 판정할 수 있다.

이상에서 결산의 이론적 과정을 간략하게 소개하였다. 그리고 부록에는 시설채소 농장을 사례로 하여 간략하게 결산의 실제 과정을 소개하였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최근에는 농장에도 컴퓨터의 보급이 일반화되어 손으로 경영장부를 작성하고, 정리하여 분석하기 보다는 컴퓨터 회계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농장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이상의 설명은 다음 장에서 컴퓨터를 이용한 회계 프로그램 활용을 배울 것을 전제로 이론적인 측면에서 농장회계의 개념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컴퓨터 회계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기본자료의 입력과 분개과정의 입력작업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작업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만, 이론적인 이해가 부족하면 장부를 이해할 수 없으며, 또한 경영분석, 경영진단, 경영계획 등에 활용이 쉽지 않을 것이다.

〈부록〉 시설채소경영의 결산연습

1. 다음의 시설채소 경영의 영농기록장 자료를 이용하여 결산연습을 하라(회계기간은 9.1-30일까지이다.)

9/1 박씨는 다음의 자산을 출자하여 영농을 시작하다.

현금 1,000,000 대농기구 150,000

하우스 450,000

9/10 시설채소농산물 1,000kg을 1,600,000원에 현금으로 매출하다.

9/25 노임 100,000원과 잡비 5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9/30 농용창고 임차료 1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2. 분개장

월 일	적 요	차 변	대 변
9/1	(제좌)		
	현 금	1,000,000	
	대농기구	150,000	
	하 우 스	450,000	
	자 본 금		1,600,000
9/10	현금	1,600,000	
	채소수익		1,600,000
9/25	(제좌)		
	노 임	100,000	
	잡 비	50,000	
	현 금		150,000
9/30	임 차 료	10,000	
	현 금		10,000

3. 총계정원장

현 금

9/1 자본금	**1,000,000**	9/25 제 좌	150,000
9/10 채소수익	**1,600,000**	9/30 임 차 료	10,000
		9/30 차기이월	**2,440,000**
	2,600,000		**2,600,000**
10/1 전기이월	**2,440,000**		

하 우 스

9/1 자본금	450,000	**9/30 차기이월**	**450,000**
	450,000		**450,000**
10/1 전기이월	450,000		

대 농 기 구

9/1 자본금	150,000	**9/30 차기이월**	**150,000**
	150,000		150,000
10/1 전기이월	150,000		

자 본 금

9/30 차기이월	**3,040,000**	9/1 제 좌	1,600,000
		9/30 손 익	1,440,000
	3,040,000		3,040,000
		10/1 전기이월	3,040,000

채소수익

9/30 손 익	**1,600,000**	9/10 현금	1,600,000
	1,600,000		1,600,000

노 임

9/25 현 금	100,000	**9/30 손 익**	**100,000**
	100,000		100,000

임 차 료

9/30 현 금	10,000	**9/30 손 익**	**10,000**
	10,000		10,000

잡 비

9/25 현 금	50,000	**9/30 손 익**	**50,000**
	50,000		50,000

손 익

9/30 노 임	100,000		
임차료	10,000	9/30 채소수익	1,600,000
잡 비	50,000		
자본금	**1,440,000**		
	1,600,000		1,600,000

4. 합계잔액시산표

차 변		계 정 과 목	대 변	
잔 액	합 계		합 계	잔 액
2,440,000	2,600,000	현 금		
			160,000	
450,000	450,000	하 우 스		
150,000	150,000	대농기구		
		자 본 금		
		채소수익	1,600,000	1,600,000
100,000	100,000	노 임	1,600,000	1,600,000
10,000	10,000	임 차 료		
50,000	50,000	잡 비		
3,200,000	3,360,000		3,360,000	3,200,000

5. 이월시산표

차 변	계정과목	대 변
	현 금	
2,440,000		
	하 우 스	
450,000	대농기구	
150,000		
	자 본 금	3,040,000
3,040,000		3,040,000

6. 대차대조표

(2000. 9. 30.현재)

자 산		부 채 및 자 본	
현 금	2,440,000		
하 우 스	450,000	자 본 금	1,600,000
대 농 기 구	150,000	**당기순이익**	**1,440,000**
	3,040,000		3,040,000

7. 손익계산서

(2000. 9. 1-9. 30)

비 용		수 익	
노 임	100,000		
임 차 료	10,000	대식물수익	1,600,000
잡 비	50,000		
당기순이익	**1,440,000**		
	1,600,000		1,600,000

컴퓨터로 농가경영 장부 쓰기

강 효 순

(주) 골드팜

Ⅰ. 들어가는 말

Ⅱ. 과학적 경영
1. 경영이란 무엇인가?
2. 경영기록의 필요성
3. 경영기록에 필요한 장부
4. 경영진단요령
5. 경영설계와 목표

Ⅲ. 회계관리
1. 회계장부 기장요령

Ⅳ. 프로그램 사용법
1. 회계프로그램의 이점
2. 프로그램 설치방법
3. 사용방법
4. 회계프로그램 입력절차

Ⅴ. 나오는 말

컴퓨터로 농가경영 장부 쓰기

Ⅰ. 들어가는 말

산업혁명 이후 서구 여성들은 유급의 노동력으로 흡수되면서 경제력이 향상되었고, 경제적 주체로서의 영향력을 점차로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 나라의 경우 경제권은 오래전부터 남자들의 전권이었던 것으로 일반에서는 오해되어 왔다. 그러나 우리 전통사회에서는 이미 곡간 열쇠가 며느리들의 몫이었으며, 경제주체로서 결코 소외되지 않았었다. 또한 근자에 이르러서도 장기적으로 집을 늘리거나 가계의 목돈을 마련하는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것은 역시 여성들의 몫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소규모의 농업에 있어서 여성은 취사, 세탁, 육아 등 가사노동과 더불어 농업에도 적극적으로 일익을 담당하기 때문에 농업과 그에 따른 농가경영 및 회계관리도 소홀히 할 수 없다. 경제적 능력을 갖추는 일은 돈을 벌어들이는 일뿐만이 아니라 재산 관리 능력도 포함이 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은 가일층 무게를 더한다고 할 것이다.

여성들에게는 남성들과는 다른 특유의 능력이 있다. 그 중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능력은 여성들이 한꺼번에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이를테면 아기를 업고 밥을 하면서 아이들 숙제를 봐주거나 설거지를 하거나, TV를 보면서 다림질도 하고 자녀들과 대화도 나누는 등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하는 탁월한 능력을 지니고 있다.

또한 정보활용도에서도 여성이 우위를 나타내고 있는데, '한국의 표준 네티즌'을 찾기 위한 조사에서 '다음'(daum.net)과 공동으로 한겨레신문 <닷21>은 '다음'의 회원들을 대상으로 인터넷 이용경력, 이용 형태, 컴퓨터보유 및 초고속망 연결 여부 등 31개 항목에 걸쳐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다. 이 조사에서 설문응답자 3만 5천 8백 8십만명의 인적구성을 분석한 결과 10대가 45.1 퍼센트로 가장 많았고, 성별로는 여성이 60 퍼센트에 이르렀다. 인터넷 이용에 있어 여성이 남성보다 훨씬 높은 이용률을 잘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이다.

이런 여성 특유의 탁월한 능력들이 잘 살려진다면 여성농업인 들은 주부의 역할만으로 만족하거나 농가에서 단순한 보조인력으로서 농사일을 거드는 것 뿐만 아니라 농가 경영에 있어서 경영가인으로서 입지를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Ⅱ. 과학적 경영

1. 경영이란 무엇인가?

종래에는 사람, 돈, 물자(Man, Materials, Mechanics)등의 3M이 중시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인터넷과 각종 매체를 통한 제4의 자원으로서 정보(Information)가 추가되고 있다.

따라서 자원의 관리를 대상으로 하는 경영은 크게 나누어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생산/운영관리(Production/Operations), 물적인 흐름을 대상으로 하는 유통(Marketing), 그리고 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정보관리로 요약할 수 있다. 즉 경영은 이같은 것들을 계획, 조직, 지휘, 통제하는 것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농업경영혁신의 목표는 토지, 노동, 자본 등을 잘 활용하여 상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일 이다. 상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것 자체가 경영이고 이를 보다 조

직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경영개선이다.

농가 현실에 맞는 경영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영농일지와 매입·매출 장부 등을 중시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가능하다면 경영계획을 세운 뒤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이를 검증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농가의 현실로 보면 거의 모든 농업주체들이 농사일을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해 왔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농업경영이 이뤄진 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 다음의 세 가지 특성 때문이기도 하다.

농가경영은 다음과 같은 세가지 특징을 가진다.

첫째, 경영과 가계가 미분리된 상태라는 점이다.

둘째, 농가경영은 대체로 가족노동에 의존해 있다.

셋째, 영농의 목적이 이윤획득에 있지 않고 대부분이 생계유지를 위해서 노동한 만큼에 대한 급부를 얻는 데 있다.

그러나 성공적인 농업경영을 위해서는 종래의 이같은 태도를 버리고 남다른 계획을 수립하여야한다. 그러므로 계획을 잘 수립하는 것은 훌륭한 경영에 있어서 절반의 성공에 해당하는 중요한 일이다.

2. 경영기록의 필요성

농산물에서 소득이 얼마나 있었고, 왜 손실이 일어났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경영개선에 있어서 크게 도움이 된다. 그러나 대다수의 농가들은 영수증이나 사람의 기억에만 의존하는 것이 경영 기록의 전부인 경우가 허다하다. 그러나 기록이 없이는 영농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으므로 경영기록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두 가지 작목을 농사지었을 때 정확한 경영기록을 남기지 않으면 실제의 이익을 낸 작목과 그렇지 못한 작목이 서로 뒤바뀌는 실수를 할 수도 있다.

현재 농림부, 농촌진흥청 등에서는 많은 예산과 인력을 동원하여 컨설팅에 주

력하고 있으나, 대다수의 농가에서는 기장미비와 경영기록이 없어 데이터가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이 많이 노정된 상태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경영의 방향과 지침을 내놓기가 어렵다. 기록이 없이는 컨설팅, 경영개선 및 진단 작업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고 그 결과 올바른 경영분석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한국 농가가계의 특징은 계절에 따라 수입에 차이가 있다는 점과 영농비(營農費)와 가계비(家計費)가 잘 구분되지 않고 혼재 내지는 혼용되고 있기 때문에 기록으로 남는 예가 드물다. 이러한 까닭에 농가의 가계는 지출 면에서도 계절적으로 기복이 많으며, 그 지출의 내역도 순수가계비와 영농비를 따로 구분하기가 어렵다.

또한, 농가에서 자가생산품이 직접 소비와 판매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 계산적으로는 농사경영면에서는 수입이 되고 생활 면에서는 지출이 되어야 하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이러한 구분 경리를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경영진단의 주요과제가 되는 것은 토지, 노동력, 자본 등 농업경영의 요소를 분석하여 그 실태를 점검하고, 농업의 주 수입과 경영비, 농업소득과 가계지출 등의 세분화와 경영기록의 자료를 분석함으로써 경영요소간의 상관관계를 밝히는 것이다.

또한 생산되는 작목 구성을 조사하고 그에 따른 경영조직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동시에 각 작목의 수익성을 검토하여 비교 분석하는 것 또한 주요한 일이다.

특히 농업의 경영규모가 확대되고 상업화가 진행됨에 따라 다량의 농산물을 시장에 판매하게 하고 많은 생산자재를 외부에서 구입하여 투입하게 되는데 이 같은 복잡한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경영내용의 정확한 기록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리고 경영의 투입과 산출을 정확하게 기장함으로서 생산원가를 파악하여 수익과 비용 또는 이익과 손실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농업소득을 높이려면 농업조수입을 높이는 한편, 농업경영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경영을 하는 길밖에 다른 수가 없다.

3. 경영기록에 필요한 장부

농업부기는 농업경영에 있어서의 수입과 지출을 비교하여 경영의 성과인 손익이 구체적으로 자산의 증감에 어떻게 반영되었는가를 일정한 양식을 장부에 숫자로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농업부기를 통해 농업경영자가 항상 재무상태와 경영현황을 점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얻어진 자료를 토대로 분석해서 좋은 것은 더욱 좋게 그리고 부진한 부문은 개선 계획을 세워 실천함으로써 경영합리화에 다다를 수 있다.

부기는 장부의 종류와 기입방법에 따라 단식부기와 복식부기로 구분한다.

- **단식부기**는 인명 · 채권채무 · 현금출납 · 상품 매입과 매출 등 적당한 방법으로 기장하는 부기형태이다. 단식부기는 유기적 관계의 변화의 기록없이 기록대상에 관한 것만 기록한다. 단식부기는 자본계통의 계정이 없이, 오직 재산구성부분의 변동만을 기록하므로 손익계산의 상세한 내용을 표시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단식부기는 소규모 기업과 가계(家計) 또는 손익을 산출할 필요가 없는 관청 등에서 쓰이고 있다.

- **복식부기**는 자본운용 과정의 집약적 성과인 손익을 자산측과 자본측의 양면계산을 하고 이것을 대조하여 자기 검산을 할 수 있는 부기형태이다. 복식부기의 본질은 기업이 계정 및 계산대상을 완전한 대응관계에서 파악할 수 있는 것을 기술적 조건으로 하여야 된다. 그렇게 되어야 계정기입가치액은 총액이나 각 계정잔액의 합계에 있어서나 반드시 대차균형관계가 성립된다.

단식부기는 자산의 변화에 관한 기록만 하고 자본에 대한 기록은 하지 않는 부기이다.

이에 반해 복식부기는 분개장과 원장을 중요한 장부로 취급하여 하나의 거래를 자산과 자본의 양면에서 기록하는 것이다. 복식부기는 사업의 경과에 따라 하나의 수입과 지출을 대변과 차변에 항상 같은 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으므로 기장시에 발생되는 착오를 쉽게 발견 정정할 수 있고 또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의 작성을 요긴하게 하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복식부기는 일정한 이론에 의해 체계화된 부기인 만큼 농업경영자가 기장을 하는데 있어서도 일정한 법칙에 따라야 하므로 부기에 대해 충분한 지식과 기능을 필요로 한다.

경영규모가 큰 기업형태의 농가에서는 복식부기가 편리하겠지만 일반적인 농가는 복식부기에 대한 이론을 쉽게 현장에서 활용하기 어렵고 비교적 단위가 적어 복식부기를 써야 할 필요성이 적기 때문에 단식 부기를 써도 무방하다.

단식 부기도 부기의 일종인 이상 일정한 장부를 구비하여야 하며 반드시 일정한 순서와 방법에 따라 기록함으로써 농업경영의 실태를 올바르게 파악하도록 해야 한다.

경영 기록에 필요한 주요 장부로는 현금 현물 기록장. 영농 작업기록장, 자산산, 결산장부 등이 있다. 이를 위해 노트나 농협, 농촌지도소 등에서 나누어주는 장부를 이용할 수도 있고 컴퓨터용 회계프로그램을 이용할 수도 있다.

농촌지도소나 농협의 장부의 장점은 새로운 습득 방법을 통하지 않고도 기록할 수 있는 이점이 있으나 일일이 계산하는 번거로움과 통계 자료를 파악하기 힘들다. 그러나 회계프로그램은 사용법을 익히면 자동 계산과 각종 통계표 보기가 탁월하여 꾸준히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확한 자료를 만들어낼 수 있다.

4. 경영진단요령

1) 농장전체의 판매수입/영농비를 파악한다. 즉 농장전체의 수익성을 파악한다.

2) 작목별 즉 사업부별 판매수입/영농비를 파악한다. 경영성과의 진단지표 항목은 수량, 조수입, 경영비, 소득, 소득율, 생산비, 토지생산성, 노동생산성, 자본 효율 등을 선정하여 지표화 한다. 작목별 수익성을 파악한다.

3) 각 비목별 발생액을 파악한다.

어느 비목에서 과다/과소가 있었는지 파악한다.

4) 거래처별 발생액을 파악한다.

① 거래처별 외상매출금 잔액

② 거래처별 외상매입금 잔액

③ 거래처별 판매액/구입액 등

5) 현재의 재산상황을 파악한다.

현금, 예금 잔액 외상매출금 미회수 잔액의 규모 및 악성여부, 토지, 건물, 기계장치 등에 대한 과다여부 등이 주요 분석항목이라고 할 수 있다.

6) 현재의 부채상황을 파악한다.

부채는 외상매입금, 미지급금, 할부 미지급금 장단기 차입금의 합계이다(장기와 단기의 구분은 분석시점에서부터 1년이내에 상환해야 하는 채무는 단기채무, 분석시점에서부터 1년이후에 상환해야 하는 채무는 장기채무라고 한다).

부채는 장단기 자금흐름에 가장 많은 문제를 야기하므로 부채 원리금 상환 스케쥴 파악과 이에 따른 대책 수립이 가장 중요하다.

7) 자금수지 계획표 작성

자금은 현금과 예금의 합계금액이다.

다음의 항목의 금액을 월별 또는 분기별로 작성한다.

① 자금시재 : 현금 + 예금잔액

② 자금의 유입

- 현금판매금액
- 외상대 회수액

③ 자금의 유출

- 각종 영농비 지급액
- 외상대 지급액
- 차입금 원금 및 이자 지급액
- 할부금 지급액
- 기계/시설투자 및 보수 지출액

④ 차액 : 자금시재 + 유입액 - 유출액

차액이 마이너스이든 플러스이든 차입, 증자, 외상대금 회수강화 등의 대책을 수립한다.

8) 요약

① 경영개선은 수익성을 개선해서 판매수입과 영농비의 차액을 증대시킨다.

② 재무구조 개선은 재산과 부채의 비중 특히 부채규모의 축소로 자금흐름을 원활하게 하는데 있다.

5. 경영설계와 목표

합리적인 설계는 지난해 경영진단으로 발견된 문제점이 개선되도록 계획하되 자원을 최대한 이용 할 수 있고 합리적이며 실천 가능하도록 설계한다.

실천 가능한 목표는 농가가 속해있는 지역의 생산조건, 판매여건, 경영주의 자본과 경영여건을 고려하여 경영목표를 설정하되 전년도의 경영실적이나 전국 또는 그 지역의 표준값을 참고하여 실질적인 목표가 되도록 한다.

Ⅲ. 회계관리

1. 회계장부 기장요령

1) 일반사항

(1) 경영기록장은 과학영농의 첫걸음이므로 영농작업과 거래가 이루어지는 내용을 매일 정확히 기록한다.

(2) 경영진단결과로 얻은 지난 해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경영계획을 수립한다.

(3) 현금·현물기록장, 영농작업기록장을 발생당시 기록하고 월말에는 과목(작목)별로 필요한 부분만 월말 집계를 한 후 작성한다.

(4) 해당 연도말에 경영성과를 집계 분석하고 가계비를 산출하여 농가경제잉여금 및 자산, 부채의 변동사항 등을 파악한다.

2) 현금·현물 기록장

(1) 그날 현금현물출납과 생산된 현물의 가계소비를 기록한다.

(2) 적요란

거래가 이루어지는 내용, 물량을 기록한다. (외상거래인 경우 외상으로 표시)

(3) 과목란

① 작목명 : 벼, 보리, 콩, 참깨, 참외, 젖소 등

② 고정자산명칭 : 토지, 건물, 대농기구 등

③ 유동자산명칭 : 예금, 곗돈, 증권, 미수금, 대부금 등

④ 부채의 명칭 : 차입금 등

⑤ 가계비의 명칭 : 주식비, 부식비, 주거비, 광열수도비, 피복비, 교육비, 보건의료비, 관혼상제비, 문화비, 기타 가계비 등

⑥ 농외수입 및 지출의 명칭 : 대부금이자. 임대료, 임차료, 주식배당, 이자, 노임, 봉급, 세금, 보조금 등

(4) 수입란

① 재산적 수입 : 토지나 주식같은 재산이 변동되어 발생하는 수입으로 한쪽에서는 현금이 증가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토지나 주식이 감소하며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수입 즉, 토지, 건물, 대식물, 대농기구 등의 고정자산을 판매하였을 때의 수입, 저축, 예금 등을 사용하기 위해 인출한 돈, 대부금, 미수금 등을 받은 돈, 주식을 판매한 돈, 사채 농협 등에서 차입한 돈 등을 기록한다.

② 소득적 수입 : 농가에 소득이 되는 수입으로 농업 및 겸업생산물의 판매대금 즉 쌀, 보리, 채소, 과일, 축산물의 판매수입과 임산물 서비스업 등의 판매수입, 대여금이자, 임대료, 증권배당금 등의 재산이자, 수입, 노임, 봉급, 보조금, 축하금 등이 해당된다.

(5) 지출란

① 재산적 지출 : 토지나 주식같은 재산을 구입하기 위하여 현금 지출하는 경우로 현금이 다른 재산으로 변동할 뿐 실질적인 손실이 따르지 않는 지출 즉 토지, 건물, 대식물, 대농기구 등의 고정자산의 구입비용, 저축, 예금, 곗돈, 대여금, 증권구입 등

② 소득적 지출 : 농업이나 겸업생산물을 얻기 위한 지출 즉 비료, 사료, 농약, 종묘, 소동물, 소농구, 제재료, 임차료, 조세공과금, 지불노임, 차입금이자 등

③ 가계지출 : 가족의 소비생활을 위해서 소요된 일체의 지출을 말한다.

생산물 자가소비란은 농가가 자가에서 생산한 쌀, 보리, 콩, 채소, 계란 등의 생산물품 적당한 기간동안의 자가소비량을 품목별로 현금으로 환산하여 기록하며 김장, 된장, 간장 등은 제조·가공할때 원료대를 기록한다(자가 생산물을 타인에게 선물한 경우는 문화교제비에 포함시켜야 하므로 별도 표시를 한다).

④ 노임단가는 현금 지불액과 식사, 술, 담배 등 실비를 합산한다.

⑤ 월말에는 과목별로 수입액과 지출액을 계산하여 정리하며, 기타 월말에 정리되지 않는 사항 즉 고정자산의 수입, 지출, 빌려준 돈, 받은 돈 등은 잊지 않도록 표시한다.

3) 지출비목 분류표

(1) 종묘종축비 : 구입 및 자가생산 종자대, 과수묘목, 잠종, 가축구입비 등을 기록하되 정부수매 품목은 조곡 1등품 가격을 적용하고 기타 품목은 농가 구입가격 적용.

(2) 비료비 : 무기질 비료(질소 인산 가리질 및 복합비료 농용석회 규산질 토양 개량제) 사용량을 농가구입가격으로 계상

① 유기질 비료(퇴비, 구비, 계분, 인분뇨, 산야초) 사용량을 농가구입가격으로 계상

(3) 사료비 : 쌀겨, 밀기울, 배합사료, 콩깨묵 등 구입사료를 농가구입가격으로 계상하며 자급조사료는 재배지출비용으로 계상

(4) 농약비 : 병충해 방제용약제, 제초제, 전착제, 토양살충제, 쥐약 등을 농가 구입가격으로

(5) 재료비 : 비료·농약비에 계상된 재료를 제외한 모든 재료 즉 새끼, 철사, 말뚝, 왕겨, 소모성 재료등 을 구입가격으로 계상

(6) 광열동력비 : 농기계사용, 농업용 난방에 따른 전기, 연탄 등의 사용량을 구입가격으로 환산

(7) 고용농임 : 일고 및 연고 노동에 대한 품삯을 계상하되 노임단가는 현금지급액과, 식사, 술, 담배 등의 실물비요등을 합산하여 계산

(8) 임차료 : 대농기구, 시설, 토지 등을 빌려서 사용했을 경우 실제 지불된 비용

(9) 기타 : 수리비, 농지세, 소농구비 등 기록

Ⅳ. 프로그램 사용법

1. 회계프로그램의 이점

손으로 쓰는 수기 장부는 다시 계산하고 통계를 내야하는 불편함과 지나간 날짜나 잊은 장부 처리에 어려움이 있다. 종이 장부나 수첩에 쓴 영농일지의 또 다른 단점은 통계표 추출이 어렵기 때문에 잘 활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러나 회계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지나간 날짜나 잊고서 기록 못했던 장부까지 수시로 입력과 수정이 가능하고 계산이나 통계를 따로 내지 않고도 입력으로만 복잡한 계산을 하므로 처음 프로그램 사용법을 익히면 대단히 편리하다.

회계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주목적은 경영 통계를 수시로 파악하고 이 통계에 근거한 과학적 경영에 있다.

2. 프로그램 설치방법

1) 디스켓의 내용

(1) 프로그램은 1장의 CD-ROM에 저장되어 있으며, 복사방지 장치를 하지 않았으므로 보통의 COPY명령으로 쉽게 복사할 수 있다.

(2) 디스켓에는 SETUP.exe라는 파일이 저장되어 있다.

2) 프로그램 설치요령

윈도우즈 95 내지 윈도우즈 98

(1) 컴퓨터를 켠다.

(2) CD-ROM을 넣는다

(3) 자동으로 프로그램이 설치된다. 다음의 사항을 확인 해주면 된다.

① 파일복사중..... 기다리십시오.(확인)

② 실행 후 시작에 프로그램 안에 프로그램 폴더가 생긴다.

③ 지식농업설치 프로그램입니다.(확인)

④ 아래 단추를 선택하여 설치를 실시합니다.(계속)

⑤ 이 파일을 유지하시겠습니까? (예)

⑥ 지식농업 설치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3. 사용방법

1) 프로그램 실행방법

(1) 컴퓨터 맨아래 시작을 누른다.

(2) 프로그램을 클릭하면 다른 프로그램이름들과 함께 지식농업이 있다.

(3) 지식농업 아이콘을 두 번 클릭 한다.

(4) 회계연도 입력을 요구하는 화면이 나타난다.

(5) 커서가 회계연도 입력박스에 위치한다. 현재의 연도가 미리 기록되어 있으므로 그 연도가 맞으면 엔터 키를 누른다. 다른 연도로 가고 싶으면 파랗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2001년 등과 같이 입력시킨 후 엔터 키를 누른다.

(6) 메인 메뉴가 나타난다. 마우스 또는 화살표 키로 원하는 메뉴로 이동하여 마우스를 누르거나, 엔터 키를 누르면 작업화면이 나타난다.

(7) 현재의 작업 메뉴를 종료시키거나 다른 작업메뉴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F9 또는 ESC키를 누르면 현재의 메뉴가 사라지고 메인 메뉴가 나타난다.

(8) 메인 메뉴에서 프로그램을 완전히 종료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ESC키를 2~3번 누른다.

2) 메뉴체계

(1) 장부기록

① 거래기록장 ② 종료

(2) 통계표보기

① 계정별 집계표 ② 거래처별 집계표 ③ 월별 수익 비용 ④ 합계잔액 시산표

⑤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⑥ 거래기록장 인쇄

(3) 등록 및 초기화

① 계정과목등록 ② 거래처등록 ③ 사업부등록 ④ 계정별 기초잔액 ⑤ 거래처별 기초잔액 ⑥ 고정자산 상각비 ⑦ 농장등록

4. 회계프로그램 입력절차

1) 준비사항

(1) 먼저 노트 1권을 준비한다.

(2) 지금까지 발생한 모든 거래 증빙서를 날짜순으로 노트에 붙인다.

(3) 증빙은 없지만 기억이 확실한 거래는 메모로 그 내역을 적어서 노트에 붙인다.

(4) 보관해야할 영수증 등은 다음과 같다.

① 각종 거래명세표, 입금표

② 은행지로 영수증, 신용카드 사용 내역서

③ 통장 입출금 표

④ 영수증이 없을 경우는 거래내역 메모

2) 실행방법

(1) 거래기록

① 거래기록장 메뉴로 들어간다.

② 화면 우상단의 추가단추를 누르면 커서는 날짜위치로 간다.

현재의 날짜가 표시되는데 거래 발생일자가 맞으면 그냥 엔터로 넘어

가고 아니면 날짜를 고친후 엔터를 누른다.

③ 커서는 사업부위치로 넘어간다. 사업부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공통이라는 글자만 파랗게 표시된다(사업부 등록법은 아래에 추가). 오이, 호박 등이 등록되어 있으면 그 사업부도 표시되나 일단은 엔터로 넘어간다. 즉 공통을 선택한다.

(공통 : 오이, 호박 2작물 재배 농가의 경우 트럭 등은 공통으로 사용된다. 이 경우 트럭유지비는 공통사업비에 해당되고, 공통사업비는 기말에 적당한 비례로 각 사업부에 배부해 주어야 한다.)

④ 커서는 경영 활동에 위치한다. 농산물을 판매한 경우에는 농산물 판매수입을, 영농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영농비 지출을 선택한다. 선택은 화살표키나 마우스로 해당글자를 눌러 그 줄을 파랗게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엔터키를 누른다. 여기서는 영농비 지출을 선택한다.

커서는 세부활동에 위치한다. 종묘비에서부터 영농비 세목이 보조화면에 나타난다. 비료비를 선택한후 엔터키를 누른다.

적요는 당해 거래에 대한 보조 설명에 해당되면, 한글 10자이내의 간단한 설명을 입력 후 엔터지를 누른다.

⑤ 커서는 거래 형태란으로 옮긴다.

입금거래면 1, 출금거래이면 2를 입력후 엔터키를 누른다.

⑥ 커서는 결제방법란에 위치한다. 현금으로 지출하였으면 현금지급을, 외상으로 구입하였으면 외상구입 선택후 엔터키를 누른다.

커서는 금액난에 옮긴후 금액을 입력후 엔터키를 누른다.

⑦ 커서는 계정번호란에 위치한다.

계정번호는 3자리의 숫자이며, 101부터 450까지 있다.

현금 매출이면 301을 입력후 엔터키를 누른다.

지출내용이면 앞에서 설명한 지출비기록을 참고하여 맞는 항목을 고른

후 엔터를 누른다.

※ 비용과목은 401부터 450까지이며, 계정과목과 그 번호를 모르는 경우에는 인쇄된 계정과목 리스트를 참조하거나, 커서를 화살표로 움직이면서 찾는 계정과목에 위치했을 때 엔터를 누른다.

F1을 이용하면 계정번호와 과목의 리스트가 나온다.

⑧ 이제까지의 절차를 반복하여 적어도 20~30회 정도의 거래를 기록해 본다.

⑨ 새로운 거래를 기록하고 싶으면 추가단추를 또 누른 후 위의 절차를 반복한다.

ESC키를 눌러 거래 기록장을 빠져나온다.

(2) 계정과목 등록

이 프로그램에서는 농가에서 발생하는 기본적인 계정과목 대부분을 제공하고 있으나, 그래도 계정과목이 자기농장에 맞는 것이 없으면 메뉴에서 새로 만들면 된다. 계정과목 등록은 지금까지 없었던 계정과목을 새로 만들거나, 이름을 바꾸거나, 불필요한 계정과목을 삭제하는 작업을 하는 것 전체를 의미한다고 보면 된다.

(가) 계정과목 만들기

① 먼저 추가단추를 누르면 커서는 계정번호란에 위치한다.

② 번호를 세자리 숫자로 입력 후 엔터를 누른다.

③ 계정과목 이름을 기입 후 엔터를 누르면 저장됨과 동시에 새로운 계정과목이 만들어진다.

(나) 계정과목 이름 수정하기

① 수정하고자 하는 계정과목을 마우스 왼쪽단추로 한번 클릭해준다.

② 해당 계정과목이 파랗게 되면 엔터를 누른다.

③ 커서는 계정과목 이름란에 위치한다.

④ 여기서 기존의 내용을 지우고 고친 후 엔터를 누른다.

(다) 계정과목 삭제하기

① 삭제하고자 하는 계정과목을 마우스 왼쪽단추로 한번 클릭 해 준다.

② 메뉴하단의 삭제단추를 누르면 삭제여부를 묻는 보조화면이 나타나는데 여기서 삭제단추를 누르면 된다.

(라) 유의사항

① 계정과목의 추가, 수정, 삭제 모두 거래기록장 입력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하면 된다.

② 계정과목 추가시에는 번호 결정에 주의해야 한다.

③ 기존의 계정번호와 중복이 되지 말아야 한다. 같은 반에 학번이 같은 학생이 2명이어서는 아니 되는 것과 같다.

④ 계정의 속성에 따라 번호 범위가 다르다.

유동자산 계정 : 101부터 150까지

고정자산 계정 : 151부터 199까지

부채계정 : 201부터 220까지

자본계정 : 240부터 250까지

판매수입, 잡수입 관련계정 : 301부터 399까지

영농비 관련계정 : 401부터 499까지

⑤ 계정과목의 수정 및 삭제는 초보 사용자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마) 계정과목 등록의 효과

① 계정과목 등록후 거래기록장에 가서 새로운 거래를 입력해 보면 그 효과를 알 수 있는데, 세부활동란 즉 비목 선택 입력을 위한 보조화면에 새로 등록한 계정과목이 나올 것이다.

등록이 안된 것은 보조화면에 보이지 않으나, 등록이 되면 보조화면에

나타나므로 해당 계정과목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바) 계정별 기초잔액

① 농장의 재산 및 부채상황을 각 항목별 즉 계정별로 잔액을 기입하는 메뉴이다.

② 이 작업을 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거래 기록을 하더라도 각 계정의 장부상 잔액과 실제잔액이 일치하지 않는다.

〈 보 기 〉

기초 현금잔액 100만원
기간 중 입금 : 20 만원
기간 중 출금 : 50 만원

이 농가의 경우 금고상의 잔액은 70만원인데, 기초 현금잔액이 얼마인가를 입력해 두지 않으면, 프로그램은 기간 중 입금액과 기간 중 출금액만을 표시 및 계산하여 현금잔액을 -30만원으로 표시한다.

이러한 오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각 계정별로 기초잔액을 입력해야 하는데, 기초 잔액이 없는 계정에 대하여는 굳이 입력할 필요가 없다.

또한 이 메뉴는 프로그램 최초 사용 시에만 실시하고, 그 후에는 대차대조표 차기이월이라는 방식에 의하여 자동으로 다음 연도로 잔액이 이월되므로 수동으로 입력할 필요가 없다.

(마) 계정별 기초잔액 입력하기

① 먼저 추가단추를 누르면 커서는 번호란에 위치한다.

② 계정번호를 입력 후 엔터를 누른다.

③ 번호를 모르는 경우에는 F1키를 누르면 계정과목 보조화면이 나온다.

④ 외상매출 금의 기초잔액을 입력하고 싶으면 보조화면에서 외상매출금을 선택 후 엔터를 누른다.

⑤ 금액을 입력 후 엔터를 누르면 저장된다.

⑥ 각 계정별로 이와 같은 절차를 반복한다.

⑦ 입력대상이 되는 계정은 101부터 299까지이며, 자산, 부채 및 자본계정이 입력대상이다.

(바) 기초잔액 조사 시점

거래기록을 시작하는 날짜의 바로 전날을 기준으로 조사한 금액을 계정별 거래처별 기초잔액 메뉴에서 입력한다.

금년 1월1일부터 거래기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현금, 예금 등의 잔액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입력하면 된다. 금년 7월4일부터 거래기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년 7월3일 기준으로 현금, 예금 등의 잔액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입력하면 된다.

(3) 거래처 등록

(가) 거래처 등록방법

① 거래처 등록메뉴로 들어간다.

추가 단추를 누르면 커서는 번호위치로 간다.

101부터 시작하므로 숫자 101을 기입 후 엔터를 누른다.

② 커서는 이름으로 간다. 경북농협 등의 이름을 기입 후 엔터를 누른다.

계속 엔터를 눌러 마지막 입력박스에서 다시 엔터를 누르면 우측화면 위의 내용이 표시되면 등록과 동시에 저장된 것이다.

또 다른 거래처를 등록하고 싶으면 다시 추가단추를 눌러 위의 절차를 반복한다.

(나) 거래처 기초잔액

계정잔액 입력후 각 계정별로 거래처별 잔액을 기입하는 메뉴이다.

기초 외상매출금 잔액 1,000만원을 계정별 기초잔액 메뉴에서 입력하였다 하더라도 이것만 갖고는 고도의 경영관리를 할 수 없다.

전년도에 외상매출 후 못받은 총 금액이 1,000만원이라는 정보도 중요하지만, 각 거래처별로 못받은 금액과 올해 받아야 할 금액이 얼마인가를 보여줄 보다 구체적인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계정별 기초잔액은 총액개념이고 거래처별 기초잔액 입력메뉴는 부분금액 개념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 보 기 〉

기초 외상매출금 잔액 1,000 만원
동화청과 200 만원
가락청과 450 만원
경북청과 350만원

〈 입 력 순 서 〉

① 보통예금의 계좌별 잔액도 위와 같은 순서로 입력하면 된다. 먼저 외상매출금 총액을 계정별 기초잔액 메뉴에서 입력한다.
② 거래처별 기초잔액 메뉴로 간다. 2개의 리스트 화면이 보이고, 왼쪽에는 외상매출금잔액 및 각 계정의 기초잔액이 보인다. 외상매출금의 거래처별 기초잔액을 입력하기 위해서는 왼쪽화면의 외상매출금을 마우스로 한번 눌러주면 파랗게 된다.
③ 이 상태에서 추가단추를 누른다. 커서는 거래처 번호란에 위치한다.
거래처 번호를 알면 직접 그 번호를 입력한다.
④ 모르면 F1 키를 눌러 거래처를 선택 후 엔터를 누른다.
커서는 금액란으로 이동한다.
⑤ 금액을 입력 후 엔터를 누르면 오른쪽 보조화면에 방금 입력한 내용이 표시된다.
⑥ 외상매출금 총액이 1,000만원인데 위의 예제를 입력하는 경우 현재는 200만원만 입력이 되어 있을 것이므로, 추가단추를 눌러 나머지 거래처별 금액을 입력하여 외상매출금 총액과 일치시키면 된다.

(다) 기타

우선 보통예금 총액을 계정별 기초잔액 메뉴에서 입력한다

각 계좌가 거래처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 아직 안되어 있으면 거래처 등록을 실시한다.

(4) 사업부 등록

(가) 사업부 등록방법

① 사업부 등록메뉴로 들어간다.

추가 단추를 누르면 커서는 번호위치로 간다.

1부터 시작하므로 숫자 1을 기입 후 엔터를 누른다.

② 커서는 이름으로 간다. 오이 등의 이름을 기입 후 엔터를 누른다.

③ 커서는 업종으로 간다. 숫자 1을 기입 후 엔터를 누른다.

④ 커서는 기초 원재료 등으로 가는데 계속 엔터로 통과하여 마지막 입력박스에서 엔터를 누르면 리스트 박스에 위의 내용이 표시되면 저장되고 또 등록된 것이다.

또 다른 사업부를 등록하고 싶다면 다시 추가단추를 눌러 위의 절차를 반복한다.

(나) 거래처 및 사업부 등록효과

① 등록이 되면 거래기록장 메뉴에서 활용된다.

② 거래기록시 사업부 입력 위치에 오이 등의 작물 내지 사업부가 표시되어 어느 작목의 경비 또는 수입인지 파악할 수 있게 하여준다.

③ 적요에서 엔터를 치면 거래처 입력박스가 나타나는데 여기에서 F1 키를 누르면 등록된 거래처 리스트가 표시되고, 이중 어느 하나를 선택 후 엔터를 누르면 팔기는 팔았는데 누구한테 팔았는지가 파악된다.

적요란 기입을 소홀히 하면 어느 작목인지 또 누구에게 판매 또는 구매

하였는가 등의 꼬리표만 달아주면 각 작목별 손익계산서 및 거래처별 구입이 얼마인가 등의 통계표를 프로그램이 자동적으로 작성해준다.

그러나 거래기입시 어느 작목이고 누구와 거래하였는가를 알려주지 않으면 전체적인 통계표만 작성할 수 있을 뿐 세부적인 통계표는 작성되지 않는다.

(5) 거래기록의 추가, 수정, 삭제, 저장

(가) 추가

새로 넣기 또는 새로 기입하기 정도에 해당되며, 본 프로그램에서는 화면 우상단에 추가단추가 있으므로 새로운 거래를 기입해야 할 때마다 추가단추를 눌러주어 프로그램이 새로운 거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야한다. 거래기록 뿐만 아니라 거래처 및 사업부 등록 등 모든 메뉴에서 추가, 수정, 삭제, 저장 방법은 동일하다

(나) 수정

① 리스트 박스에서 수정 하고자하는 라인을 마우스 또는 화살표 키를 눌러 파랗게 만든다. 엔터 키를 누르면 커서는 화면 상단의 입력박스로 이동한다.

② 금액을 수정할 경우에는 마우스로 금액란을 한번 눌러 준 후 금액을 고친 후 계속 엔터키를 눌러 마지막 입력박스에서 다시 엔터를 누르면 수정한 내용이 저장되며 동시에 리스트 박스 맨 하단에 표시된다.

(다) 삭제

리스트 박스에서 수정 하고자 하는 라인을 마우스 또는 화살표 키를 눌러 파랗게 만든다. 화면 우상단의 삭제 단추를 누르면 예스 또는 노를 묻는다. 위에서 예를 누르면 삭제된다.

(라) 저장

마지막 입력박스에서 엔터를 누르면 자동 저장되므로 저장단추는 거의 사용할 일이없다.

(6) 통계표 보기

거래기록장 메뉴에서 입력한 내용을 다양한 방식으로 통계화하는 메뉴가 통계표 보기이다.

거래기록장은 각종 거래, 기입 기능만 있고, 입력된 데이터의 계정별 집계 등은 통계표 보기 메뉴에서 볼 수 있다.

(가) 월별수익비용

① 거래기록장에 입력된 내용을 통계표의 형태로 보여준다. 화면에서 본 내용 그대로 인쇄할 수도 있다.

② 통계표 보기를 클릭 한다

③ 커서는 최초에 사업부란에 위치한다. F1 키를 누르면 보조화면이 나온다.

④ 먼저 전체를 선택하여 엔터를 누른다.

⑤ 커서는 월로 이동한다.

입력된 마지막 월이 자동으로 표시되는데 그냥 엔터로 넘어가거나 보고싶은 월을 입력 후 엔터를 누르고 기다린다.

⑥ 판매수입 및 영농비 통계가 보인다.

화면 우측하단의 세모표시를 누르면 우측으로 말려있던 데이터가 표시되므로 1월부터 12월까지라도 한 화면에서 볼 수 있다.

⑦ 작목별 통계를 보고 싶으면 사업부란을 마우스로 한번 눌러 준다.

F1키를 눌러 해당 작목 선택 후 엔터를 누른다.

월 입력 후 엔터를 누르고 기다리면 작목별 통계가 나온다.

(나) 계정별 집계표

각 계정별 거래 발생내역을 일자별로 표시해 준다.

① 월별 수익/비용 메뉴에서는 전체적인 흐름을 관찰하고, 각 계정별 세부파악은 이 메뉴에서 실시한다.

② 보고자 하는 시작 계정번호, 끝 번호, 시작 월, 끝 월을 입력하면 되나, 메뉴를 띄우면 이 내용은 자동으로 표시되므로 엔터 키만 4번 누르면 각 계정별 거래내역이 표시된다.

③ 판매수입계정만 보고 싶으면 시작 계정에 301, 끝 계정에도 301을 입력하면 되고, 영농비 전체를 보고 싶으면 시작계정에 401, 끝 계정에 450을 입력하면 된다.

④ 3월부터 5월까지 보고 싶으면 시작 월에 3, 끝 월에 5를 입력후 엔터를 누르면 된다.

⑤ 다음 계정으로 이동하여 보고자 하는 경우에는 마우스로 화면 우상단의 > 단추를 누른다. 이전 계정으로 다시 가고 싶으면 < 단추를 누른다.

⑥ 인쇄는 인쇄단추를 누르면 된다.

(다) 합계잔액 시산표

① 월계표를 보고 싶으면 월계표라고 쓰인 단추를 마우스로 누른다.

② 보고자 하는 월을 입력 후 엔터를 누르면 된다.

(라) 손익계산서

판매수입, 영농비 그리고 그 차액을 보여주는 통계표

① 커서는 기말재고액에 위치한다.

초보자는 엔터를 누르면 보조화면이 나온다.

② 전체 손익계산서를 선택한다.

③ 엔터를 누른 후 기다리면 농장 전체의 손익계산서가 표시된다.

④ 작목별 손익계산서를 보고자 하면 기말 재고액을 마우스 한번 누른 후 엔터를 눌러 해당 작목 선택 후 엔터를 누르면 해당 작목의 손익

계산서가 표시된다.

⑤ 대차대조표 즉 재산/부채 상황표를 보고자 하는 경우에는 먼저 전체 손익계산서를 화면에서 본 후 기말 재고액란에 마우스를 누른다.

⑥ 엔터 키를 누르면 보조화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대차대조표를 선택한다.

(마) 차기이월

손익계산이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정확한 대차대조표가 작성이 되었다고 판단되면 차기이월 단추를 눌러 지금 작성된 대차대조표를 다음 연도로 넘겨 다음 연도의 잔액계산이 정확히 이루어지도록 해야한다.

(바) 코드 이월

새해가 되었어도 전년도 장부를 마무리 즉 정확한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지 못하여 차기이월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차기이월을 하지 않으면 사업부 및 거래처 번호 등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불편이 있으므로 차기이월을 할 수 없는 경우 코드이월을 하면 다음 연도에서 전년에 썼던 사업부, 거래처 코드를 계속 사용할 수 있으므로 거래처 등록 등을 다시 할 필요가 없게 되는 편리함이 있다.

(7) 인쇄하기

① 인쇄 및 조회메뉴의 월별 수익비용 메뉴를 클릭 한다.

먼저 전체를 선택 후 엔터를 누른다.

월별 수익/비용에서 농장전체의 수익성을 관찰한다.

② 커서는 사업부에 위치한다. 엔터 또는 F1 키를 누르면 전체 공통 오이 호박 등이 나타난다.

계정별 집계표에서 계정별 발생금액을 파악한다.

③ 커서는 월별까지로 이동한다. 이미 데이터가 있는 마지막 월이 표시된다. 엔터를 누른 후 기다리면 월별 수익비용에 관한 통계가 표시된다.

화살표 마우스 등으로 이동해가며 관찰한다. 이 상태에서 인쇄키를 누르면 인쇄된다.

④ 작목별로 파악하고 싶으면 사업부 박스에 마우스를 한번 누른 후 F1 키를 누르면 작목이 표시되고 여기서 해당 작목 선택 후 엔터를 2번 누르면 커서는 월로 간다. 여기서 해당 월을 입력 후 엔터를 누르면 된다.

V. 나오는 말

변화되는 농업환경의 대처방법은 정보와 지식이다. 여성 농업인들은 농사계획을 세우고 경비를 조달하며 모자라는 인력을 구하고 판매하는 일까지 담당하는 경영자의 자질을 농가에서 보여줬다. 그러나 많은 노동과 시간을 투자하면서도 보조적 위치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 또한 사실이다. 여성농업인의 일터인 농가에서 타고난 적성과 재능을 발휘한다면 좀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농가경영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재능들이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발휘돼 질적으로 향상된 농촌의 현실을 이루어 낼 몫도 여성의 것이다.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천부적인 다양성, 적극적인 수용태도, 섬세함이야말로 정보시대에 걸맞은 농업경영을 이루어 낼 것이고 여성의 특유의 기술과 적성이 적합성을 웅변적으로 역설해 줄 것이다.

농업경영에 보탬이 되는 농업정보 이용

최 수 영
경북대학교

Ⅰ. 정보화사회의 농업경영인

Ⅱ. 정보화는 우리 농업의 미래
1. 정보는 힘이자 돈이다
2. 정보가 농업의 미래를 만든다
3. 새로운 농업정보원, 인터넷

Ⅲ. 인터넷, 자유자재로 사용하기
1. 인터넷에는 이런 정보가 있다
2. 할아버지의 반란, 인터넷에 소중한 농업관련 정보들이

Ⅳ. 이젠, 인터넷으로 농산물을 판다
1. 낙생자연농원의 김문수씨
2. 덕유농장의 반딧불이 사과, 이상오씨
3. 진영식품의 칡분말 전문생산업체 권성자씨
4. 외국의 인터넷 상거래, 옹광 토마토

Ⅴ. 인터넷 시대, 우리 농업의 희망은 디지털

농업경영에 보탬이 되는 농업정보 이용

Ⅰ. 정보화사회의 여성농업경영인

'경쟁력 있는 여성농업경영인 되기'는 이 시대가 요구하는 화두이다. 컴퓨터 기술과 전기통신 기술이 결합하면서 비약적인 발전을 보이기 시작한 새로운 사회기술이 바로 정보기술이다. 이 새로운 기술은 종래 농업사회나 산업사회의 사회기술인 농기구나 동력기관 등이 인간의 노동생산성을 증가시킨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다.

사실 정보란 사람이나 조직이 의사결정을 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의미하는 단순한 말에 불과하다. 하지만 정보가 기술과 결합되어 '정보기술'이 되면 사정은 달라진다. 컴퓨터를 통한 정보의 처리 저장과 전기통신을 통한 즉시(卽時)적인 정보의 전달을 실현시킴으로써 정보의 생산 유통을 비약적으로 증대시켜 지금까지의 기술로써는 불가능하던 인간의 판단과 처리능력을 향상시키는 무소불위의 존재자가 되어 버렸다.

신체로 비유할 때 농기계와 동력기관이 근육의 힘을 배가시켰다면 컴퓨터와 통신장비는 인간의 두뇌와 신경의 기능을 향상시킨 셈이다. 뿐만 아니라 종래의 두뇌 없는 단순동작의 기계가 두뇌와 신경을 갖춤으로써 더 정확하고 더 빠르고 더 안전하게 되어 기존의 동력기관을 이용한 각종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 유통 소비도 크게 향상되고 있다.

따라서 사회적 기술로서 정보기술은 단순히 사회전체의 물적 생산력의 증대뿐만 아니라 정보의 생산 유통 소비를 통한 지적 생산력의 증대를 가져왔다. 정보기술은 이처럼 정보의 적시적인 생산 유통을 통하여 인간의 판단과 처리능력을 향상시킬 뿐 아니라 기계적 생산력의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정보가 물질자원이나 에너지 자원이상의 중요한 가치를 지니도록 하였다.

따라서 정보화사회에서는 정보기술이라는 사회기술을 바탕으로 정보가 물질자원이나 에너지보다 더 큰 가치를 가지고 경제 사회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정보기술을 바탕으로 한 정보의 수집 가공 처리 및 분배가 부의 중요한 원천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정보의 적시적인 생산유통을 통하여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 소비가치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인간은 물질 및 재화의 생산, 소비가 어느 정도 충족될 경우 정보 또는 지식에 대한 욕구가 증대하므로 사회발전에 따라 정보 그 자체의 소비욕구가 늘어나게 된다.

정확한 정보의 생산과 유통은 한 국가나 조직, 개인에게 있어서 경쟁력에 핵심열쇠인 것이다. 따라서 과거 산업사회에서는 부국으로 성장한 나라들은 모두 남보다 먼저 공업화를 이룩한 나라들이지만 앞으로는 국가간의 경쟁에서 정보화는 그 나라의 선진화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이는 국가뿐만 아니라 한 개인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Ⅱ. 정보화는 우리 농업의 미래

1. 정보는 힘이자 돈이다

'수염이 석자라도 먹어야 양반'이라는 옛말이 있다. 아무리 허세가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사람은 먹지 않고 살수 없다는 말이다. 먹을 것의 해결은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이고 농사나 목축 등을 통하여 거둬들이는 식량은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될 필수적인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식량과 아무런 관계가 없

어 보이는 정보가 21세기에는 힘이 되고 돈이 된다고 한다. 실제로 정보가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지를 한번 살펴보자.

미국의 대표적인 시카고 곡물시장의 곡물메이저들은 세계 도처의 하늘에 인공위성을 띄워놓고 세계 주요 곡창지의 일기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상되는 농산물 생산량을 지역별로 정확히 예측하고 있다. 이들의 세계 곡물생산에 대한 정보는 그 해의 곡물가격을 산정하고 나아가 대외 외교정책의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음은 유명한 이야기이다. 산업사회에서는 아는 것이 힘이지만 정보화사회에서는 정보가 힘인 것이다.

한동안 증권가의 주가폭등이 화제거리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투자자들은 재미를 그렇게 보지 못하고 외국 및 기관투자자들이 톡톡한 재미를 보았다고 한다. 증권가에서는 누가 기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정확한 자금 흐름을 파악하는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어떤 주식의 등락을 예측할 것이다. 일반투자자들이 기관투자자들에 비하여 정보를 제대로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주가가 폭등했음에도 재미를 못 본 가장 큰 이유이다.

이처럼 여러 가지 모습으로 정보의 효용성을 상상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정보가 우리 일상생활과 밀접하고 다양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보의 중요성은 옛날부터 존재해왔고 중시되어 왔다. 단지 과거에는 정보라는 것이 자자손손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던 것이 지금은 좀 더 편리한 그릇에 담겨서 편해졌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정보는 예나 지금이나 항상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가치 있게 평가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지금까지 우리 인류는 수많은 정보를 활용해 왔다. 그렇지만 정보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정보이용 기술이 제대로 개발되지 못했던 까닭에 정보가 필요한 장소, 필요한 시간에 활용되지 못하고 사장되는 경우가 흔했다.

그러나 정보화사회에서는 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컴퓨터가 보편화되고 정보를 대량으로 운반할 수 있는 통신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 이에 따라 정보의 가치는 지금까지와는 달리 엄청나게 높아진 것이다. 더욱이

컴퓨터와 통신이 결합했을 때에는 새로운 사회변혁을 유도하기까지 한다. 정보는 곧 산업사회에서 파생된 모든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열쇠이자 미래를 풀어갈 암호 해독문이 될 것이다.

2. 정보가 농업의 미래를 만든다

정보화 사회의 반향이 급속하게 번지고 있음에도 우리 여성농업인들의 정보화 수준은 상대적으로 뒤져있다. 이른바 정보격차가 도농간에 심각한 수준이다. 그렇지만 여성농업인이 우리 농업 정보화의 주역이 되어야 함은 주지의 사실이다. 세상은 이미 정보화시대의 중심에 서있다. 그러나 여성농업인들은 정보화의 주변에도 머물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여성농업인 중심, 여성농업인 주체의 정보화 인프라를 구축하는 문제가 중요시되고 있다. 정부의 정보화에 대한 언론 기관의 조사에 의하면 농림부가 상위에 랭크되어 있고 장관의 정보화 마인드도 수위를 차지했다. 농림부는 잘하고 있다는데, 여성농업인들에게는 정보화에 접근할 기회도 별로 없고, 또한 접근하여도 저급의 통신시설과 빈약한 데이터베이스로 실망감만 안겨주고 있다.

정부는 지속적인 농업 정보화에 대한 관심과 연구로 여성농업인들이 첨단 정보화 시대에 컴맹과 넷맹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현재 전국의 거의 모든 자치단체에서는 자체 통신망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고 인터넷에 홈페이지를 경쟁적으로 개설하여 놓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이 지역 주민들의 정보화 마인드를 갖게 하고 그것을 토대로 지역의 정보화 인프라 구축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려는 목적보다는 전시적인 행정으로 그치고 있다. 데이타 베이스가 가장 빈약하고 자료의 업데이트도 제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바로 자치단체의 통신망이요 인터넷 홈페이지이다. 또한 농촌에서 인터넷은 그야말로 지루함과 짜증 그 자체이다. 빈약하기 짝이 없는 데이터 베이스와 저속의 통신설비들도 문제

이다. 21세기를 지배할 정보화혁명 여기서도 여성농업인들은 소외되고 있다.

우선 여성농업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AFFIS에 농업관련 정보를 많이 개설하여, 농업인들의 의견과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물론 인터넷에도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지역 정보화에 대한 적극적인 연구를 통하여 농촌 지역의 정보화가 앞당겨질 수 있는 방도를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이제는 농업에도 정보화의 물결이 예외가 아니다. 컴퓨터 통신을 이용하여 도농간은 물론 생산농업인들간의 정보를 교류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농업용 소프트웨어의 보급이 다양한 수준에서 이루어져 이를 이용할 경우 합리적인 농업경영관리가 가능해진다. 뿐만 아니라 농가 안방에 앉아 예금처리를 하고 정부시책이나 각종 정책제안을 손쉽게 할 수 있다.

현재 우리 나라 농업정보 가운데 여성농업인들에게 도움을 줄 만한 정보는 다양한 수준에서 제공되고 있다. 농산물 가격 유통정보는 출하시기 및 출하장소 등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농업기상정보는 지역 농업의 기상을 제공함으로써 기상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정보이다. 농업기술정보는 농업부문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고 있으며 각종 영농상담에 임하고 있다. 지금 각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업정보119는 농업정보와 관련된 각종 문제를 직접 방문을 통하여 해결해 주는 정보센타이다.

농업인들의 각종 동호인 모임은 해당분야에 관심 있는 농업인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만든 집단으로 영농과정에서 일어나는 각종 문제의 해결방법을 요구하면 각종의 해결방법에 대한 도움을 주는 자발적인 모임체로 현재 다양한 통신매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들이다.

3. 새로운 농업정보원, 인터넷

요즘은 방송이나 신문에서 "정보화 시대", "지식기반사회"라는 등의 말을 많

이 한다. 사회가 발전하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점점 정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어떤 일에서 정보를 어느 정도 갖고 처리하느냐에 따라, 성공과 실패에 갈림길에 서게 된다. 이런 사정은 농업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옛날처럼 무턱대고 생산하면 되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 농업인들은 매번 어떤 것이든 결정의 기로에 서게 된다. 어떤 작목을 심을 것인가, 생산한 후에는 어디에다 팔 것인가, 저장을 할 것인가 아니면 바로 판매할 것인가 등 의사결정의 연속이다. 이런 결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일년 수지가 맞는 농사를 지을 수도 있고, 밑지는 장사를 할 수 도 있다.

힘들여 지은 농사를 지어서 밑지는 장사는 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매번 합리적으로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이때에 정확한 정보가 있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농산물 가격이 불과 몇 시간만에 급변하고, 또 어떤 해는 농산물이 많이 수입되기도 하기 때문에 정보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하겠다. 이제 농업에서도 정보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야 한다. 필요한 정보는 신속, 정확하게 찾아내고 넘쳐나는 불필요한 정보는 걸러 낼 수 있어야 한다. 농업경영에 정말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농업정보는 어디서,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

텔레비전, 신문, 잡지 등의 방송매체는 물론 대형할인점의 포장 방식도 눈여겨 잘 보고 좋은 점을 따와서 잘 사용한다면 훌륭한 정보 제공처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KBS 1TV에서 하는 "6시 내고향"은 우수한 영농, 가공 방법을 제공할 때가 많다. 또한, 농업인신문, 한국농어민신문 등의 농업관련 신문도 다양한 농업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대도시에서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는 대형할인점도 훌륭한 교과서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정보를 이용하려면, 많은 돈과 시간이 들 때가 많다. 바쁜 농사일에 이것은 정말 힘든 것이다. 그렇다면,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은 어떨까? 안방에 앉아서 인터넷을 하면서 얻을 수 있는 농업정보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또 농림부에서는 농업인들의 정보화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무료나 실비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기도 하다. 이를 잘 이

용하면, 비교적 쉽게 컴퓨터를 유능하게 다룰 수 있게 될 것이다.

인터넷에 넘쳐흐르는 정보 가운데 어디에 어떤 정보가 저장되고 있고 정말로 믿을 수 있는 유용한 정보인가? 이것은 정보를 이용하는 사람의 능력에 달려 있다고 하겠다. 정보의 홍수라 할 만큼 쏟아지는 정보들 가운데 나에게 정말로 필요한 정보를 어디서 찾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는 인터넷 항해 경험을 통해 습득되어 질 수 있을 것이다.

인터넷의 정보는 모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정보들이라는 신뢰를 갖는다면 대단히 위험한 생각이다. 인터넷은 칼과 같아서 주방장에게 주어지면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지만 살인자에게 주어지면 살인도구로 바뀔 수 있는 것처럼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인터넷의 정보를 이용함에 있어서 정보제공자의 신뢰성을 검증하고 이용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Ⅲ. 인터넷, 자유자재로 사용하기

대부분의 여성농업인들은 컴퓨터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거나, 막연하게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우선 이런 거부감이나, 두려움을 떨쳐버리는 것이 필요하다. 컴퓨터는 그렇게 어렵고 복잡한 것이 아니다. 인터넷 정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컴퓨터를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다. 다음의 사례가 그 사실을 잘 설명해 준다.

거제에서 30여년 동안 양계를 하고 있는 이동수씨는 무려 68세이다. 현재 육계 4만수를 사육하고 있다. 이동수씨는 기자재 도입, 기술 습득, 출하시기 결정, 방역정보, 기상정보, 정책 및 관련 법규 등을 PC와 인터넷으로 해결하고 있다. 그는 결코 많이 배운 것도 아니지만, 언제나 새로운 것을 배우는데 주저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여 "사이버닭할아버지"라는 애칭까지 얻게 된다. 이런 훌륭한 점이 널리 인정되어 2000년 농림부 신지식인 산업포장을 수상하기

도 했다. 이동수씨의 인터넷 농업정보활용 사례는 세계적으로 명성이 있는 '타임'지에 소개된 '말이 필요 없는' 세계적 농업인이라 하겠다.

(「한국농어민신문」. 2000. 2. 3.)

이동수씨는 68세로 젊은 층이 아니며, 검정고시 출신으로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도 아니다. 이동수씨의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이것을 자신의 농장경영에 적극적으로 이용했다는 점이다. 이런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자세가 농장경영에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1. 인터넷에는 이런 정보가 있다

인터넷을 이용해서 어떤 농업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 인터넷에서 기상정보, 가격 정보 등을 잘 파악하여 생산품의 판매, 홍보, 다음 작목의 선정에 이용함으로써 농가경제에 많은 보탬이 될 수 있다. 이미 여러 인터넷 사이트에서 유기농산물을 판매하고, 품질 좋은 과일 등을 판매하여 높은 수익을 높이고 있다. 다음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회계관리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다. 컴퓨터를 이용한 회계관리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회계업무의 전산화를 통하여 농업법인의 수익성 진단 및 경영개선에 활용할 수 있다. 농업인들에게 필요한 내용을 신속·정확하게 제공하는 인터넷 및 회계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실제로 농업기술원을 방문하거나, 농업관련 문의를 하는 것이 불편하고 어렵다. 그런데 인터넷을 이용하면, 농업경영에 유용한 인터넷 사이트를 쉽게 가볼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우선 우리 나라 농업정책을 총괄하는 농림부의 홈페이지(http : //www.maf.go.kr)에 가면 다양한 정보와 민원 안내도 받을 수 있다. 날씨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얻고 싶으면, 아피스를 이용하면 된다. 아피스의 홈페이지 주소는 "http : //weather.affis.or.kr"로 이 사이트에서 지역별로 자세하고 다양한 일기정보를 얻을 수 있다. 야후, 라이코스, 심마니 등은 유명한 인터넷 검색 사이트이다. 농업정보에 관한 것을 찾고 싶으면, 농업 전문 검색엔진를 이용할

수 있다. 한성 인터넷 센터가 그 곳인데, 이곳의 홈페이지 주소는 "http : //www.agrikorea.co.kr"이다.

영농에 대한 또 다른 촉진제는 인터넷에서 올 수 있다. 많은 가족농은 새로운 합병기업이 공유하는 많은 정보로부터 단절을 느끼고 있다. 인터넷은 가족농이 다른 사업과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한다.

아피스 출하지원시스템(http : //chulha.affis.net)도 유용한 농업정보 사이트이다. 제 아무리 질 좋은 농산물이라도 때맞춰 팔지 않으면 소용없는 일이므로, 제값을 받으려면 언제 무엇이 얼마나 생산되고 유통되는지를 잘 살펴야 한다. 아피스 농산물출하지원시스템은 전국 18개 공영도매시장 경락정보, 전국 농산물값, 가락시장 유통정보 등을 매일 경신해서 제공한다. 유통현장의 수집상, 중도매인, 연구원 · 교수 등 전문가가 각 품목의 현재 값과 변동에 대해 분석해 준다. 아피스에 들어가 '출하지원' 아이콘을 누르면 바로 들어간다.

농협인터넷하나로클럽(http : //shopping.nonghyup.co.kr) 사이트는 전국 최다 규모인 농협의 유통망을 통해 신속히 공급한다는 게 장점이다. 특히 각 고장에 산재돼 있는 우리 농산물을 발굴, 생산자에게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농협 홈페이지(http : //www.nonghyup.com)를 방문해도 여러 가지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농협은 농업인들에게 홈페이지를 만들어주기도 하며, 농협의 홈페이지를 통해서는 전자상거래를 하고 있다. 농협 사이트 접속 후 농협쇼핑을 클릭하거나, 직접 하나로클럽 쇼핑몰 주소를 치면, 농협쌀 농특산물 알뜰장보기 농산물경매 등과 선물코너로 꽃배달서비스 농산물상품권 선물세트 등이 나열돼 있다.

앞서 가는 농가에서는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전자상거래에 나서고 있다. 전국의 홈페이지농가를 검색하는 방법은 첫번째로 농가명, 상품명을 이용하여 검색하는 방법이다. 농산품관련 통합 쇼핑몰 사이트인 http : //www.a-peace.com을 통

하거나, 농업인홈페이지 모음 사이트인 http : //www.farmmoa.com으로 직접 접속하면 홈페이지 농가를 검색할 수 있다. http : //www.farmmoa.com 사이트를 접속한 후 「농가홈 검색란」에 농장명이나 상품명 입력하면 해당 농장이나 상품을 찾을 수 있다. 농가위치를 통해서도 검색이 가능한데, http : //www.farmmoa.com 초기화면의 농가검색지도에서 찾고자하는 지역을 클릭하면 해당지역의 농가현황을 볼 수 있다.

• **전자상거래**란 인터넷상에 홈페이지로 개설된 상점을 통해 실시간으로 상품을 거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거래되는 상품에는 농산물, 전자부품과 같은 실물뿐 아니라, 원거리 교육이나 의학적 진단과 같은 서비스도 포함된다. 또한 뉴스 · 음악방송 · 소프트웨어와 같은 디지털 상품도 포함되며, 이들의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보다 넓은 의미로는 전자상거래는 소비자와의 거래뿐만 아니라 거래와 관련된 공급자, 금융기관, 정부기관, 운송기관 등과 같이 거래에 관련되는 모든 기관과의 관련행위를 포함한다.

2. 할아버지의 반란, 인터넷에 소중한 농업관련 정보들이

앞서 언급하였던 사이버 닭할아버지 이동수씨는 사이버 상에 있는 다양한 정보를 잘 이용하여 농장 경영에 이용한 사례이다. 이동수 할아버지는 인터넷 상의 정보를 활용하여 판매 시기 등을 적절하게 결정하여, 더 높은 소득을 얻었다. 이동수 할아버지는 정보화 교육이 그의 농장경영에 일대 전환점이 되었다고 한다.

이동수씨는 고령에도 불구하고 농업정보화 활용과 과학영농을 대표하는 분이다. 이렇게 그가 고령의 나이에 일반인들도 어려워하는 컴퓨터를 활용한 과학영농의 대표주자가 된 것은 1996년 농림수산정보센터에서 시작한 정보화교육에

서 출발한다. 그는 농업인 정보화 교육을 이수하면서 WTO 체계하의 우리 농업이 새로운 돌파구를 정보화에서 찾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되었다. PC통신과 인터넷을 통하여 영농에 필요한 정보를 습득하고 분석하여 경영에 적용함으로서 실질소득을 향상시키고 또한 새로운 영농 구상을 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지식영농은 우리나라의 21세기「지식기반사회」에 대비한 지식 농업시대의 진입과 소규모 토지와 자본으로도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과학 영농의 기틀을 구현하고 새 천년에 우리의 농업에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표본이 되었다.

그는 1969년부터 양계농장을 운영하면서 현재 거제에서 4만수의 양계농장을 경영하며 항상 연구하는 자세로 영농설계 및 농장경영을 행하면서 우수 영농사례를 주변과 업계에 전파하여 성공적인 영농을 유도해왔다. 아울러 같은 업계의 동호회 협회 등의 임원 및 대표를 역임하면서, 그는 기술전수 및 성공영농의 방법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 보급하여 경영마인드를 제고하고 생산성향상에 크게 기여하였다.

또한 영농에 필요한 기자재 도입, 생산기술 습득, 출하시기 결정, 방역정보, 기상정보, 국내외의 관련업계 동향, 정책 및 관련법규 등을 본인이 이수한 정보화교육을 활용하여 PC통신 및 인터넷을 통하여 매일 수집하고 있다. 나아가 그는 이를 분석 기록·관리하여 영농에 적용함으로서 낙후된 우리 농업의 경영실태를 탈피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구현하였다.

이동수씨는 이렇듯 새 천년 신지식 과학영농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또한 그는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 대비한 지식농업시대의 진입과 소규모 토지와 자본으로도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과학영농의 기틀을 구현함으로써 우리 농업에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였다.

농업·농촌의 정보화 메신저 역할 및 과학영농기법을 전파하기 위해 자신이 습득한 영농지식과 경영정보를 관련업계 홈페이지와 동호회, 영농인들에게 이

메일(e-mail)등을 통하여 매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농업인들의 교육, 기업체, 농업관련단체 임직원교육에 강사로 출강하여 과학영농의 기법을 전국에 보급·전파하는 일에도 앞장서고 있다.

그리고 한국의 과학영농 사례보급 및 국위 선양을 하여 WTO체제 하의 한국농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30여년간의 과학적 영농경험을 통한 자신만의 노하우를 공중파(TV)방송 및 각종 일간지, 잡지 등을 통하여 농업인들에게 보급하였고, 또한 한국농업의 발전된 모습을 타임(TIME)지 등을 통해 전 세계에 알리기도 하였다.

〈그림 1〉 이동수씨의 6시 내고향 출연모습

3. 참고을 농원의 김종원씨

경기도 용인시의 김종원씨는 5년 전 귀농한 사람이다. 농사에 그렇게 경험이 적은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앞으로 귀농할 사람들을 위해서도 무엇인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은 생각에 과감히 농업 자료실을 개설하였다.

그가 귀농을 결심하면서부터 수집한 정보들은 양으로 보아도 결코 적지 않다. 그동안 수집한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농부자료실"을 운영하고 있다.

농촌실정과 영농경험이 부족한 귀농자들에게 좋은 안내서가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농부자료실 코너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크게 전원 생활(귀농) 도우미, 전원 생활(귀농) 체크 사항, 전원 생활과 버섯 수익성이다.

김종원씨는 아직도 농업경영에서는 초보자에 불과하다. 하지만 도시생활을 청산하고 농촌으로 귀농하였으니, 이왕지사 잘사는 농업인,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버는 농업인이 되고 싶다. 무엇보다 농업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다주는 농업의 역할을 실천하고 싶은 마음이다. 이와 함께 김종원씨는 앞으로도 도농간의 귀중한 가교역할을 자신이 계속 할 수 있으면 하는 바램이다.

그의 이런 생각이 결실을 맺은 것이 팜스테이(Farm-Stay) 사업이었다. 소비자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서기 위한 노력으로 실시하고 있는 팜스테이를 통해, 보다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농장 인근지역의 관광, 낚시, 산책 등 농장체험과 레저를 동시에 즐길 수 있도록 관련정보를 자세하게 수록하여 안내함을 말한다.

> • **팜스테이**란 기존의 농가 민박과는 달리, 농가에서 숙박을 하면서 영농과 농촌문화 체험, 그리고 계절별로 개최되는 지역축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와 더불어 인근 지역 명소를 관광까지 할 수 있는, 이른바 농촌·문화·관광이 결합한 농촌체험 프로그램을 말한다.

Ⅳ. 이젠, 인터넷으로 농산물을 판다

대부분 농업인들은 자신들이 힘들게 생산한 농산물이 제값을 받지 못하고 팔려나갈 때, 가장 답답한 심정이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전자상거래이다. 인터넷에서 필요한 농업정보만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생산한 고품질 농산물을 인터넷을 통하여 판매까지 하는 농업인들도 늘어나고 있다.

1. 낙생자연농원의 김문수씨

경기도 안성시 낙생자연농원의 김문수씨는 올해 56세이다. 그는 홈페이지(http : //www.janongbae.co.kr)를 개설하여, 자신이 생산한 농산물을 팔고 있다. 김문수씨의 연소득이 4천만원에 달하며, 생산품 100 퍼센트를 전자상거래를 이용하여 직거래하고 있다. 그는 지난 1989년부터 친환경농법으로 배 농사를 시작한 사람이다. 그는 다른 사람과 다른 농법을 하였다. 무비료, 무농약, 무제초제를 원칙으로 하며 각종 영양시비(토착미생물, 과일효소와 발효식초 등)로 고품질·저농약 농산물(품질인증 : 제10-30-4-02호)을 생산하여 서울 공판장 등에 직접 출하를 하여 왔다. 그러나 도매상 마진(10~20 퍼센트)과 경매수수료(10~15 퍼센트)의 부담이 높고, 또한 자연농법의 친환경 농산물임에도 불구하고 경매과정에서 그 특성을 인정받지 못해 제값도 받지 못하고 외면을 당하는 등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었다.

이로 인하여 농사에 회의가 생기고 실망스러워 고민을 하던 중 자기상표를 가지고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소비자와 직거래를 하는 방법이라고 판단하여 이를 실행하기로 결심하였다. 처음에는 컴퓨터 키보드 조작도 어려웠던 컴맹이었으나 1998년부터 3년 동안 정보화교육 기회만 있으면 빠지지 않고 찾아다녔다. 1998년에 처음으로 안성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컴퓨터 기초교육(45일간)을 받은 후, 이를 토대로 1999년에는 안성농협에서 영농경영장부 활용교육(4일간)까지 이수하였다.

컴퓨터 활용에 어느 정도 익숙해진 후, 2000년에는 농림수산정보센터에서 인터넷활용 및 홈페이지 관리에 대한 합숙교육을 각각 4일간 받았다. 주변에서는 50세가 넘은 나이에 가능하지도 않은 일에 매달리는 것 아니냐는 만류도 있었

고, 집에 있는 PC는 아이들 차지로 밀려나기 일쑤였다. 하지만 교육과 실습을 통해 다져진 컴퓨터 실력으로 인해 점차 자신의 컴퓨터 실력을 농업경영에 적용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얻게 되었다. 특히 동네 PC방에서 교육내용을 꾸준하게 복습하여 점차 컴퓨터 사용과 전자상거래에 확신도 가지게 되었다. 준비하는 자에게 미래가 있다고 하지 않았던가. 김문수씨가 그 동안 쏟아온 노력이 헛되지 않게 전자상거래를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다.

어느 날 전자상거래 준비를 하고 있던 때에 농부의 꿈이 이루어지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2000년 6월 농림부가 지원하는 홈페이지 구축사업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농장 홈페이지(www.janongbae.co.kr)를 마련하게 되었고 기대하였던 홈페이지가 개설되자 이제는 자신이 자연농법으로 생산한 배를 널리 알리는 일이 급선무가 되었습니다. 데이콤 등 대량판매가 가능한 홈페이지들을 방문하여, 낙생자연농원의 차별화된 친환경농산물을 소개하고, '가로수닷컴'에 광고를 내는 등 홍보에 전력을 다하였고 홈페이지를 적극 홍보하기 위하여 인터넷 동호회에 가입은 물론 다른 홈페이지의 장점이나 활동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공부하였습니다. 특히 한글97[7]과 엑셀(excel)[8] 등의 이용방법을 어렵게 독학하고 배워서 소비자가 주문할 때 원하는 인사말 문안과 관련사진 작성 등에 대하여 중점 연습하여 홈페이지 운영관리 능력을 키워갔으며, 이러한 노력 끝에 11월부터는 인터넷으로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일반인들도 마찬가지이지만,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 농업경영자들을 보면

7) '한글97'은 1999년 6월에 발표된 한글용 워드프로세스로서 단순한 문서 편집기 이상의 특별한 기능들을 제공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이다. 기존 문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한다든가, 다른 프로그램에서 만든 자료를 삽입하는 등의 일이 매우 간편하고, 문서 작성 도중에 오류를 발견하면 즉시 수정할 수 있어 추후 교정하는 시간도 단축된다. 문서를 사용한 후 이를 보관할 때에도 적절하게 분류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8) '엑셀'은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의 일종으로 마이크로소프트웨어사에 개발한 것이다. 계산기와 계산용지, 장부 등이 통합된 것으로 연산 및 표를 작성하고 나아가 그래프까지 그리는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엑셀에서 매크로를 사용하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입력 오류 또한 방지할 수 있는다.

대개는 '홈페이지만 개설해 놓으면 이제 우리 농장의 농산물은 다 잘 팔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천만의 말씀이다. 홈페이지는 사이버상에서 단순히 나의 가게를 연 것에 불과하다. 정작 중요한 것은 김문수씨처럼 적극적으로 사이트를 알리고 상품의 품질을 홍보하는 등 마케팅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주문이 들어오면 신속하게 배송하고, 만약 하자가 발생할 때는 조건 없이 재배송하는 등 소비자위주로 홈페이지를 운영하였다. 깨지지 않도록 내피포장을 차별화하고 배송시차를 줄이도록 송장과 주문서를 같이 붙여놓고 해당 택배지사와 유기적 협조를 이끌어 내어 소비자로부터 서서히 좋은 인상을 받기 시작했다. 다행이 당도가 높고 환경농산물 인증이란 사실이 인터넷을 통하여 여기저기 말없이 알려지고 시간이 갈수록 검증되어 작은 과일까지 선호하는 거래선이 생기게 하였다. 당도와 산도(PH)에 따라 깔끔한 배즙(가족건강두배즙)을 개발하여 사은 보답하는 행사로 인해 소비자와 더욱 가까워지자 찾아오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그렇게 노력을 기울인 결과, 2000년에는 배 1,500상자를 생산하여 전량 홈페이지를 통하여 판매할 수 있었다.

전자직거래를 실시함으로써 도매상 마진, 경매수수료 등 총매출액의 25 퍼센트 정도에 해당하는 1,000만원 상당의 유통비용을 줄여 소득을 올릴 수 있었다. 또한 도매상이나 경매에 매달리지 않고 생산활동에 전념할 수 있었다. 전자상거래 주문량이 생산량의 100 퍼센트를 초과하였기 때문에 부족한 물량에 대해서는 이웃 농가의 배를 판매해 줄까 하는 고민도 하였다. 그러나 「낙생자연농원」의 차별화된 제품의 인지도 유지를 위하여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고 한다. 인터넷을 통한 전자 거래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고객과의 신용 거래라는 점을 그는 철저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앞으로 김문수씨에게 남은 과제도 적지 않을 것이다. 이른바 지속적인 연구와 노력으로 보다 본격적인 디지털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한 공부

가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적이 않은 나이에 인터넷 공부를 시작할 때, 남들이 쑥덕거릴 정도로 생각도 하였지만 이제는 누가 뭐라고 해도 인터넷을 이용하여 새로운 영농기술을 습득하는 인터넷 농부가 되었다는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다. 앞으로도 생산기술 지원과 보다 편리한 소비자 중심적 배송수단을 개발하여 인터넷 직거래를 활성화하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한다.

2. 덕유농장의 반딧불이 사과, 이상오씨

전북무주 덕유농장(http : //www.apple1.co.kr)의 이상오씨도 농업인 전자상거래의 좋은 본보기이다. 이상오씨는 '반딧불이 사과'란 브랜드로 70 퍼센트를 직거래하고 있다. 2헥타에 연간 50톤의 사과를 생산하고 있으며, 연소득은 6천만원에 달한다.

그는 무주 구천동에서 태어나 25년간 반딧불이 사과를 생산하는 토박이 농사꾼이다. 전국에서 제일 가는 사과를 생산하기 위해 사과원내는 천적의 은식처로써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는 초생 재배를 실시하고 있다. 초생 재배로 인해 해충발생 밀도를 줄임과 동시에, 농약 살포횟수도 1990년대 18회에서 IMP 체제를 도입 후 지금은 12회로 대폭 줄일 수 있었다고 한다. 적기 적량의 방제를 실시하여 비료보다는 초목 퇴비 위주로 과일 농사를 짓는 것이 품질력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이유라고 했다. 그러기에 그의 반딧불이 사과에는 다른 사과에서 맛볼 수 없는 특유의 맛과 향이 듬뿍 담겨 있다고 한다.

그도 아주 우연한 교육기회로 전자상거래에 첫발을 디뎠다. 지난 1998년 농림수산정보센타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컴퓨터를 처음 접하였다. 그 당시만 해도 마을에 컴퓨터는 중고등학생이 있는 집안에 한 두대 정도가 고작이었다. 교육받으면서 인터넷을 처음으로 접했기 때문에 더욱이 전자상거래는 먼 나라 얘기로만 생각되었다. 그런데 그 교육이 계기가 되어 자신이 지금은 인터넷 농가로 거듭나게 되었던 것이다. 그가 기억하는 인터넷을 통한 첫 주문은 어떤 것이었을까?

그런데 지금도 기억이 생생하지만 홈페이지를 오픈한지 3일만에 인천에 사시는 소비자께서 5킬로그램 사과 한 박스를 처음으로 주문했습니다. 우리부부는 어찌나 신기하고 반갑던지 주문은 5킬로그램를 했지만 10킬로그램 한박스를 보내드렸습니다. 그 후 몇일 걸려 한상자 두상자 주문이 들어왔고 설날에 즈음해서는 주문 물량이 늘어나 정신을 못 차릴 정도였습니다.

〈그림 2〉 덕유농장의 반딧불이 사과

자신이 만든 상품을 인정해 주는 소비자가 있기에 자신감을 얻었다고 했다. 그들 부부는 한 박스 한 박스에 정성을 담아 포장하면서 행복을 느꼈으며 3일 안에 전국 어디든 도착하기 때문에 배송 후에는 꼭 확인 전화를 했다. 그것이 소비자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았다. 소비자 중에 어떤 분은 "맛있어요", "이런 사과는 난생처음 먹어봤어요" 라고 전화까지 해주어서 그 순간 기쁨이 그지없었다고 했다. 일년 내내 땀흘린 보람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하고 생각을 전자상거래를 하면서 처음 느껴보았다고 했다. 그것이 바로 직거래의 위력이다. 소비자와 생산자가 직접 만날 때, 두 사람 사이에는 교감이 일어나고, 상품 속에 담겨 있는 농촌의 인정, 농업인의 손길, 우리 농업에 대한 사랑도 소비자에게 전해줄 수 있을 것이란 생각도 하게 되었다. 전자상거래가 그에게 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또 하나의 부가가치였던 것이다. 그는 이제 무언가 좀 알 것 같다. 성공은 먼

데 있는 것이 아닌, 바로 '소비자를 감동시키는 것'이란 사실을. 소비자를 감동시키는 것이 앞으로의 농업경영에서 성공에 이르는 지름길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사과 한 상자 포장하는데 단지 사과보다는 나의 양심과 함께 농촌의 소박함과 고향의 운치를 담아 보내드린다"는 나름대로의 노하우를 배웠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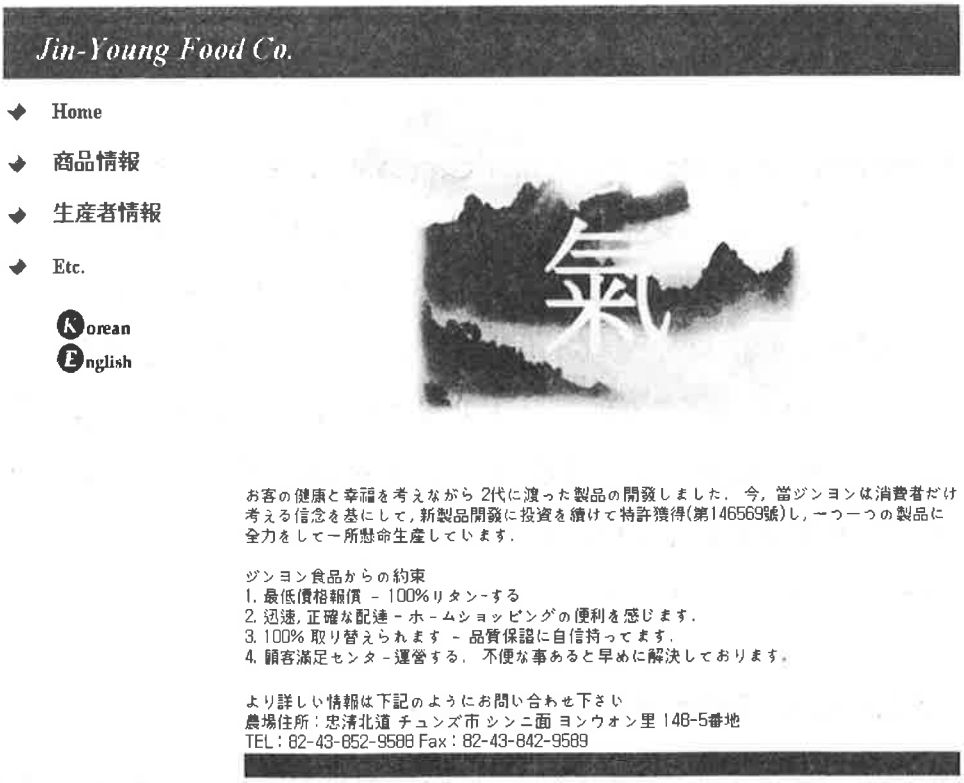
그의 다음 목표도 야심차다. 그 목표를 위해서는 특별히 주문까지 한다. 이제는 우리 생산자도 소비자 입장에 서서 소비자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소비자들이 믿고 구입하여 마음놓고 드실 수 있는 사과 즉, 깎지 않고 껍질채로 먹을 수 있는 저농약농업(IPM) 사과로 키우겠다는 목표이다.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받겠다는 것이었다. 그 신뢰가 결국은 "소비자 여러분께 사과말씀 드리자면 지난 설 때 반딧불이 사과가 매진되어 소비자 주문에 응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라고 해명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고, 은근히 자랑하는 여유도 보인다.

• **저농약농업(Integrated Pest Management, IPM)**은 작물 · 병해충 · 천적에 대한 지식을 기초로 각종 방제기술을 상호모순되지 않게 종합적으로 사용하여 병해충 발생을 경제적 피해수준 이하로 감소 또는 유지하기 위한 관리체계이다. 다시 말해서 IPM은 농약에 주로 의존하던 방제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재배환경을 개선하여 병해충 발생을 적게하고, 천적의 정착과 증식이 가능하도록 선택성 농약을 활용하므로서 자연생태계와 조화를 이루는 환경농업 실천방안이다

3. 진영식품의 칡분말 전문생산업체 권성자씨

충북 충주시에 위치한 「진영식품」은 권성자(62세)씨 가족이 운영하는 칡 분말

전문 생산업체이다. 이들은 홈페이지(http : //www.jyfood.co.kr) 구축 이후에, 1천만원 선이던 순이익이 2억 8천만원으로 확대되어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할 지경이 되었다. 지난 1970년대부터 칡 가공업체로 시작한 좀 역사가 오래된 업체이다.



〈그림 3〉 진영식품의 권성자대표(위)와 홈페이지(아래)

진영식품은 1970년부터 시작하여 현재 가족들과 4명의 직원이 함께 일하는 작은 중소 업체이다. 2대에 걸친 사업이지만 사업이 제 궤도에 이른 것은 근래였다. 초창기에는 칡 면발을 생산하여 음식점등에 납품하였으나 수입산에 밀려서 15년간 영업실적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었다. 순이익이 1천만원 이하까지 떨어져 부도직전에 몰리기도 했다. 이후 칡제품 개발에 전력을 다하기 시작하여 1980년 후반부터 연구와 노력을 이용한 기울인 결과 1995년에 특허 출원하여 1998년 특허(제146569)를 획득하였다.

그후 농림부에서 지원하던 농업인 홈페이지 구축 사업이 진영식품의 도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

그 당시 막연히 누구나 다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대해 애기하였고 큰 기대없이 신청한 것이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줄은 상상도 못하였다.

1999년에 신청하여 2000년 2월 개설하였지만 홍보가 안되었던 시절이라서 적극적인 홍보전략을 생각해 보았다. 그래서 제품 포장지에 농업인 사이버동호회 마크와 명함을 새겨서 소비자들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직접 노트북 컴퓨터를 들고 다니면서 중소기업 등에 직접 찾아가서 홍보하는 공격적인 홍보전략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또 하나의 넘기 힘든 장벽이 열악한 농촌의 통신환경이었다. 그도 도농간의 정보격차의 현실에 부딪친 것이다. 이런 환경에서 농촌지역에서 전자상거래를 하기란 힘든 상황이었다. 모뎀을 이용한 통신을 하면 전화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반복되어 드디어 많은 투자를 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이 결심을 하기까지 밤잠을 설치길 몇 십 번도 넘었다고 했다. 투자를 그렇게 많이 하는데 과연 매출이 그만큼 오를 것인가. 선례로 없었고 주변에서 적절한 조언을 해주는 사람도 없는 입장에서 과잉투자가 된다면 그는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결정은 빠를수록 좋고 단호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떠올리면서 전용서버를 들여서 초고속통신망을 이용한 통신환경을 구축하였다. 총 9천 8백만 원의 거금을 투자하였다. 하지만 거금을 투자한 이후 첫 거래가 5만원 밖에 생기지

않았다. 당연히 자책이 뒤따랐고, 실망감, 죄송한 마음으로 끝없는 좌절감을 느끼기도 했다. 그러나 고진감래라고 하듯 투자와 마케팅 노력의 결실이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 *서서히 주문이 늘어나고 연 4천만원에도 이르지 못하던 영업이익이 작년 기준으로 순이익이 2억 8천만원에 이르고 지금도 많은 예약주문이 몰리고 있습니다. 저희 업체의 영업신조는 「소비자를 속이면 미래를 바라볼 수 없다」는 신념 아래, 한번 잡은 고객은 놓치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첫 거래시에 주문한 상품이외에 시제품을 같이 보내서 소비자의 구매확대와 업체 이미지 만들기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영어, 일문 홈페이지를 충분히 이용하여 해외시장개척에도 관심을 기울여 농산물 유통공사의 AGRO-TRADE와 연계하여 2000년 10월에 싱가폴과 영업상담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001년 6월까지 일본, 네덜란드 등에서 바이어들의 방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올해의 영업이익은 10억대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홈페이지 개설로 인해 겨우 명맥을 이어오던 가족회사의 운명이 180도로 바뀌었습니다!*

'남들은 홈페이지만 구축하면 돈은 저절로 굴러 들어온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겪은 투자와 남모르는 고통을 통해 전자상거래가 어떻게 어려운지를 알게 되었다. 아울어 정보화 기반이 취약한 농촌지역에서 쇼핑몰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것이 도시지역에 비해 얼마나 힘든 작업인지도 깨닫게 되었다. 사회간접자본으로서의 정보화 투자만은 그래서 정부의 몫으로 돌려졌으면 하는 바램을 잊지 않는다. 앞으로도 적지 않은 시행착오가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는 헤쳐나갈 방법을 알고 있다. 전자상거래가 농촌지역에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신뢰라고 하는 중매인을 통해 앞으로도 계속 확대되어 나갈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이다.

4. 외국의 인터넷 상거래, 홍광 토마토

1995년 친구 3명과 인터넷을 시작했을 때 지방 상품정보를 수집하던 것이 계

기가 되어, "홍광지역 토마토를 인터넷(www.wbs.ne.jp/bt/benikou)에 올려보자"라고 제안한 것이 이 사이트의 시작이었다. 초기에는 물류나 판매망을 정비하려고 시작한 게 아니라 인터넷 기술을 습득한다는 생각으로 시작했다.

따라서 접속, 조작, 속도 등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다. 당시에는 인터넷을 통한 판매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곳이 적었지만 그 때마다 다른 사이트를 참고로 해서 진행했다. 그러나 흉내를 내지 않도록 신경을 썼다. 그리고 좋은 홈페이지를 사용해서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자신감으로 판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추진함으로써 마침내 맛있는 토마토 정보를 정확하게 전해 주려고 하였다.

〈그림 4〉 일본의 홍광토마토 홈페이지

본사는 시즈오까 시내에 있는 보통 과일가게이고 조금 떨어진 곳에 물류창고 기능을 담당하는 인터넷 판매기지가 있다. 이 곳에는 인터넷 거래를 위한 (e-business) 단말기가 여러 대 설치되어 있고 여직원이 조작하고 있다. 주력상품

인 토마토는 전국 산지업자 중에서 '명인'이라고 불리는 농가와 계약을 통해서 구입하고 있다. 이 사이트의 특징 중에 하나는 '모니터제도'에 있다. 이것은 인터넷 상에서 제시된 상품에 대해서 모니터를 모집하고 감상과 조리방법, 보관방법 등을 화상과 함께 리포트하는 시스템이다. 리포터는 이웃집 저녁식사라는 코너에서 소개되어 있다. 모두 생활정보로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손님과 함께 만들어 가는 페이지로 되어 있다.

재미있는 것으로 '과일클리닉' 코너를 들 수 있다. 동경 시나가와구에 있는 진료소 의사와 과일류를 기본으로 한 '건강법'을 소개한다. 현대 식습관에 대한 제언이 의학적인 견지에서 소개하고 과일과 야채를 통한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홍광사이트의 운영방법을 보면 다음과 같다. 상품은 과일뿐만 아니라 채소도 병행하고 있다. 상품은 일괄 구입해서 셋트와 포장판매 등의 패키지로 만들어진다. 특히 토마토는 구입하기 쉽고 보관하기 쉬운 단위가 되도록 연구하고 있다. 2주일에 한 번의 비율로 산지에서 직송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추고 있다.

맛과 품질에 특히 신경써서 항상 구입처를 선정하고 있다. 또한 철저하게 상품관리를 기본으로 '이 달의 추천상품'이 사진과 함께 소개되어 있다. 판매자와 구매자가 맛을 기본으로 서로 추천해 주는 '사주었으면 하는 상품'과 '사고 싶은 상품'을 마련해서 판매와 구입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납품은 다음 날 도착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저녁부터 밤까지 들어오는 주문에 대해서도 특수택배로 다음 날 도착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주문을 받아 배송까지 신속하고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결제방법은 은행, 편의점, 우체국 입금을 함께 사용하고 있다.

V. 인터넷 시대, 그래도 희망은 디지털

시대가 바뀌었다. 컴퓨터에서 PC로 이제는 인터넷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정보화가 이 시대의 화두가 된지 오래이다. 우리 농업에도 이젠 컴퓨터가 가장 크고 중요한 농기계가 되었다. 정보를 잘만 활용하면 돈을 벌고, 정보를 잘만 사용하면 생산도 쉽게 할 수 있다. 그래서 필자는 21세기 농업의 희망을 디지털이라고 말하고 싶다. 물론 아직도 이 명제가 실현되기 위해서 뛰어 넘어야할 과제가 한 둘이 아니지만 말이다.

컴퓨터이용률 및 PC통신이용률을 보면 전국 평균이 37.9 퍼센트 및 17.8 퍼센트인데 비해 농어민의 경우 컴퓨터이용률 3.8 퍼센트, PC통신이용률은 0.9 퍼센트에 불과(한국정보문화센터, 1999)하여 나타나 정보격차가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주고 있다. 농어민들과 같은 정보취약계층을 방치하면 지식과 정보에 있어서 발전격차와 갈등, 디지털경제 시대에 있어서 낙오자 출현 등과 같은 사회적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지식정부로서 농림부는 농업·농촌분야의 지식인프라를 확충하고 지식격차를 해소하며 정책지원체계를 개선하여 생산성을 높이는 '지식농정'을 추구해야 한다. 농업 및 농업관련산업체는 핵심역량 위주의 창의적인 지식활동으로 지식집약화를 도모하고 지식과 기술에 비교우위를 둔 '지식경영'을 추구해야하며, 농업인 개개인은 자기 스스로 개발을 추구하는 '신지식농업인'으로 거듭 태어나야할 것이다.

● **신지식농업인**이란 지식의 생성, 저장, 활용, 공유를 통해 농업의 생산·가공·유통 등을 끊임없이 개발·개선·혁신하여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나아가 농업·농촌의 변화를 주도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을 말한다.

2000년 4월부터 농림수산정보센터가 농촌지역에 무료 인터넷서비스를 시작하는 것을 비롯, 정부가 농촌 정보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농어촌 지역에 초고속통신망이 구축되지 않아 농촌 정보화 정책이 무용지물

화 될 위기에 놓여 있다. 특히 1999년에 전자상거래 총액이 2천억 수준에 이르렀고, 2000년에는 6천5백억 수준으로 크게 증가하였지만, 현재 농어촌지역의 경우 통신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아 전자상거래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같은 문제는 정보통신부가 초고속 통신망 지원을 한국통신과 하나로통신 등 민간통신업체 자율로 맡겨 수익이 맞지 않는 농촌 지역에는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컴퓨터 통신을 이용하는 농업인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있을 뿐만 아니라 농촌과 도시간 디지털 인프라의 차이가 크게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컴퓨터 통신을 통해 각종 농업정보를 활용하면, 영농에 큰 도움이 되나 접속이 불량하고, 어렵게 접속해도 속도가 느려 사용에 애로를 겪고 있는 경우가 많다. 앞으로 우리 농업이 살아날 길은 농업정보화임이 확실하다. 따라서 인터넷 환경만큼은 시골 어느 지역에서라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야 할 것이다. 통신사정으로 전자상거래 사무실을 칠곡에서 대구로 이전시켰다는 경북 칠곡군의 배문열씨는 "정부가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초고속통신망을 구축, 정보화시대를 앞당긴다는 계획을 제시하고 있지만, 실제 농촌지역에는 농업정보화를 위한 토대 자체가 마련되지 않고 있다"며 불평하고 있다. 나아가 그는 "특히 농촌지역은 전화회선도 부족하기 때문에 전화선을 통한 인터넷 활용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라고 지적하였다[9].

충북 청원군에서는 통신장애를 해결하기 위해 청원군 농촌지역 주민만 활용할 수 있는 전용회선을 확보했다. 청원군은 군비 1억 5천만원을 확보해 전용회선을 확보하고 2000년 4월부터 서비스에 들어갔다. 한편 농림부에서는 농촌지역 초고속통신망 구축과 관련, 협상을 벌이고 있으나, 예산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그렇지만, 국내 최초로 인터넷 농업방송국이 경북도 농업기술원에 설립될 예

9) 「한국농어민신문」, 2000.4.30.

정인 등, 곳곳에서 21세기 지식, 정보화 농업시대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 또한,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도·농간 정보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농가가 구입하는 PC에 대한 정부 지원과 함께 농어촌지역에서 인터넷 활용이 가능토록 초고속통신망(ADSL)이나 위성인터넷 장비 도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농업인들이 지속적으로 농업·농촌정보화시스템의 개발과 통신 인프라 구축을 요구해야 할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 가족농에게 농업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많은 웹사이트가 등장했으며, 인터넷상의 정보교환은 가족농이 농약과 비료를 경매할 수 있도록 했고 구매자에게 그들의 상품을 홍보할 수 있게 됐다. 인터넷은 농업인과 사업가를 연결시켜주기도 한다. 듀퐁(Dupont)사가 새로운 고유지(高油脂) 옥수수를 심을 농업인을 찾는데 어려움이 있었을 때, 인터넷 기업은 몇 일 내에 원하는 것을 가져다주었다. 지금 듀퐁(Dupont)사가 인터넷을 통한 정보교환과 농장관리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농업인들의 협동조합과 함께 일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농업관련산업의 밝은 미래를 예측하고 있다. 라보은행(Rabobank)은 2003년까지 세계 4조 달러에 달하는 농산물 시장의 10 퍼센트가 인터넷을 통해 거래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유럽, 라틴아메리카, 그리고 아시아의 농업인들은 북아메리카나 이스라엘의 농업인들보다 인터넷을 적게 이용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인터넷으로 분산된 지식경영 인프라를 농업인, 소비자, 정부 관계자까지 포함한 이용자 중심 개념으로 통합이 필요하다. 미국 농업인들은 농과대학과 연결되어 대학으로부터 정보를 직접 검색하고 농업인들에게 공통된 정보는 대학 측이 농업인들에게 동시에 보급 전파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벤치마킹과 지식경영의 4R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지식 중시 문화를 구축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농업관련지식 인프라의 개발운영과 일회성이 아닌 계속적으로 진행되도록 제도화하고 있다.

지식경영의 4R원칙은 Repository, Reference Worker, Refresh, Reward의 약자이다. 지식경영을 위해서는 지식을 사용하기 편리하게 모아두는 지식의 공동창고

(Repository)가 있어야 하며, 필요한 지식은 모으고 필요없는 지식은 버리는 등 지식창고를 관리하는 사람(Reference Worker)이 있어야 한다. 또, 지식창고를 늘 새롭게(Refresh) 하는 것이 필요하고,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사람에게는 보상(Reward)이 있어야 또 새로운 지식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기존의 사고에서 벗어나 새로운 발상으로 창조적인 지식을 활용하여 농업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농업·농촌의 변화를 주도하는 농업인을 신지식 농업인이라고 지칭한다. 이 신지식농업인의 역할을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 대비한 지식농업시대의 중심인력으로서, 소규모 토지와 자본으로도 지식을 활용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 또한 지식농업시대에 부합하도록 농업인 의식구조의 전환을 주도하며, 농업인이 창의성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농업을 경영하도록 선도한다. 신지식농업인으로 거듭날 때 어려운 외부 여건에도 굴하지 않는 고소득 농업인으로 남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보화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농업인 개인은 물론 정부도 농촌지역 통신인프라 구축 등의 적극적인 정책마련이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농림부, 「정보화로 농업을 살린다」, 2001.

농민신문, 각 일자.

배성의, 「농업정보의 탐색과 활용방안」, 『2000학년도 2학기 최고농업경영자과정 교재』, 공주대학교 산업과학대학 최고농업경영자과정, 2000.

이장호, 「통합농업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설계방안」, 농촌경제 제23권 제2호, 2000 여름.

조한근, 「농업 정보와 컴퓨터 활용」, 『충북대학교 농과대학 공통경영』, 1997.

조한근, 「농업 정보와 컴퓨터 활용」, 『충북대학교 농과대학 공통경영』, 1997.

「한국농어민신문」, 각 일자.

여성경영인의 가계경영 관리

유 소 이
성신여자대학교

Ⅰ. 여성농업인과 가계경영

Ⅱ. 여성농업인과 농촌 가정경제

Ⅲ. 보람있는 소비생활

Ⅳ. 농가 재무관리
1. 필요성
2. 농가를 위한 가계재무관리
3. 재무관리의 실제 : 가계 재테크 전략

Ⅴ. 맺음말

여성경영인의 가계경영 관리

Ⅰ. 여성농업인과 가계경영

물질문명의 급속한 발달은 사회구조와 생활환경의 변화를 초래하였으며, 이로 인해 가족의 구조와 가족 내 생활 및 소비환경을 계속적으로 변화시켜 왔다. 이러한 변화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지속될 것이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가족 구성원들의 다양한 소비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경제적 요인이나 자원에 대한 관심 또한 중요한 연구대상으로 주목받게 되었다. 궁극적인 목표로서 가족 구성원의 복지 증진은 가계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사용하는가에 상당부분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나날이 변화하고 있는 경제환경을 신속하게 이해하고 따른다는 것은 평범한 시민이 쉽게 실행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대도시에 거주하는 시민에 비해 농촌에 거주하는 여성농업인의 경우 가정의 재산 관리는 상대적으로 정보의 부족에 의해 열세에 놓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직면하는 재산관리 문제는 크게 자원 부족과 가지고 있는 자원의 효과적인 사용에 대한 내용으로 나눌 수 있다. 주어진 자원으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산관리 또는 재무관리 행동을 통해 가족 구성원의 복지를 가능한 한 크게 하는 것이 가정경제가 추구하는 목표이다. 또한 효율적인 재무

관리를 통해 가정의 안정과 성장을 추구하여 가정생활에서 얻을 수 있는 만족을 극대화하게 된다. 결국 가정내에서 이루어지는 효율적인 재무관리는 가족구성원 개개인의 가치와 목표의 달성을 통해 가족 전체의 만족을 극대화하며, 더 나아가서는 삶의 질을 한층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도시가계와 농촌가계를 비교해 볼 때 1999년의 경우 농가가계의 가계비(연간 소비지출)는 1,712만원으로 도시 근로자 가계의 1,802만원과 비교할 때 낮다고 할 수 있다(통계청 자료). 다시 말해서, 농가가계의 가처분소득이 도시가계 보다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밖에도 도시가계에 비해 농가가계는 절대적인 소득액의 차이 뿐 아니라 기후나 정부정책에 따라 소득의 안전성이 보장되지 못하기 때문에 더욱 더 합리적으로 소득을 관리하는 재무관리 행동이 요구된다. 여기에서는 도시가계와 다르게 농가가계가 처한 특수성을 고려하여 바람직한 소비생활과 재무관리 행동을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여성농업인을 위한 효과적인 교육자료로 삼고자 한다.

Ⅱ. 여성농업인과 농촌 가정경제

지난 40여 년간 지속적으로 추구해온 도시화, 공업화 추세 속에서 한국사회는 경제·사회적으로 큰 변화를 겪어 왔다. 이러한 변화가 도시에 비해 농촌에 더 부정적인 효과를 낳았다. 첫째, 경제적인 변화로 인해 국민 총생산 가운데 농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크게 저하되어 농촌이 도시에 비해 상대적인 빈곤을 경험하게 되었다. 특히, 우리 나라 농가는 농업경영비와 가계비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 자립적 기반이 약화되어 왔다. 한편, 산업화로 인해 노동력이 도시로 흡수되어 정작 농가에서 필요한 노동력부족을 여성농업인이 대신 메꾸어야 하기 때문에 전통적인 여성의 역할인 가사노동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본격적으로 농업노동을 수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가경제의 소득과 부채상황을 고

려해 볼 때 여성의 농업생산참여로 인한 농가복지는 거의 향상되지 않아 자신과 가족에게 있어서 단순한 가사노동의 확대 이상의 의미를 지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상황하에서 여성농업인은 가사노동은 물론 농업노동이라는 두 가지의 이중노동에 종사하게 됨으로써 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전통적으로 우리 나라 여성농업인들은 가족원의 부양, 양육, 교육을 위한 무보수의 가사노동을 전담해 왔으며, 가장의 생산적 노동에 대해서도 단지 농사보조자로서 가계유지를 위해 협력해 왔다.

현실적으로 여성농업인의 역할이 증대됨에도 불구하고 지위상승이 상대적으로 남성보다 낮은 상태에 머물러 있는것이 사실이다. 또한 여성농업인의 노동참여나 가계활동이 두드러지게 증가함에 따라 이중적인 노동에 시달리는 여성농업인이 직면하는 어려움은 더 심각해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문제점들을 살펴보면 첫째, 농가가계는 농업소득이 농사비용이나 과다한 자녀교육비를 충당하지 못하여 빚을 지게 되고, 또 이 빚을 갚기 위해서 또 다른 빚을 지게 되어 빈곤의 악순환을 면치 못한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영농활동에 대한 세제 혜택 및 자금지원이나 농가의 자녀 교육비에 대한 근본적인 지원체제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농기계의 보급은 늘어나고 있으나,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농가만 구입할 수 있고, 주로 남성이 농기계를 사용하기 때문에 여성농업인이 직면하고 있는 과중한 농업생산에 대한 부담을 줄여 주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여성농업인에게 농기계 사용법을 교육하여 충분한 기술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여성농업인이 사용하기 쉬운 소형 농기구를 개발·보급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전통적으로 농촌사회에서 지속되어온 가족의식을 바탕으로 한 협동관계나 부락 공동체적인 유대관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가 미흡

하다는 점이다. 여성농업인이 수행해야 하는 가사노동을 절감하고 농업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농촌의 공동체적인 협조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탁아소나 공동취사장 등의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끝으로, 농외소득에 대한 여성농업인의 선호가 높아가고 기회 또한 증대됨에 따라 소득 확대차원에서 볼 때는 바람직하지만 이에 따른 정당한 대가가 부족할 경우 더욱 과중한 여성노동을 초래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여성농업인의 취업에 따른 적절한 직업교육의 확대와 함께 취업시 노동현장에서 제도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국가의 정책지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여성농업인의 확대된 역할에 따른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는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교육프로그램과 복지정책 및 이를 반영한 지역사회 개발 계획사업의 개발 및 추진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에 상응하는 여성농업인의 지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Ⅲ. 보람있는 소비생활

지난 수십 년간 이루어진 지속적인 경제개발계획의 시행에 따라 우리 경제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되었고, 이로 인해 농가경제에도 많은 변화가 이루어져 왔다. 농가소득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한 소비생활 수준의 향상이 농가가계의 소비지출 내용과 크기의 변화를 유도하였다. 또한 현대사회에서 가계의 주된 의사결정을 담당하고 있는 여성은 소비에 대한 선택을 할 경우 단순한 구매자의 개념에서 소비생활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문제를 결정하고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게 되었다. 특히, 소비생활을 둘러싸고 있는 시장환경이 복잡해지고 다양해짐에 따라 소비생활 관련 상담이나 소비자 교육에 대한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하에서 소비자의 생활상담이나 소비자교육은 주로 민간 소비자단체나 소비관련 행정기관에서 행해지고 있으며, 이것도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불만을 적극적으로 표시하는 소비자에게만 한정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과거에는 소비자가 불만을 느껴 해결을 요구하는 소비생활 문제는 불량상품 구매와 관련된 것들이 많았으나 지금은 금융, 보험, 의료 등의 서비스 및 정보통신, 신용거래, 유통 문제 등 점차 다양화됨에 따라 예전의 소극적인 형태로는 소비자가 경험하는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어렵게 되었다.

특히, 농가가계는 농가유형에 따라 소득획득과 소비지출의 시기와 크기가 다양하기 때문에 농가가계의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경우 각 농가유형에 따른 차이점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농가가계에서는 금전관리를 할 때 농업경영비와 가계비지출 비용을 함께 관리하기 때문에 농가가계의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한 가계관리를 어렵게 하므로 이에 대한 교육방법의 모색이 시급하다.

특히, 농가의 소득수준 향상으로 인해 농가가계의 소비생활 패턴이 도시가계를 따라가고 있고 농가가계에서 여성의 영향력이 점차로 커지고 있기 때문에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소비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 여성의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농가가계에 적합한 교육방법이 필요하다.

그러나 농가가계에서의 이 같은 소비생활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어렵게 하는 많은 요인들이 존재하고 있다. 첫째, 농업이 점차 연중화되는 추세에 따라 연중 고른 소득을 얻는 농가가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도 소득이 특정시기에 집중적으로 얻어지거나 계절별로 소득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소비지출계획을 수립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또한 특정시기에 소득이 집중적으로 얻어짐에 따라 충동구매나 과잉구매의 가능성도 크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도시가계에 비해 농가가계는 정확한 상품정보를 얻기가 어렵기 때

문에 계획적인 구매보다는 상인들의 상술이나 유혹에 쉽게 빠질 수 있다. 또한 도시생활 위주로 방송되고 있는 프로그램이나 과다한 광고는 지나치게 농가가계의 소비를 자극하며 도시생활의 모방이 문화생활을 하는 것으로 잘못 인식하게 할 수 있다. 반면, 농가가계에서 장기적이고 합리적인 소비지출계획의 수립이나 가계부 기록 등을 통한 소비생활 점검 등의 활동에는 소홀한 편이다.

그러므로 바람직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가장 보람있는 소비생활을 영위해야 한다는 중요성을 제시하고, 이를 위해 소비에 있어서 합리적인 계획구매를 통해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용을 얻도록 상품을 선택하는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이 절실하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소비자는 대부분의 생활수단을 시장에서 구입하고, 끊임없는 기술개발로 인한 신상품의 대량출현이 소비생활에서 얻어지는 경험만으로는 좋은 상품을 선택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여성을 중심으로 하는 농가가계 구성원들이 제한된 소득으로 가장 최대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소비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상품에 대한 지식축적과 함께 자신의 소비특성에 적합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Ⅳ. 농가 재무관리

소비생활은 끊임없이 소득의 제약을 받게 된다. 또한 장기적인 소득증대에 중요한 요인이 되는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와 이로부터 얻어지는 인적자원의 크기에 따라 소득의 차이가 커진다. 그렇기 때문에 가계를 대상으로 재무관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 있어서 경제자원의 관리는 필수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장에서는 농가가계 재무관리의 필요성, 관련이론 및 저축과 세금의 절세 방안 등 실질적인 농가가계의 재테크 전략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한다.

1. 필요성

일반적으로 가계의 소비생활이 제한된 소득을 능가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루어진다면 가계경제와 관련된 문제는 심각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의 욕망이나 욕구는 무한하기 때문에 제한된 소득으로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다소 어려움이 존재한다. 특히, 가계의 주소득자의 실직이나 질병 등 예상치 못한 상황의 발생이나 노후대책 등과 같은 재무관련 문제들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무관리에 대한 상담과 교육은 대부분 도시에서 상당히 제한적인 범위내에서 실시되고 있다. 따라서 농촌을 포함하는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재무관리에 관한 정보나 지식을 전달할 수 있는 통로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서 경제문제와 관련된 재무관리문제를 가능한 한 미리 막을 수 있게 하여 생활의 질을 높여 복지후생 증진을 추구함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알뜰구매 방법이나 가계부 기록 등의 필요성을 제시하여 소득수준에 맞는 소비지출을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단순히 균형적인 소득과 지출의 수지결산에만 중점을 둔다면 합리적인 소비생활이라고 하기가 어렵다. 더 나아가서 가계의 생활주기에 따라 필요한 자원의 크기가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여 장기적으로 미래의 만족까지도 추구할 수 있도록 가계재무관리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장기적인 교육을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는 경제환경 속에서 소비생활을 통해 만족을 얻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가계 재무관련 지식을 축적하고 제약이 되는 경제자원, 즉, 단기적 및 장기적으로 요구되는 필요자원의 크기를 예측하여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가계자원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재무관리 교육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농촌가정은 가족을 둘러싸고 상호작용하고 있는 사회·경제적, 기술적, 정치적, 자연적, 인공적 환경이 도시 가정과 다르기 때문에 상황이나 자원관리

에 따른 제약의 차이로 인해 자원의 이용 가능성과 조합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도시가계에서는 가계소득을 주로 소비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관리하며, 의사결정권은 대부분 여성(부인)에 의해 좌우되는 경우가 많다. 농가가계의 경우에는 농업생산활동과 소비활동을 병행하기 때문에 의사결정에 있어서 부부가 공동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가계경제 문제를 결정함에 있어서 여성의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는 것을 볼 때 안정적인 가계를 꾸리기 위해서는 여성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더 나아가서 농촌가정의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농업경영으로 인한 농업수입이 주 소득원이 된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1999년도 농가가계의 소득은 22,322천원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1992년에 비해 약 54 퍼센트가 증가한 액수이다(<표 1> 참조). 농업수입 또한 1992년의 7,356천원에서 1999년의 10,565천원으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농가소득의 약 50 퍼센트 정도가 농업소득에 의존하고 있으며, 약 30 퍼센트 정도는 농외소득으로부터 얻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얻어진 농가소득 중 대부분은 가계비와 농업경영비로 쓰이고 나머지는 저축이나 대부금 등을 갚는데 사용된다. 그러나 가계비와 농업경영비의 합이 농가소득을 초과했던 해도 많은 것을 <표 1>에서 알 수 있는데, 이는 저축에 대한 의사는 고사하고 필요경비인 가계비와 농업경영비를 부담하는데 있어서 조차도 농가소득으로 충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빚을 지게 되는 형태를 보인다. 그러므로 도시와 달리 농가가계는 농업경영에 따른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일년에 한 두 차례 얻게 되는 농업소득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가계경제를 영위하기 위해서 효율적인 재무관리행동이 더욱 절실하게 요구된다.

특히, 농촌가계는 장기적으로 가계가 추구하는 목표를 미리 계획하여 이에 따른 예산을 세우고 지출을 기록하는 적극적인 재무관리행동보다는 고정비목에 먼저 지출을 하고 나서 다른 지출은 직전에 구매를 꼭 해야 하는지를 생각하여

현재의 소득범위내에 맞추거나, 돈이 생길 때마다 모아두고, 영수증을 챙기는 등의 소극적인 재무관리 행동을 더 많이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처럼 소극적인 재무관리 행동을 잘 수행하고 있다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경제적 복지 증진을 위해 충분치 않다. 그러므로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재무관리행동이라고 할 수 있는 예산행동이 경제적 복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때 농촌가계가 소극적인 재무관리 행동 뿐 아니라 적극적인 재무관리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예산행동을 잘 수행할수록 주관적 소비수준이 높기 때문이다.

〈표 1〉 농가소득, 가계비 및 농업경영비 추이

(단위 : 천원, %)

주 요 항 목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농 가 소 득	14,505 (100.0)	16,927 (100.0)	20,315 (100.0)	21,802 (100.0)	23,297 (100.0)	23,488 (100.0)	20,493 (100.0)	22,322 (100.0)
농 업 소 득	7,356 (50.7)	8,426 (49.8)	10,325 (50.8)	10,469 (48.0)	10,836 (46.5)	10,204 (43.5)	8,955 (43.7)	10,565 (47.3)
농 외 소 득	4,423 (30.5)	5,040 (29.8)	6,183 (30.5)	6,930 (31.8)	7,487 (32.1)	8,677 (36.9)	6,975 (34.0)	7,034 (31.5)
이 전 수 입	2,726 (18.8)	3,461 (20.4)	3,807 (18.7)	4,403 (20.2)	4,956 (21.4)	4,607 (19.6)	4,563 (22.3)	4,723 (21.2)
가 계 비	10,045 (69.3)	12,202 (72.1)	13,333 (65.6)	14,781 (67.8)	17,038 (73.1)	17,044 (72.6)	16,442 (80.2)	17,123 (76.7)
농업경영비	3,422 (23.6)	4,500 (26.6)	5,022 (24.7)	5,543 (25.4)	6,447 (27.7)	7,080 (30.1)	7,675 (37.5)	8,072 (36.2)

<자료> : 「농가경제통계연보」 각 연도, 통계청.

결론적으로 가계의 농업소득 수준이 높고 농외취업자수가 많을수록 농가소득이 증가하기 때문에 체계적인 재무관리가 필요할 것이며, 합리적인 예산행동의 필요성이 더 많이 요구된다. 따라서 농가가계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각 항목별로 예산을 세우는 방법, 가계부를 사용하는 지출기록 방법, 장래의 목표를 미리 계획하여 저축하는 장기적인 재무설계 등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 줄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시행은 바람직한 수단이 될 것이다. 더 나아가서 농가가계에 적합한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내용과 전략을 개발하여야 한다. 소득수준이 높은 가계뿐 아니라 낮은 가계의 경우에 더욱 더 예산행동이 절실히 필요함을 인식하여 저소득 가계가 쉽게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농가가계의 복지수준을 높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2. 농가를 위한 가계재무관리

1) 개념 및 요소

가계의 재무관리는 가계가 추구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일생을 통해 수행하는 과정으로서, 소득관련 지출계획 및 관리, 소득과 자산의 보호 및 증대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그중 소득배분을 통한 지출계획과 관리를 중점적으로 다룬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제시하자면, 재무관리 행동은 가계부기록, 지출비목의 필요성확인 및 목록작성, 영수증보관, 구매후 평가, 부채사용, 저축까지 포함하여 금전자원의 관리에서부터 자녀교육 및 노후준비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행동을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가계의 재무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연령, 교육정도 등의 인적자원과 소득, 자산, 부채 등과 같은 경제자원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요인들의 변화가 농가가계의 소비수준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궁극적으로 가계 복지수준을 변화시킬 수 있다. 특히, 소비생활에서 느끼는 주관적인 상대적 빈곤감

은 자산보다 소득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

그러나 대부분의 농촌가계는 예산을 세우거나 지출항목을 기록하는 적극적인 재무관리를 수행하기 보다 소비전에 구매를 해야 하는지를 생각하여 고정지출을 하고 난 후 남은 소득의 범위 내에서 다른 소비지출을 결정한다. 또한 돈이 생길 때마다 모아두거나 영수증을 보관하는 정도의 소극적인 재무관리를 수행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이처럼 대부분의 농촌가계가 소극적인 재무관리만을 수행한다고 하지만 궁극적으로 농가가계의 복지수준을 증진시키는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특히, 농외취업자가 많아서 가계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적극적인 재무관리가 필요하다.

2) 체계적 접근법에 의한 가계 재무관리

적극적인 재무관리에 있어서 예산행동의 중요성을 파악하여 농가가계로 하여금 체계적인 재무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체계적 접근법에 의한 가계재무관리는 가계에서 투입요소로 사용되는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용하는가와 관련된 관리과정에 따라 가계의 복지수준이 달라진다고 설명한다. 일정한 자원을 소유하고 있는 가계가 각기 처한 환경속에서 목표를 달성하고 만족을 극대화하기 위해 여러 가지 자원관리 행동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각 항목별로 예산 세우기, 가계부기록 등의 지출을 기록하기, 장기적인 목표를 잘 계획하여 저축을 하는 등의 장기 재무설계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그리고 농가가계를 도울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시행을 통한 농가복지 수준의 증진을 추구함이 바람직하다. 특히, 단기계획 뿐 아니라 현재의 생활상태를 파악하여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설정, 불시지출에 대한 예비비 설정 및 치밀한 실천계획 등 장기계획에 대한 내용들을 교육할 필요가 있다. 또한 소득수준이나 교육수준 등 개별 가계구성들의 능력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적절한 기법과 전략을 사용하여

계획의 조정 및 통제행위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이해하고, 소득의 우선 순위와 사용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3) 재무관리체계의 구성요소

재무관리체계의 구성요소는 크게 투입, 변환과정과 산출의 세 단계로 구분되는데, 각 단계에 대한 설명은 다음 <그림 1>과 같다.

(1) 투입

투입은 농가가계가 사용할 수 있는 자원과 그 자원을 사용하도록 하는 가족구성원의 요구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가계구성원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자원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가계구성원의 요구를 달성할 수 있는 가계자원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가계소득을 들 수 있다. 또한 남편과 아내의 연령, 교육수준, 취업유무, 가계생활비, 저축액, 가족원수, 재무관리지식, 재정상태 인지도, 성역할 태도, 의사소통 빈도 등이 투입 정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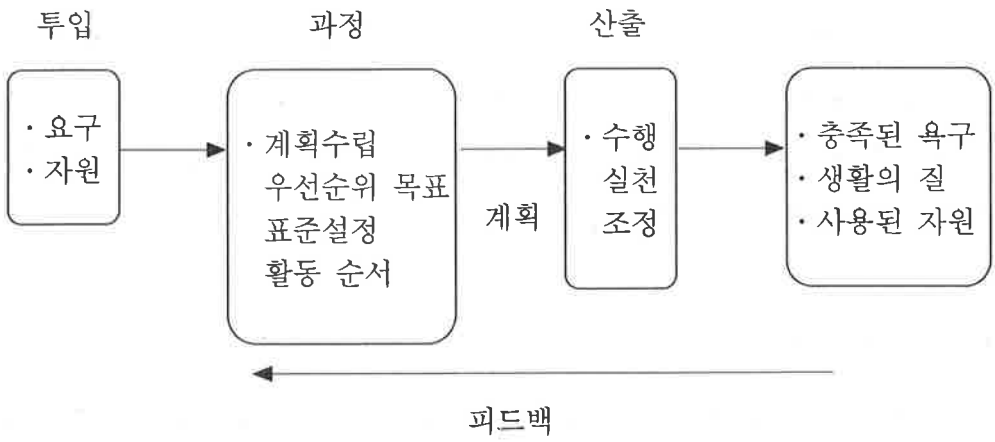
(2) 변환과정

변환과정은 투입단계에서 결정된 자원을 실제 관리행동으로 연결하는 계획과 수행을 포함한다. 계획은 농가가계의 장·단기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정으로서, 효과적인 계획은 농가가계의 재정만족도를 증가시킬 수 있으며, 수행은 계획을 실행하고 이를 통제하는 재무관리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3) 산출

가계구성원의 요구에 따라 재무관리를 계획하고 자원을 투입하여 수행한 결

과는 모두의 요구가 충족된 것에 따른 만족감으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재정만족도는 사람들이 재정상태와 관련하여 경험한 것에 대해 주관적으로 느끼고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현대사회에서는 가계의 경제기능 즉 구매, 소비, 생산, 공급의 기능과 금융수단인 화폐의 기능이 긴밀하게 연관되어 움직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가계관리의 개념은 재무관리의 개념과 일치한다.



〈그림 1〉 체계적인 관점에서의 계획과정

자료 : Rice와 Tucker의 체계적 관점에서의 계획과정(김혜선, 배미경, 1998; 재인용)

4) 가계 재무관리의 행동영역

재무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 생애에 걸친 재무설계 및 관리가 필요하며, 재무관리의 주요 하위영역으로는 크게 소득관리행동, 지출관리행동, 부채관리행동, 투자관리행동 및 위험관리행동이 포함된다.

(1) 소득관리행동

장·단기적으로 농가가계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고정소득의 확보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소득의 원천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농가가계의 경우 소득획득이 연중 고르지 않고 일년에 한 두번 집중적으로 얻어지는 농업소

득에 의존하게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합리적인 재무관리를 통한 소득관리행동의 필요성이 더 요구된다. 특히, 가족 구성원으로 하여금 다양하게 농외소득을 확보하게 하고 자산소득이나 이전소득 등의 소득원천을 다양화하여 농가가계의 소득 안정도를 높여야 할 것이다.

(2) 지출관리행동

지출은 가계에서 가족구성원이 가정생활 및 사회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재화와 용역을 구입하기 위해 소득을 사용되는 것으로서, 효율적으로 지출을 관리하기 위해 고정지출과 변동지출을 구분하며, 지출비목간의 균형을 고려하여 균형적으로 예산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한다.

(3) 부채관리행동

부채는 미래의 가계 재무상황을 고려하여 현재 부족한 예산 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가계 재무관리 방법으로서, 부채를 이용하여 전 생애에 걸쳐 가계소득을 고르게 분배함으로써 소비로부터 얻을 수 있는 만족을 크게 할 수 있다. 그러나 부채를 지는 행위는 일종의 고정지출로서 가계에 경제적 부담이 되고 소비형태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수준 이상이 되면 가계복지에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므로 부채활용에 대한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4) 투자관리행동

투자관리행동이란 가계재무의 목표를 실현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방법으로서, 어떤 종류의 투자자산을 선택할 것인가에서부터 선택한 투자자산의 관리 및 얻어진 성과의 평가에 이르는 광범위한 과정을 포함한다. 가장 대표적인 투자방법으로 저축을 들 수 있다. 저축은 개인적으로 현재의 소비를 포기하고 미래의

잠재적 소비를 늘려서 가계소득 및 소비생활의 안정을 가져올 수 있으며, 국민경제적인 차원에서는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

특히, 소득과 소비지출의 규모가 제한되어 있는 농가가계의 경우 적은 액수의 여유자금을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더 큰 투자자원을 마련하도록 하여야 한다. 농가가계가 가진 여유자금을 운용하는 방법으로는 저축이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며, 다음으로 주식이나 채권투자 및 부동산투자의 방법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일년에 한두번 얻게 되는 농업소득이 주 소득원인 대부분의 농가가계에서는 여유자금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되기까지는 많은 자금을 필요로 하는 부동산투자나 위험성이 큰 주식투자보다는 저축을 통한 자금의 축적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5) 위험관리행동

위험은 어떤 투자대안에 대해 실제 얻을 수 있는 수익과 기대하는 수익이 다를 수 있는 가능성 또는 확률로 정의된다. 일반적으로 투자에는 크든 작든 간에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농가가계가 위험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위험의 존재를 인식하고 위험관련 정보를 수집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기업의 지분을 판매하는 주식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주식투자가 가지고 있는 장·단점 및 위험정도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인지하여야 한다. 또한 위험요인과 관련하여 채권투자나 부동산투자에 비해 주식투자가 가진 수익성이나 다양한 관련정보를 수집하여 개별적인 농가가계에 가장 적합한 투자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또한 위험에 따른 잠재적인 손실을 평가하고 발생 가능한 위험의 빈도와 상대적인 심각성을 추정해야 한다. 그리하여 심각성 정도에 따라 위험관리방법을 선택하고 이를 실행하며 주기적인 평가와 조정이 끊임없이 병행되어야 한다.

3. 재무관리의 실제 : 가계 재테크 전략

본 절에서는 재무관리의 영역 중에서 농가가계의 소득안정성 측면에서 수행하기 쉬운 재테크 전략으로서 농가저축과 농업·농촌관련 세금 및 절세 방안에 대하여 논의 하고자 한다.

1) 농가저축

전 생애에 걸쳐 가족이나 가계가 사용할 수 있는 소득이나 자금이 각 단계마다 필요한 소비지출에 항상 적합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소득이 소비를 따르지 못할 경우에 대비할 수 있는 장기적인 가계재무관리계획의 수립이 요구된다. 특히, 예상하지 못했던 소비지출이 발생하거나 가장의 실직 등으로 가계소득이 없어지거나 감소할 경우 등에 대비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으로 가계저축을 들 수 있다. 저축은 안정된 가계재무구조 달성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요인인 불확실성을 어느 정도 완화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농가가계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저축은 가계재무자산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 미래의 사용을 위해 소비에 사용하지 않고 소득을 남겨 두는 것이며, 이는 가계가 추구하는 미래의 가계재무목표를 실현하는 동시에 미리 예측할 수 없는 미래의 재무관리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농가가계의 농업소득 획득이 특정시기에 단발적으로 발생하는 것임을 감안할 때 장기적으로(예를 들어, 1년 단위로) 농가소득을 고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농가가계의 저축은 중요한 수단이 된다. 이는 비단 농가경제 측면에서의 중요성 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적 측면에서도 그 의의를 더한다. 국민경제내에서 생산은 투자를 통해서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며, 가계저축은 바로 이러한 생산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저축이 가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첫째, 저축은 미래

에 더 큰 만족을 위하여 현재의 소비를 억제함으로써 가계의 안정을 가져온다.

둘째, 저축을 통해 모아진 돈은 투자의 형태로 기업에 공급되고 이 투자자금으로 기업은 설비투자나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를 늘리게 된다. 이는 고용규모의 확대와 생산증대를 가져오게 되므로 국민소득의 증가를 가능케 한다. 특히, 농가가계에 있어서는 농외취업의 기회가 많아지기 때문에 농업소득외에 농가재무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소득원을 확보할 수 있다.

셋째, 저축이 늘어난다면 투자자금을 국내에서 조달할 수 있기 때문에 자립경제를 달성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농업관련기업의 자금을 가계저축으로 충당할 수 있다면 생산에 따른 이익을 이자의 형태로 농가가계에 되돌려 줄 수 있기 때문에 농가가계의 소득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

넷째, 저축이 부족할 경우 필요한 자금을 외국에서 빌려오거나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에서 필요한 만큼 발행하게 되는데, 이는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게 되어 가계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인플레이션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부족한 농가가계의 경우 입게 되는 피해는 도시가계보다 더 심각할 수 있다.

한편, 저축이 생활주기에 따라 변화되는 소비생활 및 노후 대책의 일환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농가가계는 도시가계와는 다른 특성이 있다. 도시가구는 일반적으로 소비활동을 하는 곳이지만, 농가가계는 농업생산활동과 소비활동을 동시에 하고 있다. 그러므로 농가가계의 저축에는 소비를 가능하게 하는 가계저축과 함께 농업생산을 위한 투자자금의 확보를 위한 저축도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농가가계가 소득을 소비를 위한 자금과 생산을 위한 투자자금으로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필요할 때마다 즉흥적으로 쓰게되는 경우가 많다. 현실적으로 목돈을 마련하기에 적합한 저축상품의 선택이 중요한 과제가 된다.

최근에는 농가가계를 위한 목돈마련저축을 비롯하여 농가의 재산증식을 위한 은행상품이나 공제, 보험, 연금 등과 같이 다양한 종류의 금융상품이 많기 때문

에 개별 농가가계는 가족형태에 따라 효율적인 상품의 선택을 해야할 것이다. 이를 위해 농협이나 금융기관의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특히, 단기계획에서 관심을 가져야할 점으로서 한꺼번에 많은 돈이 드는 지출에 대비하여 매월 또는 분기별 소득 중 일정 금액을 미리 저축하고 나머지 소득으로 월 생계비 지출에 대한 계획을 세워 실천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처럼 농가가계가 지닌 특수상황에도 불구하고 농가가계의 소비형태나 저축방법을 보면 앞으로 농가가계에 있어서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생활의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전통적으로 여성농업인들이 가족원의 부양, 양육, 교육을 위한 가사노동을 전담해 왔기 때문에 소비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사는 일이나 농협에 저축을 한다든지 부녀회 활동 또는 학교 자모회 활동을 하는 등 가정 안팎의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기회가 점차로 늘어나고 있다. 특히, 젊은 여성일수록 그러한 경향이 더욱 심하다. 이처럼 여성농업인은 점점 다양한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특히 1970년대 이후 새마을 부녀회 활동에 여성농업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농촌지역의 사회 발전에 여성농업인이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가계생활의 유지는 여성이 많은 부분을 담당해야할 영역으로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생활에 대한 설계가 반드시 필요하다.

2) 농업 · 농촌관련 세금 및 절세 방안

동일한 수준의 소득을 가진 농가가계라 하더라도 저축 등의 투자에 따르는 과도한 세금을 줄임으로써 농가가계가 사용할 수 있는 소득을 극대화할 수 있다. 세금은 국가나 공공단체가 수입을 조절할 목적으로 특정한 개별보상 없이 사경제로부터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화폐나 재화를 말한다. 세금은 농가가계가 사용할 수 있는 소득의 크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간접적으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하여 가계의 경제활동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똑같은

금액을 저축하더라도 비과세상품이나 절세상품을 이용한다면 원금에 대한 이자의 상당부분을 과도한 세금으로 지불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그러므로 농업 및 농촌관련 세금에 대하여 살펴보고 그에 따라 필요이상의 세금을 내지 않도록 하여 농가가계의 가처분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알아보도록 한다.

우선 농업 및 농촌관련 주요 세금을 살펴보자. 이에는 양도소득세, 상속세와 증여세, 종합소득세와 금융소득 종합과세 및 재산세, 종합토지세, 농지세를 포함하는 지방세가 포함된다. 첫째, 양도소득세는 토지나 건물 등의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팔아서 얻은 양도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양도는 등기, 등록여부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데, 이때 취득가액에서 양도가액과 필요경비를 제외한 양도차액으로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제외한 액수가 양도소득금액으로 책정된다. 다음 해 5월중에 확정신고하여 납부하게 되며, 양도 후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 납부시 산출세액의 10 퍼센트 또는 15 퍼센트의 세액공제혜택이 있다.

둘째, 어떤 사람이 생전에 재산을 물려주는 경우는 증여세, 죽어서 물려주는 경우는 상속세를 부담하게 된다. 그러므로 상속세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게 된다. 상속재산은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재산이 포함되며 이를 시가로 평가하여 세금을 부과한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 이때 10 퍼센트의 세액이 공제된다. 반면 증여세는 민법상의 증여재산 이외에 증여로 간주되는 모든 재산을 합한 것에 부과하며,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10 퍼센트의 세액이 공제되고 신고를 하지 않으면 20 퍼센트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그러나 농지를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증여하거나 자경농민이

농지를 영농자녀에게 증여시 세금이 감면된다.

셋째, 종합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일시재산소득과 기타소득을 합한 것이며, 이에 부과하는 세금이 종합소득세이다. 원천징수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금융소득과 부부의 금융소득을 합한 것이 4천만원 이상이 되면 이를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15~40 퍼센트의 세율을 부과하여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를 부과하게 된다.

넷째, 지방세는 과세관청에 따라 특별시, 광역시, 도세와 시, 군, 구세로 구분하며, 지출용도에 따라 보통세와 목적세로 구분한다. 그 중 농가가계에 적용되는 대표적인 것으로 재산세, 종합토지세와 농지세를 들 수 있다. 재산세는 재산의 보유사실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수익세성격의 시·군 독립세로서, 매년 5월 1일 현재의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 등의 재산가액의 시가표준액에 0.3 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하며 매년 6월에 납부하게 된다. 종합토지세는 토지보유정도에 따라 합산하여 누진적으로 과세하는 정책세제로,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며, 매년 10월에 납부하게 된다. 세율은 방법에 따라 다양한데, 종합합산의 경우 0.2 퍼센트에서 5 퍼센트까지의 9단계 초과누진율을, 별도합산의 경우 0.3 퍼센트에서 2 퍼센트까지의 9단계 초과누진율을, 분리과세의 경우 자경농지, 중종임야, 목장용지는 0.1 퍼센트, 공장용지는 0.3 퍼센트, 사치성재산의 부속토지는 5 퍼센트의 세율이 부과된다.

마지막으로 농지세는 농지에서 농산물이나 농작물을 재배하게 하여 얻은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서, 농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함으로써 소득을 얻는 사람이 납부하게 된다. 얻어진 소득에서 필요경비나 기타 공제액을 제외한 금액에 3 퍼센트에서 40 퍼센트까지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납부는 다음해 1월 31일 까지 해야 한다.

이렇듯 농업 및 농촌관련 세금의 종류와 액수가 다양하기 때문에 세금감면에

관심을 가지고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면 궁극적으로 농가의 가처분소득을 증가시켜 가계의 복지를 증가시킬 수 있다.

구체적인 절세요령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자나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비과세저축이나 가급적 5년 이상의 장기저축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연도별로 고르게 분산시키거나 표면금리가 낮은 채권에 투자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또한 저축에 가입하는 경우 자녀와 부모님의 명의를 적극활용하여 종합과세액을 줄이는 방안이나 신탁투자시 신탁수익을 받게 되는 대상을 다른 사람으로 지정하는 것도 부과세금을 줄이는 효과적인 방법이 된다.

둘째, 부동산 취득시 부과되는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며, 실제 취득가격과 시가표준액을 비교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이 너무 높게 책정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취득세가 상당히 많이 부과되는 부동산인지를 사전에 파악해서 부동산을 취득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밖에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는 반드시 취득세와 등록세의 부담이 따른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셋째, 불가피한 사정으로 장기간 보유하기 어렵더라도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양도후 최소한 2년 후에 처분하는 것이 효과적인데, 이는 2년 미만 보유 부동산의 경우 40 퍼센트의 단일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또한 양도소득이 발생한 후 다음달 말일까지 예정신고를 하고 세액을 미리 납부하면 산출세액의 10 퍼센트를 공제 받을 수 있다. 그밖에 장기간 보유시 얻을 수 있는 특별공제를 비롯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를 잘 알아서 가능한 한 절약할 수 있는 액수를 크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 양도시기를 적절히 조절하여 이에 따른 절세혜택을 누려야 할 것이다.

넷째, 건물을 상속할 경우 월세보다 전세를 놓은 상태로 상속하는 것이 상속세 부담시 유리한데, 전세보증금으로 받은 금액은 부채로서 상속재산에서 공제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장례비용도 상속재산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장례비용이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관련영수증을 잘 보관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금융자산보다는 부동산으로 상속하는 것이 유리한데, 금융자산은 그 전액이 상속세 과세대상 가액이 되지만 부동산은 정부에서 정한 기준시가에 의해 상속재산을 평가받기 때문이다. 그밖에 상속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는 재산의 처분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상속 개시 전에 재산을 처분하고 그 지출용도가 불분명한 경우 상속재산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자식이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3천만원 까지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증여는 빠르면 빠를수록 유리하며, 미리 나누어서 증여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또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는 재산을 파악하여 기대하지 못한 증여세 납부를 방지해야 하며 증여세 면제저축을 활용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 된다.

Ⅴ. 맺음말

농가에서 여성의 지위는 점차로 중요해 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 여성농업인들은 가족원의 부양, 양육, 교육을 위한 가사노동의 전담자이며 동시에 농사보조자로서 농업노동에 참여하는 등 가사노동과 농업노동이라는 두 가지의 이중노동에 종사하게 됨으로써 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여성농업인이 논농사를 비롯하여 중요한 농사일을 하는 것은 물론, 소비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사는 일, 농협에 예금을 한다든지 부녀회 활동을 한다든지 학교 자모회 활동을 하는 등 점점 다양한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특히 1970년대 이후 새마을 부녀회 활동에 여성농업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농촌지역의 사회 발전에 여성농업인이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에 따라 가계운영에서 여성의 책임도 그만큼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현대사회에서 소비생활을 둘러싸고 있는 시장환경이 복잡해지고 다양해짐에 따라 가계의 주된 의사결정을 담당하고 있는 여성의 소비선택에 대한 결정 및 이에 따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있어서 소비생활 관련 상담이나 소비자교육에 대한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그러나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소비자의 생활상담이나 소비자교육은 주로 민간소비자단체나 소비관련행정기관에서 행해지고 있으며, 이것도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불만을 적극적으로 표시하는 소비자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또한 과거에는 소비자가 불만을 느껴 해결을 요구하는 소비생활관련 문제는 불량상품 구매에 관한 것들이 많았으나 지금은 금융, 보험, 의료 등의 서비스 및 정보통신, 신용거래, 유통 문제 등 점차 문제가 복잡하고 다양화됨에 따라 예전의 소극적인 형태로는 소비자가 경험하게 되는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가 어렵게 되었다. 이밖에도 사회의 불확실성이 증가함에 따라 가계 구성원들의 삶의 질을 높여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계획적인 소비와 저축을 위한 장기적인 재무설계의 필요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에 수행되고 있는 생활상담이나 교육의 영역 및 대상을 확대하여 궁극적으로 가계가 원하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가계가 직면하는 재산관리는 크게 자원부족과 가지고 있는 자원의 효과적인 사용에 대한 문제임을 인식하여 주어진 자원으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산관리 또는 재무관리행동을 통해 가족구성원의 복지를 가능한 한 크게 할 수 있도록 가계재무관리에 대한 관심과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효율적인 재무관리가 가계의 안정과 성장을 추구하여 가족구성원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결국 가족 전체의 만족을 극대화하며, 더 나아가서는 삶의 질을 한 층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더 나아가서 효율적인 가계재무관리를 통하여 생활수준의 유지를 위협하는 요인들을 제거 또는 최소화한다면 경제생활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장기적인 재테크설계를 위해서는 현재의 나이, 소득, 재산, 생활수준 등을 감안하여 장래의 수입과 지출을 정확하게 예상하는 것이 필요하며, 또 이 설계에 따라 적절하게 재테크전략을 사용하여야 급변하는 금융환경속에서 가계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물질문명의 급속한 발달은 사회구조와 생활환경의 변화를 초래하였으며, 이로 인해 가족의 구조와 가족내의 생활 및 소비환경을 계속적으로 변화시켜 왔다. 이러한 변화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지속될 것이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가족구성원들의 다양한 소비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경제적 요인이나 자원에 대한 관심 또한 중요한 연구대상으로 주목받게 되었다. 궁극적인 목표로서 가족구성원의 복지증진은 가계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사용하는 가에 상당부분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나날이 변화하고 있는 경제환경을 신속하게 이해하고 따른다는 것은 평범한 시민이 쉽게 실행할 수 없는 문제이다. 특히, 대도시에 거주하는 여성에 비해 농촌에 거주하는 여성농업인의 경우 정보와 교육 측면에서 열세에 놓여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이 한층 더 할 것이다. 그러므로 농촌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된다.

참 고 문 헌

김인숙 · 최은숙, 「농가유형별로 본 농가소득 및 소비지출 구조분석 - 1988 농가가계부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28(3), pp.105-125, 1990.

김혜선 · 배미경, 『가계재무관리』, 학지사, 1998.

김효정, 『부부의 가계재무 관리행동과 재정만족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7(8), pp.91-102, 1998.

박옥임, 『농촌개발을 위한 농촌가정의 생활상에 대한 실증석 분석』, 『한국농업교육학회지』, 23, pp.33-47, 1991.

손상희, 「농촌가계의 재무관리행동과 주관적 소비수준」, 『한국생활과학회지』, 7(1), pp.85-95, 1998.

임정빈 · 조미환 · 이영호, 「농촌가정의 의사소통, 재무관리행동, 가정생활만족도 - Deacon & Firebaugh의 체계적 접근법의 이용」,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3(3), pp.156-169, 1995.

주인숙 · 양세정, 「가계의 소비지출유형과 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5(1), pp.227-291, 1997.

최현자, 「지역사회 구성원의 합리적인 소비생활과 재무관리를 위한 상담 및 교육 - 집단과 개인을 대상으로」, 『한국생활과학회 1999년도 동계학술대회』, pp.52-53, 1999.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결과보고』, 각연도.

홍양숙 · 이종혜, 「개인 · 가계 · 환경변수가 가계의 재무영역별 재무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과학회지』, 2(1), pp.12-24, 1999.

농촌 현장에서 본 선진농업 경영

석 태 문
경상북도 정책 기획팀

Ⅰ. 여행을 떠나요

Ⅱ. 21세기 농업은 정보가 돈이다
1. 인터넷에 차린 웅화농장
2. 엘리뇨 지수도 잘만 이용하면

Ⅲ. 여성은 우리 농업의 지킴이
1. 다섯이 맞들면 산도 옮긴다
2. 양계산업의 대모, 안영순 사장

Ⅳ. 농산물의 인테리어, 아웃테리어
1. 이제는 농사도 생각하며 짓는 시대
2. 브랜드, 그것 정말 장난이 아니데요
3. 힘 모아 공동출하, 뜻 모아 공동계산

Ⅴ. 잘만하면 농업도 벤처공장
1. 찹쌀이 특허 출원된 사정
2. 21세기 농업은 신기술과 아이디어가 최고의 무기

Ⅵ. 농업은 환경의 보물창고
1. 손으로 하던 일을 오리가 하니 오리농법
2. 건강한 흙 물림이 가장 큰 유산

Ⅶ. 벤치마킹을 마치고

농촌 현장에서 본 선진농업 경영

Ⅰ. 여행을 떠나요

김정옥씨가 사람 찾기에 나섰다. 학교 다닐 때부터 남들처럼 별다른 재주가 없었던 김정옥씨는 '특기가 뭐냐', '취미는?' 이란 설문지를 받아들면 '여행', '독서', '영화감상'이라고 대충 적어 내리는 버릇이 있었다. 그런데 '말이 씨가 된다'고 그 중에서 여행은 정말 그의 취미가 되어 버렸다. 요즘도 농사일에 조금만 틈새가 보이면 남편에게 일을 맡겨 놓고, 배낭을 둘러매기 일쑤다.

농업경영을 하겠다고 결심하고, 의욕적으로 달려들었을 때만 하더라도 김정옥씨는 그런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래서 대학까지 졸업하고 남편과 함께 남들은 힘들다고 등지는 농사일을 역류하는 고기 마냥 택한 농업이었다. 그렇게 농업경영을 시작한지가 벌써 10여년,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적지 않는 농촌생활이었지만 김정옥씨의 생각처럼 농사일이 그렇게 쉽지도 않았고, 돈도 생각하고 노력한 만큼 잘 벌리지 않았다. 뭔가 잘못되어 있었던 것이다.

최근 '바람의 딸'로 유명한 한 여성 오지여행전문가의 기행문까지 단숨에 읽어 내린 김정옥씨는 한가지 목표를 세웠다. 농사도 돈 버는 사람이 번다고 했다. 우리 농업에도 돈 잘 버는 비결을 아는 농업경영자가 있다. 반면, 백날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다. 그렇다면 돈 버는 사람을 찾아가자. 그 사람의 비결을 알아내 보자. 그리고 분명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 이유만 제대로 안다면 그도 소

위 말하는 잘 되는 농업경영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Ⅱ. 21세기 농업은 정보가 돈이다

1. 인터넷에 차린 홍화농장

김정옥씨가 인터넷을 알게 된지도 벌써 2년. 40대 중반의 여성농업인으로서 보다 효율적인 농가경영을 위해 거금을 주고 컴퓨터를 산지도 5년이 넘었다. 그러나 인터넷을 시작하지는 이제 겨우 2년, 인터넷을 배우기 위해 그렇게 노력하지는 않았지만 초고속망이 깔리고, 보다 손쉽게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기술들이 짧은 시간에 발전함에 따라 김정옥씨는 이제 아무런 무리 없이 인터넷을 농업경영에 활용하고 있다. 요즘은 매일 아침 미리 가입해 놓은 각 사이트의 이메일 클럽에서 보내주는 자료를 검색하는 것으로 하루일과를 시작하고 있다. 인터넷은 이제 김정옥씨에게는 가장 중요한 농업경영 수단, 농기계가 된 것이다.

김정옥씨는 우리 나라에서 인터넷이 아직 세인의 입에 오르내리기 전. 그러니까 농촌에서는 그래도 김정옥씨가 컴퓨터도 빨리 활용해왔고, 인터넷도 남들보다 늦지 않게 했으며, 농업경영 활동에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지만, 경북 칠곡군의 조그만 시골마을에서 홍화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배문열씨 소식을 듣고는 쬐금 자존심이 상할 정도였다.

배문열씨가 '사이버 세상'을 만난 것은 1996년이었다. 대구에서 직장생활을 하다가 회사가 부도나는 바람에 낙향, 농사꾼이 된 지 3년째 되던 때였다. 약재로 쓰이는 홍화가 돈이 되겠다 싶어 재배를 시작했다가 판로를 찾지 못해 실패를 거듭하던 중 우연한 기회에 PC통신을 접하게 됐다. 그는 e메일을 통해 홍화판촉을 시도했고, 반응이 괜찮자 1998년엔 인터넷에 홈페이지(www.honghwa.co.kr)를

띄워 본격적인 사이버거래에 나섰다. 결과는 놀라웠다. 97년 4천만원에 불과하던 매출액이 1998년엔 1억3천만원으로 껑충 뛰었다. 1999년엔 4억3천만원이나 되었다. 인터넷을 통해 미국과 일본, 중국에도 4만달러어치나 팔았다. 이 농장에서 생산되는 홍화의 70%는 이같은 인터넷 직거래로 팔리고 있다. (「경향신문」, 정동식, DOSjeong@kyunghyang.com)

배문열씨는 우리 농업경영인으로서는 아마 최초로 인터넷에 사이버 직거래센터를 차린 사람일 것이다. 이 일로 그는 정부로부터 신지식인으로까지 뽑히기까지 했다. 그의 시도는 아직도 자그마한 걸음에 불과하지만 인터넷을 통한 농수축산물의 직거래 활성화는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을 주는 의미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인터넷을 활용한 농업경영, 적극적인 판매사례는 배문열씨의 성공으로 인해 이제 변화의 조짐으로 나타나고, 전국적으로 그의 성공사례가 회자되면서 확산되고 있다. 제주에서는 감귤농가들이, 충남에서는 쌀과 버섯 재배자들이, 부산에서는 자갈치시장 상인들이 속속 홈페이지를 올리고 있다.

농어촌 문제의 해결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과제는 산적해 있다. 그러나 전자상거래는 분명 농업경영에서 생산자 주도의 새로운 유통혁명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아직 농산물 전자상거래가 넘어야 할 산도 적지 않다. 배달시스템의 낙후성과 같은 거래가 체결된 이후의 사후업무 처리과정도 공산품과는 달리 농산물에 애로사항이다. 하지만 보다 본질적인 것은 전자상거래가 실현되기 위한 핵심 인프라인 농산물의 품질 규격화가 인터넷의 견본품처럼 잘 되어 소비자들이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하는 점이다. 또한 제 2, 제 3의 배문열씨가 탄생될 수 있는 인터넷 인프라가 농어촌지역의 마을마다 농가마다 깔려, 누구든지 자유롭게 정보의 바다로 항해할 수 있어야 하는 점도 선결과제이다.

2. 엘리뇨 지수도 잘만 이용하면

김정옥씨는 얼마 전 일본 책을 통해 희한하게 돈 버는 농업경영자를 보았다.

처음 그 책을 읽었을 때는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을 정도였으니. 이 글을 쓰고 있으면서도 김정옥씨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의문을 떨치지 못할 지경이다.

여러분 중에 엘리뇨 지수에 대해 들어본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다. 필자의 기억으로 우리 나라에서는 엘리뇨 지수보다는 그냥 엘리뇨 현상이란 의미로 여름철에 간혹 신문지상을 통해 읽을 수 있었다. 그러니 그 분야 전문가가 아니면, 엘리뇨가 무엇인지에 대해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여겨진다.

엘니뇨 지수는 멀리 남아메리카의 칠레 앞 바다의 이상으로 온도가 높아진 해수가 얼마만큼 이출하였는가하는 양에 의해 결정된다. 이출량이 많으면 보통 더운 여름이 되고, 이출량이 적으면 추운 여름 현상을 일으킨다. 보통보다 더운 여름이든지, 추운 여름이 나타나는 이 현상을 우리는 엘리뇨 현상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그런데 이 지수를 어떻게 농업경영 활동에 연결시켰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돈으로 나타났는지 지금 생각해도 신기할 따름이다. 다만 그 책에는 청년의 이름과 나이, 살고 있는 곳도 나와 있지 않아 직접 확인할 수 없었던 점이 아쉬웠다.

> *풋콩[1] 재배를 하고 있는 그 청년은 엘리뇨 지수가 맥주 소비량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고 싶었다. 그래서 엘리뇨 지수에 대한 과거 자료를 통해 연구했다. 그 결과 청년은 엘리뇨 지수가 높은 해에는 더운 여름이 오고, 맥주 소비량이 늘어난다는 점에 관심을 가졌다. 더우니까 풋콩을 재배해야겠다고 해서는 타이밍이 맞지 않는다. 더운 엘니뇨 현상이 올 것을 미리 알아야 하고, 이를 활용해 풋콩 재배면적을 평년보다 늘려서 더 많은 상품을 출하하면 그 만큼 이익이 커진다는 것을 청년을 알게 되었던 것이다.*

엘리뇨 지수까지 돈으로 연결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다. 정말 정

---

1) 일본에서는 '지두'라는 한자어로 사용되는데 풋콩은 일본에서 맥주 안주로 가장 많이 팔리는 상품이다.

보화 농업에는 한계가 없다는 것을 실감하는 듯하다. '정보는 돈이다'라고 막연히 말을 하지만 실제로 정보를 농업경영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 김정옥씨가 농촌지역을 돌아다보면서 절실하게 느끼는 점은 대부분의 농업경영자들이 정보를 그냥 막연한 정보로서 이용하는데 그치고 있는 점이다.

아무리 정보라고 해도 이용하는 사람의 눈에 그것이 정보로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정보가 아닌 단순한 자료일 뿐이고, 활용하지 못하는 자료는 농업경영자에게는 짐이 되고 쓰레기만 양산할 뿐이다. 중요한 것은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자료를 모아서 편집하고 가공하여 부가가치를 높이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말이 있다. '우산 장사하는 아들과 짚신 장사하는 아들 둘을 가진 엄마의 딜레마'. 여기에는 비가 오면 짚신 장사하는 아들이 걱정되고, 햇볕이 나면 우산 장사하는 아들이 걱정되는 전형적인 우리 엄마의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이 말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는 알게 모르게 사물의 장점보다는 단점을 먼저 생각하고, 그렇게 때문에 자신이 가진 좋은 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점을 깨우치려는 것이 아닐까란 생각이다.

김정옥씨는 "비가 오면 나막신 장수가 돈을 번다"는 말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 농촌이 어렵다고 한다. 정말 경영을 잘 하는 농업경영인은 이 '위기'를 새로운 기회를 획득하는 절호의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의 청년이 실천한 것처럼 우리도 이상 기상 현상을 잘만 활용하면 농업경영에 소중한 비즈니스가 되는 찬스는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된다. 기온이 27도로 올라가면 수박이 잘 팔리고, 28도가 되면 아이스크림이 폭발적으로 팔리고, 온도가 14도로 내려가면 냄비찌개 등의 인기가 높다는 사실을 마케팅 전문가들은 알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농업경영인들도 자신이 재배하는 작목이 가지고 있는 온도지수를 찾아내는 노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것은 청년의 일화처럼 과

거의 온도자료를 모으고, 매출 추이를 비교하는 자그만 노력만 따른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Ⅲ. 여성은 우리 농업의 지킴이

1. 다섯이 맞들면 산도 옮긴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속담이 있다. 백지장보다 훨씬 두꺼운 여성농업인 다섯 명이 사고를 쳤다. '소비자 건강을 모성애의 심정으로 지키자'는 거창한 슬로건까지 내걸었다. 남성농업인과는 뭔가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의지로 똘똘 뭉쳤다. 남성은 경제성을 우선 추구하지만 여성은 소비자의 건강을 우선 챙긴다는 모성애를 모임의 출발점으로 삼은 것이다. 김정옥씨는 자신도 꽤나 당차다고 생각했지만 옥잠화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인 서순악씨의 왕성한 활동력에는 아직 한참이나 멀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충북 심천면 옥계리에 소재한 옥잠화 영농조합(대표 서순악)은 '소비자건강을 모성애의 심정으로 지키자'라는 취지로 여성농업인 5명이 공동 투자해 만든 농산물 가공공장. 남성농업인은 경제성을 추구하는 반면, 여성농업인의 역할은 소비자의 건강을 책임지는 것이라는 사명감이 여성이사로만 구성된 배경이다. 처음에는 동네 청년들이 지금의 옥잠화영농조합 대표인 서순악씨에게 포도가공산업을 제안했고 서 이사도 이에 동의, 잼을 만들어 주변인에게 판매하는 수준이었다. 그러나 남자 직원의 경제적 욕구를 충족시키려면 서 이사의 순수한 농업관을 뒷전으로 해야하는 위험이 따르기 시작했다. 서 이사는 결국 자신의 농업관을 지키기 위해 여성농업인 4인과 함께 '조은식품'이라는 법인을 새로 구성하고 본격적인 시판에 돌입한 것. 여성농민이 공동체로 공장을 운영하는데는 여러 가지 제약이 뒤따라 나중 영농조합으로 탈바꿈시켰다.

김정옥씨는 서순악씨와 대화를 나누면서 그가 말하는 '농업관'이 참으로 신선

해 보였다. 요즘의 농업활동에서 수익성을 염두에 두지 않는 경영이란 가능하지 않다. 그러므로 아무리 모성애적 농업경영을 한다는 슬로건을 내세웠지만 설마 했던 것이다. 하지만 경제적 욕구를 앞세우는 시도가 왠지 '순수한 농업관을 뒷전으로 해야 한다'는 불안감을 느끼게 했다는 대목에선 서순악씨에게 일종의 청교도적 순결함마저 느끼게 하였다.

옥잠화영농조합에서 생산하는 제품은 포도잼, 살구잼 등 잼류 외에도 원액 그대로의 주스도 제조하여 판매하고 있다. 함께 하는 이사들은 그와 성점숙씨, 김경순씨, 고동수씨, 문순선씨가 그 주인공들, 이들은 농번기에는 농사일에 전념하고 농한기에는 가공업무를 담당한다. 그들에겐 농한기가 따로 없다. 가공업무에 주력하는 농한기에는 마을 여성들을 고용해 마을의 소득증대에도 기여한다. 별다른 농한기 소득이 없는 마을의 부녀자들은 자신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준 옥잠화영농조합의 다섯 여걸들이 고맙기만 하다.

여성들이 영농법인을 설립하고 전업 농업경영인으로 활동하는데는 아직도 적지 않은 제약이 있다. 서순악 이사 자신은 미혼이라 그런 점에서는 좀은 홀가분하지만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 전통사상이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는 영농법인의 나머지 4명의 기혼 여성농업인들이 '여자가 나서서 왜 치맛바람을 일으키느냐'는 등 남편과 시부모로부터 적지 않은 시달림을 받고 있다고 한다. 서 이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사 가족들과의 저녁식사 자리도 마련하는 등 그가 할 수 있는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하지만 서순악씨는 충분히 이겨낼 자신이 있다. 김정옥씨는 그의 눈매에서 "열심히 하는 만큼 마을사람들도 자신들을 이해하고 언젠가는 동참할 것"란 확신을 느꼈다. 다섯 여성농업인들은 마을사람들이 '참으로 모질게도 일을 한다'고 입방아를 찧을 정도로 열심히 일하고 있다. 몸은 피곤해도 돈벌이에 크게 얽매이지 않고, 소비자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한다는 보람으로 피로를 잊는다고 한다. 자긍심이 그들에겐 최고의 피로회복제였던 것이다.

2. 양계산업의 대모, 안영순 사장

달걀과 닭에 관련된 이야기 몇 가지. 먼저 콜럼부스의 달걀. 우리에겐 발상의 전환을 촉구하는 대명사가 된 달걀 이야기이다. 이른바 타원형의 달걀을 똑 바로 세울 수 있는 방법을 묻는 질문에 콜럼부스가 식탁 위에 계란을 꽝 치면서 아랫부분을 깨뜨리면서 달걀을 세웠다는 유명한 이야기.

다음은 어린 시절 적어도 한번쯤은 해보았을 상상놀이. '학교 앞에서 갓 부화된 병아리 한 마리를 샀다. 병아리를 잘 키워 어미 닭이 되면 계란을 낳겠지. 한 열 개쯤 낳으면 다시 부화시켜 10마리의 병아리를 얻고, 이들이 다시 어미 닭이 되면 100개의 계란을 낳고, 이들을 다시 부화시키면 100마리의 병아리를 얻고...' 이른 식의 상상놀이는 학교 앞에서 한번이라도 병아리를 사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해보았을 터이다. 물론 우리의 호프, 김정옥씨도 유경험자.

안영순 사장이 양계업과 맺은 첫 인연은 닭 300마리였다. 그렇게 시작된 장호원에서의 양계사업이 모태가 되어 지금의 청운농장을 이루었다. 지난 1991년 현재의 자리로 농장을 이전하면서 안 사장의 계사는 모든 시설이 초현대식으로 완전 자동화되었다. 당시로서는 이런 초현대식 계사가 일반화되지 않았던 시절이었다. 안영순 사장은 "생산성 제고와 함께 양계업이 3D업종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 보이고 싶었다"며 양계업계에서는 최초로 농장 자동화에 나섰던 배경을 회상했다.

"자신부터가 '여성' 이전에 '경영인'이라는 인식을 확고히 해야 합니다". 한국양계산업에 있어서 대표적인 여성경영인으로 손꼽히고 있는 청운농장의 안영순 사장. 안 사장은 축산경영인으로서 여성들의 역할 증대와 성공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무엇보다 여성 자신들의 사고의 전환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축산업에 뛰어든 그 순간부터 모두 같은 축산업 종사자의 일원일 뿐 여성이라고 해서 남다른 대우를 바래서는 안되며 또 이뤄져서도 안된다"는

것. 안영순 사장의 청운농장은 운영에 있어서 여느 경영인 보다 한발 앞선 사고와 사업추진으로 국내 양계산업을 주도하는 선진 농장으로 업계의 주목을 받아왔다. (이일호, L21ho@chuksannews.co.kr)

현재 청운농장은 2동의 산란계사와 중추사에서 10만수씩을 사육하고 있다. 하지만 계사의 완전 자동화 시설 덕분에 투입하는 인력은 모두 7명에 불과하다. 여기에 빈틈없는 기록관리에 따른 경영효율 제고, 중추의 올인올 아웃을 통해 계란의 품질 균일도를 95 퍼센트 이상으로 끌어올렸다. 아울러 철저한 질병 예방프로그램 실시와 함께 질병 발생시 빠른 대처로 방역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생산성 향상을 극대화시켰다. 계란의 품질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 항생제 사용은 최소화하고 있다. 대신 미생물제제를 활용함으로써 난황을 더욱 건실하게 하고 계란 특유의 비린내를 최대한 억제하고 있다.

청운농장에서 김정옥씨가 주목하는 점은 "과연 오늘의 청운농장을 가능케 했던 원동력은 무엇일까?"라는 의문에 답하는 것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안영순 사장이 힘주어 말할 수 있는 점은 "계란의 생명은 신선도에 있다. 특수란 시장이 침체된 것은 신선도보다는 성분에 치중한 것이 원인"이라고 안영순 사장 나름의 지론을 피력했다.

품질 좋은 계란 출하를 위한 청운농장의 유통방식을 독특하다. 청운농장은 계란이 생산되면 이틀 내에 반드시 출하한다. 또한 출하 시에는 선수금을 받고 전액 현금결제로 출하하고 있다. 안 사장은 아직도 고정자산에 비해 매출액이 적은 양계산업의 특성으로 인해 경영에 적지 않은 애로를 겪고 있다. 그렇다고 수익성 창출을 위해 사육규모를 확대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워 새로운 판매방식을 시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른바 장조림, 삶은 계란, 훈제란 등 가공제품 생산이 그것이다. 아직은 홍보 및 이해 부족, 이들 상품에 대한 시장이 성숙되지 않아 어렵기는 마찬가지.

우리의 축산규모가 열악하고, 힘든 상황이지만 안 사장의 축산에 대한 열정은

끝이 없다. 그의 "축산에 대한 애착과 희망, 그리고 하면 안될 것이 없다는 확신, 기력이 닿는 날까지 축산을 떠나지 않겠다"는 다짐은 우리 축산의 밝은 미래를 짊어져 나갈 든든한 모습이라 생각된다.

짧은 생산사이클을 가진 양계산업의 특성으로 인해 안 사장이 겪은 고통은 양계산업에 종사하는 경영인들의 공통된 애로사항이었다. 그래서 안 사장은 나름대로 과잉·과소 생산으로 가격폭락과 폭등을 반복하고 있는 악순환 사이클에서 벗어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한다. 이른바 양계산업에도 캐나나 등 선진외국처럼 쿼터제를 도입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김정옥씨는 돌아오는 길에 다시 한번 안 사장의 얼굴을 떠올린다. 그가 주장하는 쿼터제는 분명 양계 업계로 보아서는 혁명적 제안이다. 가격이 하락할 때는 상관이 없겠지만 가격 상승시에 사업두수를 어떻게 규제, 조정하는 가에 대한 세부적인 방법론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마땅한 해결책이 떠오르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러나 양계산업의 안정적 사육여건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안 사장의 제안은 한번 심각하게 검토해볼 가치가 있다는 생각이다.

Ⅳ. 농산물의 인테리어, 아웃테리어

1. 이제는 농사도 생각하며 짓는 시대

겉모습이 다는 아니지만 김정옥씨는 농산물 판매에서 요즘처럼 옛말이 잘 맞아드는 시대가 있는지를 생각해 본다. 이른바 '신언서판'(身言書判)이라고 사람에게는 뭐니뭐니해도 '인물 잘생긴 것이 최고'라는 격언을 실감하고 있는 것이다. 김정옥씨가 찾은 농가들은 모두 겉모습인 아웃테리어는 물론 포장 안의 모습인 인테리어에서도 탁월한 솜씨를 발휘하는 농업경영인들이다. 그들이 만들어 내는 SW와 HW는 백화점이나 대형 할인점에서 당당히 공산품과 같이 리콜

(recall)제를 시행하는 자신감으로 이어졌다.

품질에 관한 한 그만큼 자신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를 겸해서 과감한 리콜제. 농산물을 포함한 과일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리콜제 사례가 흔하지 않은 상황에서 염작배의 시도는 신선한 것이었다. 그러나 품질만 믿을 수 있고 좋다면 그리고 자신이 생산한 과일을 소비자에게 전혀 거리낌없이 공개할 수 있는 품질일 경우에는 서비스 차원뿐 아니라, 판촉 차원에서 과감한 리콜제를 시행할 수 있다.

> *"맛이 없으면 상자째 바꿔 드립니다. 배의 결함으로 입은 손해도 보상해 드려요". 충남 아산시 둔포농협 관내 배 영농조합법인인 염작배의 경우 '생각하며 재배하는 고품질 배'라는 문구가 새겨진 산뜻한 포장재에 배를 담아 출하한다. 출하한 과일에 이상이 있거나 불량품이 섞여 있으면 상자 전체를 새 것으로 교환 배달해주는 리콜제를 도입, 소비자들의 신뢰를 쌓고 있다. 또 판매원표 도착 즉시 낙찰자가 누구인지 확인한 후 '우리 배를 구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는 감사전화를 한다. 이와 함께 어디에서 배를 구입하였는지 등을 물어서 재배농업인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 소비자들에게 전단을 나눠주며 염작배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있다. 이런 노력 덕분에 염작배는 서울 가락시장에서 다른 지역 배보다 15kg 한 상자에 1만원 이상 높은 값을 받고 있다. (「농민신문」)*

맛에 관한 한 우리가 최고란 자부심으로 똘똘 뭉친 한 영농법인이 내놓은 리콜제에 대한 내용이다. 리콜제의 전제조건은 등급화의 철저한 시행임은 말할 나위가 없다. 이 영농법인이 높은 값을 받는 이유와 리콜제라는 자신만만한 행동을 한 뒤에는 무엇이 있을까? 바로 소비자가 가장 좋아하는 맛에 자신이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를 최우선시하여 과일의 등급화를 한 결과이다.

또한 자신감의 비결에는 맛이 있었다. 재배과정에서 얻어지는 비결은 정말 특별한 재배기술이었다. 염작배 영농법인은 유기질 퇴비, 키토산, 목초액, 달걀껍데기, 쌀겨 등을 이용해 땅심을 높였다. 남들과 다르게 초생재배를 하면서 제초제를 전혀 쓰지 않는 노력도 함께 기울였다. 생산 후 판매에 있어서도 맛의 비

결을 유지하기 위해 철저한 등급화를 실시하였다. 그것이 바로 소비자가 신뢰하는 특이한 맛으로 나타난 것이다.

2. 브랜드, 그것 정말 장난이 아니네요

김정옥씨가 좀 약한 게 브랜드. 유달리 이름짓기에 약점을 보이는 있는 김정옥씨는 자신의 농장이름 하나 제대로 짓기 못해 5만원의 거금을 주고 작명소를 찾았을 정도였다. 그런 그였으니, 좋은 브랜드를 갖춘 농업경영인이나 영농법인을 찾는 심정은 약간은 경외감, 그것이었다.

우리는 지금 알게 모르게 브랜드의 홍수 속에 살고 있다. 백화점 식료품 매장에 한 번 가보면 알 수 있다. 김치 한 품목에도 보통 10개 정도의 브랜드가 저마다의 자태를 뽐내고 있다. 잘 만든 브랜드 한 개가 생산자의 운명을 결정한다. 등급화는 소비자의 기호를 최대한 반영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좋은 브랜드는 소비자가 한 번 더 돌아보게 하는 영업전략이다. 부르기 쉽고, 외우기 쉬운 브랜드, 브랜드로 인해, 그 과일에 소비자의 눈과 발과 손이 가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브랜드의 미학이다.

> *시도별로 등록되어 있는 농산물 브랜드를 보자. 경기도는 왕자배, 구리 먹골배, 산록원 콩나물, 양평 팽이버섯, 뒤주표쌀, 안성맞춤쌀, 임금님표쌀 등 모두 16개 농산물 브랜드가 등록되어 있다. 강원도에는 태백산 취나물, 메뚜기쌀 등 13개 브랜드가, 충북은 영동사과, 음성고추, 가산영지, 청풍명월쌀 등 32개 브랜드가 등록되어 있다. 충남에는 예산사과, 당진포도, 조치원배, 부여밤, 보령방울토마토, 칠갑산오이 등 33개 브랜드가 등록되어 있다. 경북에는 한방사과, 현곡배, 쌍샘배, 보현산포도 등이 있다. (서종혁외 2인, 「농산물 차별화」, 농민신문사)*

사례에서 보듯 지역별로 수많은 브랜드가 개발되어 있다. 양평팽이버섯, 영동사과, 조치원밤과 같이 지명을 이용한 브랜드도 있다. 또한 왕자배, 임금님표쌀

과 같이 신분을 이용한 브랜드도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뒤주표쌀, 쌍샘배와 같이 전적으로 독창적 브랜드로 승부하려는 시도도 있다. 한방사과와 같이 특별한 기능성을 강조한 브랜드도 있고, 기념일, 축제 등 행사용 소비를 염두에 둔 문자사과와 같은 브랜드도 있다. 생산만 하면 팔리는 시대가 지난 지금. 생산한 농산물을 어떻게 팔 것인가 하는 과제의 하나가 바로 얼굴 있는 명품 과일, 브랜드를 만드는 일이다.

김정옥씨는 이제 좀 브랜드가 뭔지, 왜 중요한지 이해가 간다.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고 하지 않았는가? 좋은 브랜드에 뭔가 감추어진 비밀이 담겨 있는 것 같고, 브랜드를 지은 농업경영인의 철학과 농사짓는 잽싼 솜씨가 배어 있는 것 같기 때문이다. '인사가 만사'가 아닌, 농산물의 판매에는 '브랜드가 만사'란 생각이 뇌리를 스친다.

3. 힘 모아 공동출하, 뜻 모아 공동계산

농업경영의 목적은 농가소득을 가장 많이 올리는데 있다. 최대의 소득수취를 목적으로 영농활동을 하는 생산농가로서 나보다 못한 실력을 가진 사람이 생산한 과일을 뒤섞어 공동출하, 공동계산을 한다는 것은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공산품의 경우에도 그러하거늘, 품질의 편차가 큰 농산물의 경우에는 더욱 힘든 일이다. 하지만 영농규모가 적고 품질의 균일화를 농가차원에서 완벽하게 마무리하기 힘든 상황에서 개별농가 스스로의 한계를 벗기 위해 최근 공동출하, 공동계산제는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대안적 유통방식으로 각광받고 있다.

김정옥씨도 그 일이 초기에는 힘들고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그 스스로는 아직 자신의 출하과정에서 이웃 농가들과 시도해 보지 않은 일이어서 의욕적으로 공동계산제를 하고 있는 농업경영자들의 부러웠다.

지난 1997년부터 주작목인 멜론에 대해 공동선별, 공동출하, 공동계산제를 실시하고 있는 전남 나주시 세지농협. 지난해 서울 가락시장 등 법정도매시장과 유사도매시장, 농협물류센터 등에 멜론을 6kg 들이 상자(2-3개)에 담아 출하하였다. 출하 당일 가락시장의 품위별 평균 경락값을 종합해 비교해 본 결과 개별출하품에 비해 22% 정도 높은 값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출하처별 수취값을 보면 10만 7,696 상자를 출하한 법정도매시장에서는 가락시장의 겨별 출하품 평균단가보다 18% 높게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10만 5,024상자를 낸 유사도매시장에서는 22%, 1만 7,255상자를 출하한 농협물류센터에서는 54%의 비싼 가격을 받았다. 박종학 세지농협 조합장은 "그 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출하처를 확보, 사전 주문을 받아 예약판매하는 또 다른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말했다. (「농민신문」, 1999. 6. 4)

세지농협은 주작목인 멜론에 대해 지난 1997년부터 공동선별, 공동출하, 공동계산제를 실시해왔다 멜론 2~3개가 들어가는 6 킬로그램들이 소형상자에 담아 출하한 결과, 모두 높은 가격상승 효과를 보았다. 소득효과뿐이 아니었다. 출하시장에서의 품질 신뢰도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출하처도 확보하였다. 사전 주문도 받아 예약 판매하는 여분의 효과도 얻었다.

세지농협의 성공은 표준화된 과일의 공동선별과 브랜드화로 유통종사자와 소비자에게서 신뢰를 쌓은 결과였다. 무엇보다 출하물량의 규모화로 연중 안정적인 공급기반을 갖춰 시장 교섭력을 높일 수 있었다는 점이 공동출하, 공동계산제 최대의 미덕이었다.

김정옥씨의 이번 벤치마킹은 성공적이었다. 집으로 돌아가면 이제까지 혼자서 모든 것을 다 처리하겠다는 생각일랑 버리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하지 않았는가. 앞집 인순이네, 옆집 삼봉이네, 뒷집 철이네, 그리고 우리 집에서 약 100미터 거리에 있는 순돌이네를 같이 불러서 공동계산제를 하면 '이렇게 좋더라'라는 이야기를 꼭 전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Ⅴ. 잘만하면 농업도 벤처산업

1. 찹쌀이 특허 출원된 사정

한때 벤처 열기가 전국을 휘몰아 칠 때 닷컴이란 이름만 있으면 눈 먼 돈이 쉴새없이 투자되던 때가 있었다. 그때 대기업에서 중소기업, 벤처기업으로의 인력 대탈출이 줄을 이었고, 내노라하는 국책연구소의 전문인력도 창업의 대열에 뛰어 들었다. 그 당시 김정옥씨가 기억하기로 대전 대덕단지에서도 벤처공장이라고 소문난 연구소가 바로 정보통신연구소. 정보기술(IT) 분야에서 신규 창업 아이템이 많았던 까닭에 그곳에 근무하는 연구원은 바깥의 유혹으로 연간 연구소를 떠나던 인력이 수백 명에 이를 때도 있었다고 들었다.

하지만 김정옥씨의 생각에는 벤처 아이템으로 말하자면 농업도 정보기술분야에 못지 않게 벤처공장을 형성할 아이템은 무궁무진하다고 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자연에 대한 지식은 정말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그 중에서도 하나 하나의 농산물에는 수백 종의 벤처아이템이 감추어져 있다. 우리가 잘만 찾아낸다면 그리고 비밀을 찾기 위한 투자와 연구개발을 게을리 하지 않는다면 농업이야말로 벤처공장이 될 충분한 자격을 갖춘 분야일 것이다.

찹쌀을 이용하여 한과를 만들어 부가가치를 3배 이상이나 끌어올린 벤처기업이 있다. 특히 유통기간을 두 배 이상 늘리는 기술을 개발하여 특허 출원까지 하였다고 한다. 김정옥씨의 발길이 빨라진다. 한시라도 빨리 가서 소문을 눈으로 확인해 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1차 생산품인 쌀을 가장 비싸게 가공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바로 한과다. 이 가공과정을 거치면 36만원 짜리 한 가마니 쌀이 1백20만원 짜리 '고급 3차 상품'으로 변한다. 농사의 기본은 논농사와 밭농사이다. 이들 농사는 늘 하늘을 쳐다봐야 되고 하늘의 도움 없이는 성공적인 농사가 힘든 형편이다. 여기에 가격 등락폭도 심하다. 채소의 경우는 심하면 1백 배의 가격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그런 쌀 농사를 지혜롭게 극복하고 있는 농사꾼이 있다. 그는 1차 농산

물을 이용하여 한과를 생산해 내고 있는 농업경영인이다. 벌써 20년째다.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벤처기업으로 지정 받기도 했다. 한과의 약점인 짧은 보존기간을 대폭 늘리는 기술을 개발해 낸 게 그 이유다. "우리 과자가 초콜릿하고 맞먹으려면 미국과 일본에 수출할 수 있도록 유통기한이 길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신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덕분에 매출도 두 배로 늘었죠".

신궁한과의 대표 김규흔씨가 그 장본인이다.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라고 했다. 미국과 일본으로 수출하기 위해 유통기한을 늘릴 필요가 있었고, 그 계기가 결국 특허출원 기술개발로 이어졌던 것이다. 신궁한과에서 쏟아내는 한과는 대중화를 위한 노력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전통도 지키는 이중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쉽게 우리 아이들의 입맛을 외국의 과자류에 적응시켜온 결과, 오랜 역사를 지닌 전통식품들은 그 맥이 끊어질 지경이 되었다.

김규흔씨가 한과공장은 그런 점에서 일종의 전통 지킴이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요즘 그는 바쁘다. 우리의 전통 한과를 이제는 세계시장을 정복할 아이템으로 키워보겠다는 욕심이 생겨났기 때문이다. 3백여평 한과 생산공장에서는 마을에 거주하는 70여명의 아주머니들이 쉴새없이 한과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미 서울에서 열렸던 아셈회의(아시아·유럽 정상회담)에 50만원 짜리 최고급 한과세트를 출품하여 명품의 반열에 올랐다. 그의 노력하는 만큼이나 한과시장의 미래는 밝을 것이다. 해외 수출길을 다지기 위해 김규흔씨는 직원들에게 '혼을 쏟아 붓는다'는 심정으로 한과 생산을 독려하고 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우리의 전통과자를 보고 '손으로 빚은 예술품'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최선을 다해 만들라고 주문한다. 그는 이미 장인의 경지를 훨씬 넘어선 전통한과의 명인이었다.

2. 21세기 농업은 신기술과 아이디어가 최고의 무기

신기술과 아이디어가 농업경영의 주무기인 농가가 있다. 경기도 이천시 신둔

면 마고리에서 시크라멘을 재배하고 있는 홍완식씨가 그 주인공. 그가 재배하는 시크라멘은 여러 모로 다른 농가의 경우와 차이가 있다.

저온 처리를 통해 상품성을 높였다는 점, 가을에서 봄까지 재배되고 겨울에도 꽃이 피우기 때문에 일본에서 각광받는 품종이 되었다는 점, 무엇보다 색채가 다양할 뿐 아니라 개화기간도 두 달이 넘는 등으로 고품질, 고경쟁력의 조건이란 조건은 모두 갖추고 있는 것이 홍완식씨의 시크라멘 농업이다.

시설원예 냉난방 개선 시범포로 선정된 홍씨의 농장은 점적 흡수시설을 만들어 시험관을 설치, 물을 가둬 화분이 물을 흡수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었다. 그래서 밑의 구멍을 통해 물을 빨아들이게끔 되어 있다. 그래서 물을 화분이 알아서 빨아들이기 때문에 물을 너무 많이 주거나 너무 적게 주어 식물이 죽는 일이 없다. 또한 사람의 손이 안 가 노동비를 절감할 수 있다. 거름쓰는 방법에 있어서도 지효성 코팅비료를 쓰기 때문에 6~8개월 동안은 활용이 가능하다. 이는 묘종 출하시기까지 다양하게 쓰도록 한다. 햇빛, 바람, 온도차에 따라 물 흡수율이 다르고 난방에 있어서도 물로 하기에 자동조절이 가능하다. 작년에 처음 근권 냉난방시설을 만들어 활용했는데, 난방의 경우 열원이 심야에는 전기를, 낮에는 연탄을 쓰고 있다. 심는 방법에 있어서도 봉을 만들어 심기 때문에 빠르다. 봉을 만들게 된 것도 하나의 작은 아이디어에서 출발했다. 봉을 넣고 흙을 넣은 후 봉을 뺀 다음 화분을 넣으면 옮겨심기가 아주 편리하다고 한다.

홍완식씨의 설명을 들으면 쉴새없이 새로운 아이디어 농업이 나오고 있다. 듣는 사람이 머리가 아플 지경이다. 그는 농장 경영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기술과 환경, 자본규모에 맞게 자기 나름의 경영방식을 개발해야 성공할 수 있다고 말한다. 우리는 흔히 '누가 뭐 하더라', '어디 사는 누가는 미국에서 가져온 기술을 그대로 도입해서 돈 벌었더라'라는 카더라 방송만 믿고 자신이 처한 농가현실을 무시하고 기술을 마구잡이로 도입하다 실패하는 사례를 수없이 보았다고 했다.

벤치마킹도 모방이고 보면 모방을 나무랄 수는 없다. 하지만 소신을 갖지 못한 모방은 실패의 지름길이라고 홍완식씨는 힘주어 말한다. 즉 소신을 가지고

자기 기술과 환경을 잘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농가의 기술이 좋으면 좋은 품종을 써야 수익이 많고, 기술이 다소 떨어지면 안 좋은 품종을 써야 수익이 많다고 한다. 그러니 좋은 품종과 좋은 기술만 따라 가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김정옥씨는 내 몸에 맞는 기술, 내 몸에 맞는 품질을 갖추는 것이 성공하는 농업경영의 출발점임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홍완식씨는 소박한 꿈 하나가 있다. "사람도 발이 따뜻하면 몸 전체가 따뜻한 것처럼 식물도 뿌리를 따뜻하게 해주면 따뜻해하지 않겠어요?"라고 말하는 홍씨의 모습에서 꽃을 자식처럼 사랑한다고 한다. 그리고 자식처럼 가꾸어온 시크라멘 농원을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다고 한다. 김정옥씨는 그의 소박한 꿈이 실현되기를 기대해 본다.

Ⅵ. 농업은 환경의 보물창고

1. 손으로 하던 일을 오리가 하니 오리농법

김정옥씨는 아주 특별한 만남으로 약간은 흥분된 상태이다. 우리 나라에서 최초로 환경농업을 시작한 곳을 찾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충남 홍성군 홍동면. 아마 가장 역사가 오래일지도 모르는 대안학교의 원조, 풀무농업기술학교가 있는 곳. 그 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 오늘의 홍동면으로 바꾸어 놓았던 것이다. 주형로씨도 풀무학교 졸업생이다. 또한 이들이 졸업생들이 주축이 되어 정농회란 최초의 환경농업 단체가 탄생되었다.

그곳을 김정옥씨가 처음으로 방문하는 것이니 만큼 볼 것도 물어볼 것도 적지 않을 것이다. 홍동면에서 21년째 무농약 재배를 힘들게 실천하고 있는 주형로씨를 찾아 나선 것이다. 아직 봄기운이 좀은 쌀쌀했다. 그러나 홍동에 가까워질수록 친환경농업의 본고장이라는 설렘으로 계절보다 길게 남아 있던 쌀쌀한

날씨는 잊은지 오래되었다.

충남 홍성군 홍동면 문당리 287번지. 우리 나라 환경농업의 메카라고도 일컬어지는 곳이다. 이곳에서 21년째 고집스럽게 무농약농법을 실천하고 있는 농업경영인이 있다. 친환경농업의 원조라 해도 무방할 주형로씨가 그 주인공이다. 사람들은 오리농법을 신기해한다. 오리가 농사를 짓는다고 하지만 주형로씨가 보기에 기술이라고 할 특별한 것은 없었다. "오리농법은 특별한 것이 없고 옛사람들이 손으로 하던 일을 오리가 잘 돌아다니는 습성을 이용한 것이고 또 오리는 눈이 밝아요. 그래서 병충해 같은 것을 잘 갉아먹지요. 탁수현상이라 해서 오리가 헤엄쳐 다니면 물이 탁해져 잡초씨가 태양 빛을 받지 못해요. 발아를 못하게 하는 것이지요. 또 먹이를 먹고 돌아다니며 논바닥에 배설을 하니까 거름으로 이용되기도 하고 오리가 벼를 건드리니깐 벼는 그 역반응으로 쓰러지지 않으려고 줄기가 빳빳해 져요. 벼가 튼튼하게 자라는 거지요". 이게 세인이 알고자하는 오리농법의 전부였다.

주형로씨는 21년전 처음으로 무농약 재배를 시작할 당시의 분위기는 무모함 그 자체였다. 환경농업에 대한 개념조차 없었던 당시였으니 당연지사. 그의 부모님도 안된다고 손사래를 저을 정도였다. 무엇보다 편리한 제초제를 치지 않고, 맨손으로 김을 메는 그를 보고, 주위사람들의 비웃음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모를 정도였다. 그렇게 10여년을 옹골스럽게 무농약 농업을 실천하다.

그가 오리농법을 접한 것은 7년 전이었다. 그의 모교인 풀무학교에서 오리농법에 대한 자료를 번역해 주었던 것이 계기였다. 처음 경작을 시작한 면적도 1만평. 보통 초등학교 운동장 하나가 2천 5백여평이므로 1만평의 면적을 어림잡아 볼 수 있을 것이다. 처음 시작하기 전 마을 사람들에 대해 설득작업에 들어갔으나 실패해 한 마을이 함께 시작하려던 계획을 바꿔야 했다. 결국은 후배 한 사람과 같이 단 둘이 오리농법을 시작했다. 그런데 오리농업은 대성공을 거두면서 마을 사람들의 시선도 바뀌어 갔다.

특히 UR 분위기를 타고 패배감에 젖어들던 농업인들에게 "봐라, 라디오 TV

에서 농민이 다 절단 난다고 한다. 하지만 모두 절단 나는 건 아니다. 준비한 농민은 살아난다. 지금부터라도 우리도 준비를 하자". 이러한 그의 설득에 19농가 3만평의 땅을 하나로 묶어 환경농업을 시작할 수 있었다. 그때 품질인증제도가 도입되어 무농약 품질인증 신청 1호로 선정되었다. 품질인증을 받고 그동안 잘 팔리지 않던 쌀이 점차적으로 잘 팔려나가기 시작했다. 지금은 그의 노력에 힘입어 20만평 이상을 오리농법으로 경작하고 있다.

그가 하는 오리농법은 단순하지가 않았다. 그의 오리농법에는 농업을 통해 도시민에게 자연과 농업, 환경을 알게 하기 위한 농업철학도 스며 있었다. 그의 농업철학은 도시민을 농촌으로 끌어들이는 도농일심, 함께 짓는 농사 이벤트를 만들게 하였다.

오리입식 행사도 하고, 수확철에는 메뚜기 잡기 행사도 개최했다. 상품으로 소(?)를 걸었다가 염소로 지급한 적도 있었다. '오리를 보내주세요'라는 신문광고를 내곤 오리농법에 필요한 오리를 도시민이 구입하고 가을에 다 큰 오리를 돌려준다는 조건으로 도시민의 농업참여를 유도하기도 하였다. 그는 이미 농업경영인이면서 환경농업을 실천하고 전파하는 환경농업 운동가였다.

2. 건강한 흙 물림이 가장 큰 유산

안성에서 20년째 저농약 포도 재배를 하고 있는 이동식씨. "소비자는 깨끗하고 신선한 과일, 농민은 높은 소득을 얻는 거죠. 자연과 후손한테는 건강한 흙과 공기를 돌려주는 것이고요. 이게 친환경농업입니다". 이씨의 자부심이다. 그는 이웃 포도농가들 사이에서 좀 튀는 농업인이란 이야기를 듣는다.

"우리 세대만 먹고 살려면야 꼭 유기농법 하란 법 없겠죠. 하지만 자식들을 생각해봐요. 이 땅 위에서 수백 수천 년을 더 살 후손한테 건강한 흙을 물려줘야 하잖아요". 안성시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 1호(저농약)인 이씨의 농사철학은 남다르다. 이동식씨가 지금까지 이루어온 환경농업분야의 업적을 보면 그는 이

미 농업경영인의 범주를 넘어선 쟁쟁한 벤처기업가처럼 보인다.

이동식씨는 자기밭 움막에서 누룩에 쌀겨를 섞어 유기질비료를 개고 있었다. "포도가 병해충에 약하기 때문에 보통 농약을 치죠. 유기질비료 정성껏 주고 손길 한번 더 주면 튼튼한 포도나무가 돼 병해충도 이기더라구요". 치명적인 병해충을 막기 위해 최소량의 농약을 치긴 하지만, 이씨가 개발한 유기질비료가 그나마 중화시켜 잔류농약이 기준치의 10 퍼센트에도 못 미친다(농산물품질관리원 인증). 떨어진 포도알을 흑설탕에 이겨 고아 낸 액즙, 소똥을 오리나무 밑동 부엽초와 개어 만든 거름, 쌀겨에 한약부산물까지 섞어 막걸리처럼 뽑아낸 비료 등 이씨가 손수 만든 친환경제재가 비결이다.

그의 아이디어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고품질 포도를 만드는데 개량형 비가림(지붕만 있는 비닐하우스), 짚으로 만든 보온덮개(미생물 배양, 땅심을 높인다)를 만들어 4년째 적용해 톡톡히 효과를 봤다. 이 시설 덕분으로 수확철인 8월까지 남들은 보통 30번 넘게 농약을 치지만, 이씨는 3~4번으로 족했다. 수확 한 달 전에는 어떤 약제도 쓰지 않았다.

그는 또한 친환경적인 병해충 퇴치법도 개발했다. 요즘 흔히 말하는 종합방제체제(IPM)를 그는 자신의 환경농업 실천경험을 통해 개발해 내고 농장에 실천하고 있었던 것이다. 목초액 · 현미식초 · 마늘즙 등을 섞어 빈 병에 담아 매달아 두면 벌레들이 몰려들어 빠져 죽는다. 아마도 벌레들이 좋아하는 향기 때문이리라.

이씨가 지은 포도는 저비용 고품질 농산물이다. 손이 많이 가는 농업은 우리의 농업현실에서는 맞지 않다고 한다. 그는 일반재배 농가의 포도보다 2배 이상의 값을 받는다. 이씨의 자부심은 대단하다. 이씨의 농업철학은 명료하다. 소비자가 깨끗하고 신선한 과일을 원하므로 농업인도 그런 품질을 생산하면 더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 그의 모습은 좋은 품질의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농업인에 대한 신뢰를 말하는 것이었다. 실제로 그는 소비자들로부터 환경농업을 실천한 대가로

남들 이상의 고소득으로 대우를 받고 있었다.

Ⅶ. 벤치마킹을 마치고

김정옥씨가 전국의 성공한 농업경영인들을 찾아 나선 지 열흘만에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다. 떠날 때 대충 급한 일은 마무리하고 갔지만 돌아오니, 또 다시 일들 천지였다. 구슬땀으로 범벅된 남편의 얼굴을 보니 혼자서 전국 일주를 했다는 미안함이 앞섰다. 그가 훌쩍 여행을 떠나고 없는 동안, 아이들과 일터를 굳건히 지켜준 남편이 고마웠다.

> ● **벤치마킹**이란 농가나 기업들이 주변에서 뛰어나다고 생각되는 상품이나 기술을 선정, 자신의 생산방식에 응용하고 모방하여 재창조하는 것을 지칭하는 말이다.

지난 열흘동안 김정옥씨는 방방곡곡을 돌아다녔다. 전국 최고의 10분의 농업경영인들을 만났다. 덤으로 책을 통해 일본의 청년 농업인이 기상정보를 활용한 사례까지 포함하면 모두 열 한 사람의 일 잘하고 돈 잘 버는 농업경영인을 만난 셈이다. 농촌 현장에서 만나본 선진 농업인은 '선진'이란 이름을 그의 어깨에 걸고 있을 충분한 이유들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노력이었고, 창의였고, 남들보다 앞선 실천력이었다.

인터넷이 어떻게 소득으로 연결되고, 엘니뇨 지수가 어떻게 재배면적과 관계를 맺는지를 알게 되었다. 여성이 지켜 가는 농촌 현장은 감동적이었다. 다섯 명의 여성 전업농이 일구어내는 성공사례는 이 땅에서 여성으로서 살아가기도

힘든 마당에 당당한 그들의 삶의 자리를 만들고, 소득 높은 마을로 만들어내었다는 자부심을 가질 만했다. 양계산업의 대모 소리를 듣고 있는 안 사장의 스토리는 우리에게 하면 된다는 희망을 주었다.

농산물도 인테리어가 필요하고, 겉포장도 중요하다. 정보기술 분야만이 벤처산업이 아니라 농업이야말로 우리가 눈을 뜨고 제대로 찾아내기만 해도 보물이 툭툭 쏟아지는 벤처공장이었다. 자손들에게 물려줄 재산 중에서 가장 소중한 재산은 돈이 아닌, 깨끗한 환경이라는 환경농업 지킴이들의 생각은 김정옥씨에겐 두꺼운 책을 능가하는 농업철학서였다.

김정옥씨는 다시 생각에 잠겼다. 적지 않은 시간을 통해 얻은 너무도 많은 지식들을 가슴 가득 차 올랐기 때문이다. 어떻게 하면 벤치마킹의 결과들을 자신의 농업경영에 온전히 쏟아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동료 농업인들에게 나의 경험을 효율적으로 전파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앞으로의 농업경영활동이 열 한 명의 결실처럼 이 땅을 보다 풍요롭고 넉넉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참 고 문 헌

「농민신문」(http : //www.nongmin.co.kr).

「농업인신문」(http : //www.nongupin.co.kr).

박종수 외, 「농업경영학」, 협동연구사, 1986.

서종혁외 2인, 「농산물 차별화」, 농민신문사.

석태문 외, 「우리 과일의 등급화」, 농민신문사, 2000. 3.

「월간원예」(http : //www.hortitimes.com).

정동식(경향신문, 2000. 3.21).

「축산뉴스」(chuksannews.co.kr).

「팜투유」(http : //farm2u.efarm.co.kr).

감수위원소개

성 명	소속 및 직위	전공 및 학위
김 인 호	한국여성농업인 중앙연합회 회장	-
김 종 숙	한국농업전문학교 교수	농학 박사
박 민 선	농협대학 여성대학과정 교수	문학 박사
박 양 자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교수	식품영양학 박사
서 종 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농림부한국여성정책자문회의 위원장	농업경제학 박사
윤 금 순	전국여성농민회총연맹 부회장	-
정 무 남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장	농업경제학 박사
조 희 금	대구대학교 가정복지학과 교수	가정학 박사

(가나다순…)